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V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V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V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V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빚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라'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술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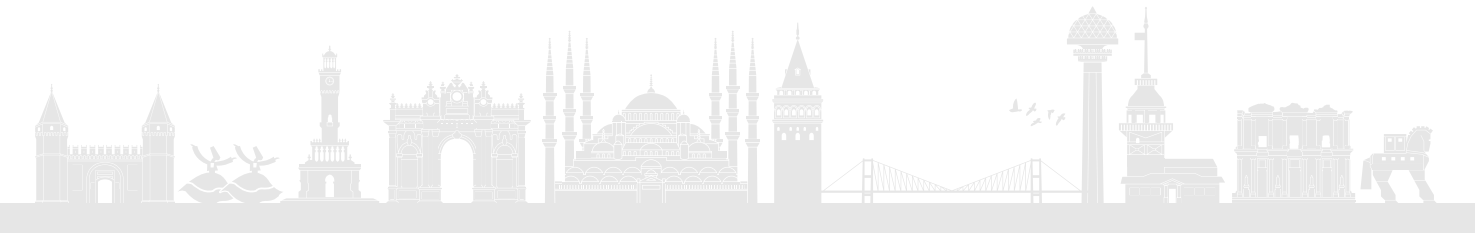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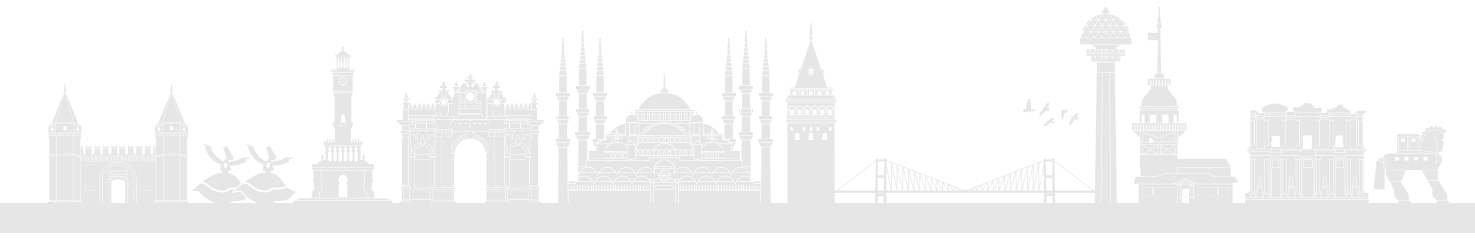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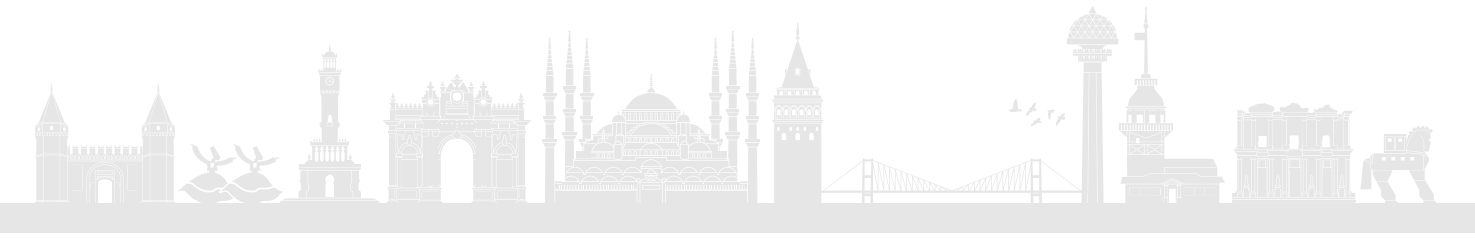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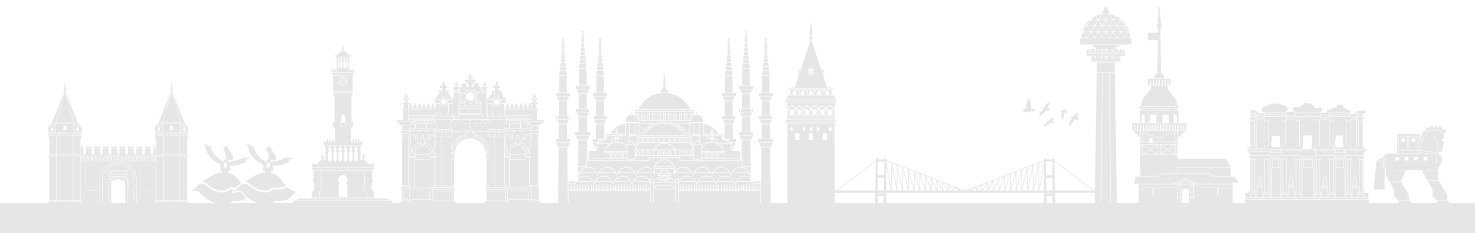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서문	003	I D021 사비르 애흐매드리	066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I D022 사비트 무카노프	067
일러두기	008	I D023 사산 조	068
		I D024 사스 토이	071
I D001 사가이	021	I D025 사슴 신앙	073
I D002 사나쿨다	022	I D026 샤아데트 차야타이	075
I D003 사나이어 네피세 멕테비	023	I D027 샤야츠 노래	077
I D004 사드라잠	026	I D028 샤안-알타이 투르크연구소	078
I D005 사랑서사시	029	I D029 사우란	079
I D006 사루한 공국	030	I D030 사우말릭	081
I D007 사르 갤린	032	I D031 사이다 준누너바	082
I D008 사르 아시옥	034	I D032 사이드 누르시	084
I D009 사르마트 문화	035	I D033 사이드 아미르 쿨렐	087
I D010 사르바르 얼림저너비츠 아지머브	037	I D034 사이람	089
I D011 사르카므슈 전투	038	I D035 사이브 태브리지	091
I D012 사마	042	I D036 사이드 아흐마드	093
I D013 사마라 대모스크	044	I D037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노크	095
I D014 사마르칸트	046	I D038 사이푸틴 아지지	099
I D015 사만 왕조	049	I D039 사이피 사러이	100
I D016 사바핫틴 알리	051	I D040 사이핏딘 베히르지이	102
I D017 사바핫틴 에이위보을루	057	I D041 사임 사카오을루	104
I D018 사바흐 나마스	060	I D042 사자르 알-두르	106
I D019 사반투이	062	I D043 사즈	108
I D020 사비르 퀴스탐한르	064	I D044 사즈 하와라르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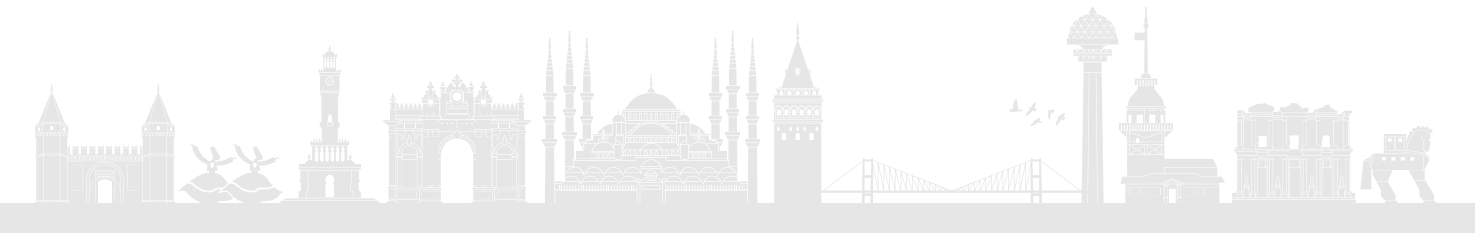
I D045 사지국.....	111	I D069 새로운 행복.....	153
I D046 사카.....	113	I D070 새매드 베흐렌기.....	155
I D047 사키즈 위크막 야룩 수트라.....	114	I D071 새매드 우르군.....	156
I D048 사키트 맴매도브.....	116	I D072 새피엣딘 우르매비.....	158
I D049 사타.....	118	I D073 섯타르 배흐를자대.....	160
I D050 사타.....	119	I D074 생명의 나무.....	162
I D051 사하 공화국.....	120	I D075 생활민요(아제르바이잔).....	164
I D052 사힘 아타 영묘.....	122	I D076 샤 압바스.....	166
I D053 산신 숭배.....	124	I D077 샤 이스마일.....	170
I D054 산자르.....	125	I D078 샤가아(샤그 아야지).....	172
I D055 산자르 식덕.....	129	I D079 샤겨우 유적.....	173
I D056 산작.....	131	I D080 샤드르반.....	174
I D057 산푸라.....	134	I D081 샤러프 라쉬더브.....	176
I D058 살나메.....	135	I D082 샤러프 버쉬베커브.....	178
I D059 살라르어.....	136	I D083 샤른 캐니언.....	180
I D060 살라르인.....	137	I D084 샤바타이 즈비.....	181
I D061 살라바트 축제.....	139	I D085 샤브르.....	183
I D062 살라프.....	140	I D086 샤쉬마컴.....	185
I D063 살로니카.....	142	I D087 샤오홍나하이 석인상.....	187
I D064 살투나메.....	145	I D088 샤이버니이 칸.....	188
I D065 삼두정치.....	146	I D089 샤질리 종단.....	189
I D066 섯타르 잡버르.....	147	I D090 샤하다.....	191
I D067 상손가채.....	149	I D091 샤흐 이스마일과 애랩젠기.....	192
I D068 새드다디 왕조.....	150	I D092 샤흐 파질 영묘.....	194



I D093 샤희리사브즈	196	I D117 세이드 애짐 쉬르와니	238
I D094 샤희메란	199	I D118 세이란 새하베트	240
I D095 샤희리차	202	I D119 섹섹	242
I D096 샤희진다	203	I D120 센누르 세제르	243
I D097 샬키즈	205	I D121 셸레우코스 왕조	246
I D098 서구반	206	I D122 셸리미이에 모스크	247
I D099 서비르 미르발리에브	208	I D123 셸림 1세	252
I D100 서비르 압둘라	209	I D124 셸림 2세	254
I D101 서사시 타히르와 죄흐래	211	I D125 셸림 3세	256
I D102 서역	213	I D126 쟁강야기즈 석굴 마니교 벽화	259
I D103 서용	215	I D127 쟁랴흐 사진	260
I D104 선비	216	I D128 셔키르 솔라이먼	262
I D105 설비 올	217	I D129 셰르더르 마드라사	263
I D106 셋티 후사인	218	I D130 셰르무함마드 무니스 허라즈미이	265
I D107 성 루이 세레반	220	I D131 셰이흐 주흐릿딘 예션 낙쉬반디 샤희리허니	266
I D108 성자 승배	222	I D132 셰이흐 호벤디 앳 타후르	267
I D109 세금 청구	223	I D133 셸수이취안 10호 무덤	269
I D110 세르베티 뤼눈 문학	225	I D134 소 크즈 칼라	270
I D111 세마	228	I D135 소그드인	272
I D112 세멘 프로코프예비치 카디셰프	230	I D136 소유르갈	273
I D113 세브르 조약	231	I D137 솔로몬의 입장	275
I D114 세센	233	I D138 쇠엽	277
I D115 세엠비캐 탐	234	I D139 쇠엽 불교사원	279
I D116 세이드 니가리	236	I D140 쇼르어	281



I D141 쇼르인	282	I D165 쉬르반샤 궁전.....	323
I D142 솔보타인 골.....	283	I D166 쉰네트	326
I D143 수 아나시.....	284	I D167 쉘레이마니이에 모스크	327
I D144 수 이예시.....	285	I D168 쉘레이만 1세	331
I D145 수건을 돌려주오.....	286	I D169 쉘레이만 2세	334
I D146 수니.....	287	I D170 쉘레이만 나지프.....	336
I D147 수르나메	289	I D171 쉘레이만 데미렐.....	339
I D148 수르흐 영묘	291	I D172 쉘레이만 래히모브.....	340
I D149 수명연장과 관련된 민간 신앙(아이)	293	I D173 쉘레이만나메	342
I D150 수멜렉	294	I D174 슈랄레	345
I D151 수목 신앙.....	296	I D175 슈르.....	346
I D152 수바시오	299	I D176 슈메산의 불교 사원.....	347
I D153 수브헨쿨리	301	I D177 슈밧	348
I D154 수수께끼(아제르바이잔).....	302	I D178 슈쿠르 험미르자예브.....	349
I D155 술탄 산자르 영묘	304	I D179 슈크롤러	351
I D156 술탄 살투크 부그라 칸	307	I D180 슈흐랏	352
I D157 술탄 테키쉬 영묘	308	I D181 스가낙	354
I D158 술탄 하산 복합단지.....	310	I D182 스벤 헤딘.....	355
I D159 술터나리 마쉬하디아.....	313	I D183 스브즈그.....	357
I D160 술턴 조라.....	315	I D184 스키타이	359
I D161 쉘랄리 칸	317	I D185 스타인	361
I D162 쉘제레이 투르크.....	318	I D186 스테푸슈카	363
I D163 섹-섹.....	319	I D187 스텝 문명.....	364
I D164 쉬나시	320	I D188 시겨우 1호 무덤	366



I D189 시겨우 유적.....	367	I D213 실크로드	414
I D190 시게테크	368	I D214 심켄트	416
I D191 시르반샤흐	369	I D215 심판의 날.....	418
I D192 시무르그	373		
I D193 시바스	375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423
I D194 시바스 곱 마드라사	377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426
I D195 시베리아 타타르인.....	381		
I D196 시베트 아이한 유적.....	383		
I D197 시비르 칸국.....	384		
I D198 시아.....	385		
I D199 시애키 카라반사라이.....	388		
I D200 시애키 칸국.....	390		
I D201 시애키 칸 궁전.....	392		
I D202 시음블락	396		
I D203 시이르트 대 모스크.....	397		
I D204 시크펜	400		
I D205 시테르	401		
I D206 신기루	402		
I D207 신붓값	404		
I D208 신앙적 전설(아제르바이잔)	406		
I D209 신장위구르자치구	407		
I D210 신찰락	409		
I D211 실살라	411		
I D212 실살레나메	412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D001 | 사가이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라틴 문자 Saghai (Sağay)

하카스인의 부족 연맹인 사가이족은 아바칸 유역에 거주한다. 사가이족 대부분이 거주하는 이곳은 18세기부터 사가이의 장소라는 뜻으로 사가이 치리(Saghai Çiri)로 불리기 시작했다.

사가이족은 일반적으로 18세기~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들 부족은 훨씬 더 앞선 일트르 베이릭(Altır Beyliği) 시기에 등장하여, 그 이후에는 부족 연맹들이 거주하던 대초원 의회(steppe parliament)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가이는 사가이족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가이 씨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19세기 다른 부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하카스인의 민속 자료에 의하면 아바칸 대초원에서 가장 오랜 기간 거주했다고 여겨지는 사가이인들은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13세기 몽골 문헌에서는 사가이라는 명칭이 사카이트와 같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 사카 혹은 사카이트라고도 불리던 이 부족은 키르기스스탄 국경 내에서 쿠리칸이라는 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사가이와 이름이 비슷한 투르크 부족에는 카자흐 나이만 부족의 하위 그룹인 사카이와 키르기스 사야크 부족이 있다.

오늘날 하카스 사가이족은 하카스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사가이족이 구사하는 언어는 하카스어의 하위어인 사가이 방언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가이

●다국어 표기 Sagay/Sagai – Сагай(러시아어), Saghai/Sağay – Сағай(하카스어).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 Я., Торбостаев К. М. «Сагайцы»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II. içinde, s.110~111. Абакан: ПРХ, 2008.

Toğan, Z. V. *Umumi Türk Tarihine Giriş*. Cilt I. 3. Baskı, İstanbul, 1981.

I D002 | 사나굴다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불교 ●유형 소분류2 인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Jñānagupta

사나굴다의 본명은 산스크리트어 지나굽타(Jñānagupta)인데, 한자 음차로 사나굴다(闍那崛多)로 표기한다. 그는 523년 북부인도 간다라에서 크샤트리아 신분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가비사국(카피사), 에프탈, 호탄, 토욕혼을 거쳐 중국 선주(鄯州)에 입국했다. 559년~560년 처음에는 장안으로 가서 초당사원에 머물다 조정의 비호하에 역경 업무에 종사했다. 후에 익주사(龍淵寺)에 머물게 된다. 574년 북주 무제의 불교 탄압 정책으로 개종과 환속을 강요받자 이를 거부하고 중국에서 추방되어 돌궐로 입국해 머물게 된다. 575년 중국에서 함께 돌궐로 입국했던 10명의 승려와 함께 서역으로 떠나 7년 후 260권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구해 돌궐로 귀국한다. 584년 수나라 문제의 요청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장안의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경전 번역을 계속하던 그는 600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나굴다는 돌궐에 머물던 당시, 돌궐의 타파르 카간(Taspar Qaghan, 재위: 571년~581년)의 초청으로 돌궐 궁정에 머물렀다. 당시 사나굴다와 함께 돌궐로 도피한 승려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사나굴다는 주로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해 왔기에 돌궐에 머무는 동안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돌궐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 사나굴다는 돌궐의 궁정에 머무는 동안 불법(dharma)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포교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나 기록은 없으나 돌궐 불교사에 있어 반드시 언급되는 주요 승려 중 하나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지나굽타

●다국어 표기 Jinagupta(튀르키예어), 闍那崛多(중국어)

●참고문헌(오프라인) Klimkeit, Hans-J. “Buddhism in Turkish Central Asia”, Numen Vol. 37, Fasc. 1, Jun. 1990, pp.53~69.

Yıldırım, Kürşat. “Opinions on the Turks’ Turkic Translation Activities in the Period of Taspar Qagan”, ACTA VIA SERICA Vol. 3, No. 2, Dec. 2018, pp.51~160.

I D003 |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기관 ●유형 소분류2 교육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nayi-i Nefise Mektebi

19세기 중반 이후 오스만 제국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았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압뉘할미드 2세 (II. Abdülhamid, 재위: 1876년~1909년) 시대에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고, 근대적 또는 서구적 의미의 다양한 교육 기관이 개설된다. 특히 다양한 고등 교육 기관 설립 흐름에 맞추어 1882년 미술 학교라는 의미의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입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미마르시난미술대학교(이stanbul, 튀르키예)

(Sanayi-i Nefise Mektebi)가 개교한다. 개교 당시 공문서에 기록된 정식 이름은 고등 미술 학교라는 의미의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알리시(Sanayi-i Nefise Mekteb-i Âlisi)였다.

개교하기 50년 전부터 유럽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돌아온 예술가들의 작품은 궁전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차츰 퍼지기 시작했고, 대중의 유럽식 예술에 대한 욕구 역시 증가했다. 개혁 의지 뿐만 아니라 이런 대중 인식 역시 개교의 밑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개교 후 1883년 수업을 시작한 학교에는 회화, 조각, 건축 및 판화, 네 학과에 23명의 학생이 있었다. 판화과의 경우 오랫동안 교사를 찾을 수 없어 실제 수업은 1892년에 시작했다. 최초의 교장은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 1842년~1910년)였다. 그는 교장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 교사직도 수행했다. 초창기 학생들은 대부분 남자 비무슬림 학생들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츰 무슬림 출신의 학생의 숫자도 증가하게 된다. 23명으로 시작한 학교는 2년 후에는 50명, 1893년에는 120명, 1894년에는 195명에 이르게 된다. 초기에는 외국인 교사도 많았으나 차츰 내국인 교사로 교체되며 우수한 졸업생이 교사로 채용되기도 했다.

1914년에는 여성 교육 기관의 미술 수업을 위한 여성 미술 교사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와 같은 건물에 이나스 사나이이 메피세 멕테비(İnâs Sanâyi-i Nefise Mektebi), 즉 여성 미술 학교를 만들었다.

학풍은 아카데미즘을 중요시했으며, 이로 인해 19세기 이후 일부 오리엔탈리스트 교사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전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교육했다. 이 학교는 1927년 미술아카데미라는 의미의 사나이이 네피세 아카데미시(Sanayi-i Nefise Akademisi)로 명칭을 변경했고 후에 같은 의미의 현대 튀르키예어인 귀젤 사나트 아카데미시(Güzel sanat Akademisi)로 변경되었다.

1929년 도자공예과, 1936년 테지인(Tezyin: 장식)학과 등이 추가되고 교육 기간 및 제도도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1969년 이스탄불국립미술아카데미(İstanbul Devlet Güzel Sanatlar Akademisi)로 변경되었고 1981년에는 미마르시난대학교(Mimar Sinan Üniversitesi)가 되었다. 2004년 다시 미마르시난미술대학교(Mimar Sinan Güzel Sanatlar Üniversites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대학은 현재도 튀르키예 미술가들의 요람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는 오스만 제국의 서구 근대 미술가들을 탄생시켰으며, 오스만 제국 말기와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근대 미술가들은 전부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출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을 만큼 영향력 있는 기관이었다. 수많은 근대 미술가들이 이곳에서 교육받아 자신들의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대학으로 변경된 현재도 그 역할을 지속하여 개교의 목적을 이어가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미술 학교, 오스만 예술 학교,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다국어 표기 Sanayi-i Nefise Mektebi(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오스만 함디 베이,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 이흐산 외즈 소이, 이사 베흐자트, 오스만 화가 협회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GvjZ>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1906년도 학생과 교사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36/sanayi-i-nefise-mektebi-3.jpg>

●참고문헌(오프라인) Berk. Nurullah, Hüseyin Gezer, 50 yılın Türk Resim ve Heykeli,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73.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I D004 | 사드라잠

●시기 A.D. 10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칭호 ●유형 소분류2 관직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adrazam

오스만 제국의 사드라잠(대재상)은 제국 내의 행정 관료 가운데 최고위직이었고, 정부의 수장이자 술탄의 절대적인 대리인이었다. 19세기에 이르면 대재상직은 유럽의 수상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임명권자인 술탄을 섬기는 입장이었으나, 많은 사드라잠들은 술탄에 필적하거나 술탄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렸다. 특히 대재상들은 쿠피뤼뤼 재상가의 집권기(1656년~1691년)나 탄지마트 개혁기(1839년~1876년)에는 강력했고, 압뒸하미드 2세(재위: 1876년~1909년) 시대에는 술탄에게 억눌려 있었다.

대재상직의 기원은 압바스 칼리프 시대와 기타 이슬람 제국들의 와지르(wazir, 튀르키예어로는 웨지르 vezir)에서 찾을 수 있다. 와지르는 처음에는 칼리프의 영향력 있는 자문역으로 출발했으나 곧 행정 관료들의 우두머리로 칼리프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와지르는 오스만 제국의 모델이 되었던 셀주크 제국에서도 중앙 정부의 수장 역할을 했다.

오스만 국가의 제2대 군주 오르한 시대에는 1명의 웨지르(vezir)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팽창에 따라 15세기 초 술탄들은 제2, 제3의 웨지르를 임명하게 되었다. 이들 웨지르 중의 하나가 수석 웨지르가 되어서 웨지르 이 아잠, 혹은 사드르 이 아잠(즉, 사드라잠)이라 불리게 되었다. 1453년 이전의 웨지르들은 올라마 출신으로 행정과 이슬람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슬람 제국들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대재상직은 특정 가문에 의해 일시적으로 장악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1380년부터 1453년까지 찬다를르 가문은 대재상직 혹은 다른 재상직을 차지했다. 찬다를르 할릴 파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포위가 십자군 원정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복 시도를 반대했는데, 이에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



외국 관리들과 이야기하는 사드라잠, 장 밥티스트 반 모어, 18세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스 점령 직후 그를 체포해서 처형시켰다. 그 이후부터 대재상직의 성격은 크게 바뀌었으니, 이때부터 술탄은 대재상을 톱카프 궁의 궁정학교에서 길러진 술탄의 심복(kul) 출신의 군사 관계자 중에서 선발했다. 이후로 웨지르 등의 고위 관직은 거의 다 데브시르메 출신이거나 비잔티움과 발칸의 왕가와 귀족 가문의 후손들로 채워졌다. 발칸 명문가의 후손들을 관료로 등용하던 메흐메드 2세와 바이에지드 2세 시기의 관행은 오스만 제국의 발칸 장악이 아직 불안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쉴레이만 1세(재위: 1520년~1566년) 시대에 이르면 발칸 지역은 제국 안으로 확실하게 편입되었고 발칸 귀족을 포섭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졌다. 그 이후 대재상들은 데브시르메 출신이고 궁정학교(enderun mektebi) 출신의 쿨(kul) 가운데서 배출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내친 장본인은 술탄이었고, 이는 술탄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쉴레이만의 집권 초기의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가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서북 그리스 해안에 있는 파르가(Parga)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술탄의 측근이 되어 1523년 이전에 행정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재상으로 임명되었고, 엄청난 권력을 누렸으나 1536년 술탄에 의해 갑자기 처형되었다. 쉴레이만은 또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로부터 점점 물러나 대재상에게 더 많은 업무를 넘겨주었다. 술탄이 없으니 대재상들은 술탄의 각료회의(divan-ı hümayun)를 주재했고, 17세기 중엽부터는 톱카프 궁 밖에서 열리는 대재상 주관의 각료회의가 중요해져서 결국 이것이 술탄의 각료회의를 대체했다. 이후로 대재상의 관부를 일컬어 바브 으 알리(Bab-ı Âli, 높은 문)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스만 관료제의 중심을 이루어 결국 오스만 정부를 부르는 별칭이 되었으니 영어로는 The Sublime Porte라고 번역되었다.

마흐무드 2세(재위: 1808년~1839년) 당시 바브 으 알리는 여러 정부 부처들을 포함하는 정부 종합청사로 발전했다. 그는 또한 1838년 대재상(sadrazam)의 권력을 축소하고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이 관직을 없애고 그 대신에 수석 대리(başvekil)를 두었다. 그러나 대재상직은 오래지 않아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술탄 압뉘메지드 시대에 다시 부활했다. 대재상은 탄지마트 이후 유럽의 수상 혹은 내각 수반과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유럽 열강의 요구에 의해 경질되는 일이 잦았다. 대재상은 장관을 선택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갖지 못했으나 술탄이 장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재상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대재상은 1909년의 개헌이 있고 나서야 장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수상이 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새드래잠

●다국어 표기 Sadrazam(튀르키예어), Sədrəzəm(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쿠프뮐뤼 가문, 웨지르, 찬다를르 가문, 데브시르메, 바브 으 알리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0/Jean-Baptiste_van_Mour_004.jpg/1280px-Jean-Baptiste_van_Mour_004.jpg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Grand Vizier,”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235~236.

Mehmet İpsirli, “Sadrazam,”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5, 2008, pp.414~419.

I D005 | 사랑서사시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유형 소분류2 서사시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Mehebbet dastanı

사랑서사시(Mehebbet dastanı)는 투르크인들의 구비 서사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랑 서사시의 주제는 바로 청춘 남녀 연인들의 서로를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정직함과 절개 그리고 헌신을 전제로 하며, 어느 정도 정형화된 줄거리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청춘들은 부타(buta, 동화 및 서사시 주인공들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의미함)를 받게 된다. 이후 주인공들은 정의로운 사람(haqq aşıqi)으로 변신한 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떠난다.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면서 연인(戀人)을 찾아내 기도 하지만 간혹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 주인공들은 말(言)과 사즈(saz)의 힘으로 역경과 고난을 물리친다. 즉, 시(詩)를 노래하고 사즈를 연주하는 방법으로 시련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서사시는 영웅서사시보다 많다. 「구르바니(Qurbani)」, 「압바스와 귤개즈(Abbas və Gülgəz)」, 「아시옥 개립(Aşıq Qərib)」, 「타히르와 죄흐래(Tahir və Zöhrə)」, 「샤흐 이스마일(Şah İsmayıl)」, 「레이리와 매투스(Leyli və Məcnun)」 등이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랑서사시들이다.

사랑서사시들은 주로 ‘우스타드나매(ustadnamə)’로 시작해서,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두왁가프마(duvaqqapma)’로 끝난다. ‘우스타드나매’ 이후 서사시의 주요 서사가 나타난다. 이 서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주인공의 특이하고 기적적인 탄생 ②부타(buta)를 받게 되는 단계 ③직면한 장애물 극복하기 ④시험 통과, 대회, 승리.

‘우스타드나매’는 덕담 같은 말들이 담겨 있으며 ‘코쉬마(qoşma, 아제르바이잔 전통 시형식)’로 쓰여진다. ‘두왁가프마’는 서사시 결말로 주로 아시옥 시형식으로 쓰며, 행복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회를 기린다. 비극으로 끝나는 서사시들에서는 ‘두왁가프마’가 없다. 이런 비극적인 서사시들에서는 연인들의 재회가 없기 때문에 ‘두왁가프마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샤흐 이스마일(Şah İsmayıl)」, 「노브루즈와 갠답(Novruz və Qəndab)」, 「왕자 애블뤼패즈(Şahzadə Əbülfəz)」 등의 서사시에서 주인공들은 용기와 용감함으로 승리한다. 「아

시옥 개립(Aşığı Qərib)」 서사시에서 주인공은 승리를 시로 노래한다. 해당 아시옥들은 사랑을 주제로 저술한 시와 그들에 대해 생긴 전설들을 토대로 「구르바니(Qurbani)」, 「압바스와 곁개즈(Abbas və Gülgəz)」, 「아시옥 개립(Aşığı Qərib)」, 「와기프(Vaqif)」 등의 서사시들을 탄생시켰다. 또한 사랑서사시에는 「애슬리와 캐렘(Əsli və Kərəm)」, 「샤흐 이스마일(Şah İsmayıl)」, 「알르한과 페리 하눔(Alıxan və Pəri xanım)」 등의 서사시도 속한다. 일부 민족 서사시를 토대로 오페라들이 작곡됐다. 질뤼가르 하즈배요브(Zülfüqar Hacıbəyov)의 「아시옥 개립(Aşığı Qərib)」 오페라를 예로 들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하바트 데스타느, 무하뱃 다스탄
- 다국어 표기 Muhabbat dostoni(우즈베크어), Muhabbet destan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다스탄, 레일리와 매즈눈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s.880~885.

I D006 | 사루한 공국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소분류1 국가 ●유형소분류2 왕조
 ●집필자 이주연 ●라틴 문자 Saruhan Principality

사루한 공국은 룸 셀주크 투르크의 멸망 후에 아나톨리아에 나타난 투르크 공국 중 하나이다. 공국명은 창건자인 사루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1313년부터 1412년까지 존속했다. 이 공국의 영토는 아나톨리아 서부, 에게 해에 면해 있는 옛 리디아 지역을 아우르며, 수도는 튀르키예인들에게 마니사라고 불리는 고대 도시, 마그네시아(Magnesia)였다. 이 공국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건국 초기에는 주로 비잔틴과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아이든 공국과 더불어 에게해 지역의 그리스도교 영역을 해상에서 약탈하여, 이 과정에서 얻은 다수의 그리스도교 노예들이 마니사의 노예 시장을 통해 팔려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업도시로 유명한 제노바가 아나톨리아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그들의 거점인 이즈미르 근처의 도시, 포카리아

와 히오스 섬 등에 자리하면서 이 지역의 형세에 뛰어든 것으로, 비잔틴과 사루한 공국은 이에 맞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도 했다. 예를 들면 창건자인 사루한은 그의 아들 술레이만이 포카치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비잔틴에게 군사적 도움을 주어 제노바의 포카치아 세력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후 비잔틴이 1340년대에 내전을 겪게 되자, 사루한은 아이든과 함께 발칸 남부의 트라키아에서 전투를 했으나 그의 아들인 술레이만이 이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사루한 역시 1348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인 파르크 앓 딘 일야

스가 등극했을 때 오스만이 카레시를 병합하여 사루한 공국과 변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1357년부터는 파르크 앓 딘 일야스의 아들 이스하크 첼레비가 이 공국을 다스렸는데, 그는 메블레비 수피 종단에 심취했다. 이후 비잔틴 황제와 재차 조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하크 첼레비의 자녀가 비잔틴의 인질로 끌려가는 등 양국 간의 관계에서 사루한 공국은 과거에 비해 약세를 보였다. 이스하크 첼레비가 1388년에 사망하고 뒤를 이은 히즈르 샤는 1390년에 바야지드 1세에 의해 잠시 공국이 오스만에 병합되었을 때, 부르사로 끌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바야지드 1세가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 조에게 패배한 후, 티무르 조는 바야지드 1세에 의해 병합된 여러 공국들에게 영토를 재분배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공국의 새로운 군주가 된 오르한은 티무르를 따라 아나톨리아 정복 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나 티무르가 철수하고 곧 1405년에 사망한 후 오스만 세력이 재부상하자, 사루한 공국은 1410년에 재차 병합되어 오스만의 행정 구역 중의 하나가 되었고, 마니사는 오스만의 후계자가 머무는 곳이 되었다. 사루한 공국을 구성하던 유목 세력들은 루멜리아로 이주했고, 몇몇 지배층은 그곳에서 티마르를 사여받고 ‘Sarukhanlu’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루한 공국 발행 은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루한오올라르

●다국어 표기 Saruhanoğullar(튀르키예어), صاروخان(페르시아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e/Silver_gigliato_of_Sarukhan_Beg_bin_Alpagi_1313_1348_ruler_of_Lydia_western_Turkey.jpg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65~366.

Elizabeth A. Zachariadou, “Sarukhan,” Encyclopaedia of Islam 9, Leiden: Brill, 1997, p.69.

I D007 | 사르 갠린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민요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arı gəlin

‘사르 갠린(Sarı gəlin)’은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오래된 민요 중 하나이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남아제르바이잔(지금의 이란 북부) 및 이라크 투르크멘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민요이다. 1930년 초기에 아사프 제이날르가 이 곡을 악보로 옮기고 포르테 피아노용으로 작업했다.

‘사르 갠린’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사르 갠린이라는 민요의 역사는 이슬람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도 있고, 이 민요가 불과 150년~2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고대 투르크어에서 ‘sarı(사르)’라는 단어는 ‘거대한’ 혹은 ‘산(山)’이라는 뜻이었다가 ‘고상한’ 그리고 ‘온화한’이라는 의미로 점차 변화되었다. 현대어에서 ‘sarı(사르)’는 주로 ‘노랑색’을 의미하며, ‘갠린(gəlin)’은 투르크어로 ‘신부’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르 갠린’은 ‘내 마음이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말라’는 신부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민요는 이슬람 이전 오구즈 부족(Oğuz tayfaları)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이다. 오구즈인들(oğuzlar)의 음악은 이 민요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늘날까지 구비전승되고 있다. 당시에는 결혼 승낙을 신부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에게 받아야 했는데, ‘당신을 내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당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만을 고대해야겠구려’와 같은 가사는 신부 할머니에게 구혼 했다가 거절당한 남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민요 ‘사르 겔린’의 또 다른 기원에 대한 설은 러시아인들이 1820년~1830년대에 오스만(Osmanlı) 땅을 공격하여 에르주룸(Ərzurum)까지 점령했을 때 생겨난 이야기이다. 튀르키예 군 장교 중 한 명과 러시아 출신 슬라브인 미녀와의 러브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 사랑에 빠진 튀르키예 장교는 ‘사르 겔린’이라는 시를 썼다. 여기서 사르는 ‘노랑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금발머리 슬라브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의 시는 이후 노래로도 작곡됐다고 한다.

닿을 수 없는 긴 머리
따지 못할 젖은 꽃, 사르 겔린.
이 몹쓸 사랑
당신을 내게 주지 않아
나는 어찌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어찌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사르 겔린.
이 몹쓸 사랑
당신을 내게 주지 않아
나는 어찌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어찌 해. 아이고, 아이고. 사르 겔린.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르 겔린
- 다국어 표기 Shan gelin(영어), Sari gelin(튀르키예어), сары гелинь(러시아어), Sari gəlin(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오구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LOK6lrTOVnQ?si=vL5i2Cy6C-hE8OpK>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oyu*, Bakı, Tuti, 2003, s.34.

I D008 | 사르 아시옥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유형 소분류2 명창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arı Aşıq

사르 아시옥(Sarı Aşıq)'은 17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아시옥들 중 한 명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사르 아시옥은 소도시 라친(Laçın rayonu)의 시골 마을인 귤래비르드(Güləbird kəndi yaxınlığı) 부근 가라다글르(Qaradağlı kəndi)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해캐리 강(Həkəri çayı,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작은 강) 오른쪽편에 위치한다. 그는 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다. 귤래비르드((Güləbird)에서 세상을 떠났고, 거기 묻혔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사진도 있다. 1927년에는 고고학자들이 묘지를 발굴하면서 아시옥 사르가 17세기에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3년에 아르메니아인들은 그의 무덤을 완전히 파괴했다.

사르 아시옥의 작품은 주로 바야트(bayati) 형식이다. 즉, aaba, 4행, 행마다 7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바야트 시형식을 매우 선호했던 그는 ‘바야트를 창작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대부분의 바야트들은 저자가 없지만 사르 아시옥처럼 저자가 알려진 바야트들도 있다. 그의 바야트들과 구비전승되는 작자미상의 바야트들을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도 그의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바야트 중 일부가 그가 아내 야흐시오(Yaxşı)에게 바친 헌시(獻詩)이기 때문에 ‘야흐시오’라는 이름이 바야트들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아시옥은 가라만리에 있다,

검은 얼굴 야흐시오 성산에 내린 눈도 아름답다.’

*(가라만리: 장소 이름, 야흐시오:Yaxşı, 사르 아시옥의 부인 이름)

사르 아시옥의 바야트들 대다수는 ‘아시옥’이라는 필명으로 불린다. 구비전승되는 바야트들

중에서 사르 아시옥 작품이라고 알려진 바야트 중에서는 사르 아시옥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시옥(Aşıq)’, ‘나는 명창이다(Aşiqəm)’, ‘난 명창(Mən aşiq)’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바야트들의 저자는 사르 아시옥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그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었고, 바야트들에서 형태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동음이 의어를 사용했다. 수피(sufi) 가젤들을 인용하기도 했다. 페르시아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어문학에 들어온 지나스(Cinas)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사르 아시옥은 시에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 그는 사랑시의 저자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문학에서 그의 바야트들은 진정성, 비통함, 시적 섬세함 등의 개성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르 아시옥만의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르 아시옥의 작품 세계에 관한 내용으로 사르 아시옥과 그의 부인의 관계를 다룬 『야흐 시으와 아시옥(Yaxşı və Aşiq)』이란 제목의 서사시가 구전되기도 한다. 이 작품에는 그의 생애에 관한 바야트와 전설들을 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르 아식, 사르 아쉬
- 다국어 표기 Sari Ashik(영어), Sarı Aşık(튀르키예어), Сары Ашык(러시아어), Sarı Aşiq(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바흐쉬, 아큰
- 참고문헌(오프라인) Axundov Əhliman, *Sarı Aşiq Şeirələri*, Bakı: Azərneşr, 1966.

I D009 | 사르마트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문화
- 집필자 김재운 ●라틴 문자 Sarmatian culture

사르마트 문화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스키타이 문화 이후에 카스피해 부근에 등장했다. 기원전 3세기 후반 이후에 점차 불가하류에서 흑해 북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스키타이

타이 문화는 점차 사라졌다. 고대 작품에 사르마트 문화란 이름이 남게 되고, 스키타이 영토는 더 이상 스키타이로 불리지 않고 사르마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흑해 북안에서 사르마트가 문화가 가장 번성했을 때는 기원후 1세기~2세기이고, 이때는 볼가, 다뉴브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영위했다. 사르마트 동물 양식의 금제 유물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팔찌, 목걸이, 띠꾸미개, 띠고리, 향수병과 마구 장식에 동물 장식이 등장했다. 수사슴, 큰뿔사슴, 산양, 말, 고양이과 맹수, 늑대와 그리핀 등 동물들이 대상이 되었다.

사르마트 동물 양식은 어깨와 다리의 근육을 사실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짐승의 발톱, 부리를 크게 과장하는 과장법적인 도안을 사용했다. 사르마트 동물 장식은 스키토-시베리아 동물 장식과 근동 동물 장식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유물로 주로프스키 농장의 사르마트 무사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판은 스키타이의 맹수 모티프가 부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동의 동물 장식 특징은 노보체르카스크의 호흐라치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나무장식에 조각된 동물상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동물 장식의 특징이 훈의 유물에도 나타나서 사르마트 문화를 훈-사르마트 문화라고도 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르마티안 문화

●다국어 표기 сармат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Sarmatian culture(영어)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훈

●참고문헌(오프라인) Смирнов К.Ф., 1964, Савроматы. Рання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сарматов. М: Наука.
М.П. Абрамова, С.С. Бессонова, О.Д. Дашевская и др., 1989, Степ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 Наука

I D010 | 사르바르 올림저너비츠 아지머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arvar Olimjonovich Azimov

극작가이자 문학 평론가인 사르바르 올림저너비츠 아지머브(Sarvar Olimjonovich Azimov)는 1923년에 지자흐(Jizzax)에서 지식인 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은 유명한 시인 하미드 올림전(Hamid Olimjon)이다. 사르바르는 타슈켄트에 있는 칼 마르크스(Karl Marks) 교육 기술학교를 졸업했다. 이어서 그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국립 중앙아시아 대학교 어문학과를 마친 후 대학원을 진학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라디오위원회의 편집장으로, 1950년에는 문학 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1950년부터 1954년까지는 푸쉬킨 언어문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부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당위원회 과학과 문화 부장을 역임했으며 1956년~1957년과 1980년~198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서기관으로 일했다. 1957년부터 1959년까지는 문화부 장관, 1959년부터 1969년까지는 부총리 겸 외무 장관을 역임했다.

사르바르 아지머브의 문학 비평가로서의 활동은 1948년에 시작되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문학사 왜곡에 반대하여(O'zbek adabiyoti tarixini buzishga qarshi)』, 『소련 민족문학 명문집에 대하여(SSSR xalqlari adabiyoti xrestomatiyasi to'grisida)』, 『젊은 우즈베크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하여(Yosh o'zbek yozuvchilari ijodi haqida)』와 같은 저서로 학술적이고 이론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형인 하미드 올림전(Hamid Olimjon)의 창작과 작품에 관해 수년간 연구했으며, 1972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등 학교를 위한 우즈베크 문학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극작가로서 사르바르는 「피 묻은 신기루(Qonli sarob, 1961)」, 「새하얀 새벽의 노래(Oppoq tong qo'shig'i, 1962)」, 「별들의 아름다움(Yulduzlar jamoli, 1964)」과 같은 작품을 집필했고, 이들 작품은 소련 시대 우즈베크 극작법과 연극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르바르 아지머브의 희곡은 대중주의를 바탕으로 당대의 현안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제, 새로운 형식 및 새로운 이미

지로 우즈베크 극작법을 풍요롭게 했다.

특히 그의 희곡 「시대(Zamon, 1968)」는 이데올로기와 예술이 결합된 컨텍스트로 매우 수려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식민주의 족쇄를 깨고 독립을 얻게 된 외국인과 그들 조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 민족해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동방으로 널리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에 깊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사르바르 아지머브는 또한 여러 시나리오와 라디오 단편소설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명예 학자와 국민 작가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사르바르 아지머브는 1994년에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르바르 올림존너비츠 아지모프

●다국어 표기 Sarvar Olimjonovich Azimov(우즈베크어), Азимов, Сарвар Алимджанович(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하미트 얼림진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sarvar-azimov-1923~1994>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Boyqobilov B., *Sarvar Azimov: hayoti va ijodi haqida ocherk*,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74.

Mirvaliyev S.,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I D011 | 사르카므슈 전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battle of sarikamish

사르카므슈 전투는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인 1914년 12월 22일부터 1915년 1월 4일까지 진행된 오스만 제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작전이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군이 유럽 전선에 집중하는 것을 막아 독일, 오스트리아 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캅카스 산맥 지역에서 군사 작



사르카므슈의 러시아 참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전을 벌였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한다.

러시아군은 캅카스 산맥을 넘어 오스만 제국 영토를 공격했고 오스만 제국 3군단은 결사 항전 끝에 쿵뤼콰이(Köprükoy) 인근에서 격퇴한다. 오스만 제국의 저항으로 러시아군은 아자프(Azap)-잔자크(Zanzak)-호샤프(Hoşap) 라인으로 철수한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군의 계속된 전투로 캅카스 전선은 점점 고착화된다.

엔베르 파샤(Enver Paşa)는 캅카스 산맥에 잔존한 러시아군을 공격하기를 원했고 오스만 제국에 파견된 독일인 참모들도 엔베르 파샤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군사 작전이 준비된다. 엔베르 파샤는 3군단 사령관 하산 이제트 파샤(Hasan İzzet Paşa)를 시켜 캅카스 전선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고, 전황을 분석한 하산 이제트 파샤는 동계 장비, 보급 부족 문제로 작전 불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엔베르 파샤는 재차 하프즈 하크 베이(Hâfız Hakkı Bey)를 캅카스 전선에 파



사르카미슈 전투 등에서 희생한 군인 등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 공원(안탈리아, 튀르키예)

견했고 그는 바르드즈(Bardız)-올투(Oltu) 전선을 공격한다면 성공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엔베르 파샤는 공격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킵뤼콰이로 향한다.

엔베르 파샤는 여러 사령관들을 이끌고 1914년 12월 6일 이스탄불을 떠나 15일 킵뤼콰이에 도착하면서 작전 준비가 시작되었고 오스만 제국은 보병 3개 군단, 1개 기병사단을 동원하여 약 96,000명의 병력을 투입한다. 당시 러시아 군대는 사르카미슈 전선에 65,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 군대의 보급은 열악한 상태였지만 엔베르 파샤는 작전 강행을 고수하자 이제트 파샤는 사임한다. 엔베르 파샤는 이제트 파샤의 작전권을 회수하자 작전에 반대하는 사령관들은 물러난다. 이에 9군단 사령관에 알리 이흐산 라티프 파샤(Ali İhsan Latif Paşa, 10군단에 하프즈 하크 베이, 11군단에 압뉘케림 파샤(Abdülkerim Paşa)가 임명된다. 엔베르 파샤는 12월 19일 작전에 서명하고 22일 사르카미슈 작전이 시작된다.

오스만 제국의 기습적인 야간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혼란에 빠진다. 오스만 11군단이 러시아군을 정면에서 도발하는 동안 10군단은 이드(İd, Narman)-올투(Oltu)-바르드즈(Bardız) 축선을 공격하고 9군단은 핏기르(Pitgir)-차타크(Çatak)-콰테크(Kötek) 축선을 공격한다. 이러

한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이 카르스(Kars) 지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라스 계곡(Aras Vadisi)에서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했다. 초반 공격에 성공한 오스만 제국 군대는 높은 사기로 파죽지세로 러시아군을 밀어붙였고 성공적으로 작전이 진행되는 듯했다. 러시아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사르카므슈로 물러들었다. 사르카므슈 공격을 목전에 두고 오스만 9군단 라티프 파샤는 지친 병력들을 위해 공격을 중단한다.

러시아군은 오스만 제국 군대가 공격을 중단하자 사르카므슈를 요새화시키며 결사 항전에 들어간다. 12월 25일 사르카므슈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군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전황이 변화한다. 26일 오스만 군대는 사르카므슈를 공격하지만 러시아군의 방어 병력과 포격으로 후퇴하게 된다. 27일 오스만 군대는 재차 공격을 시도하지만 러시아는 보강된 중화기를 활용하여 오스만 제국 군대를 효과적으로 격퇴한다. 하지만 오스만 10군단의 공격으로 사르카므슈-카르스 철도가 파괴되면서 위기를 맞는다.

오스만 10군단이 28일 사르카므슈 전투에 합류하지만 강행군, 혹한으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다. 오스만군은 지속적으로 사르카므슈를 공격했지만 실패한다. 러시아군 사령관 유데니츠(Yudenich)는 오스만 군대 내부사정을 파악하고 1915년 1월 1일 발드즈-사르카므슈-에세크메이다느(Eşekmeydanı) 축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반격에 나선다. 결국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엔베르 파샤는 9군단, 10군단을 파견해야 했고 11군단은 사르카므슈 공격에 실패한다. 결국 하크 파샤는 병력 보존을 위해 1915년 1월 4일 퇴각을 명령하여 에르주룸으로 귀환한다.

사르카므슈 작전을 통하여 오스만 제국은 약 90,000명, 러시아는 약 30,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한다. 오스만 제국은 엔베르 파샤의 독단적인 작전과 부족한 동계 장비, 보급품 부족으로 끝내 패배하여 철수한다. 사르카므슈 전투는 1차 세계 대전시기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낭비한 불필요한 군사 작전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르카므쉬 작전, 사르카므쉬 전투, 사리카미스 전투
- 다국어 표기 Sarikamış Harekâtı(튀르키예어), Сарыкамышское сражение(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f/Sarikam.jpg/1280px-Sarikam.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sarikamis-harekati>
- 참고문헌(오프라인) Tuncay Öğün, "Sarikamis Harekâtı", *TDV İslam Ansiklopedisi*, EK-2, 2019, pp.470~473.

I D012 | 사마

-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ma



메블라나 종단의 사마 의식
Source: <https://ich.unesco.org>

사마는 이슬람 수피즘의 신행 중 하나로 듣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 사마의 어원은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초기 수피즘 작품에서 사마는 수피 수도자들의 영감이나 영적인 소리를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전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렇게 마음에 전달된 들은 것들이 다시 마음에서 탄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종교적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우위로 치고 있으며, 사마는 종단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고 모든 수피즘적인 행위와 상황보다 우선한다.

수피즘에서는 사마를 마음에서 만들어진 황홀경과 존재, 신비와 평화, 신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 신의 경의에 취하는 것, 신의 사랑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내는 원인으로 설명한다.

사마는 이 듣는 것들을 코란, 시, 좋은 소리로 나눈다. 코란을 듣는 것을 가장 높이 치며, 이것만을 듣는 수피 수도승도 있다. 때때로 시에서 지혜를 찾아내고 좋은 시를 지어 알라에게 바치는 것을 선호하는 수피 수도자들이 있으며, 영혼의 양식이 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을 듣는 것을 선호하는 수피 수도자들도 있다. 수피 수도자들은 보통의 ‘음악’을 듣는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악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때때로 종교학자들로부터 종교를 망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마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을 때 마음이 일어나 황홀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황홀경이 신체로 퍼지면



사마 의식을 준비하는 메블레위 종단 성직자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학자들에 따라 사마에서 음악, 선율 등을 듣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낮은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메블라나(Mevlânâ Celâleddîn-i Rûmî, 1207년~1273년)는 음악은 사랑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피즘 종단들이 발생한 이후로 사마는 알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읊는 예배 의식을 뜻하는 지크르(Dhikr)의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된다. 메블라나 종단에서 행하는 지크르 의식이 사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할베티, 리파이, 사디이에, 벡타슈 같은 종단에서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사마 의식이 널리 퍼졌으나, 음악으로 행하는 예배 의식을 거부하는 종단도 있다. 거

부하는 종단은 사마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과 춤(움직임)은 일종의 오락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피즘 발생 초기부터 사마 의식이 종교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메블레위 종단의 사마 의식은 2008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마

●다국어 표기 Sema(튀르키예어), Sema(아제르바이잔어), Cama(카자흐어), Samo(우즈베크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ch.unesco.org/img/photo/thumb/05383-HUG.jpg>

●참고문헌(오프라인) Ceyhan, Semih. "Semâ",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 TDV, 2009, pp.455~457.

During, J., and R. Sellheim, "Sama" Encyclopedia of Islam VOL. VIII (ed; C. E. Bosworth, E. Van Donzel, W. P.

Heinrichs), Leiden; Brill, 1995, pp.1018~1020.

Uludağ, Süleyman. İslâm Açısından Mûsikî ve Semâ', İstanbul, 1976, pp.220~225.

I D013 | 사마라 대모스크

●시기 B.C. ~A.D. 10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이라크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모스크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marra Great mosque

사마라 대 모스크는 알 무타와킬(Al-Mutawakkil) 모스크라고도 불린다. 836년 압바스 왕조 칼리프 알무타심(Al-Mu'tasim, 재위: 833년~842년)은 티그리스강 변에 새로운 수도를 설립하고 사마라에 중앙아시아 출신의 투르크인 노예 출신 용병을 위한 정착촌을 건립했다. 이 도시에 알 무타와칼리야(al-Mutawakkiliyya)와 같은 궁전뿐만 아니라 모스크도 함께 건설된다. 사마라 대 모스크는 848년부터 852년에 걸쳐 건설된다. 그러나 10세기 초반 압바스 왕조의 몰락과 함께 사마라도 함께 몰락했고, 13세기에 모스크의 일부 걸벽과 미너렛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유적마저 2005년 이라크 전쟁 당시 상당수 파괴되고 말았다.

모스크는 울타리까지 포함하면 넓이가 376mx444m, 본 건물 자체의 넓이는 240mx156m로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였다. 평균 15m 높이와 2.5m 두께의 벽으로 되어 있으며 주



사마라 대모스크 미너렛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요 재료는 구운 벽돌이다. 반원형의 지주로 받쳐지고 있었으며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다. 이 아케이드에 있는 16개의 문으로 모스크에 입장할 수 있다.

미너렛은 모스크로부터 북쪽으로 27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미흐랍과는 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모스크와 연결된 다리가 있었다. 미너렛은 3m 높이의 정사각형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고 높이는 총 52m이다. 점점 좁아지는 나선형 기둥은 사마라의 에부 둘라프 모스크(Ebu Dulaf mosque)에서 재현되지만, 그 후 이 지방에서는 다시 이런 형식의 미너렛은 건설되지 않았다. 노예 병사의 군사도시였던 만큼 미너렛은 급박한 상황에서 관측 탑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구라트의 탑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

나선형 미너렛은 이집트의 투르크계 총독이었던 아흐메드 이븐 툴룬(Ahmad ibn Tulun 또는 Ahmed Tolunoğlu, 868년~884년)에 의해서 카이로에서 다시 재현된다.

사마라 대 모스크의 나선형 미너렛은 사마라 궁전 터에서 발굴된 사선 양식(belved style)과 함께 투르크 예술 요소가 점차 다른 지방으로 전개되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마라 모스크, 나선형 미나렛, 알무타와킬 모스크, 사마라 울루 자미
- 다국어 표기 Samarra Ulu camii(튀르키예어), Al-Mutawakkil mosque(영어), Al-Mutawakkil masjid(아랍어), Great mosque of Samarra(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community.dur.ac.uk/derek.kennet/IMG0004.jpg>, <http://community.dur.ac.uk/derek.kennet/H3.gif>
- 참고문헌(오프라인) Grabar, Oleg, Richard Ettinghausen and Marilyn Jenkins-Madina,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slam 650-1250, Yale History of Art, 2001.
Bloom, Jonathan and Sheila Blair. Islamic arts, London: Phaidon Press, 1997.

I D014 | 사마르칸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amarkand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남동부에 위치한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 그리스 역사서에는 마라칸다(Maracanda)로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수·당 시대에 걸쳐서는 강국(康國)으로 불렸다.

‘사마르칸트’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도시의 주인이었던 ‘사마르’와 ‘도시’, ‘거주지’라는 의미의 소그드어 칸드(kand)의 합성어라는 설과 ‘돌’, ‘바위’라는 의미의 소그드어 사마르(samar)와 칸드의 합성어라는 설이 있다.

제라프산강(江)의 영향으로 하절기 무더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과거 이곳을 방문했던 지리학자들과 여행가들은 흐르는 물과 녹지로 뒤덮인 깨끗한 공기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묘사하고 있다.

20세기 고고학자들의 발굴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535년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가 이곳에 초소를 세웠다. 또한, 기원전 700년경에 이미 아프리카시압 왕이 이 지역을 통치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에 위치하고 같은 이름의 행정 구역(oblast)을 중심으로 사마르칸트는 초기에는 트란스옥시아나 지역과 이후 소그디아나의 중심지가 되었다. 기원전 239년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파괴된 사마르칸트는 기원전 312년 셀레우코스 제국에 넘어갔고, 기원전 189년에는 그리스-박트리아 왕국에 복속되면서, 고대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사마르칸트는 평범한 도시로 취급받게 되었다. 당시 인구의 대부분은 소그드인과 사카 투르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언어는 소그드어를 사용했다.

사마르칸트는 월지 투르크인과 기원전 1세기에는 캉글리 투르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캉글리인들은 사마르칸트를 정비하여 수도로 삼았다. 1세기 이후에는 흉노족, 이후에는 쿠산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기원후 3세기 후반에 사마르칸트는 다시 독립하게 되었다. 300년 경에는 힘야르족, 375년에는 에프탈 제국에 도시가 넘어가게 되었다. 5세기 중반, 에프탈 제국은 사마르칸트와 인근 지역에서 세금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겨, 캉글리 조가 사마르칸트를 지배하게 한다. 562년 도시는 돌궐의 손에 넘어간다. 돌궐인들은 사마르칸트인들이 무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가 밝은 것을 이용하여 대사(大使)로 활용한다. 659년 서돌궐의 멸망 후 이 지역은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중국, 인근 투르크 국가들, 인도, 아프가니스탄, 메르브, 부하라, 이란과 연결된 무역로의 교차로였던 사마르칸트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이슬람 침략 이전에 사마르칸트에는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와 같은 정교를 믿었다.

676년 우마이야의 침략에 맞서 사마르칸트는 세금과 볼모를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평화를 잠시 지켰지만, 사마르칸트가 조약을 어겨 680년 우마이야에 정복당했다. 701년 제2돌궐 제국이 군대를 보내 사마르칸트를 잠시 빼앗아왔으나, 711년 우마이야에 다시 정복당한다. 사마르칸트에는 모스크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우마이야 조는 트란스옥시아나의 다른 지역을 점령할 때 중요한 기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다수의 인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소그드인으로 구성된 30,000명 병력이 이슬람 군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총독의 가혹한 정책에 맞서 사마르칸트는 반발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738년 다



사마르칸트에 위치한 레기스탄

시 우마이야 조에 정복당한다.

755년 압바스 조는 사마르칸트를 사만 조에게 통치를 맡겼고 수도가 되었다. 사만 조는 독립 국가가 되며 892년 부하라로 천도했으나 사마르칸트는 여전히 중요한 도시로 취급받았다. 사만 조 시대에 사마르칸트에서 많은 학자가 양성되었으며, 무역이 발달했다.

999년 카라한 조가 사마르칸트를 정복했고, 11세기 초에는 사마르칸트는 서 카라한 조의 수도가 되었다. 11세기 말에는 대 셀주크 조의 치하에 들어갔으나, 13세기 초에는 호라즘 샤의 수도가 되었다. 1220년 몽골의 침략으로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사망하거나 도시를 떠났다. 14세기 말 티무르 조가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으며, 다시 도시가 재건되었고, 새롭게 주요 도시로 부상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학자와 예술가들이 모였다.

16세기~19세기에 이르기까지 우즈베크계 왕국인 부하라 칸국과 부하라 토후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부하라를 수도로 삼았기에 사마르칸트의 중요성은 이전 시기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1868년 러시아인들은 사마르칸트를 정복했고, 1924년~1930년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로 정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12개 주의 하나가 되었다.

현대의 사마르칸트는 농업과 경공업 도시이다. 2019년 기준 도시의 인구는 50만 명, 광역인

구는 약 95만 명이며, 인구의 4분의 3은 우즈베크인이다. 이외에 러시아인, 타타르인, 타지크인들이 있다.

2001년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마르칸드

●다국어 표기 Samarqand(우즈베크어), Semerkant(튀르키예어), Səmərqənd(아제르바이잔어), Самарқан(카자흐어), Samarkand(투르크멘어)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200429095401/https://stat.uz/en/181-ofytyalnaia-statystyka-en/6383-demography>

●참고문헌(오프라인) Aydınlı, Osman. "SEMERKANT",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 TDV, 2009, pp.481~484.

Schaeder. H.H. -C.E. Bosworth, "Samarqand", Encycloepadia of Islam VOL.VIII (ed; C.E. BOSWORTH, E. VAN DONZEL, W.P. HEINRICHS AND G. LECOMTE), Leiden; Brill, 1995, VIII, 1031~1034.

I D015 | 사만 왕조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이란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국가 ●유형 소분류2 왕조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amanid Dynasty

사만 왕조는 사만 토후국, 사만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와 이란의 호라산 지방에 있던 이슬람 왕조이다. 사산 조의 옛 귀족 세력인 나스르 이븐 아흐마드가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룩한 사람은 동생 이스마일 이븐 아흐마드이다. 4대 왕인 나스르 2세 때에 트란스옥시아나와 페르시아 북부의 호라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동부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하고 최대 전성기를 누렸다. 그의 치세 때는 이란 본토를 차지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다. 동서무역(東西貿易)의 요충지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는 눈부신게 번창하여 바그다드를 능가할 정도로 세력을 뻗었으며, 당시 이슬람 세계를 이끌었던 압바스 왕조에 충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할 정도로 강성했다.



사만 왕조의 영묘(부하라)

사만 조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으며, 이 농업의 번성은 광범위한 관개 시설의 확장과 그 유지에 달려 있었다. 이 지역은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관개 시설은 주로 물줄기를 끌어들이 증발하지 않게 지하로 흐르게 하는 수로망(水路網, qanat)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안정이 무너지면서 이 시설도 곧 훼손되고, 그 결과 농업 수확량은 격감된다. 사만 조의 정책도 이러한 현실의 제약을 받았다. 이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던 나스르 2세(Naṣr II, 913~943년)가 죽은 후 내분이 일어났으므로, 지방의 토호(dihqān)를 다스리기가 점차 힘들어졌다. 게다가 군 내부에 투르크계 출신의 장교 수가 점차 늘어나 영향력도 강화되어서 때때로 불만 분자와 결탁하여 음모를 꾸몄다. 사만 조의 통치자는 840년 이후 북쪽의 텐산(天山) 산맥 지역에 세력을 부식하여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투르크계 부족인 까를루크(Qarluq)와 손을 잡거나,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카라한 조(Qara-Khān 992년~1211년)와 협력하여 지탱했다.

사만 왕조는 페르시아어를 장려하고 부하라에 도서관을 세워, 아랍의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한 후에 침체된 페르시아 문학을 부활시켰다. 이 시기에 유명한 시인 피르다우시가 활동했으며, 10세기경에 이슬람 세계의 뛰어난 역사가로 이름을 날린 무함마드 이븐 자리르 알타바리가 쓴 역사서가 페르시아어로 요약되는 등 페르시아 학문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아랍 페르시아의 학자는 그들의 보호를 받았다. 더욱이 이 왕조 때에는 이란에서도 문예 부흥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여, 시(詩)를 비롯하여 학문 분야에서도 페르시아어가 사용되었다. 사만 왕조는 인근에서 성장한 투르크계 카라한 칸국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999년에 멸망했다. 이로써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은 페르시아에서 투르크계로 넘어갔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만 조, 사만 왕국, 사만 제국

●다국어 표기 سامانیان(페르시아어), Samanid Dynasty(영어)

●연관 검색어 트란스옥시아나, 부하라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youtube.com/watch?v=wRjssQhkTxY>

●참고문헌(오프라인) Bosworth, C. E., “Aḥ. M. A. D. B. SAHL B. HĀŠEM”, In Yarshater, Ehsan (ed.), Encyclopædia Iranica, Volume I/6: Afghanistan–Ahrim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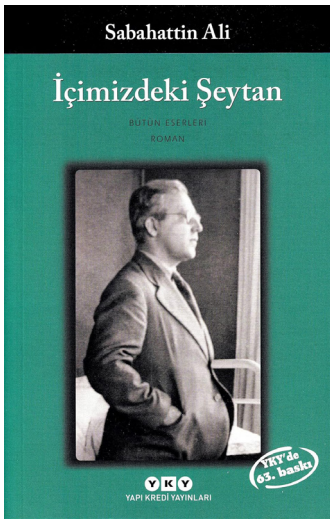
Daniel, Elton, The History of Iran (The Greenwood Histories of the Modern Natio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1.

Frye, R. N., “The Sāmānids”. In Frye, Richard 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ume 4: From the Arab Invasion to the Saljuq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I D016 | 사바합틴 알리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Sabahattin Ali

사바합틴 알리(Sabahattin Ali)는 1907년 2월 25일 오늘날 불가리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귀밀지네에 속한 아르디노에서 태어났다.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직업 덕분에 여러 도시



『우리 마음속 악마』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에서 교육을 받았다. 초등학교는 1914년 이스탄불 위스퀴다르에 있는 푸유자트 오스마니에에서 입학했고, 차낙칼레를 거쳐 발룩케시르(에드레미트 학교)에서 졸업했다. 1921년에 발룩케시르 사범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교 신문과 발룩케시르 지역신문 <차오라얀(Çağlayan)>에 첫 작품을 실었다.

1927년 이스탄불 교육대학교(Muallim Mektebi)를 졸업한 사바하딘 알리는 이오즈가트 줌후리예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일 년 동안 교사로 지내다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 독일로 학업을 위해 출국했다. 그는 독일 포츠담에 있는 독일어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usländer)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언어 연수가 모두 끝나자 그는 베를린-빌머스도르프(Wilmersdorf: 베를린 근교 도시)에 있는 요

아힘스탈러 중등학교(Joachimstahler Gymnasium)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는데 이 학교는 프로이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독일 귀족과 장교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였다. 민족주의 분위기가 심하게 형성된 학교라 독일 학생들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으로 대했다. 학생 한 명과 심한 언쟁이 있었던 사바하딘 알리는 이로 인해 1930년 봄 학업을 다 이루지 못한 채 튀르키예로 돌아와야만 했다.

튀르키예에 돌아온 후 그는 도시 부르사의 오르하넬리 지역과 가지교육원(Gazi Eğitim Enstitüsü)에서 실시한 독일어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뤘다. 그 결과 아이든 중학교에 독일어 교사로 임명받을 수 있었다. 사바하딘 알리는 당시 잡지 <레심리 아이(Resimli Ay)>에서 편집자 겸 비서로 근무했던 나짐 히크메트를 알게 된다. 나짐 히크메트와 만난 이후 문단에 빠르게 자리잡기 시작한 사바하딘은 나짐 히크메트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문학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됐다. 처음으로 사회 현실을 이야기로 엮은 「숲 이야기(Bir Orman Hikayesi)」를 나짐 히크메트가 근무하는 <레심리 아이> 잡지에 게재했다.

1931년 사바하딘 알리는 동료 교사에게 사회주의를 선동했다는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구속됐고 3개월 투옥된 뒤 풀려난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튀르키예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가까이에서 그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튀르키

예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리얼리즘 소설의 시초로 인정받은 작품 『쿠유자크 출신의 유수프(Kuyucaklı Yusuf)』의 주인공을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

아이든 중학교에서 코니아 중학교로 전근을 하게 된 사바하딘 알리는 이곳에서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간다. 코니아에서 출간하는 <새로운 아나톨리아(Yeni Anadolu)> 신문을 위해 번



사바하딘 알리가 수감되어 있던 시노프 교도소 박물관

역을 하기도 했고, 코니아 시민의 전당(Konya Halkevi)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동료들이나 지역 명사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졌고 사바하딘 알리가 쓰는 글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생겨났다. 『쿠유자크 출신의 유수프』라는 소설을 연재하는 <새로운 아나톨리아> 신문이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자 소설은 26호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신문사 경영진 제말 쿠타이(Cemal Kutay)와 메흐멧 에민 소이살(Mehmet Emin Soysal)은 그가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에서 아타튀르크를 모욕하는 시를 읊었다며 사바하딘 알리를 고발했다. 이 고발로 1932년 12월 22일에 붙잡힌 사바하딘은 1933년 1월 7일 1년 실형을 선고받는다. 항고하기 위해 청원서를 썼지만 오히려 형이 2개월 늘어났다. 그로 인해 그는 코니아와 시노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다음 시는 그가 시노프 교도소에서 쓴 작품이다.

고개를 숙이지 마라
 마음을 쓰지 마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길
 마음을 쓰지 마라
 밖에는 철썩이는 미친 파도
 그 소리가 벽을 때린다

이 소리로 너를 점령한다
마음을 쓰지 마라
바다를 보지 않아도
눈은 위로 치켜떠라
바다 같은 하늘
마음을 쓰지 마라
곤경에 처하면
알라에게 하소연하라
미래가 있다
마음을 쓰지 마라
연필은 쓰면서 닳는다
길은 가면서 끝이 보인다
죄는 자고 나면 사라진다
마음을 쓰지 마라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주년을 맞이해 정식 출소 몇 개월을 남겨두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사바하틴 알리는 그후 교육부 출판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1937년 2월에 『쿠유자크 출신의 유수프』라는 소설을 책으로 출간하고 5월에 군대에 입대한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직전이라 정치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당시 정부는 소설을 수거한다.

그후 다행히도 공정한 판단력과 견고한 시선을 가진 전문가가 쓴 보고서로 사바하틴 알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소설 『쿠유자크 출신의 유수프』 역시 사회에 무해하다고 판결이 났다.

1945년 사바하틴 알리는 자미 바이쿠르트(Cami Baykurt)와 함께 <새로운 세계(Yeni Dünya)>라는 신문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신문 발행 때문에 위협에 노출됐다. 냉전으로 메카시즘(McCarthyilik)은 튀르키예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바하틴 알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행하던 <탄(Tan)> 신문에 소련 국기를 실어 12월 4일 신문사가 털리는 사건(Tan Olayı)이 발생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자 사바하틴 알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컸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풍자 글로 유명한 아지즈 네신(Aziz Nesin)과 르파트 엘가즈(Rifat Ilgaz)와 함께 1946년 당시 출판업계의 관행을 벗어나 튀르키예 출판계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된 <마르코 파샤(Marko Paşa)> 신문을 발행했다. 신문을 폐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이름으로 신문 발행을 이어나갔는데 그 이름은 말룸 파샤(Malum Paşa), 메르훔 파샤(Merhumpaşa)라는 신문이다. 이 신문을 유지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소, 소환, 체포가 반복되었다. 마침내 신문사는 계엄령이 내려져 문을 닫게 되고 말았다.

결국 역압을 이기지 못한 사바하딘 알리는 직접 트럭을 모는 운전사가 되어 운송업을 시작하게 된다. 첫 업무로 아다나에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길을 나섰으나 일이 서툴러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새로 산 트럭마저 고장이 나자 그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빈털터리가 됐다. 이때 느낀 감정을 그는 아내 알리에(Aliye)에게 1948년 3월 13일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번 역경과 문제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일주일이나 걸려 매우 힘들게 이스탄불에 왔소. 크즐자하맘(앙카라 북쪽 작은 도시)과 뒤즈제(Düzce) 사이에 있는 볼루 산과 게레데 근교에서는 고생을 무척 했지. 밤길에 눈에 빠져 힘들었소. 잠은 운전석에서 잤는데 동상에 걸리는 줄 알았소. 거기다 이즈미트 산에도 눈이 쌓여 있던군. 거기를 지나는데 리프 스프링(트럭 부품)이 망가졌지 뭐요. 철공업자를 찾아 급한 대로 대충 수리하고 길을 나섰소. 드디어 이스탄불에 도착했으나 이제는 차 정비소를 찾아야 한대요.’

트럭을 직접 몰아도 수입은 형편 없었고, 정치적 압력도 멈출 줄 몰랐다. 사바하딘 알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불가리아로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1948년 3월 29일 크르크라렐리(Kırklareli)에서 불가리아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바하딘 알리는 첩보 조직 일원에게 살해된 후 1948년 6월 16일 크르크라렐리의 사자라 마을 근방에서 발견되고 말았다.

당시 희생된 사바하딘 알리의 나이는 당시 겨우 41살이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배, 체포, 기소 등으로 채워진 그의 인생은 튀르키예 문학을 대표하는 명작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은 『물레방아(1935)』, 『수레(1936)』, 『소리(1937)』, 『새로운 세계(1943)』, 『유리저택(1947)』, 『쿠유자크 출신의 유수프(1937)』, 『우리 마음 속 악마(1940)』, 『모피코트를 입은 마돈나(1943)』 등이다.

사바하딘 알리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단편과 장편소설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그



사바합틴 알리 동상(시노프, 튀르키예)

의 안목과 묵직한 체험은 아나톨리아와 아나톨리아 사람들을 섬세하게 묘사해냈다. 튀르키예 민족주의(Türkçülük)로 시작했으나 독일에 있을 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작품에도 드러낸다. 사바합틴 알리는 짧은 생을 살면서 역경과 정신적으로 깊은 혼란을 겪으며 여러 차례 정치적 노선을 선회한다. 섬세하게 작품을 쓰면서 알맞은 예술 형식에 맞춰 자신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했고, 예술을 삶의 장르로 여겼다. 어정쩡한 서구화와 지식에는 소외됐지만, 아나톨리아 사람들의 깊은 애정과 귀한 가치관을 다룬 「소리」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가장 훌륭한 단편소설 중 하나이다. 첫 소설인 『쿠유자크 출신의 이우수프』에서는 아나톨리아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반영했고, 『우리 마음속 악마』, 『모피코트를 입은 마돈나』에서는 정치와 심리 문제를 다루었다.

장편과 단편소설에서 현대 튀르키예 문학의 선구자였던 사바합틴 알리는 튀르키예의 문화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1936년에 설립된 앙카라 국립예술학교(Ankara Devlet Konservatuvarı) 설립자인 카를 에버트(Carl Ebert)의 통역을 맡아하면서, 덕션 강사와 희곡 작가로도 일했다. 동시에 독일 고전을 번역하고, 편집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바합틴 알리
- 다국어 표기 Sabahattin Al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위스퀴다르, 이스탄불, 부르사, 코니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A1ZXIn+fAXS._SL1500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orkmaz Ramazan, *Sabahattin Ali İnsan ve Eser*, Yapı Kredi Yayınları, İstanbul, 1997.
- Loslo Filiz Ali, Özkırmılı Atilla, *Sabahattin Ali*, Cem Yayınevi, İstanbul, 1979.
- Sabahattin Ali, *Bütün Şiirleri - Dağlar ve Rüzgar, Kurbağanın Serenadı, Öteki Şiirler*, Cem Yayınevi, İstanbul, 1990.
- Sabahattin Ali, *Mahkemelerde*, Haz. Nüket Esen-Zezihe Seyhan, Yapı Kredi Yayınları, İstanbul, 2004.
- Sabahattin Ali, *Hep Genç Kalacağım*, Haz. Sevgül Sönmez, Yapı Kredi Yayınları, 2008.
- Çukurkavaklı K. Bayram, *Sabahattin Ali Olayı*, Yenigün Yayınları, Ankara, 1978.
- Sertel Sabiha, *Roman Gibi*, Belge Yayınları, İstanbul, 1987.
- Sönmez Sevgül, *Sabahattin Ali*,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3.

I D017 I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Sabahattin Eyüboğlu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Sabahattin Eyüboğlu)는 튀르키예의 근현대 작가이며 번역가이다. 그는 1908년 트라브존의 악차바트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함디는 이슬람 종교 법관이었고, 아버지는 국회의원 라흐미이다. 에이위보을루는 초등교육은 쿠타야 그리고 중등교육은 트라브존에서 마쳤다. 대학교육은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지시였던 정부장학생에 선발돼 프랑스에서 유학했고, 그는 언어학, 문학, 미학을 공부했다. 이후 이스탄불대학교 프랑국어문학과에서 강사를 하며 학문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1933년~1939년). 그는 앙카라에서 교육 감사와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하산오란 고등마을학교에서 문화사를 가르쳤다(1943년~1947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하산 알리 유젤이 만든 번역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1939년~1947년).

1947년부터 1948년에는 프랑스에 다시 방문했다. 그곳에서 알프레드 루퍼 교수와 피아니스트인 그의 딸 마그디 루퍼와 만났다. 이 만남은 마그디와 삶을 함께하는 출발점이 됐다. 귀국해서는 이스탄불대학교 프랑국어문학과에서 튀르키예-프랑스 비교문학(1950년~1960년)을, 기술대학교와 실용예술학교에서 예술사를 가르쳤다(1951년~1958년).

에이위보을루는 1956년부터 1960년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분야에서 활동했다. 과거 아나



『푸르고 검은』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톨리아 문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11편을 제작했다. 이 시리즈의 1편인 「히타이트의 태양(Hitit Güneşi)」은 1956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에이위보을루는 1966년 ‘시네마텍’ 설립자 중 한 명이 된다.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는 앙카라에 있을 때 ‘민속마을(Halk Evler)’과 ‘마을학교(Köy Enstitüleri)’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다.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는 주변에 할리카르나스 발록츠스(제바트 샤키르 카바아취르), 아즈라 에르하트, 베다트 권이윌, 이스메트 제키 에이위보을루, 파이크 제키 이제르즈 등이 속한 지식인 집단과 함께 튀르키예 민족사를 아나톨리아 땅에서 찾으며, ‘모국(ana yurt)’ 아나톨리아를 지리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푸른 아나톨리아주의(Mavi Anadoluculuk)’를 공유했다. 이 그룹은 히타이트, 프

리기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셀주크, 오스만 제국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공론화하기 위해 1950년 중반에 ‘푸른 여행길(Mavi Yolculuk)’을 만들었다.

세속적 특징이 있는 아나톨리아 사람이었던 그는 ‘푸른 아나톨리아주의’의 문학, 사상, 역사관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에이위보을루는 서구주의, 민족주의, 휴머니즘, 민본주의, 아나톨리아주의로 일관한 사람이다.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는 ‘아나톨리아주의’ 관점을 세우면서 역사적 의미에서 서구의 입장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본질적으로 서구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 영역에서 감지했다. 그는 피상적인 서구화가 아닌 총체적 서구화를 지향했다. 물론 서양의 장단점을 파악해 ‘착취하는 서양’보다는 ‘창의적인 서양’을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튀르키예에서 서구화와 근대화의 개념을 변혁사 연구와 관련지어 탐구했고, 이 두 개념이 가져온 효과와 결과를 평가했다. 에이위보을루도 근대화를 강조했는데, 근대화에 대한 그의 견해는 서구화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다.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는 <새 지평성>, <일사귀>, <이상>, <포룸 바르륵> 등 여러 정기 간행물에 수필과 번역물을 실어 튀르키예를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이 시기에 증가하기 시작한

과거 아나톨리아 문명에 관심을 보인 건축가들 중 한 명이다.

사바하틴 에이위보을루는 플라톤의 『국가(Devlet)』를 번역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번역상(1959년)을 수상했고, 수필 『푸르고 검은(Mavi ve Kara)』으로 누룰라흐 아타츠 상을 받았다(1960년).

재능이 많았던 에이위보을루는 작가이자 교사 그리고 번역가로 활동했다. 에이위보을루는 1930년대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신문 <민족주권>, <새벽>, 잡지 <쿨투르 하프타스>, <사람>, <와르륵>에 실었다. 오르한 벨리 카르크, 누룰라흐 아타츠, 멜리흐 제브데트 안다이와 함께 잡지 <번역(Tercüme)>도 간행했다. 몽테뉴(Montaigne), 외메르 하이얌(Ömer Hayyam)의 책을 번역하고 베다트 권올과 함께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등 많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했다.

에이위보을루의 대표작은 『서양화에 대한 진짜 감정(1952)』, 『파티흐(Fatih) 앨범에 시선(1952)』, 『푸르고 검은(1961)』, 『이우누스 엠레에 인사(1966)』, 『이우누스 엠레(1971)』, 『예술 에세이(1974)』, 『피르 술탄 압달(1977)』, 『마을학교에 대하여(1979)』 등이다.

1971년 3월 12일 쿠데타가 일어나 계엄사령부가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아내 마그디 루퍼, 아즈라 에르하트, 틸다 케말, 베다트 권올 등이 비밀 조직을 결성한 죄로 체포됐다. 그는 4개월 수감되고 난 뒤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에이위보을루는 1973년 금요일 점심 이후에 베다트 권올, 아즈라 에르하트와 가르강튀아(Gargantua)를 번역하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무덤은 이스탄불 메르케즈에펜티 묘지에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바하틴 에이위프오을루, 사바하틴 에웁오을루

●다국어 표기 SABAHATTIN EYUBOGLU(영어), Sabahattin Eyüboğlu(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앙카라, 오르한 벨리 카르크, 누룰라흐 아타츠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71rLNlmzhXL_SY342_.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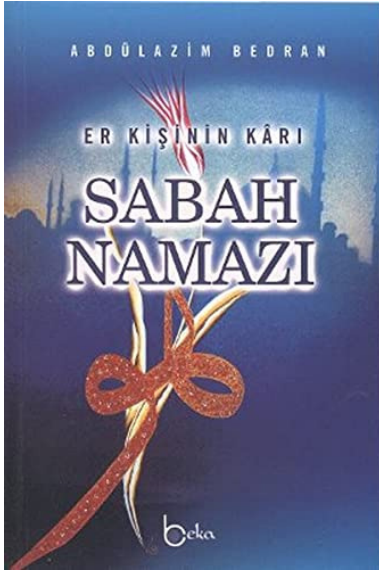
●참고문헌(오프라인) Akagündüz S. Yinilme, Akagündüz Ümüt, “ÇokYönlü Bir Fikir Adamının Geçmişe Bakışı: Sabahattin Eyüboğlu”, *Folklore/edebiyat*, Cilt:17, 2011, s.68.

Apaydın Talip, “Sabahattin Eyüboğlunun Sesi”, *Varlık Dergisi*, S. 546, 1961, s.15.

Türk Hatem, *Bir Mavi Yolcu: Sabahattin Eyüboğlu*, Serander Yayınları, Trabzon, 2017.

I D018 | 사바흐 нама즈

-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bah Namazi



사바흐 нама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바흐 нама즈』 표지

사바흐 нама즈(Sabah Namazi)는 무슬림들이 하루 다섯 번 행하는 예배 중 아침 예배의 튀르키예어 표기로, 아랍어로는 살라트 알 파즈르(ṣalāt al-fajr)라고 한다. 카자흐어로는 탄 нама즈(Тан намазы), 아제르바이잔어로는 쉬브흐 нама즈(Sübh namazi), 우제베크어로는 범더드 나머지(Bomdod namozi)로 표기한다. 그 의미는 모두 ‘아침 예배’이다. 다만, 아랍어 표기의 파즈르는 ‘새벽’을 의미하기도 하며, 코란의 89번째 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예배 시간은 임사크(imsak: 어둠이 깔린 땅이 하얗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여명의 때)부터 일출 전에 가능하나, 특히 임사크 후 30분~40분 이내에 시행하기를 권한다. 이 아침 예배 시작 시각은 라마단 기간의 금식 시작 시각과 동일하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가 과거 확립되지 않았던 이슬람 초기 시

절에도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와 함께 거행되었다고 전해진다.

예배 전 반드시 소정례를 행한 후, 끼블라, 즉 메카가 위치한 방향을 향해 선다. 이 자세에서 두 손을 어깨까지 올렸다가 내리며 ‘타크비르(Takbir)’를 읊고, 키얌(Qiyam), 즉 선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는 학파와 종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 후 기도문을 읊고, 코란 제1장인 개경장을 낭송한 후 개경장을 제외한 코란의 원하는 장 읽는다. 그 후 타크비르를 외우며 반절 자세를 취한다. 반절 자세는 두 손을 무릎에 대고 허리를 90도 숙인 상태이다. 이 자세에서 찬미 구절(나의 위대한 주님은 완벽하십니다)를 세 번 반복한다. 반절 자세에서 손바닥을 위로 하며 팔을 들어올려 자세를 바로하고, 찬미 구절과 타크비를 읊은 후 땅으로 엎드려 절을 한다. 이 절을 할 때는 이마와 코, 양 손바닥, 양 무릎, 양발 끝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 절을 하며 다시 찬미 구절(완

벽하시고 지고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을 읊는다. 이후 타크비르를 읊으며 왼쪽 발 위에 엉덩이를 올려 앉은 채로 오른쪽 발꿈치로 위로 올려세운 앉은 자세를 취한다. 다시 기도문(저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을 읊고 다시 한번 엎드리며 앞서 부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행한다. 이제 일어나며 타크비르를 읊으며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온다. 이 일련의 동작을 라크아(rak'a)라고 하며, 아침 예배 시에는 2회 행한다. 두 번째 라크아 시에는 무릎을 꿇어앉은 자세를 할 때, 증언과 선지자를 위한 기도를 한 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평화의 인사를 하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평화의 인사를 한다. 이것으로 아침 예배가 마무리된다.

이 의무 아침 기도 이외에도 예언자 무함마드가 행했기 때문에 하는(순나) 기도들이 있는데, 이는 학파에 따라 이 의무 기도와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해석이 갈린다. 하나피 학파에 따르면, 의무 기도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피 학파가 대다수인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아침 기도가 순나 2 라크아, 의무 2 라크아로 구성하길 권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침 예배, 파즈르 예배, 파즈르 기도, 아침 기도

●다국어 표기 Таң намазы(카자흐어), Sübh namazi(아제르바이잔어), Bomdod namozi(우즈베크어), Sabah namazi(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외을레 нама즈, 악시암 нама즈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koreaislam.org/%ec%9e%90%eb%a3%8c%ec%8b%a4/?pageid=11&uid=161&mod=document>

<https://www.newmuslimguide.com/ko/your-prayer/1096>

●참고문헌(오프라인) Yaşaroğlu, M. Kâmil. "NAMAZ",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2, İstanbul: TDV, 2006, pp.350~357.

Böwering, Gerhard. "Prayer", Encyclopaedia of the Qur'ān (ed. J. D. McAuliffe) IV, Leiden; Brill. 2012, 215~231.

I D019 | 사반투이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례 ●유형 소분류2 축제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abantuy

사반투이(Sabantuy)는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이 파종의 마무리를 축하하며 즐기는 세시 풍속이다. 과거 사반투이는 4월말에 이루어지던 봄맞이 농경 축제였으나 지금은 파종을 마치는 6월에 지낸다. ‘사반(Saban)’은 파종이나 쟁기를 의미하며 ‘투이(tuy)’는 결혼, 축제를 뜻하기에 어원적으로 사반투이는 봄의 파종기에 행하는 축제를 의미했다.

볼가 강 유역의 투르크계 민족인 추바시인, 마리인, 모르도바인, 우드무르트인이나 캅카스의 투르크계 민족인 발카르인이나 노가이인에게도 다른 특징을 지니지만 같은 기원을 가지는 비슷한 축제들이 존재한다. 사반투이는 타타르어로는 сабантуй, сабан туге로 바시키르어로는 һабантуй로 불리며, 추바시인들은 сапан туйё로 마리인들은 Агапайрем으로, 발카르인과 노가이인들은 сабантой로 부른다.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의 오랜 축제인 사반투이는 현재의 러시아 남부지역인 볼가-우랄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투르크계인 민족의 파종 축제에서 기원한 것이다. 921년 바그다그에서 불가르 칸국에 사신으로 온 이븐 파들란이 처음 기록으로 남겼고, 사반투이 날이 기록된 비석이 1120년에 발견되기도 했다. 초기에 사반투이는 신들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례였으나, 근대로 오면서 주술적 기능은 사라지고 러시아 투르크계 민족들의 보편적 축제로 자리 잡았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사반투이는 민족과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보이지만 현대의 사반투이는 투르크계 민족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 집중화 현상 등으로 단순화되면서 통일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투르크계 민족이 이주한 모스크바나 해외 대도시 등에서도 사반투이 축제가 진행되기도 하면서 비투르크계 민족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교도 축제였던 사반투이는 이슬람, 러시아 정교 문화에서도 살아남아 러시아 투르크계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타타르 민족 휴일 사반투이(2021년 6월 26일)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반투이, 사반토이, 샤반토이
- 다국어 표기 Сабантуй(러시아어), Sabantoy(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인, 바시키르인, 볼가강, 추바시인, 발카르인, 노가이인, 타타르어, 바시키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dmddn.ru/wp-content/uploads/2020/07/majdan-1024x68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з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D020 | 사비르 뤼스탐한르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abir Rüstəmханlı



사비르 뤼스탐한르
Source: <https://cdn1.img.sputnik.az/>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 겸 출판인(publicist)인 사비르 뤼스탐한르(Sabir Rüstəmханlı)는 1946년 5월 20일 도시 야르דם르(Yardımlı rayonu)의 시골 마을 하마르캔드(Hamarkənd)에서 태어났다. 사비르 뤼스탐한르는 중등교육은 야르דם르에서 받았고, 1968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재 국립바쿠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를 졸업했다. 사비르 뤼스탐한르는 잠시 <문학과 예술(Ədəbiyyat və incəsənət)> 신문에서 기자로 일했고, 이어 과학아카데미 니자미 문학연구소(Nizam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에는 「재랄 맴매드쿨루자대와 민속(Cəlil Məmmədquluzadə və Folklore)」이라는 주제로 인문학박사(Docotor of Philology) 학위를 취득했다.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 신문 편집국장이었던 사비르 뤼스탐한르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언론정보부(Azərbaycan Mətbuat və İnformasiya)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1992년도에 시민연대당을 창당하고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어 5년의 공백기간을 거친 후 2020년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디아스포라 활동에도 관여했던 사비르 뤼스탐한르는 시로 문단에 데뷔했고, 이후 소설을 발표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Xəbər gözləyirəm, 1979)』, 『겐재로 들어가는 문(Gəncə qapısı, 1981)』, 『모국어에게 감사를(Sağ ol, ana dilim)』, 『인생의 책(Ömür kitabı, 1989)』,

『이들이 당신의 국민들이다(Bu sənin xalqındır, 1995)』, 『시간이 지나간다(Zaman məndən keçir, 1995)』, 『조상의 영혼(Atamın ruhu, 2002)』, 『해타이의 고향(Xətai yurdu, 2003)』, 『영원한 사랑(Əbədi sevdə, 2012)』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또한 사비르 뤼스탐한르는 『하느님(Göy tanrı, 2005)』, 『디파이 순교자들(디파이: 아르메니아 테러당과 싸우기 위해 1906년 개재에 창설된 무장단체. Difai fədailəri, 2010)』, 『쓰나미(Sunami, 2011)』, 『죽음의 절정(Ölüm zirvəsi, 2013)』, 『시인과 시(Şair və şər, 2015)』, 『아카데미의 마지막 작품들(Akademikin son əsəri, 2017)』 등 현대 역사소설들을 출간했다. 사비르 뤼스탐한르는 1989년 『인생의 책(Ömür kitabı, 1989)』으로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에서 아훈도브(Ahundov) 문학상을 수상했다. 1996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이 그에게 ‘영광 훈장’을 수여하려 했으나 거부했다. 그가 상을 받은 것은 2021년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비르 뤼스탐한르, 사비르 루스탐한르

●다국어 표기 Sabir Rüstəmhanlı(튀르키예어), Сабир Рустамханлы(러시아어), Sabir Rüstəmhanlı(투르크멘어), Сабир Рөстәмханли(타타르어), Сабыр Рустамханли(카자흐어), Сабир Рустамханли(키르기스어), يرستمخانل صابر(페르시아어), Sabir Rüstəmhanlı(아제르바이잔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1.img.sputnik.az/img/41186/09/411860944_0:0:1200:676_1280x0_80_0_0_e03cb4d5940e03f20b1f2acb424c6e0d.jpg.webp

●참고문헌(오프라인) Adıgüzel Hüseyin, *Sabir Rüstəmhanlı: Edebi Ve Plitik Şahsiyeti*, İstanbul: Bayrak yayınları, 2003.

Beşirov Sabir, *Sabir Rüstəmhanlı: Sərhədsiz Ruhumuzun Yolçusu*, Bakı: Qanun nəşriyyatı, 2006.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Səfərli Elşad, *Sabir Rüstəmhanlının Fərdi Yaradıcılıq Üslubu*, Bakı: Qanun nəşriyyatı, 2003.

Şərəfəxanlı Nəsimi, *Sabir Rüstəmhanlı Poetizmi*, Bakı: Adilolu nəşriyyatı, 2003.

Ulusel Rahid, *Sabir Rüstəmhanlı: Sözüün Dağ Paytaxtı*, Bakı: Qanun nəşriyyatı, 2017.

Yusifli Cavanşir, *Sabir Rüstəmhanlı: Yaddaşın Poetikası*, Bakı: Qanun nəşriyyatı, 2006..

I D021 | 사비르 애흐매드리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abir Ahmedli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작가이자 출판인인 사비르 애흐매드리(Sabir Əhmədli)는 1930년에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Dağlıq Qarabağ) 지역의 소도시 재브라이일(Cəbrayıl rayonu)에서 태어났다. 1951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를 졸업했다. 그후 그는 1951년~1954년에 재브라이일(Cəbrayıl)에서 교사로 일했고, 1955년~1956년에는 쉬쿠르베일리(Şükürbəyli) 마을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이후 바쿠로 올라온 작가는 <문학과 예술(Ədəbiyyat və incəsənət)> 신문사에서 1956년부터 1993년까지 산문부서장을 역임했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해당 신문사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1955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의 회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2009년 바쿠에서 사망했고 비내개디(Binəqədi) 묘지에 묻혔다.

그는 1951년에 문예지 <개척자(Pioneer)>에 기고한 단편소설 「우편집배원(Poçtalyon)」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1961년에 『어느 가을 밤』이란 제목의 첫 작품집이 출판됐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시대에 맞는 윤리관과 ‘사회상’(社會像)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 잘 알려진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란(Aran, 1962)』, 『비탈길 표시(Yamacda nişanə, 1973)』, 『초록극장(Yaşıl teatr, 1978)』, 『토가나(Toğana, 1981)』, 『야사말 호수에서 보트들이 헤엄치고 있었다(Yasamal gölündə qayıqlar üzürdü, 1984)』, 『떠나간 사람들의 귀환(Gedənlərin qayıtmağı, 1985)』, 『세계의 아르쉰(Dünyanın arşını, 1985)』, 『공중(Kütlə, 1999)』, 『저 세상의 사랑(Axirət sevdası, 2003)』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저자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들은 소비에트 정권 시절 아제르바이잔 사회에 만연했던 사회적 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폭넓게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저널리즘적인 문체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비르 아흐메들리

●다국어 표기 Sabir Ahmedli(영어), Сабир Ахмедли(러시아어), Sabir Əhmədl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Mədətov Fərhad, *Sabir Əhmədlinin romanları*, Bakı Universiteti nəşriyyatı, Bakı, 998.

Mədətov Fərhad, *Sabir Əhmədlinin yaradıcılığında dissident motivlər və müstəqillik*, Bakı, 2017.

I D022 | 사비트 무카노프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abit Mukanov

사비트 무카노프(1900년~1973년)는 1900년 북카자흐스탄주 타우자르에서 출생하여 1973년 알마티에서 작고할 때까지 소비에트 시기에 활동한 시인이자 작가이며 사회활동가이다. 무카노프의 집안은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거치는 동안, 무카노프는 새로운 사회의 실현에 관심을 두어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때 나온 소설이 바로 『바이의 아들(1928)』, 『순수한 사랑(1931)』 등이다.

무카노프는 문학사와 문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앞선 시대의 카자흐 문인이었던 세이폴린, 아우에조프 자로코프 등의 작품을 연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쇼칸 발리하노프와 아바이 쿠난바울르 등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하여 당대 카자흐인의 생활상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1936년부터 1년간 무카



사비트 무카노프 탄생 100주년 기념 주화
Source: <https://en.numista.com/catalogue/photos/kazakhstan/>

노프는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의 회장을 맡았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는 카자흐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여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독일과의 전쟁 기간에는 소련 공산당지 <프라브다>의 종군기자 생활을 했고 1943년부터 1952년까지는 작가동맹의 회장을 다시 맡았다. 이후 1973년까지 작가동맹의 임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저작 『민족 유산』은 카자흐인의 민속문화와 전통, 일반 생활 등을 연구한 민족학 연구서인데 1974년에 발간되어 유작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무카노프는 단지 문학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카자흐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연구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은 46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 다국어 표기 Сәбит Мұқанұлы Мұқанов(카자흐어), Сабит Муқанович Муқан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문학가, 카자흐 작가동맹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numista.com/catalogue/photos/kazakhstan/5f4e4f6b5c6f16.12765717-original.jpg>
<https://www.youtube.com/watch?v=yDEHvC9xBn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debiportal.kz/ru/authors/view/56>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6, Алматы, 2006.

I D023 | 사산 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Sassanian Dynasty

사산 조를 세운 아르다시르 1세는 오늘날 이란 남서부 파르스(Fars) 지방에 있던 이스타크르(Istakh, 고대의 페르세폴리스)의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인 사산(Sāsān)의 손자이자, 이 파르스 지방의 실권자였던 파파크(Papag 혹은 Papak)의 아들이다. 왕조의 명칭은 아르다시르 1세의 조부(祖父) 이름인 사산(Sāsān)에서 유래한다. 이 왕조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를 계승하고, 그 중세적 재흥(再興)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사산 조 페르시아로 불렸다. 그의 아



아르다시르 1세
Source: <https://www.worldhistory.org/>

들 샤푸르 1세는 사산 조의 영역을 더욱 넓혔다. 여러 번 로마군과 싸워 로마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재위: 238년~244년)를 전사시켰고, 황제 발레리아누스(재위: 253년~260년)를 포로로 잡을 정도로 샤푸르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래서 그는 ‘이란족과 비(非)이란족의 왕 중 왕’이란 칭호를 사용했으며, 이 칭호는 사산 왕조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사산 왕조의 영역은 파르티아 때보다 훨씬 광대했는데, 이것은 그 행정력이 효율적이었고 군사력이 막강했음을 뜻한다. 중앙아시아 쪽의 동북부 국경 지역에서 아르다시르 1세와 샤푸르 1세는 쿠산 왕조의 서부 지역을 정복했다. 이후 사산 왕조의 외교 정책은 변방의 방어와 영토 확장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절대신 아후라 마즈다와 이란의 전통적인 신들의 결합이 파르티아 시대에



아르다시르 1세가 지은 사산 왕조 궁전(피루즈 아바드, 이란)

이루어졌는데 사산 조 때는 불과 빛의 숭배 의식과 아후라 마즈다에 대한 경배의식이 강조되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사산 조 시대에 체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다. 최고 사제는 종교관할권뿐만 아니라 후대에 왕위 계승자의 선정과 국사(國事)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선과 악, 즉 아후라 마즈다와 아리만의 대결에서 선한 신령과 천사는 모두 전지전능한 아후라 마즈다의 지휘를 받았다. 여기에 사산 왕조의 근거지인 파르스 지역의 관행도 종교 의례 속에 상당히 스며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신 미트라도 조로아스터교와 결합된 것이다.

동로마 제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사산 왕조의 세력은 쇠퇴했고, 이슬람화 된 신흥 아랍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페르시아군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있었던 네하벤드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야즈데게르드 3세도 651년에 메르브 근처에서 암살되었다. 이로써 이슬람 이전의 이란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사산 조는 이란 고전 미술을 완성시켰는데 비잔틴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및 중앙아시아 지역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산 제국, 사산 왕조, 사산국

●다국어 표기 ساسانیان (페르시아어), Sasaniler imperiyası (아제르바이잔어), Sosoniylar davlati (우즈베크어), Сасани әулеті (카자흐어), Sasani İmparatorluğu (튀르키예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worldhistory.org/uploads/images/11783.jpg?v=1685804523>
<https://www.youtube.com/watch?v=CnmKqw4QxoA>

●참고문헌(온라인) Daryaei, Touraj, Sasanian Persia: The Rise and Fall of an Empire. I.B.Tauris, 2008.
Howard-Johnston, J.D., East Rome, Sasanian Persia and the End of Antiquity: Historiographical and Historical Studies, Ashgate Publishing, Ltd., 2006.
Shahbazi, A. Shapur, "Sasanian dynasty". Encyclopaedia Iranica, Online Edition, 2005.
Taagepera, Rein, "Size and Duration of Empires: Growth-Decline Curves, 600 B.C. to 600 A.D.". Social Science History. 3 (3/4), 1979.

I D024 | 사스 토이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례 ●유형 소분류2 축제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라틴 문자 Sas toy

민속학에서 출생, 출산, 결혼 그리고 죽음은 4대 덕목으로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사스 토이는 하카스어로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sas'와 결혼/명절을 의미하는 'toy'의 합성어로, 이 행사는 결혼 전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다양한 의식들 중 하나이다.

하카스 여성들은 머리 모양에 결혼 여부와 사회적 지위 등을 반영한다. 전통에 의하면 하카스 미혼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머리를 여러 갈래로 땅아 길게 늘어뜨리는데, 이 가늘고 길게 땅은 머리를 '쉬르메스(sürmes)'라 부른다. 쉬르메스를 땅는 데는 대략 한 시간 정도가 걸린다. 기혼 여성의 경우 머리를 두 가닥을 나누어 땅으며, 하카스인들은 이 두 가닥의 머리를 '톨

룬(Tulun)’이라고 부른다. 여성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자신의 여러 갈래의 머리카락을 풀고 스스로 다시 두 갈래의 머리로 땋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 사스 토이라는 의식을 통해 여성의 오빠, 누나 혹은 숙부가 여성의 땋은 머리를 풀고 두 갈래로 머리를 땋아 준다.

이때 미혼 시절의 땋은 머리를 풀어주는 사람을 파즈르்த한 이체(pazırthan iče)라 부르며, 파즈르்த한 이체는 사스 토이 전체 의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하카스인들의 이러한 결혼 전통은 구전 문화의 산물인 그들의 서사시에서도 드러나있다. 한 오르바(Han Orba)라는 하카스인들의 영웅 서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전해진다.

‘빛을 든 능숙하게 숙련된 여성들/그들은 빛을 장식한다/아이 아르그(사람이름)의 아름다운 머리카락/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낸다/그들은 60개의 땋은 머리를/두 개의 갈래 머리로 만든다/그들은 50개의 땋은 머리를/두 개의 갈래머리로 만든다. 사스 토이가 끝나면 그들은 큰 테이블을 차린다.’

검은 까마귀(Kara Kuzgun)이라는 하카스 영웅 서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전해진다.

‘황금 빛을 든 여성/아름다운 알튼 사스(소녀의 이름)/허리까지 오는 60개의 땋은 머리를/두 개의 머리로 땋는다/허리까지 오는 2개의 갈래머리가 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스 투이

●다국어 표기 Sas toy(하카스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ifeRcLTokc>

●참고문헌(오프라인) Акташ, Э. “‘Sas Toy’ Bir Karşıtlama Örneği Sayılabilir Mi?” *Научное обозрение Саяно-Алтая* 4/ 20. 2017, 68~74.

I D025 | 사슴 신앙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동물
●집필자 양민지 ●라틴 문자 Deer Totem

사슴은 유목 민족에게는 고대부터 신성시 여겨진 동물로서 태양 상징 혹은 천신의 대리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사슴은 늑대 토렘과 함께 투르크 신화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진다. 중국의 북사, 주서, 수서 등에는 투르크족의 조상이 잿빛이리(혹은 늑대)로 묘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투르크 설화에서는 투르크족이 하늘, 나무, 늑대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 이에 반하여 투르크 민족에서 사슴이 성스러운 동물로 종종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투르크족이 사슴의 후손임을 전하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관련 사료로는 『태평광기』를 들 수 있다.

김효정에 따르면, 송나라 때 편찬된 설화집인 『태평광기』에는 돌궐족의 조상이 인간과 바다 여신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바다 여신은 해가 지면 흰 사슴으로 변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투르크 설화에는 암사슴이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서 암사슴은 여신, 여성 수호령 등의 현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암사슴은 특히 흰 암사슴으로 그려지는데 흰색이 천상의 색을 상징하며 동시에 지혜, 여성을 의미한다. 흰색을 뜻하는 투르크 단어 악(ak)은 특성상 하늘의 색을 닮았다고 하여 투르크 민족에서는 천국, 천신이 거주하는 곳을 상징하기도 했다. 따라서 천상에 좌정한 신들을 악투(Aktu) 즉, ‘하얀(빛의) 이들’로 부르기도 했다. 천상에는 우유처럼 하얀 흰 빛의 (맑은) 호수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인간의 모든 생과 혼이 이 호수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월겐 신은 아들(대리자)에게 명령을 내려 이 썩-악-궤 즉, 우윳빛의 호수에서 영혼을 가져와 태어난 아이에게 불어넣게 했다.

또한 투르크 구전 설화나 투르크 민족에서 사슴은 지상과 천상을 매개하는 동물로 샤먼을 통해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 왔다. 투르크족뿐만 아니라, 투르크족과 인접하여 유목 생활을 해왔던 몽골 유목 민족에게도 사슴은 성스러운 동물로 인식된다. 몽골 유목 민족의 고대 신화에는 자신들의 선조가 늑대라고 언급하며 『몽골비사』 중 몽골 신화에 따르면 늑대와 사슴은 하늘의 명을 받은 성스러운 존재라고 전한다. 하늘의 축복으로 부르트 촌이(푸른 늑대)가 태어났고 늑대는 호아 마랄(사슴)을 아내로 삼았고, 이들의 후손이 몽골



집의 나무 지붕에 걸려 있는 장식용 사슴 두개골

인이라는 것이다. 이후 몽골 유목민들은 늑대와 사슴을 그들의 조상이라 하여 토렘으로 삼았으며, 칭키즈 칸의 조상이 흰 암사슴과 늑대에서 파생했다고 믿었다. 투르크를 비롯하여 몽골 신앙에서는 사슴이 주요 신앙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유목민족의 주 거주지였던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서 하늘로 나는 듯한 사슴 문양을 새겨 놓은 많은 수의 사슴돌이 발견되었다. 이는 사슴(송배) 신앙, 태양 신앙, 천신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샤먼들의 제사 의식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게익 토테미

●다국어 표기 Geyik totemi(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cacı yay, İstanbul, 2001.

김효정, 튀르크 설화 속의 종족기원 모티브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8, pp.1~32.

김효정,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문집, 제26권 제2호, pp.123~146.

다와뎀베렐, 몽골족과 漢族의 신화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I D026 I 사아데트 차아타이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북아시아, 서아시아 ●나라 러시아, 튀르키예 ●유형 언어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학자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aadet İshaki Çağatay

사아데트 차아타이는 1905년 6월 15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타타르 민족운동가이자 작가, 기자 및 정치가였던 아야즈 이샤키(Ayaz İshaki)였다. 그는 1905년 혁명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907년 러시아 북부 아르칸젤스크 근처의 감옥에 투옥되어 사아데트가 8살이 되던 1913년에 석방된다. 이후 그의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를 하게 되지만, 사아데트는 아버지 아야즈 이샤키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적었다.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자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국가의 혼란 상태는 계속되자, 결국 그녀의 할머니의 결인 타타르스탄의 야브쉬르메(Yavşirme)로 돌아오게 된다. 아야즈 이샤키는 사아데트가 카잔의 '마리인스카야 김나지움'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교육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야즈 이샤키는 1917년 2월 혁명 이후 불가 타타르족과 러시아의 다른 튀르크 민족들의 문화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련 당국으로부터 박해와 괴롭힘을 받게 되고, 결국 카잔을 떠나게 된다.

사아데트가 공부하던 마리인스카야 김나지움은 혁명 이후 전형적인 소련 학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21년 대기근으로 인해 결국 사아데트는 그녀의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타슈켄트로 이주했다. 그녀는 핀란드로 망명 해 1922년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다.

카잔을 떠난 아버지의 행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문들이 나돌았지만, 1921년 봄, 그녀의 가

족은 파리에서 온 아버지 아야즈 이샤키의 편지를 받게 된다. 아야즈 이샤키는 사아데트를 파리로 데려오려 했으나, 소련 내에서 반동자였던 아야즈 이샤키의 딸이 자유롭게 외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불가능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는 온갖 수모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밀수자들의 도움을 받아 핀란드로 망명해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 아야즈 이샤키는 사아데트를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이후 그녀는 1927년 베를린대학 투르크학과에 입학한다. 사아데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1933년 빌리 방 카우프(Willy Bang Kaup)의 지도하에 「튀르키예어 명사의 동사화(Denominale Verbbildungen in den Türksprachen)」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 1932년에는 우즈베크 출신 타히르 차아타이와 결혼을 한다. 1939년 9월까지 그녀는 그의 아버지 아야즈 이샤키가 베를린에 설립한 <새로운 민족의 길(Yangi Milli Yul)> 잡지 출판을 도왔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에 전쟁을 선포했을 당시, 아야즈 이샤키는 바르샤바에서 튀르키예로 떠나게 되지만, 사아데트와 그녀의 남편은 1940년이 되어서야 베를린을 떠나 튀르키예로 망명할 수 있었다. 사아데트는 1940년 앙카라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1941년에는 「오스만 투르크어의 동사」를 주제로 부교수 논문을 발표한다.

사아데트가 튀르키예에서 연구 생활을 시작할 초기 무렵 그녀의 모든 연구 성과는 그녀의 아버지 아야즈 이샤키의 명성 아래 평가절하되었다. 1943년 3월 17일 그녀는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에 부교수로 임명되어 지도교수였던 빌리 방 카우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토대로 고대 투르크어, 위구르어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독일어, 튀르키예어, 영어, 타타르어에 능통했던 그녀는 알퐁야룩, 투르크 방언 예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독일의 투르크학자들의 연구들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1952년 4월 7일 사아데트는 레쉬트 라흐메티 아라트, 아흐메트 자페르오을루, 오스만 투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게 된다. 1953년 앙카라대학교 투르크방언학과 교수로 임명된 그녀는 『카자흐어 텍스트』, 『투르크 방언의 예』, 『8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문어』, 『방언과 투르크 방언』 등의 저서를 출간한다. 그녀는 이 기간동안, 제이넵 코르크마즈, 세미흐 테즈잔과 같은 학자들을 양성했다.

1977년 6월 30일 은퇴를 한 타히르 차아타이와 함께, 사아데트는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을 따 'Ayaz Tahir Turkistan Idil-Ural Foundation'을 설립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이 재단에 기부했다. 1989년 6월 9일 간암으로 앙카라 하제테페대학 의과대학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1989년 6월 24일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아데트 차가타이, 사아뎃 차아타이, 싸아데트 차아타이
- 다국어 표기 Чағатай, Саадет Исхаки(러시아어), Səadət İshaki Çağatay(아제르바이잔어), Сəгадət Исхакый-Чағатай(타타르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debiyatvesanatakademisi.com/oyku-tiyatro-deneme-yazarlarimiz/prof-dr-saadet-cagatay-hayati-ve-eserleri/14166>
- 참고문헌(오프라인) Gaynanova, L. "Saadet Çağatay." *Türk Dünyası Dil ve Edebiyat Dergisi*, (28), 2009, 27~32.

I D027 | 사야츠 노래

-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민속음악 ●유형 소분류2 민요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əyaçı sözlər

사야츠 노래(Səyaçı sözlər)는 아제르바이잔 민속음악이며, 노동요(əmək nəğmələri) 중 하나이다. 이 노래는 독특하고 고유한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있다. 'Səya(사야)'는 '그들'이라는 의미이다. 피루딘 베이 쿵채르리(Firudin bəy Köçərli)에 의하면, 'Səya'에는 '지키다'와 '후원'이라는 뜻도 있다.

사야츠 노래는 농부와 목동들의 노동요인데, 가축을 키우는 것과도 관련된다. 특히 양을 치는 과정에서 목동들이 불렀던 노래가 많다. 목동은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과 풍요를 제공해주는 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다. 사야츠 노래는 양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역사와 더불어 시작됐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신화적이며, 역사적 인물들 이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캐래(kərə)', '쿠래(kürə)', '드브르(dıbrı)', '굼랄(qumral)', '새길(səkil)' 등과 같이 고대에 쓰였던 어휘들을 사야츠 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야츠 노래는 때로 형식 면에서 바야트(bayatı)와 같다. 다음은 사야츠 노래의 사례이다.

“복슬복슬 귀여운 양아. 어서 우유를 다오.
 우리 아가가 기다린단다. 작고 귀여운 어린 양들아
 여름에는 목초지에서 쉼을 뜯고 노닐다가
 아란에서 겨울을 나는 작고 귀여운 어린 양들
 우유와 요구르트를 주렴.
 우리의 온 마을을 기쁘게 해 주렴.’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야츠 쇠즐래르
- 다국어 표기 Shayaci sözləri(영어), Sayaçı sözləri(튀르키예어), саячы созлери(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s.333~336.

I D028 | 사안-알타이 투르크연구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연구소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Institute of Sayan–Altai Turkology

사안-알타이 투르크연구소는 1996년 하카스 공화국의 수도인 아바칸에 있는 니콜라이 카타노프 하카스대학에 설립되었다. 하카스대학은 하카스인들이 거주하는 미누신스크 계곡과 그 이남의 가장 중요한 고등 교육 기관 중 하나이다. 사안-알타이 투르크연구소(약칭:ISAT)의 초대 소장은 스테판 울투르가셰프(Stepan Ulturgashev)가 맡았다.

이 연구소에서는 하카스 문헌학, 러시아 문헌학, 민족 및 다문화 교육학 및 심리학과 같은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다. 사안-알타이 투르크연구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저널이 발행된다. 한때 사안-알타이 투르크학 동부 언어연구소로 불렸던 이 연구소는 2012년 ‘사안-알타이 투르크 연구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튀르키예어, 하카스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의 언어 연구와 사회언어학, 인지언어학, 비교역사언어학 및 하카스 문헌학, 러시아 문헌학, 민족학, 다문화 교육학 및 심리학 등을 연구한다.

더불어 하카스 문헌학 및 언어 이론 학자 배출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까지 약 25명의 박사생을 양성했으며, 약 500명에 가까운 하카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교사 및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했다. 오늘날 사얀-알타이 투르크학 및 인문학연구소는 타마라 보르고야코파(Tamara Borgoyakova)가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러시아 및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타이 사얀 투르크연구소

●다국어 표기 Институт саяно-алтайской тюркологии / Institut Sayano-Altayskoj Tyurkologii(러시아어), Institute of Sayan-Altai Turkology(영어), Sayan-Altay Türkolojisi Enstitüsü(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Чебодаева Л.И. “Институт Саяно-Алтайской Тюркологии (ИСАТ)”.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в (с.239). Абак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I D029 | 사우란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auran

사우란은 카자흐 칸국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로, 위치는 남부의 시르다리아 강 주위에 있으며, 투르크스탄에서 북서쪽으로 43km 떨어진 곳에서 크질오르다 주와 접하고 있다. 이 주변에는 옛날부터 남쪽에서부터 사이람, 스킨, 사우란 등 카자흐 칸국의 중심 도시들이 분포되어 있다. 사우란 지역에는 1세기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6세기경에 가서야 촌락이 형성되었고 10세기 아랍 역사가의 문헌에 최초로 언급되었다. 11세기 마흐무드 알-카쉬가리의 저서에서도 표시되어 있다. 이후 몽골 침입 이전까지 촌락이 발전했지만 칭기즈 칸 부대의 공격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다. 이후 사우란은 인접한 새로운 지역에 다시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동서무역을 행하던 상인들에게 카라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14세기 전반기에는 악오르다의 수도로 발전했고 카자흐 칸국의 생성 이후 주요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그러



10세기 고대도시 사우란 유적지(카자흐스탄)

나 사우란은 샤이반 우즈베크족의 침입으로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들의 영토적 경쟁지로 되면서 다시 도시의 파괴가 일어났고 점차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결정적으로는 카자흐인과 준가르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사우란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16세기~17세기에 걸쳐 사우란은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폐허화한 성채만 남게 되었다. 현재 투르크스탄에서 크질오르다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사우란의 성채를 볼 수 있다. 토질과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상태이지만 카자흐인들의 고도로서 그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란
- 다국어 표기 Сауран(카자흐어), Саур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스그낙, 사이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PZIJFp1e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zretsultan.kz/rus/gorodishhe-sauran-hiii-hiv-hviii-w/>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D030 I 사우말릭

-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aumalyq

사우말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해 설날인 나우르즈 시기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부르는 기원의 노래를 의미한다. 옛날 카자흐인들은 나우르즈를 축하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다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사우말릭, 사우말릭,/ 나우르즈 파랑새야/ 벌써 일어났니? 사우말릭, 사우말릭/ 사마르칸드의 신성한 돌을/ 벌써 녹였니?’

마을 여자들은 밀가루를 그릇에 부어 놓으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들은 접시 두 개를 던져 부수는데 그 의미는 모든 불운과 어려움이 접시와 함께 사라져 버리라는 뜻이다.

‘사우말릭, 사우말릭/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왔지?/ 사우말릭, 사우말릭/ 묵은 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왔구나/ 사우말릭, 사우말릭/ 새해를 축하해/ 불행은 묵은 해와 함께 모두 물러가거라!/ 사우말릭, 사우말릭/ 새해 복 많이 받아. 사우말릭/’

사우말릭 전통은 나우르즈 때 행해지는 여러 행사 중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옛날 카자흐인들은 갓 받아낸 우유를 ‘사우말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우말릭, 사우말리크
- 다국어 표기 саумалық, sawmalıq(카자흐어), саумалык(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나우르즈

●참고문헌(온라인) <https://old.elorda.info/kk/news/view/4668-saumalyq-ajtyp-salt-dasturden-korinis-korsetti>

●참고문헌(오프라인) Kalybekova Asm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D031 | 사이다 준누너바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aida Zunnunova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현대 여성작가 중 한 명인 사이다 준누너바(Saida Zunnunova)는 1926년 안디잔(Andijon)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안디잔 교육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졸업 후 안디잔의 초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교사로 일하면서 신문 편집실에서 문학 관련 일을 맡아 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그녀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어문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이후 그녀는 <굴한(Gulxan)> 잡지사, <우즈베키스탄 문화(O'zbekiston madaniyati)> 신문사 그리고 예술문학 출판사 및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에서 근무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젊음이나 조국, 자유 그리고 노동 등을 주제로 하는 『당신의 딸이 썼다(Qizingiz yozdi, 1948)』, 『새로운 시(Yangi she'rlar, 1950)』, 『꽃들의 골짜기(Gullar vodiysi, 1954)』, 『소녀들(Qizlarjon)』, 『1년의 사색(Bir yil o'ylari)』, 『수련(Nilufar, 1972)』 등이 있다.

서정·서사시로는 『서디크와 아노르(Sodiq va Anor, 1947)』, 『나의 이웃집 사람들(Qo'shnilarim, 1968)』 등이 있다. 시 이외에도 산문 장르 작품으로서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우즈베크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굴바허르(Gulbahor, 1958)』, 중편소설 『굴한(Gulxan, 1958)』, 『불(Olov, 1962)』 『사람들 사이에서(Odamlar orasida)』, 『밝은 거리들(Ko'chalar charog'on, 1965)』, 『너에게 탄복한다(Bo'yuringdan o'rgilay, 1972)』 등이 있다.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명예훈장(Hurmat belgisi ordeni)을 받은 사이다



사이다 준누너바 탄생 90주년 전시회(2016년),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Source: <http://old.natlib.uz:8101>

준누너바는 51세가 되던 1977년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다 준누노바
- 다국어 표기 Saida Zunnunova(우즈베크어), Саида Зуннунов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old.natlib.uz:8101/www_data/articles/713233740_109641_804991046853014643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Zunnunov Saida, *Tanlangan asarlar*,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78.

I D032 | 사이드 누르시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인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id Nursi

사이드 누르시는 1878년 비틀리스(Bitlis) 누르스(Nurs) 지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 지방에서 수피로 알려진 미르자(Mirza)이고 어머니는 누리예(Nuriye)이다. 유년기에 형 곁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고, 그후 인근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는 동안 학업 능력이 뛰어나 빠르게 월반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도우바야즈트(Doğubayazıt)에서 셰이크 무함메드 켈라리(Şeyh Muhammed Celâî)의 수업을 들었으며, 1892년 14살의 나이로 수피즘에서 입문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가(icâzet) 받게 된다. 정식 수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이드 누르시는 셰이크 에민 에펜디(Şeyh Emin Efendi)를 사사했고, 시이르트(Siirt)에서 몰라 페툴라 에펜디(Molla Fethullah Efendi)와 교류하게 된다. 비틀리스 주지사인 외메르 파샤(Ömer Paşa)는 누르시를 초대했고, 누르시는 외메르 파샤 곁에서 약 2년간 머물렀다.

1896년에는 완(Van) 주지사인 하산 파샤(Hasan Paşa) 곁에서, 이후에는 새로운 반 주지사인 타히르 파샤(Tâhir Paşa)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 이때 그는 타히르 파샤의 집에서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신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 계기로 사이드 누르시는 마드라사 교육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즉, 종교 교육 이외의 새로운 학문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런 주장을 술탄 압뒴함미드 2세(II. Abdülhamid, 재위: 1876년~1909년)에게 상신하기 위해 이스탄불로 갔다. 누르시는 파티흐 모스크에서 설교를 하며 이스탄불의 학자들을 감탄시켰으나, 대학교(Darülfünun) 설립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나르즈 쉐피크 파샤(Nâzırı Şefik Paşa)는 그에게 많은 월급을 제안하며 비틀리스의 교수로 임명했으나, 그는 교육 정책을 위해 이스탄불에 왔음을 말하며 이를 거절한다. 이 사건으로 그는 구금되었지만 제2 입헌군주제 선언 시기에는 풀려났다. 이 시기에는 연합진보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으나, 후에는 엔베르 파샤(Enver Paşa, 1881년~1922년)와만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유 이념과 입헌주의 사상의 이점에 대해서 <볼칸(Volkan)> 신문에 기고했다. 1909년

5월 1일, '3월 31일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910년 그는 반으로 가서 반의 쿠르드 부족을 만나 당시의 이슬람 문제와 입헌주의, 자유, 폭정, 협의 등의 개념에 대해 계몽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시 학교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이드 누르시

누르시는 메흐메드 5세(V. Mehmed, 재위: 1909년~1918년)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코소바에 새로운 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제1차 발칸 전쟁이 오스만 제국의 패

배로 끝나고 코소바를 잃게 되자, 누르시는 배정 예정인 예산을 자신이 받아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1912년 반 호수 근처에 대학교의 기초가 세워지지만, 겨울철 날씨가 인하여 학교 건설이 중단되었다. 반 주지사였던 타흐신 파샤(Tahsin Paşa)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반 성의 호르호르 마드라사(Horhor Medresesi)를 누르시에게 배정했고, 누르시는 이곳에서 수업을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하여 학교 건립은 다시 좌초되었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민병대를 조직하여 참전하게 되었다. 그는 비틀리스를 비롯한 인근 지역을 수호하려고 했으나, 러시아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으며 2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탈출하여 이스탄불로 돌아온다.

제1차 세계 대전 패배 후 언론은 시민들에게 점령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으며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독립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이슬람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누르시는 이 해석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으로 인하여 누르시는 앙카라에 초대되었고, 앙카라에서 독립 전쟁 승리를 위해 민중의 종교적 감정을 흔드는 연설을 하게 된다.

1923년 누르시는 반으로 돌아와 종교 활동과 학술 활동, 교육 활동에 매진한다. 그는 학문과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년 후 셰이크 사이드 반란(Şeyh Said isyanı)이 일어나게 되고, 누르시 역시 이스탄불로 끌려갔다가 1925년 바르두르(Bardur)로 유배된다. 이곳에서 『광명의 서(Risâle-i Nûr)』를 저술한다. 작품 집필 이외에 유배지에서

도 학생들을 교육한다.

결국, 1926년 이스파르타(Isparta)로 옮기게 되고, 1935년 체포되어 100명 이상의 제자들과 함께 에스키셰히르(Eskişehir) 교도소에 수감된다. 죄명은 비밀결사, 체제 반대, 공화국 기본 질서 파괴 미수, 세속주의 반대 등이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했지만, 카스타모누(Kastamonu)로 유배되었다.

1943년 경찰의 불시 수색에서 발견된 책이 불법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이번에는 데니즐리(Denizli)로 보내졌다. 데니즐리에서 그는 126명의 그의 학생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의 저술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종단 및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고, 그의 저술은 신앙과 코란과 관련된 주제였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1944년 아피온(Afyon)으로 추방되었으며, 아피온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1950년 민주당(Demokrat Parti)이 정권을 잡게 되자 누르시는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시기에 대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려 애썼다. 1952년 그의 작품 중 『청춘 안내서(Gençlik Rehberi)』가 출간되었는데, 그의 작품 중 최초의 라틴 문자 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세속주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말년까지 대학생들을 만나 이슬람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고령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졌고 1960년 3월 23일 우르파(Urfa)에서 사망했다.

그의 작품과 활동은 주목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 서서히 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누르시는 그의 작품을 통해 유물론이나 실증주의 같은 사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코란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저서 『광명의 서(Risâle-i Nûr)』를 바탕으로 ‘누르 제마아티(Nur Cemaati)’가 조직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드 놀시

●다국어 표기 Said Nursî(튀르키예어), Seid Nurs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제1차 세계 대전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5/Said_Nursi_1956.jpg

●참고문헌(오프라인) Açıkgenç, Alparslan. “SAİD NURS”,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5, Ankara: TDV, 1992, pp.565~572.

Turan, Ahmet. “Said-i Nursi ve Nurculuk”, Ondokuz Mayıs Üniversitesi İlahiyat Fakültesi Dergisi, sy. 10, Samsun, 1998, pp.15~24..

Vahide, Sukran. Ibrahim M. Abu-Rabi, Islam In Modern Turkey: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Bediuzzaman Said Nursi, NewYork;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2005.

I D033 I 사이드 아미르 쿨랄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인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yyid Amir Kulol

사이드 아미르 쿨랄(Sayyid Amir Kulol)은 콰자간(Khwājagān, 우즈베크어:Khojagon)-낙쉬반디 타리카트의 15번째 셰이크이며, 부하라의 7명 피르(pir) 중 6번째 피르이다. 또한, 바허웃딘 낙쉬반트(Bahouddin Naqshband, 1318년~1389년)의 영적 지도자인 호자 무함마드 버버이 사머시이(Xoja Muhammad Boboyi Samosiy, 1259년~1354년)의 제자이다. 본명은 아미르 칼런(Amir Kalon)이지만, 도예(우즈베크어:kulolchiliq/쿨랄칠릭)업에 종사했기에 사람들이 그를 ‘쿨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미르 쿨랄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이기에 사이드(Sayyid)라는 경칭이 붙는다.

쿨랄은 1281년 커건(Kogon) 지역의 수허르(Sukhor/현 Yangihayot) 마을에서 도예가 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야사비 분파의 유명한 수도승인 사이드 어타(Sayyid Ota)의 친구였고, 사이드 어타는 그의 친구가 위대한 인물이 될 아이를 얻을 것을 예언했다고 하며, 또한 ‘칼런’이라는 이름 역시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쿠라쉬(Krash: 우즈베크 전통 레슬링)로 단련된 근육질 몸매였다고 한다. 그가 15살 되던 해에 쿠라쉬 시합에서 영적 스승인 무함마드 버버이 사머시이를 만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된다. 그 후 20년 동안 스승을 섬기게 된다. 이후 쿨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사머시이의 네 번째 후계자가 되었을 때, 사머시이는 그에게 낙쉬반디 교육을 맡긴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쿨렬은 티무르(Timur, 1370년~1405년)가 만난 첫 번째 피르였으며, 쿨렬은 티무르를 제자로 인정했다. 그 외에도 그는 마블러너 어리프 데그러니이가(Mavlono Orif Deggaroniy), 호자 자말 데가이(Xoja Jamol Deg'ay), 호자 다르주니이(Xoja Darzuniy), 샴수딘 쿨렬(Shamsuddin Kulol), 마블러너 자말릿딘 케쉬이(Mavlono Jamoliddin Keshiy), 셰이크 옷거르(Shayh Yodgor) 등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아미르 쿨렬은 그 중 마마블러너 아리프 데그가러니이와 바허웃딘 낙쉬반트가 특히 뛰어난 제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쿨렬의 사망 후 낙쉬반디가 뒤를 이어 7번째 피르가 된다.

쿨렬에게는 아미르 부르헌(Amir Burhon), 아미르 셔흐(Amir Shoh), 아미르 함자(Amir Hamza), 아미르 우마르(Amir Umar)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 아미르 쿨렬은 아들들의 교육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다. 아미르 부르헌의 교육은 바허웃딘 낙쉬반트가, 아미르 셔흐의 교육을 셰이크 옷거르가, 아미르 함자의 교육을 마블러너 어리프 데가러니이가 그리고 아미르 우마르의 교육을 마블러너 자말릿딘 데호시여비이(Mavlono Jamoliddin Dexosiyobiy)가 맡았다.

사이드 아미르 쿨렬은 1370년 11월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미르 쿨렬의 무덤은 부하라의 커건(Kogon) 지역에 있다. 그곳에 영묘, 모스크, 미너렛, 작은 연못 및 거대한 정원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기념 단지로 조성됐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된 후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뿐 만 아니라 해외 무슬림에게도 인기 있는 순례지가 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드 아미르 쿨룰

●다국어 표기 Sayyid Amir Kulol(우즈베크어), Seyyid Emir Külâl(튀르키예어), Seyid Əmir Kulal(아제르바이잔어), Əmir Қўлал(카자흐어), Сайид Амир Кулал(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바허웃딘 낙쉬반트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K3dr30uHIs>

●참고문헌(온라인) natlib.uz

●참고문헌(오프라인) S. S.Buxoriy, 『Bahouddin Naqshband yoki Yetti pir』, Yozuvchi, 1993.

X.Hasanov, 『Hazrat Sayyid Amir Kulol』, risola, Buxoro, 1998.

S.Sayfullloh, 『Yetti pir: Dunyo murshidlari』, Toshkentn, O'zbekiston, 2019.

K. Rahimov, 『Sayyid Amir Kulol』, “Moziydan sado” 2, “Silver Star Print “ MChJ, 2019.

I D034 I 사이람

-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ayram

사이람은 3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카자흐스탄 남부의 고도로서 심켄트 동쪽 외곽에 있다. 지리적으로 사이람은 농경 지대와 초원 지대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과 정착민의 분쟁이 있던 지대였다. 역사적으로도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 그리고 칼묵인(중가르인)들의 갈등이 잦았다.

작은 도시 사이람은 1999년에 도시 창건 3,000주년 행사가 거행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곳이며, 기원전 10세기경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러시아풍의 건물이 없는 전형적인 옛 주거지로서 전체적으로 2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과 흙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이 도시는 바로 중앙아시아 수피 이슬람 야사위 종단의 창시자 아흐메드 야사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현재 그의 부모의 묘가 있고 이슬람 사원도 다수이다. 사이람의 옛 명칭은 이스피잡(Isfjab)이다. 페르시아어 또는 아랍어 문헌 속에 그렇게 표기돼 있고, 몽골 침입 이전까지도 그렇게 불렸다. 많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이람은 조로아



사이람의 유적

<https://silkroadresearch.files.wordpress.com/>



심켄트(카자흐스탄)

스터교의 성전인 『아베스타』에도 언급될 만큼 오래된 도시이다.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기 전에는 투르크인들의 무대였으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앙도 전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세기~8세기에 중앙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슬람 세력이 팽창하면서 사이람 지역은 대개 북부 경계선의 도시로 남았다. 이후 페르시아계 왕조인 사만 조의 영역으로 편입된 사이람은 이후 카라한 조의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사이람은 동쪽의 탈라스 및 페르가나 지역과 연결되어 카라한 조의 북부 경계를 형성했다. 이후 몽골 칭기즈 칸의 공격을 받은 사이람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티무르 제국 시기에는 그 영토로 귀속되었고 이어서 북쪽으로부터 샤이반 세력이 남하하면서 그들의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이 때문에 우즈베크인과 카자흐인들의 영향권 귀속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어서 코칸드 칸국의 영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영역으로 최종 편입되었고, 20세기 초 중앙아시아 영토 확정 시기에 사이람 지역은 카자흐 공화국의 땅으로 결정되었다.

사이람은 중앙아시아의 문학과 역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도시이지만, 인접한 심켄트에 가려져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현재는 30,000여 명의 인구 중에서 우즈베크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싸이람
- 다국어 표기 Сайрам(카자흐어), Сайра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사우란, 스가낙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ilkroadresearch.files.wordpress.com/2018/09/sayram-1.jpg?w=1000&h=https://www.youtube.com/watch?v=rJ62Xc8LNB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varandej.livejournal.com/627456.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D035 | 사이브 태브리지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시인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aib Tabrizi

사이브 태브리지(Saib Təbrizi)는 1601년에 태브리즈(Təbriz)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 이후 도시 이스파한(İsfahan)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문학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이미 그는 재능있는 지식인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메카와 메디나를 여행했고, 오스만 제국(Osmanlı)의 유명한 시인이자 학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오스만 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문학과 교류했던 것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이스파한으로 돌아왔지만 냉대를 당하자, 그는 1625년 다시 인도로 떠났다. 1630년 투르크-몽골계 왕이었던 자한 샤희(Cahan şah) 궁에서 그는 당시 저명한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매시히(Məsih)를 만났다. 매시히는 아제르바이잔-투르크어로 저술된 『웨르가와 궤샤(Vərqa

və Gülşa』의 저자였다. 매시히와의 만남은 그의 문학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그는 1663년에 고향인 이스파한(İsfahan)으로 귀향했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매쉬해드(Məşhəd), 쿨(Qum), 가즈빈(Qəzvin), 야즈드(Yəzd), 애르다빌(Ərdəbil) 등의 도시를 여행했다.

다시 사이브 태브리지가 이스파한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흐 압바스 2세(II Şah Abbas, 재위: 1642년~1666년)가 그를 자신의 궁으로 초대해 궁중시인들의 수장으로 추대하며 환대했다.

그는 1677년에 이스파한(isfahan)에서 사망해 그곳에 묻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디반문학의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했고,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로 서정적인 가잘(qəzəl)과 송시(qəsidə)를 썼다. 그가 창조한 새로운 시 스타일은 ‘인도 스타일’로 명명된다. 그의 시집인 『칸다하르전(典)(Qəndəharnamə)』은 사흐 압바스 2세(II Şah Abbas)의 아프가니스탄(Əfqanıstan) 침공과 1649년 칸다하르 주 점령을 기리는 내용이었다. 모험적인 여행에 평생을 바친 그는 생의 마지막 10년을 자신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바쳤다. 그는 자신의 시를 주제별로 나누면서 ‘미라틸 자말(Miratül-camal)’과 ‘아라이쉐-니가르(Arayişə-nigar)’로 구분했다. 그가 남긴 시는 약 300,000연(Beyt)인데, 여기서 한 개의 연은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작품은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다양한 문학 연구자들이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명한 체코 학자인 얀 리프카(Yan Ripka)는 사이브에 대해 하피즈 시라지(Hafız Şirazi)와 사디의 뒤를 잇는 뛰어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저명한 학자 크르므스키(Krımski)는 사이브를 17세기 동양 시인들의 스승이라고 평가한다. 베르텔르스(Bertels)는 사이브를 하피즈와 같은 수준으로 여긴다. 유명한 인도 학자인 쉬블리 네마니(Şibli Nemani)는 사이브가 아제르바이잔의 마지막 위대한 시인이었다고 본다.

사이브 태브리지는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이란과 인도에서도 그를 자국의 시인으로 여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입 태브리지, 사입 태브리즈

●다국어 표기 Saib Tebrizi(영어), Saib Tabrizi(튀르키예어), Saib Табризи(러시아어), Saib Təbriz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참고문헌(오프라인) Azeroğlu Balaş, *Saib Təbrizinin sənət dünyası*,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1.

Cəfərov Nizami, *Füzulidən Vaqifə qədər*, Bakı, 1991.

Səfərli Əlyar, Yusifli Xəlil,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Təbrizi Saib,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Öndər nəşriyyatı, 2004.

I D036 | 사이드 아흐마드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aid Ahmad

사이드 아흐마드(Said Ahmad)는 현대 우즈베크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로 사실주의적이면서도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필체로 우즈베크 사회를 조명한다. 그는 1920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1938년~1941년 우즈베키스탄 국립 니자미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기자이자 수필가로 활동했다. <젊은 레닌주의자(Yosh leninchi)>,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주먹(Mushtum)> 및 <동방의 별(Sharq yulduzi)>과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라디오 위원회에서 일한 바 있다.

그의 첫 단편소설 「선물(Tortiq)」은 1940년에 발표됐다. 사이드 아흐마드가 작가로 성장하는데 특히 가푸르 굴롬(Gafur Gulom)과 압둘라 카흐허르(A. Qahhor)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사이드 아흐마드는 1950년에 ‘국민의 적’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스탈린 사망 이후 간신히 무죄로 석방됐다. 1949년에는 시인이자 작가인 사이다 주누너바(Saida Zununova)와 결혼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지속한다.

1950년대에는 사이드 아흐마드의 작품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 출간된 『두루미들(Turnalar)』, 『어머니들(Onajonlar)』, 『봄의 노래(Ko'klam taronalari)』, 『보물(Xazina)』, 『파도(To'lqinlar)』, 『절규(Hayqiriq)』와 같은 작품들에서 그는 커디리이(A. Qodiriy), 굴롬(G. Gulom), 어이벡(Oybek), 카흐허르(A. Qahhor)와 같은 작가들의 계보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사이드 아흐마드
Source: <https://www.ziyouz.uz/>

「사돈들(Quda va qudagaylar)」, 「황새가 날아왔다(Laylak keldi)」, 「박하의 향(Yalpiz hidi)」, 「여성들(Xotinlar)」 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사이드 아흐마드는 우즈베크 민족 고유의 전통과 관습을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했다.

사이드 아흐마드의 작품 세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풍자기법이다. 「랄리 바다흐션(La'li badaxshon)」, 「낮선 사람(Begona)」, 「한카와 탄카(Xanka va Tanka)」, 「내 친구 버버예브(Mening do'stim Boboev)」와 같은 작품들이 특히 그 사례이다.

그가 1964년~1974년에 발표한 '지평선(Ufq) 3부작'이라고 불리는 「사십오일(Qirq besh kun)」, 「이별의 날에(Xijron kunlarida)」, 「지평선의 문턱(Ufq bo'sag'asida)」은 우즈베크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다. 이 작품은 우즈베크인의 근면성, 영웅심, 애환과 투쟁, 인내심과 애국심, 그리고 전후 미개간지 개척 등을 이야기하며 우즈베크인의 긍정적인 자질을 담아냈다.

『고요함(Jimjittlik, 1989)』에서는 1980년대 국영집단농장을 배경으로 우즈베크인들의 노동현실과 고통 그리고 열망을 담아냈다. 평범하고 고요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모순과 헛점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집어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에도 꾸준하고 활발하게 집필을 이어갔다. 『한던 피스타치오(Xandon pista, 1994)』, 『뽀뽀 한 번의 단가(Bir o'pichning bahosi, 1995)』, 『나의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들(Yo'qotganlarim va topganlarim, 1998)』, 『검은 눈의 광인(Qorako'z majnun, 2001)』, 『속눈썹에 남은 새벽(Kiprikda qolgan tong, 2003)』 등을 출간했다.

사이드 아흐마드 예술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그는 많은 훈장과 상을 받았다. 레닌 훈장, 국제친선(Xalqlar do'stligi) 훈장을 받았고, 3부작 『지평선(Ufq)』으로 함자(Hamza) 국가상을 받았다. 또한 그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 칭호를 받았다. 사이드 아흐마드의 작품은 약 2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작가의 「며느리들의 반란(Kelinlar qo'zg'oloni)」은 여러나라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사이드 아흐마드는 2007년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트 아흐마트

●다국어 표기 Said Ahmad(우즈베크어), Саид Ахмад(러시아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ziyouz.uz/ru/images/stories/said_ahmad01.jpg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nasri/said-ahmad/>

●참고문헌(오프라인) Ahmad Said, *Ufq trilogiya*,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76.
Ahmad Said, *Tanlangan asarlar*, Sharq, Toshkent, 2000.

Kattabekov A., *O'zbek sovet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90.

Mirzaye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O'zbekiston, Toshkent, 1993.

Mirzayev Saydulla, *XX asr o'zbek adabiyoti*, Yangi avlod, Toshkent, 2005.

I D037 |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르크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Sait Faik Abasıyanık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르크(Sait Faik Abasıyanık)는 튀르키예의 현대 작가이다. 그의 본명은 메흐메트 사이트인데, 그는 본명보다는 필명을 더 선호했다. 사이트 파이크는 1906년 11월 18일 아다파자르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 1913년 아다파자르에 위치한 학교 중 외국어로 교육하는 레흐베리 테라키(Rehber-i Terakki) 사립 학교로 진학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이트 파이크의 부모님은 목재 무역을 하게 돼 부모님과 떨어져지게 됐고, 그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을 정도였을 뿐, 할머니가 전적으로 그를 맡아 키웠다. 이런 가정환경은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작품에 그 영향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는 독립 전쟁 중이었다. 1921년 아다파자르가 그리스 지배를 받게 되자 사이트 파이크는 친척들과 함께 뒤즈제(Düzce)로 가게 된다. 그 후 뒤즈제에서 볼루(Bolu)로 이사했고, 1922년에는 다시 아다파자르로 돌아왔다. 아다파자르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요한 장소이다. 그 당시 시절에 대한 언급은 특히 『세마베르(Semaver, 차 끓이는 주전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노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자, 1936)』, 『물탱크(Sarnıç, 1939)』, 『샤흐메르단(Şahmerdan, 1940)』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립전쟁 이후 그는 이스탄불로 거처를 옮겨 샤희제데바쉬오(Şahzedebaşı) 지역에 정착했다. 그리고 학업은 이스탄불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어나갔다. 여름에는 부르가자다(Burgazada)에서 별장을 빌려 시간을 보냈다. 사이트 파이크는 농담도 잘하고, 활동적이며 개구진 학생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랍어 선생님 세이트 살리흐(Seyit Salih) 선생님의 방석에 바늘을 꽂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학교에서 쫓겨나 부르사 남자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야 했다.

1928년에 그는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 튀르키예어문학과에 입학했다. 그가 대학에서 기대

했던 자신의 모습은 독서를 하고 시와 단편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문학에 파묻혀 사는 상상을 했었지만 전공 수업을 듣고 난 후,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래도 3년을 꼭 참고 다녀야 했다. 파이크 아버지의 최고의 꿈은 아들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경제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를 스위스 로잔으로 보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의 일상과 경제학 수업은 파이크에게 그다지 잘 맞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프랑스로 떠가기로 결심한다.

사이트 파이크는 프랑스어가 서툴렀다. 그래서 그르노블 대학교(Grenoble Üniversitesi)에 등록하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샹폴리옹 고등학교(Champollien Lisesi)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세계 곳곳에서 그르노블 대학교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는 거기서 지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도시에서 머물렀다. 그곳의 좋은 추억을 사이트 파이크는 자신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그르노블에서 일 년 과정을 끝내고 수료증을 받자 그의 해외 여정은 끝이 난다.

사이트 파이크는 1936년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이스탄불로 돌아온 그는 잠시 할르즈오을루 에르메니 고아원(Halıcioğlu Ermeni Yetim Mektebi)에서 튀르키예어 교사로 지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직장이 필요하기도 했고,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미숙하기도 해서 결국 그는 이 일도 그만두었다. 할 수 없이 아버지 옆에서 목재 다루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오둔파자르에서 곡물(보리, 밀, 렌틸콩, 병아리콩, 흰 강낭콩) 파는 가게를 열었다. 이 일도 잘 해 내지 못한 사이트 파이크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폐기 처분하고 문을 닫았다.

가게 열쇠를 아버지께 반납한 그는 그때부터 창작에 집중했다. 글을 쓰고, 프랑스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을 했다. 1936년에는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첫 번째 책 『세마베르(Samever)』를 출판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글 쓰는 일에 몰두했다.

사이트 파이크는 순탄치 않았던 삶을 알코올에 의존했다.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1945년에 간경변을 진단받는다. 의사의 조언을 새겨들어 부르가자다에서 생활하는 걸 원했던 사이트 파이크는 1948년 이후에는 글을 쓰는 데 속도가 붙어 병마와 싸우면서도 꾸준히 책을 출판했다. 튀르키예 단편소설 장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사이트 파이크는 바닷가 사람들, 어부, 길거리 동물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작가를 꿈꿨던 사이트 파이크의 인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 중 하나는 1953년에 미국 마크 트웨인(Mark Twain) 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더욱 그에게 힘이 됐다.

사이트 파이크는 1954년 5월 11일 이스탄불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신의 전재산을 부모가 없는 고아들 교육을 위해 다뤘쉬사파카 협회(Darüşşafaka Cemiyeti)에 기부하기를 원했다. 사이트 파이크 어머니 마크불레 아바스야늑(Makbule Abasıyanık)은 1954년 11월 8일 그의 유언대로 사이트 파이크가 썼던 모든 작품의 저작권과 자택 그리고 부르가자다 별장을 다뤘쉬사파카 협회에 기부했다. 그때부터 제정된 ‘사이트 파이크 단편소설 상(Sait Faik Hikaye Armağanı)’은 1964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사이트 파이크는 첫작품으로 단번에 ‘거장’ 작가란 명예를 안았다. 그는 때로 기존 튀르키예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 집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움을 추구하기도 했다. 첫 번째 책 『세마베르』를 집필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사이트 파이크는 세계 고전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하는 즐거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누크 기념 우표(1992년)

움에 빠졌다. 번역과 독서는 서로 다른 작업이지만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튀르키예 문학에서 단편소설 장르가 자리 잡고 널리 확산되는 데 그의 노력이 이바지한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이트 파이크는 단편소설뿐만 아니라 시와 장편소설 그리고 신문기사 인터뷰도 게재했고, 이러한 글들에 도시 안에서 '떠도는' 방랑자처럼 존재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그는 2차 세

계 대전과 전쟁 직후에 무너진 사람들의 삶과 자본주의로 이어진 현대화를 도시의 단면으로 그리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튀르키예, 특히 이스탄불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에 포함했다. 그는 작품 속에서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았고 이들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바라보았다. 사이트 파이크가 튀르키예 문학사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섬세하고 애정있게 묘사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자신의 '동네'를 잘 안다는 특징도 중요하다. 그는 거리의 부랑자나 가난한 사람 등 소외된 모든 사람이 마을을 완전히 채워 주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작품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누크
- 다국어 표기 SAİT FAİK ABASIYANI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부르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tr/3/36/Sait_Faik_Abas%C4%B1yan%C4%B1k.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langu Tahir, *Sait Faik İçin*, Yeditepe Yayınları, İstanbul, 1956.
Alptekin Mahmut, *Sait Faik Abasıyanık*,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74.

Faik Sait, *Semaver*, Remzi Kitabevi, İstanbul, 1936.

Faik Sait, *Sarıç*, Çığır Kitabevi, İstanbul, 1939.

Faik Sait, *Şahmerdan*, Çığır Kitabevi, İstanbul, 1940.

Nikmet Nazım, *Yazılar 6 : Konuşmalar*.Yapı Kredi Yayınları, İstanbul, 2002.

Sönmez Sevgül, “Kısa Ama Verimli Bir Yaşam”, *Sait Faik Abasıyanık* (Editör: Yalçın Armağan),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3.

I D038 I 사이푸딘 아지지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정치가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eypidin Azizi

사이푸딘 아지지(1915년 3월 12일 ~ 2003년 11월 24일)는 중화인민공화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초대 위원장이다. 사이푸딘은 타청시 아투스시 출신의 부유한 위구르인 상인의 자제로, 신장에서 학교를 다니다 타슈켄트 볼셰비키 학교에 있는 중앙아시아 정치연구소에서 공부하며 공산주의를 학습했다. 소련에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제2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교육부 장관과 일리반란-국민당 연합 정부의 교육 청장을 역임했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1949년 8월 아흐메드 카시미, 압둘케림 아바소프, 아스학 벡 무노노프, 달릴칸 수글바이예프, 루오지 등 제2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수반과 고위 관료들이 베이징에서 열릴 전국인민대회에 참석하고자 소련의 인도를 받아 알마티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의문의 추락하여 전원 사망하자, 그 뒤를 이은 사이푸딘 아지지가 1949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을 만나 소련 공산당을 탈퇴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독립국의 지위를 잃고 중화 인민공화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편입된다. 중국은 그해 12월 동투르키스탄을 해체하고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병을 승인했다.

중국 공산당은 사이푸딘 아지지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반으로 임명했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CPPCC국가 위원회 부원장을 지냈다. 2003년 그는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푸딘 아지즈, 세이피딘 아지지
- 다국어 표기 سهيپيدىن ئەزىزى (위구르어), 赛福鼎·艾则孜 (중국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8/Seypidin_Azizi.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en.people.cn/200311/25/eng20031125_128954.s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McMillen D. H., *Chinese Communist power and policy in Xinjiang, 1949~1977*.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9.

I D039 | 사이피 사러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Sayfi Saroyi

우즈베크 고전문학의 대표 시인이자 번역가인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는 호라즘 근처 카미쉬리(Qamishli) 마을에서 태어났다. 몽골 침략 시기 태어나 늘 피난처를 찾아 유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는 당대의 훌륭한 예술가로서 시어(詩語)의 신비와 시(詩)의 규칙을 잘 이해했고, 가잘(g'azal), 서사시, 카시다(qasida) 형식으로 창작했다. 생애 말기 이집트에 정착했던 사이피 사러이는 투르크어 연구를 하며 아랍어, 페르시아어-타지크어로 된 작품들을 투르크어로 번역하는 등 번역가로도 활동했다.

1390년부터 1391년까지 시인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는 이집트에서 머무르며 당대 페르시아-타지크 작가 셰이크 사디(Shayx Sa'diy)의 『굴리스탄(Guliston)』을 번역했다. 번역본의 이름은 『투르크의 굴리스탄(Gulistoni bit-turkiy)』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는 1394년 『수하일과 굴두르순(Suhayl va Guldursun)』이라는 서사시를 집필한다. 특히 이 서사시는 독창적인 예술성으로 인하여 우즈베키스탄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들 작품은 현재 네덜란드 라이덴(Leiden) 대학교 도서관과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 소장돼 있다.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 작품 연구는 푸어드 코프룰리저다(Fuod Ko'prulizoda), 히프지 타브피크(Hifzi Tavfiq), 하산 울리(Hasan Uli), 투리 예제프(Turi Yujef), 피트랏(Fitrat), 허디 자리프(Hodi Zarif), 나집(A. Najib), 샤리퍼브(J. Sharipov)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투르크의 굴리스탄(Gulistoni bit-turkiy)』은 1954년 파리둔 나피스 우즈루크(Faridun Nafis Uzluk) 교수에 의해 튀르키예에서 출판되었다.

1968년에는 그의 시집 『굴리스탄의 시(She'rlar Guliston)』가 가푸르 굴림(Gafur Gulom)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973년에 판(Fan) 출판사가 출간한 『16세기 호라즘 회고록(XIV asr Xorazm yodnomalari)』에는 시인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의 『투르크의 굴리스탄(Gulistoni bit-turkiy)』과 동시대 시인들과 함께 했던 무쇼리아(mushoira)들이 수록되어 있다.

사이피 사러이(Sayfi Saroyi)는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페르시아-타지크의 고전 시인인 셰이크 사다이(Shayx Sa'diy)의 도덕적이며, 교육적 견해를 담은 『굴리스탄(Guliston)』을 투르크어(킵차크 방언)로 번역해 우즈베크 및 다른 투르크 민족에게 알리고자 했다. 작품 『투르크의 굴리스탄(Gulistoni bit-turkiy)』은 수세기 동안 많은 투르크 국가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우즈베크 문학과 문학 언어, 우즈베크 산문과 번역 문학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했다.

사이피 사러이는 14세기 후반(1396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피 사로이, 샤피 사로이
- 다국어 표기 Sayfi Saroyi(우즈베크어- 라틴 문자), Сайф-и Сара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가푸르 굴림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sajfi-saroji>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Fozilov E., *14 asr Xorazm yodnomalari*, S. Saroyi, Gulistoni bit turkiy, Fan, Toshketn, 1973.

Mallayev N.,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63.

Qayumov A., *O'zbek adabiyoti bo'stoni, Uch bulbul gulshani*,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86.

Saroyi S., *She'rlar, Guliston*,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68.

I D040 | 사이핏딘 버하르지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yfiddin Boharziy

버하르지이(Sayfiddin Boharziy, 영어 표기: Saif ed-Din al Boharsi)는 1190년 호라산 지역 보하르즈(바라크즈, Boharz/Bahkraz)에서 태어났다. 유년기 초등 교육은 고향에서 받았고, 이슬람 법학과 코란 낭독 및 주석은 헤라트와 니샤푸르에서 배웠다. 버하르지이는 헤라트에서 수피로 입문했고, 쿠브라위야(Kubrawiya) 종단에 들어가기 위해 호라즘 지역으로 떠났다. 버하르지이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나짐 알 딘 쿠브라(Najm al-Din Kubra, 1145년~1221년)에게 인정 받았으며, 일정 단계에 오르자 쿠브라위야 종단을 위한 선교를 위해 부하라로 파견되었다. 부하라에서 40여 년간 머물며 그는 종종 사마르칸트의 셰이크 누르 알 딘 바시르(SheikhNur al-Din Basir)와 친교를 맺었다. 버하르지이는 곧 주변에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주변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몽골 몽케(Möngke Khan, 재위: 1241년~1259년)의 어머니 소르카타니(Sorkaktani, 재위: 1227년~1229년) 대카툰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라 마드라사 건설을 위해 은을 기부하며 건설 책임자에 버하르지이를 임명했다. 소르카타니는 파사바드(Fathabad)에 버하르지이의 텍케를 건설해 주기도 했다. 버하르지이는 이런 자신의 위치를 바탕으로 이슬람을 지지하는 몽골 고위급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며, 킵차크 칸국의 통치자가 될 베르케 칸(Berke, 재위: 1257년~1266년)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으로 인하여



사이피딘 버하르지이 영묘(부하라, 우즈베키스탄)

일부 몽골 인사들과 때때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 납치 및 구금을 당한 적도 있었다.

케르만 조의 쿠트루그 투르칸 카툰(Kutlugh Turkan Khatun, 재위: 1257년~1282년)은 버하르지이의 아들 중 하나가 케르만으로 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그는 아들 부르한 알 딘 아흐마드(Burhan al-Din Ahmad, 연도미상 ~ 1297년)를 케르만으로 보내게 된다. 이에 케르만 조는 그를 위한 텍케를 건설했는데, 이곳은 당시 페르시아 남부와 남동부에서 쿠브라위야 종단 버하르지이계의 확장을 위한 중심지가 된다. 또한 그의 막내아들 마즈하르 알 딘(Mazhar al-Din Mutahhar)은 코니아로 보냈다. 1261년 버하르지이는 파사바드에 있던 텍케에서 사망했고, 그곳에 매장되었다. 그의 작품은 일부만 남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이프 에디 딘 알 보하르시
- 다국어 표기 Saif ed-Din al-Boharsi(영어), Sayfiddin Boharziy(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0/Saif_ed-Din_Bokharzi_mausoleum.jpg/1024px-Saif_ed-Din_Bokharzi_mausoleu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lgar, Hamid, "SAYF AL-DIN BAKHARZI", The Encyclopaedia of Islam (ed. C. E. Bosworth, E. Van Donzel, W. P. Heinrichs And The Late G. Lecomte) VOL. IX SAN-SZE, Leiden: Brill; 1997, pp.110~111.
DeWeese, D. "The eclipse of the Kubraviyah in Central Asia", Iranian Studies, xxi/1~2, 1988, 47~50.

I D041 | 사임 사카오을루

-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언어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aim Sakaoğlu

사임 사카오을루는 1939년 3월 20일, 튀르키예 코니아에서 서예가 메흐메트 사카오을루(1918년~1975년)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중·고교를 모두 코니아에서 졸업한 이후, 1964년에는 이스탄불 대학 튀르키예어문학과와 차파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에는 카슴 파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1965~1967년에는 토카트 가지 오스만 파샤고등학교 및 무역고등학교에서 문학 교사로 근무했으며, 1967년 아타튀르크 대학의 조교로 임명되었다. 「귀위쉬하네 이야기/텍스트 수집 및 분석」의 제목으로 1971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에는 미국 텍사스 기술 대학교에 설립된 튀르키예 구술 내레티브 아카이브(Archive of Turkish Oral Narrative/ ATON)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수업을 청강하며 기록보관소와 도서관 연구를 수행했다. 「튀르키예 아나톨리아반도의 석상 모티프 및 전설의 유형 연구」를 주제로 1977년 부교수로 임명됐다. 1988년에는 「카디릴리 아시옥 할릴 칼라블루트」를 주제로 셀축대학교 예술과학부 정교수로 승진했다. 아타튀르크대학 문학부에서 민속문학 위원장으로 1967년부터 1988년까지 21년간 근무하다가 이후 셀축대학교로 이직하여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셀축대학교의 교육학부 학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셀축대학교

튀르키예 민속 문화 응용 및 연구 센터의 총장을 역임했으며, 1994년부터 셀축대학교 교육학부의 학과장을 맡았다. 학부 이사회 위원으로 두 번 선출되었다. 동시에 그는 1983년부터 2001년 사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학술위원회 위원이었으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이었다. 그는 임기 동안 튀르키예어 저널 편집위원회 편집장, 2001년에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이사, 독일의 학술지 <Demos>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이 되었다. 그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사임 사카올루
Source: <https://www.bilgicik.com>

스탄,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슬라비아, 마케도니아, 북키프로스 공화국 및 미국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 참석했으며, 마케도니아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가 학술 회의에서 발표한 약 50편의 발표문들은 출판되었으며, 투르크 문학 백과사전, 튀르키예 가족 백과사전, 투르크 이슬람 백과사전, 이스탄불 백과사전, 여성 백과사전 등의 집필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귀위쉬하네 이야기들/텍스트 수집과 분석(Gümüşhane Masalları / Metin Toplama ve Tahlil, 1973)」, 『사르 치ček(Sarı Çiçek / Sivashlı Aşık Kul Gazi, 1980)』, 「아나톨리아반도-튀르키예 전설 돌뜨기 모티프 및 전설 유형 연구(Anadolu-Türk Efsanelerinde Taş Kesilme Motifi ve Bu Efsanelerin Tip Katalogu, 1980)」, 『바이부르틀루 지흐니 연대(Bayburtlu Zihni Bibliyografyası, 1990)』, 『아타튀르크 청소년과 문화(Atatürk Gençlik ve Kültür, 1990)』, 『투르크멘 민속 이야기(Türkmen Halk Masalları, 1991)』, 『민속 서지에 관한 수필(Folklor Bibliyografyaları Üzerine Bir Deneme, 1991)』, 『투르크 이야기들과 나스레딘 호자(Türk Fıkraları ve Nasreddin Hoca, 1992)』, 『전설 관련 연구(Efsane Araştırmaları, 1992)』 등이 학술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임 사카올루, 사임 사카오글루
- 다국어 표기 Saim Sakaoglu(영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이스탄불, 나스레딘 호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bilgicik.com/wp-content/uploads/2007/12/prof-dr-saim-sakaoglu-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biyografya.com/biyografi/12166>
- 참고문헌(오프라인) Sakaoglu, Saim., Alptekin, Ali Berat. *Türk Halk Edebiyatı (Ders Notları)*, Konya, 2007, 192~193.

I D042 | 사자르 알-두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기타 ●나라 이집트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라틴 문자 Shajar al-Durr

1249년 6월 5일 이집트는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제 7차 십자군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웠다. 그들은 무슬림군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하여 들이닥쳤던 것이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주인 아유브조의 술탄 알 살리흐는 병상 중이었다. 루이 9세는 지중해 해변 도시 다미에트를 점령하고 만수르를 향하여 진군했다. 위기 속에 술탄 알 살리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병사들을 지휘하여 적을 막아낸다. 이런 육체적 무리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지배자는 죽고, 후계자인 아들 투란 샤는 변방인 시리아 북쪽에 있었다. 이때 술탄 알-살리흐의 두 번째 부인 사자르 알-두르는 왕실과 함께 술탄의 죽음을 비밀에 부치고, 위기를 대처해 나간다. 그녀는 아르메니아계, 바그다드의 압바스 칼리프가 술탄에게 선물로 보낸 노예 출신이었다. 그녀는 국정의 공백을 잘 메꾸어 나가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적을 물리쳤으며, 투란 샤가 안전하게 왕좌에 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한 튀르크에게 백인 노예 병사들인 맘루크들은 전투의 승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투란 샤는 이런 이들을 그의 권좌에 위협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가 시리아의 키파 성에서 데려온 부하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이들을 그 자리에서 추방하거나 체포했다. 또 그는 사자르 알-두르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모두 내놓을 것을 그녀에게 강요했다. 맘루크들은 당연히 이에 반발했다.

자신을 키운 주인과는 유대가 깊지만,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하여 대드는 경향이 있는 맘루크들은 새 술탄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 알-살리흐의 후궁이었던 샤자르 알-두르를 술탄으로 선포했다.

그녀는 국정을 신속히 장악했고, 어렸을 때 죽은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 ‘칼릴의 어머니’라는 뜻의 ‘움므 칼릴’이라고 새긴 옥새를 만들었다. 금요 예배가 술타나(여성 술탄) 움므 칼릴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 술탄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며, 이슬람 시대의 이집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이집트 지배는 80일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는 여성이 국가의 지배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강했으며, 그들의 정신적 종주인 바그다드의 압바스 칼리프가 술탄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통치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녀는 맘루크 아이박과 결혼하고, 그를 술탄으로 선언했다. 몇 년 동안 그 둘의 관계는 큰 분란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박이 다른 젊은 여인을 원하자 이에 분노한 샤자르는 그를 기습 살해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박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은 그녀를 죽였다. 그 과정과 그의 최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아이박을 죽이고, 그녀도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여자 군주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군주가 되었다면 그녀는 위대한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 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세계에서 똑똑했던 그녀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자르 알-두르, 움무 칼릴, 아유브조 술탄 알-살리흐의 부인

●다국어 표기 شجر الدر (아랍어), Şecerüddür(튀르키예어), Şecerəddürr(아제르바이잔어)

●참고문헌(오프라인) 손주영, 송경근, <이집트 역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서울: 2009, pp.274~279.

Ahmad ‘Attiyah Ilah. ‘Al-Qamus al-Islamiyun’, Maktabah al-Nahdah al-Misriyah, al-Qahirah: 1963, V.4, pp.62~63.

Thorau, Peter. « The Lion of Egypt», Longman, London: 1992, pp.51~53.

I D043 | 사즈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나라 이란,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악기
●집필자 김홍중, 오은경 ●라틴 문자 Saz

사즈는 조롱박 형태의 현악기이다. 페르시아어로 사즈(ساز)는 악기를 뜻한다. 이 악기는 캅카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 등의 국가에 널리 보급되었고, 타타르나 바시키르 민족도 사용한다. 음유시인이며 명창으로 알려진 아시옥(Ashik)들이 주로 사용하는 악기이다.

이라니카 사전(Encyclopedia Iranica)에 따르면 사즈의 기원은 캅카스 시르반 지역의 탄부르(Tanbur)이다. 15세기 페르시아 음악가이자 음악 이론가인 압둘가디르 마라키는 탄부르가 테브리즈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사즈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예술평론가 메드준 케리모프(Меджнун Керимов)는 사즈를 고푸즈(гопуз, qopuz)의 현대적 형태로 보았는데, 이 형태는 16세기 이란의 샤흐 이스마일 하타이 시대에 완성되었다.

크기와 형태, 현의 개수, 구조에서 차이가 나는 악기들이 사즈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서양 배를 닮은 조롱박 형태의 몸체와 나무로 된 공명기, 긴 목, 두 겹의 현, 술대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바글라마(bağlama 바글라마)’라는 사즈보다 더 크고 7현을 가진 악기와 ‘주라(cura)’라는 6현의 작은 사즈가 사즈로 불린다. 이란에서는 ‘초구르(čoğor)’가 사즈나 바글라마와 같은 악기인데, 사즈는 일반적인 악기를 지칭한다. 보통 벗나무 껍질로 만든 술대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즈는 솔로로 연주하기도 하고 합주로 연주하기도 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민속 합주단의 구성 악기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글라마, 바글라마, 서즈
- 다국어 표기 ساز(아랍어), Saz(아제르바이잔어), Саз(러시아어), Bağlama(튀르키예어), soz(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바글라마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ogur-the-typical-pyriform-lute-of-the-minstrels-of>



사즈

Sourc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

azerbaijan

●참고문헌(오프라인) Идельбаев М.Х. Авторская изустная поэз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й тюрк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и Хабрау-Йырау//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8-2, 2014, с. 87~90.

Ⅰ D044 Ⅰ 사즈 하와라르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민속음악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e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az havalari

전통적인 소리꾼이며 명창인 아시옥들이 민속 현악기인 사즈(saz)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데, 이때 사즈(Saz)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을 ‘사즈 하와라르(Saz havalari)’라고 부른다. 아시옥 하와라르들은 아제르바이잔 가장 고전적인 아시옥 음악의 기본 토대를 형성한다. ‘아시

음악 하와라르(Aşıq havaları)'는 내용과 이미지의 다양성, 멜로디의 아름다움, 깊은 감정적 분위기, 리듬적 풍요로움, 형태와 구조의 높은 완성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 노래들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역사와 삶, 정서, 인생관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아시옥 하와라르들은 민족 고유의 시형식인 바야트(bayati), 개라이올르(gəraylı), 코쉬마(qoşma) 시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서정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노래들도 있다. '양치기 바야트(Çoban bayati)', '미나 개라이일르(Mina gəraylı)', '태즈니스(Təcnis)', '뒤베йти(Dübeyti)', '바쉬 뤼햄매스(Baş müxəmməs)', '바쉬 디바니(Baş divanı)'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보컬 멜로디의 해석에 따라 아시옥 하와라르들은 아래와 같이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배흐르(배흐르는 '아루즈'라 불리는 운율(Əruz vəznı)과 리듬을 말한다)가 없는 아시옥 하와라르(bəhrsiz aşıq havaları)
- 2) 혼성 아시옥 하와라르(Qovuşuq qşiq havaları)
- 3) 배흐르가 있는 아시옥 하와라르

배흐르가 없는 아시옥 노래들(bəhrsiz aşıq havaları)로 대표적인 작품들은 「야늑 캐래미(Yanıq Kərəmi)」, 「태즈니스(Təcnis)」, 「자른즈(Zarncı)」, 「그의 술탄(Sultanı)」, 「집시(Qaraçı)」, 「수도승(Dərvişi)」 등이 있다. 이 노래들은 가장 고전적이며 철학적 가사를 담은 고전 문학 작품들이다.

배흐르가 없는 아시옥 하와라르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즉흥성(recitative-improvisational)을 가진 노래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정한 악기를 사용하는 노래들이다.

악기(instrumental) 반주가 있는 사즈 하와라르들은 아시옥들이 부르는 전통적인 노래들의 악기 반주 버전이다. 아시옥들이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들도 있다. 투르크인들의 구비 서사시에서 전승되는 영웅인 코로굴르(Koroğlu)와 관련된 춤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르밴디(Dərbəndi), 쟁기(Cəngi), 오브샤르(Ovşarı), 가이타그(Qaytağı), 미스리(Misri), 샤희세베니(Şahsevəni), 투라즈(Turacı), 메헤이이(Mixəyi), 고대 새생기(Qədim şəşəngi), 예덱래매(Yedəkləmə) 등도 역시 춤을 수반한 아시옥 하와라르들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즈 반주곡

●다국어 표기 bağlama muziki(튀르키예어), cungur muzikl(카자흐어), музыка саза(러시아어), soz muzikasi(우즈베크어)

●연관 검색어 사즈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06xguDeHVU>

●참고문헌(오프라인) Anatolluoğlu A., “Qədim el havalanımız: Musiqi folklore”, *Qobustan: Sənət Toplusu*, №4, 2012, S.86~89.

Köçəri İ., “Aşlıq Havalarında Musiqili-Poetik Sintez Problemlərinin Tədqiqi”, *Musiqi Dünyası*, №2/47, 2011, S.54~56.

I D045 I 사지국

●시기 B.C. ~A.D. 10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국가 ●유형 소분류2 왕조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라틴 문자 Sacilər dövləti

사지국(Sacilər dövləti)은 879년~942년에 아제르바이잔에 존재했던 국가로, 압바스조의 약화로 지역 총독이었던 매함매트 이븐 애부 사즈 디브다트(Məhəmməd ibn Əbu Sac Divdad, 재위: 868년~870년)가 건국했다. 영토는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대부분 지역을 비롯하여 이라크와 오늘날의 튀르키예 공화국의 동쪽 지방을 포함했다. 유럽 연구자들은 사지 사람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소그드 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제르바이잔 역사 학자 일부는 투르크 족이라고 말한다. 특히 역사학자 주제(P.K.Juze)는 사지국을 투르크 왕조라고 주장하며, 왕조의 기초를 닦은 매함매트 이븐 애부 사즈 디브다트(Məhəmməd ibn Əbu Sac Divdad)가 중앙아시아 우수르산(Usurşan)의 잔개캣(Cankəkət)에서 태어났고, 그의 공로가 커 압바스 칼리프로부터 아제르바이잔 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다.

893년에 애부 사즈 디브다트는 마라가(Marağa)를 수도로 삼고 대빌(Dəbil)을 점령했다. 912년부터 그는 아랍 제국에 세금 납부를 중단했다.

유시프 이븐 애부 사즈(Yusif ibn, Əbu Sac, 재위: 901년~928년)는 아제르바이잔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차르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는 오늘날의 아르메



유시프 이븐 애부 사즈 디브다드 사즈 주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니아, 조지아의 트빌리시, 카케티 차르국(Kaxeti çarlıqlarını), 그리고 튀르키예의 에르주룸(Erzurum), 카르스(Kars), 완(Van)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했다. 또한, 시르반(Şirvan)을 점령한 사지는 국경을 젠잔(Zəncan)에서 대르밴트(Dərbənd)까지 확장했다. 배르대(Bərdə), 마라가(Marağa), 애르대빌(Ərdəbil)에서 사지의 이름으로 주조된 동전이 발견되었다.

사지는 애부 사즈 디브다트(Əbu Sac Divdad, 재위: 868년~870년), 매함매트 이븐 애부 사즈(Məhəmməd ibn Əbu Sac, 재위: 889년~901년), 유시프 이븐 아부 사즈(Yusif ibn Əbu Sac, 재위: 901년~928년), 뮈플리흐 엘-사지(Müflih əl-Saci, 재위: 929년~935년), 데이샘 이븐 이브라힘(Deysəm ibn İbrahim, 재위: 935년~942년)가 통치했다.

사지조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고 공예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도시와 마을이 잘 정비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지 조, 사지 왕조, 사지드 왕조
- 다국어 표기 Sacilər dövləti(아제르바이잔), Sâcoğulları(튀르키예어), Саджиды(러시아어), Sajid dynasty(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5/Coin_of_Yusuf_ibn_Abi%271-Saj%2C_

[minted_in_Ardabil.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İkinci Cild. Bakı. “Elm”, 2007. 608 Səh.
-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 Qeybullayev Qiyasəddin. Azərbaycan Türklərini Təşəkkül Tarixindən, Bakı, 1994.
- Mahmud İsmayıl. Azərbaycan Xalqının Yaranması. Bakı, 1995.
- Əliyərli Süleyman. Azərbaycan Tarixi. Bakı: Çıraq, 2009, Səh. 209.

I D046 I 사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황영삼 ● 라틴 문자 Saka

기원전 1000년경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부족을 일컫는다.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 내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사카문화라고도 한다. ‘사카’라는 명칭은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처음 기록되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 7권은 페르시아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전쟁에 참가한 민족을 묘사했다. 7권 64장에는 사카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박트리아인은 메디아인과 아주 비슷한 모자를 머리에 쓰고 행군했으나, 갈대로 만든 박트리아산 활과 단창을 들었다. 스키타이(스키타이)족인 사카이(사카)족은 끝이 뾰족하고 뾰뾰한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었고, 고유의 활과 단검 말고도 사가레이스라고 불리는 투부(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었다.’ 페르시아 인들은 스키타이족을 사카이(사카)족이라고 부른다. 고대 페르시아의 비문(기원전 480년)에는 세 그룹의 사카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족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 궁전 벽에서도 발견된다. 헤로도투스가 묘사한 사카족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유적이 카자흐스탄의 이식 고분이다. 황금인간의 무덤으로 알려진 유적에서는 고깔모자를 쓴 남성의 머리 장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칠리티 유적, 베스샤티르 무덤 등으로 사카족의 물질 문화를 알 수 있다.

사카족은 말, 양, 낙타를 사육한 유목민으로 알려졌다. 알타이, 시베리아, 동유럽과 교류한 흔적이 물질 문화로 확인된다. 최근에 사카족이 흉노의 기원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하

●다국어 표기 Сака(러시아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ru.wikipedia.org/wiki/%D0%A1%D0%B0%D0%BA%D0%B8_\(%D0%BF%D0%BB%D0%B5%D0%B.C.%D0%B5%D0%BD%D0%B0\)](https://ru.wikipedia.org/wiki/%D0%A1%D0%B0%D0%BA%D0%B8_(%D0%BF%D0%BB%D0%B5%D0%B.C.%D0%B5%D0%BD%D0%B0))

●참고문헌(오프라인) Литвинский Б. А. Древние кочевники «Крыши мира». М., 1972.

Акишев К. А. Курган Иссык, Искусство саков Казахстана. — М., Искусство, 1978.

강인옥, 「사카 황금문화의 확산과 고대 실크로드의 형성」,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I D047 | 사키즈 위크막 야룩 수트라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불교 ●유형 소분류2 서적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äkiz Yükmäk Yaruk Sūtra

『사키즈 위크막 야룩 수트라(Säkiz Yükmäk Yarkuk Sutra)』는 ‘여덟 개 더미의 빛의 수트라’라는 의미의 서적으로, 총 40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에서 집필된 『불설천지팔양신주경(佛說天地八陽神呪經)』의 위구르어 번역본이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은 인도에서 전해지지 않은 외경으로, 유가행파(瑜伽行派)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서적의 위구르어본은 약 72개의 판본과 낱장이 존재하며, 대영박물관 스타인 컬렉션[British Museum, Or. 8212(104)]에는 두 루마리 전체가 보존된 판본이 존재한다. 본 경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장례식을 치르거나 결혼식 때에도 이 경전을 읽고 이해하길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불행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에서 평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경전은 음양의 여덟 개의 이치 등 도교적인 성격 역시 있다. 위구르어 번역본에서는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당시 불교를 위한 번역어가 충분치 않아 기존 종교 번역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전의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키즈 위크막 야룩 수트라의 존재로 당시 위구르에 불교의 다양한 유파가 존재했다고 추측할



사키즈 위크막 야록 수트라
Source: <https://www.bbaw.de/>

수 있다. 본 번역서는 당대 위구르 불교 문학, 위구르 문학을 비롯하여 당시 위구르어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취급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천지팔양신주경, 세키즈 위크멕 야록 수트라, 세키즈 위크멕
- 다국어 표기 SekizYükmek(튀르키예어), سڪكىن يوكمك(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싱쿠 셸리 투통, 마니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bbaw.de/files-bbaw/_processed_/8/7/csm_Turfanforschung_bearbeitet_ac3de5c4b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Shimin, Geng, “Budist Uyğur Edebiyatı”, Türkler 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1422~1469.
- Rachewiltz, Igor de.; Volker Rybatzki; Chin-fu Hung, Introduction to Altaic Philology, Lieden ; Boston : Brill, 2010.
- Röhrborn, Klaus, “Uyğur Budizminde Şuur Öğretisi”(trans:Hakan Yaman), Türk Dili Araştırmaları Yıllığı – Belleten (63 – 2), 2015, pp.145~156.
- Klimkeit, Hans-J. “Buddhism in Turkish Central Asia”, Numen Vol. 37, Fasc. 1, Jun., 1990, pp.53~69.

I D048 | 사키트 맘매도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화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akit Mammadov



사키트 맘매도브

사키트 굴람 오을루 맘매도브 (Sakit Qulam oğlu Məmmədov)는 1958년 8월 5일에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국민화가이며, 교수이다. 그리고 그는 유네스코 예술원과 로마 현대미술원 그리고 세계 예술아카데미의 회원이다. 유럽 자연과학원의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또 바티칸 헤럴드 아카데미에서 유럽 명예훈장을 받았다.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네프트찰라 (Neftçala)에서 태어난 그는 1978년

에 애짐 애짐자대 미술학교(Əzim Əzimzadə adına Rəssamlıq məktəbini)를 졸업했다. 이어 1987년에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독특한 회화 기법과 창작 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한 그는 민스크, 예르주름, 이스탄불, 모스크바, 스톡홀름, 키예프, 베를린, 시드니,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파리, 바쿠, 서울, 싱가포르, 벨기에, 상하이, 리스본, 런던, 상하이 등 여러 도시에서 수차례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작품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로마,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의 권위 있는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훈장과 메달 그리고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주로 오팔리즘 회화 스타일(opalizm üslubu)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오팔리즘 스타일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팔주의(Opalizm)라는 말의 어원은 보석 오팔(opal daşı)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오팔’은 ‘반짝반짝 빛나는’, 라틴어로 ‘빛나는’ 그리고 산스



「나도 거기에 있다(Mən də ordayam)」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크리트어로는 ‘보석’이라는 뜻이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오팔에 존재하는 색들이 널리 사용됐다. 자신의 작품에 오팔을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시키면서, 신이 부여한 자연색 외에 새로운 색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가 창시한 오팔리즘 학파는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초상(Roma papası II İohan Pavelin portreti)」, 「광대들(Klounlar)」, 「무대 뒤(Səhnə arxası)」, 「나도 거기에 있다(Mən də ordayam)」, 「점쟁이들(Falabaxanlar)」, 「이스탄불 만세(Yaşasın İstanbul)」, 「결혼식(Toy)」, 「지하철(Metro)」, 「기념 사진(Xatirə şəkli)」, 「레닌그라드의 추억(Leninqrاد xatirələri)」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2년에는 그의 작품들을 모은 『자쿰(CAKUM)』이라는 카탈로그가 출판됐다. 맘매도프의 개인 박물관에는 그의 작품 170점 이상이 전시돼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키투 맘매도브, 사키투 맘매도프

●다국어 표기 Sakit Mamedof(영어), Сакит Мамедов(러시아어), Sakit Mammadov(튀르키예어), Sakit Qulam oğlu Məmmədov(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오팔리즘, 아제르바이잔, 이스탄불, 바쿠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c/ca/Sakit_M%C9%99mm%C9%99dov._M%C9%99n_d%C9%99_ordayam.jpg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artkaspi.az/az/sakit-memmedov-mcuzesi-etibar-ebilov-yazir/#.Xg78K3k8TIU>
<https://www.sakitmammadov.art/>

●참고문헌(오프라인) Ibrahimov Anar, *Rəssam Sakit Məmmədov*, Globeedit, 2020.

I D049 I 사타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정령
●집필자 강덕수 ●라틴 문자 sata

사타는 마법의 돌이다. 이것은 시베리아 원주민들 사이의 정령 신앙 중 하나이다. 야쿠트인들은 이 돌의 도움으로 날씨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이 이 돌을 쳐다보면, 돌이 힘을 잃게 된다. 마법의 돌은 짐승이나 새의 간 또는 위에 들어있다고 믿는다. 모양은 육각형으로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다. 사타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 이 돌은 자작나무 껍질, 말총, 여우나 다람쥐 가죽으로 감싸 두어야 한다. 이 돌에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비, 눈, 바람을 부를 수도 있다. 바람은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의 네 가지로, 네 명의 착한 정령들에 의해 지배된다. 그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들은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악령들이 보내는 것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타, 샷타

●다국어 표기 cara(야쿠트어)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S Books, 2011, pp.59~60.

I D050 I 사타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조직 ●유형 소분류2 부족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hatuo

사타(沙陁) 또는 사타돌궐(沙陀突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서돌궐의 예속된 부족의 일파이다. 사타는 천산 산맥에서 자리잡아 활동했는데, 이들이 사는 곳은 주로 사막 지대였기 때문에 명칭이 여기서 유래했다. 돌궐이 동서로 양분된 후 서돌궐은 지속된 내전과 당태종의 연이은 공격으로 657년 역사에서 사라졌다. 서돌궐이 멸망하자 사타족은 당의 기미부주인 영주로 거처를 옮겨 당에 귀부했다. 이후 사타족은 당태종을 따라 고구려 원정과 설연타 원정에 나서기도 했으며, 설인귀를 따라 철록 토벌전에서도 공을 세웠다. 안사의 난으로 당의 서역 지배권이 토번과 위구르 제국에 넘어가자 정월 연간 사타 역시 당을 버리고 토번에 귀부했다. 당시 서역 일대는 토번과 위구르 제국이 지배권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얼마 후에 위구르 제국이 양주 점령하여 서역 일대가 어수선해지자 토번은 사타의 이반을 미리 예방하고자 이들 거주지를 이주시키고자 모의했다. 808년, 주야진충은 무리 30,000명을 이끌고 다시 당으로 내투했다. 당헌종은 조서를 내려 사타를 영주에 거주시켰고, 음산부를 설치했다. 이후 당나라는 사타를 삭주로 사민했다. 847년, 토번이 회흘과 연합해 당의 하서를 침공하자 사타의 추장 주사적심이 당군과 연합해 토번군을 격파했다. 868년, 방훈의 난이 일어나 농민 세력이 강소성 일대와 산동성 남부, 안휘성 북부까지 미치자 당나라는 사타, 토욕혼 등의 이민족 군대를 편성했다. 주야적심과 아우 주야적충이 반란을 불시에 진압했다. 방훈의 난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주야적심에게 이국창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부친을 따라다녔던 이극용(李克用)은 당말에 일어난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경조를 회복했다. 이후에 중서령에 이르렀고, 진왕으로 책봉되었다. 손자 이존욱은 923년, 후량을 멸망시키고 후당을 세웠다. 오대십국시대에도 사타족 출신인 후진의 석경당, 후한의 유지원 등이 있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타돌궐, 사타족

●다국어 표기 沙陁(중국어), Sart(산스크리트)

●연관 검색어 돌궐, 천산산맥, 서역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 2001.

Barengi, Maddalena. “Representations of Descent: Origin and Migration Stories of the Ninth- and Tenth-Century Turkic Shatuo”, ASIA MAJOR, vol. 32, 2019, pp. 53-86.

Chavannes, Édouard.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cs) occidentaux. Paris: Librairie d’Amérique et d’Orient Adrien-Maisonneuve, 1900. Reprint, Taipei: Cheng Wen Publishing Co., 1969.

Findley, Carter Vaughn, The Turks in Worl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I D051 | 사하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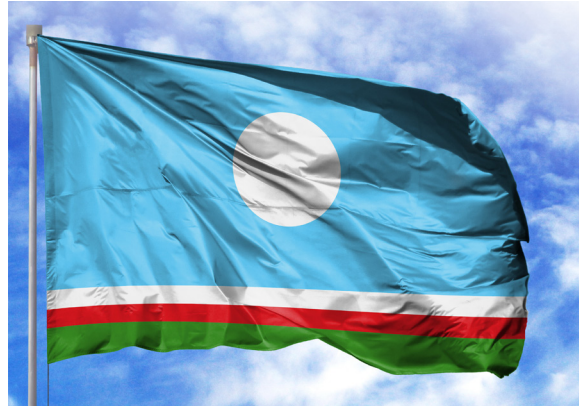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국가
●집필자 김근식 ●라틴 문자 Sakha Republic

사하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큰 면적의 자치공화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 단위이기도 하다. 야쿠티야로 불리기도 한다. 사하 공화국의 면적은 3,083,523km²로 인도(320만 km²)보다 조금 더 작아 국가 단위와 비교하더라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크다. 그러나 그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00만이 채 되지 않는 967,009명이다. 북부 시베리아에 위치하지만 러시아의 극동 연방 관구에 속하며 극동 경제 지역의 구성원 중 하나이다.

사하 공화국의 공식 언어는 사하어(야쿠트어)와 러시아어이지만, 에벤키, 에베니, 돌간, 유카기르스키 언어 등이 공화국 내에서 사용된다. 2010년 기준으로 사하 공화국은 야쿠트인(49.9%) 러시아인(37.8%), 에벤키인(2.2%), 우크라이나인(2.2%), 에벤키인(라무트인1.6%) 등으로 구성된다. 사하 공화국의 수도는 야쿠츠크(Якутск)이다.

북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 공화국은 랍테프 해와 동시베리아 해를 접하고 있으며, 영토의 40%가 북극권에 포함된다. 서쪽과 중부 시베리아에서는 베르호얀스키, 초로스키 산맥이나 얀스키, 오이마콘스키 고원지대가 영토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에는 야노-인디기르스키, 콜립스키 저지대가 위치해 있다. 심한 대륙성 기후이며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8도~50도이며, 7월 평균 기온은 영상 2도~19도이다.

사하 공화국에는 레나 강, 올레네크 강, 야나 강, 인디기르카 강, 콜리마 강과 같이 배가 다니는 거대한 강도 여러 개가 있으며, 수많은 호수가 있다. 영토의 80%가 타이가 지역이다.



사하 공화국 국기

야쿠트인들의 선조는 10세기~15세기 무렵 이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17세기 초반에 러시아인들이 오면서 토이온들이 이끄는 부족 단위로 나뉘어졌다. 러시아의 행정 구역으로는 1638년 처음 야쿠트 군(郡, уезд)이 설치되었고, 1805년 야쿠트 주(州)가 만들어졌다. 야쿠트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Якутская АССР)은 1922년 4월 27일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 되었고, 1990년 9월 27일 야쿠트 사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자치를 공표하고 1991년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이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쿠티아
- 다국어 표기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러시아어), Саха Өрөспүүбүлүкэтэ(사하어), Sakha(영어), Yakutist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야쿠트인,
- 참고문헌(온라인) Якутия(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https://illustrated_dictionary.academic.ru/13882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Россия, гл. ред. С.Л. Кравец, 2004, 867~868.

I D052 | 사힙 아타 영묘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영묘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hip Ata mausoleum



사힙 아타 복합단지(코니아, 튀르키예)

셀주크 시대 제상이었던 사힙 아타 파흐렛딘 알리(Sahib Ata Fahreddin Ali: ?~1277년)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은 영묘로, 현재 튀르키예 코니아의 사힙 아타 하니카흐(Hanikâh: 수피교도들의 모스크와 숙박 공간)와 모스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영묘의 대형 아치의 서쪽 면의 타일로 된 비문에는 1283년에 건설되었다고 적혀 있으며,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명기되지 않았다. 영묘와 연결된 모스크 대문에 적혀 있는 퀴뤼그 빈 압둘라(Kölüg bin Abdullah)가 이 영묘의 건축가였을 가능성도 있다.

영묘의 북쪽 면은 모스크 키블라 방향에 접해 있고, 남쪽 면은 하니카흐와 연결되어 있다. 영묘의 외부는 8.80mx11.00m, 내부는 6.07mx8.75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이다.

영묘의 내부 경우,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넓은 오키 아치로 동-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쪽 부분에는 영묘의 문이 존재하고, 나무로 된 경사 지붕이 있다. 서쪽 부분은 돔으로 덮여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육면체 건물 위의 돔 지붕이 있는 영묘 양식에 속하지만, 돔이 있는 앞부분의 복도에 이완처럼 넓은 아치로 공간을 만든 것은, 전형적인 양식에서 조금 벗어난 형태이다.

사힙 아타 영묘는 특히 돔이 있는 공간, 즉 동편 실에 남은 복도 벽을 벽돌과 타일로 장식했다.

이곳의 식물 문양, 기하학 문양, 그리고 문자로 이루어진 장식을 비롯하여, 정문의 화려한 디자인과 조각으로 구멍을 내는 기법으로 만든 창문, 도금된 타일로 장식된 관 등은 아나톨리아 셀주크 시대의 타일 장식의 정점을 보여준다.

내부에는 관이 두 줄로 세 개씩 늘어져 있다. 온전히 타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양각 장식으로 비문이 적혀 있는 것은 사힙 아타의 것이다. “사힙 엘 무아잠 파흐렛딘 684년(서기 1285년)에 다뤘 페나(Darül Fena)에서 뮐쿨 베카(Mülkül Beka)로 이주했다. 알라께서 이 무덤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길”이라고 쓰여 있다. 사힙 아타의 실제 죽음이 1289년(M.687년)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비문에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힙 아타 아들들의 관 역시 같은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손실되었다. 두 번째 줄의 모자이크로 구성된 타일로 된 관 중 하나는 1292년 사망한 딸 멜리크(Melik)의 것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히프 아타 영묘, 사힙 아타 무덤, 사힙 아타 박물관

●다국어 표기 Sahip Ata türbesi(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셀주크, 코니아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gokonya.com/other/sahip-ata.jpg>

http://www.sahipatamüzesi.gov.tr/FileUpload/bs674993/File/sahip_ata_turbe.jpg

http://www.mustafacambaz.com/data/media/346/med_mezar_copy.jpg

http://www.mustafacambaz.com/data/media/346/med_mezar_3_copy.jpg

●참고문헌(오프라인) Erdemir, Yaşar. “Sahip Ata Ailesinin Türbesi ve Nadide Çinileri Üzerine”, Selçuklu Medeniyeti Araştırmaları Dergisi Issue 3 – Dec 2018, Konya: Necmettin Erbakan Üniversitesi, 2018, pp.253~303.

Önkal, Hakkı. Anadolu Selçuklu Türbeleri, Ankara: Atatürk Kültür, Dil Ve Tarih Yüksek Kurumu Atatürk Kültürmerkezi Yayını, 1996.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D053 | 산신 숭배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자연
●집필자 양민지 ●라틴 문자 Mountain Cult

산신 숭배는 산신·산령에 바치는 믿음이다. 천신 신앙과 함께 투르크 민속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산 신앙과 산 숭배가 자연 숭배의 시작으로, 중국의 사료를 통해 고대 투르크 문화에서 전통으로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산이 천신이 좌정한 세계인 천상(하늘)과 투르크 부족의 세계 땅 사이에 있고, 이 두 세계 사이의 계단 혹은 다리라고 믿었다. 또한 이 때문에 성산을 두고 세계산 혹은 우주산이라 불렀다. 때에 따라 성산은 성스러운 나무와 대체되기도 했다. 성스러운 우주수 혹은 세계목은 동시에 세계의 중심에 솟아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전통 신앙 중 하나인 산 신앙은 고대 투르크 신앙에서 유래했으며, 천신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스텝 투르크들에게서 널리 나타나는 산 신앙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들과 오늘날 아나톨리아 투르크 문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투르크 신앙 체계는 모계의 전통에 근거하여 여성 수호령들이 있었고, 이후 과도기적인 가부장제 시대에 들어서는 남성 수호령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들 수호령이 좌정했다고 믿어지는 성산에 투르크들은 일정한 시기에 제천 의식을 비롯한 제례를 올리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투르크 전통 신앙에서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연물로 조상령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여겨졌으며, 모든 산에는 수호령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전통적으로 성산(聖山)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산은 투르크 특정 부족의 기원이나 근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유목 투르크족의 고향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렇게 투르크 부족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하늘과 가까운 산으로 연결하고 기원 신화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성산의 위치와 구조를 본떠 우주관과 세계관을 형성했다. 『주서』 돌궐이역전에는 다음과 같이 고대 투르크어 외튀켄 산의 음사인 어도근산이 등장한다. 본 문헌에는 돌궐족의 풍습과 관련하여 ‘비록 옮겨 다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각자가] 나누어 갖고 있는 땅 [地分]이 있었다. 가한은 늘 어도근산(於都斤山)에 머물렀고 아장(牙帳) [의 문]을 동쪽으로 열어 두었는데, 아마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숭상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전한다. 본 기록에 등장하는 어도근산이 투르크인들이 자신들의 성산 혹은 발원지라고 여기는 외튀켄 산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오르한 비문에는 외튀켄 이쉬(ötügen yışh)로 경우에 따라 외튀켄 예르(Ötüken yer 외튀켄 땅/혹은 산이 있는 땅)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목을 했던 문화에서 성산은 본래 기원을 의미하나 이후 비단 산지를 의미하던 것에서 특정 범위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외튀켄이 위치한 곳과 관련하여 많은 학설이 존재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튀켄의 위치는 타미르(Tamir) 강과 오르콘(Orkhon) 강의 발원지인 항가이(Hangai) 산맥 근처 혹은 산맥 봉우리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으 켈튀

●다국어 표기 Dağ kültü(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cı yay, İstanbul, 2001.

I D054 I 산자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이란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주연 ●라틴 문자 Sanjar

셀주크 투르크가 분열되기 전, 대 셀주크 투르크(Great Seljuq Turk, 1040년~1157년)의 영역이었던 이라크와 호라산을 차지한 마지막 군주이다. 1097년부터 1118년까지 호라산의 말리크(총독)이었으며, 1118년부터 1157년까지는 셀주크 투르크 전역의 술탄이었다. 그의 이름 ‘산자르’는 투르크어로 ‘침입하여 찌르는 자’를 의미한다. 그는 1084년(일설에 의하면 1086년) 북이라크 니네베 부근의 신자르라는 도시에서 말릭샤 1세와 그의 첩 사이에서 탄생했다. 갓 10대가 되었을 무렵인 1097년에는 이복 형이자 술탄이었던 베르크-야루크(Berk-yaruk)에 의해 호

라산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호라산은 본래 말릭샤의 형제인 아르슬란 아르군이 발흐를 거점으로 삼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노예에 의해 살해된 후 산자르가 이곳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는 형제들인 베르크-야루크와 무함마드가 차례차례 술탄으로 등극하는 동안 호라산의 말릭이자 술탄의 가신이였다가, 동복형이기도 한 무함마드가 1118년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마흐무드 2세가 후계자로 떠오르자 그를 인정하는 대신 스스로가 술탄이 되고자 했다. 그는 1119년에 호라산에서 거병(擧兵)하여 이라크의 사와라는 도시에서 마흐무드 2세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술탄이 되었으며 조카인 마흐무드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 다만 그의 세력 기반이 여전히 호라산이었으므로, 바그다드로 가는 대신 그의 군 사령관을 바그다드에 파견했다. 1131년에 마흐무드 2세가 사망한 후, 마흐무드의 형제들은 셀주크 투르크의 서쪽 영역에서 서로 갈등을 빚다가 산자르에 의해 임명된 마수드가 서쪽 지역의 군주가 되었고, 산자르는 셀주크 투르크 전역의 술탄이 되었다.

그는 호라산 총독 시절부터 트란스옥시아나를 차지한 카라키타이와 갈등을 빚었다. 카라키타이는 산자르의 부친인 말릭샤 시대에 트란스옥시아나의 칸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후에도 꾸준히 옥세스 강을 넘어 침략하곤 했다. 1102년에 산자르는 카라키타이를 견제하고자 사마르칸트에 카라한 조의 아르슬란 칸 무함마드 2세를 임명하기도 했고, 그에게 자신의 남매인 테르켄 카툰을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2세의 입지는 그리 견고하지 못하여, 산자르는 종종 사마르칸트에서 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진군하기도 했다. 그러나 1132년에 무함마드 2세의 3남, 마흐무드가 산자르의 지지를 받아 등극한 후 마흐무드는 사마르칸트를 보다 견고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1059년에 셀주크 투르크의 호라산 총독 차그리 벡과 가즈나 조의 이브라힘 술탄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 셀주크 투르크와 가즈나조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양쪽 사이의 문화적인 교류도 있었다. 그러나 산자르의 재위 초기에 이브라힘 술탄의 아들 마수드 3세가 1115년에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들 간의 계승 분쟁이 1115년~1117년 사이에 발생하자, 산자르는 이 틈을 타서 아프가니스탄 동부, 산악 민족인 구르인들이 자리하는 산지까지 진출했다. 이때 마수드 3세의 아들들 중에 바흐람 샤가 형제인 아르슬란 샤에게 패배하여 호라산으로 피신했고, 산자르는 군대를 동원하여 바흐람 샤를 가즈나의 술탄으로 등극케 했으며 그는 산자르와 같은 해인 1157년에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가즈나조의 술탄으로 있으면서 산자르의 가신이 되었다. 또한 그는 하산 사바를 계승한 이스마



『집사』에 그려진 산자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일리 수장과 1140년대에 전투를 벌였으나 완전히 그들을 제압하지는 못하고 타협하기도 했다.

한편 산자르는 과거 말릭 샤가 임명했던 호라즘 샤의 복속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호라즘 샤 알라 앓 딘 아트시즈가 1138년에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산자르에 의해 축출되었고 한동안 호라즘은 셀주크 투르크의 왕자와 아타벡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트란스옥시아나로부터 카라키타이의 세력이 확대되자 호라즘인들은 셀주크의 왕자를 내쫓고 아트시즈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자르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카라키타이의 팽창이었다. 1123년 요나라가 멸망한 후 거란의 일부 왕족이 서천(西遷)하여 건국한 카라키타이는 발하쉬 북부에 자리하고 있던 카를룩을 물리치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트란스옥시아나 사마르칸트에 있던 산자르의 가신, 마흐무드 칸을 위협했다. 산자르는 1141년 대군을 이끌고 트란스옥시아나로 향했으나 시르다리아 중류, 우쉬루사나의 카트완 초원에서 카라키타이에게 패배했고, 이때 아트시즈는 카라키타이에게 복속했다. 이후 산자르는 호라산으로 달아났고, 아트시즈는 카라키타이를 부추겨 산자르를 공격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 호라산을 침공하기도 했다. 이에 산자르는 반격하여

아트시즈의 수도 구르간지까지 쳐들어가기도 했다.

산자르와 그의 대 셸주크 투르크가 호라산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 것은 셸주크 내부에서 그의 관료들이 행한 정책 때문이었다. 호라산 및 그 북부의 카스피 해 해안은 많은 투르크멘 부족들이 거주하는 초원 지대였는데, 이들 중에는 카라키타이의 서진에 의해 도미노처럼 밀려들어온 중앙아시아의 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1세기 전에 셸주크 투르크의 성장과 이슬람권 재패를 도왔던 오구즈인들이 있었다. 셸주크 투르크는 그들에게 샤흐나를 파견하여 관리하곤 했는데, 1135년 이후 산자르의 군사 원정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지자, 산자르는 샤흐나를 통해 피지배민들에게서 세금을 과징(過徵)했고, 이에 옥서스 강 상류의 토하리스탄에 위치해 있던 오구즈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산자르는 이들을 진압하러 출병했으나 두 차례 패배한 끝에 메르브로 퇴각했고, 1153년에 메르브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호라산은 오구즈에 의해 철저히 약탈되었다. 이에 산자르의 정권을 지지하던 호라산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등을 돌렸고, 반사회분자들인 아야르들이 이 지역을 더더욱 어지럽혔다. 결국 호라산의 셸주크 군대는 카라한 조의 무함마드 칸을 불러들였으나, 셸주크 아미르들이 니사푸르와 라이에서 각각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무함마드 칸은 호라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한편 포로로 잡힌 산자르는 오구즈 세력에 의해 이리저리 떠돌다가 3년만에 티르미드와 메르브로 탈출했으나, 1157년에 71세의 나이로 메르브에서 사망했다.

그의 조정은 주로 메르브에 있었고, 그의 행정부는 디반알라라 불리었으며 와지르에 의해 통솔되었다. 당대 독일 뮌헨 부근의 도시였던 프라이징의 주교 오토 2세는 자신의 저서, “두 개의 도시(The two cities)”에서 산자르와 카라키타이의 전투에 관해 기록을 남겼다. 그가 이 전투에 주목한 이유는 셸주크 투르크가 약 1세기 전에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군대를 대파하면서 유럽인들에게 십자군 원정의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했는데, 그런 셸주크 투르크가 미지의 비무슬림 세력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144년경 모술의 아미르가 에데사를 점령하여 유럽이 큰 충격에 휩싸였을 때, 이 오토 2세는 산자르의 패배를 보고하면서 카라키타이를 ‘크리스찬 왕인 존’이라 칭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다셀의 레이놀드가 비잔틴의 황제 마누엘 1세에게 위조된 ‘프레스터 존’의 서신을 전달하면서 기정 사실화되었고, 1221년 카라키타이를 차지한 나이만의 쿠출룩은 유럽에서 프레스터 존의 아들, 다비드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유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믿어진 동방의 기독교 왕에 대한 전설의 시발점이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산자르 군주

●다국어 표기 Sanjar(영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2/Ahmad_Sanjar.jpg/1024px-Ahmad_Sanjar.jpg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11~316.

C. E. Bosworth, “Sandjar,” Encyclopaedia of Islam 9, Leiden: Brill, 1997, pp.15~17.

C. E. Bosworth, “The Political and Dynastic History of the Iranian World (A.D. 1000~1217),” In Frye, R. 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ume 5: The Saljuq and Mongol perio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pp.1~202.

Christoph Baumer,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Age of Islam and the Mongols 3, London & NewYork: I. B. Tauris & Co. Ltd, 2016, pp.146~147.

I D055 I 산자르 싯딕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번역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anjar Siddiq

산자르 싯딕(Sanjar Siddiq)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언론인이자 번역가이다. 1937년~1938년 대숙청 시기 희생자 중 한명이다. 본명은 압둘버싯 이스러일전 오글루 시딕커브 산자르(Abdulbosit Isroiljon oglu Siddikov Sanjar)로 1902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1920년 교사가 되었으며, 동시에 신문 <공산주의자(Ishtirokiyun)> 문학부에서 번역가로서 활동했다. 그는 <로스타(RosTA)>와 어린이 잡지의 편집자였다. <붉은 깃발(Qizil bayroq)>과 <투르키스탄(Turkiston)> 신문사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또한, 잡지 <혁명(Inqilob)>의 문학부에서 근무했으며, 말년에는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신문사 부서장이자 잡지 <지표면(Yer Yuzi)>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100여 편이 넘는 비평과 기고문을 작성했다. 그때마다 ‘애서가(Kitobxon)’, ‘한 사람(Bir kishi)’, ‘산자르 나프랏치(Sanjar nafratchi)’, ‘칼타둠(Kaltadum)’, ‘기자(Gazetchi)’와 같은



산자르 싯딕

Source: <https://oyina.uz/storage/articles/>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문학 작품을 번역했다. 로페 데 베가, 니콜라이 포고진, 니콜라이 고골과 같은 극작가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으며, 그가 번역한 작품은 함자 우즈베크 국립아카데미 드라마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희곡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학생들을 위해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및 페르시아어로 된 많은 시와 단편소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랭

스턴 휴즈, 레프 톨스토이, 표트르 파벨렌코, 알렉산드르 푸시킨과 미하일 레르몬토프의 작품들을 다수 번역했다. 번역된 작품 다수는 억압에 대한 반발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 증오와 억압을 다루고 있었으며, 독일어에서 번역한 일부 작품과 기사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요구에 부합했지만, 독자는 번역가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번역 이론에 관한 『문학 번역의 예술(Adabiy tarjima san'ati)』이라는 저서를 집필했다.

그러나 1937년에 잡지 <굴리스턴(Guliston)>에서 사무총장에서 일하고 있던 산자르 싯딕은 ‘반혁명주의’와 ‘인민의 적’ 혐의로 체포되었다. 기소장에는 ‘엔베르 파샤(Enver Paşa)를 영웅화 함’, ‘아프가니스탄 찬양’ 그리고 ‘1928년 타지키스탄 기근에 대한 소련 통치 비난’이라는 죄목이 나열되어 있었다. 산자르 싯딕은 1938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10일 처형됐다. 스탈린 사망 후 1956년 7월 26일, 산자르 싯딕은 소련 대법원에 의해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산자르 시디크, 산자르 시디크
- 다국어 표기 Sanjar Siddiq(우즈베크어), Санжар Сиддик(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oyina.uz/storage/articles/April2022/AswWG4fkqVpe8ysE8QTC.png>
<https://www.youtube.com/watch?v=HIQA49gBaXE>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matbuot/qayta-qurish-davri-matbuoti/sirojiddin-ahmedov-xalqi-uchun-yongan-1990/>

<https://shosh.uz/uz/qatagon-qurbonlari-sanjar-siddiq/>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Hasanov Baxtiyor, *Sanjar Siddiq va uning adabiy merosi, Qatag'on qurbonlari va ularning adabiy-badiiy hamda publitsistik merosi*, Mumtoz so'z, Toshkent, 2015.

I D056 | 산작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행정 단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sancak

산작은 어원으로 보면 튀르키예어로 큰 깃발(바이락보다 크기가 크고 땅이나 기념비나 배에 꽃기에 적절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런 깃발로 상징되는 군 장교에게 위임되는 행정 단위 내지 군사 단위를 의미하기도 했다. 산작이라는 말은 셀주크 시대에도 많이 쓰였고, 셀주크 시대에는 왕권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항상 술탄 칭호와 함께 '술탄의 깃발(Sultanın Sancağı)'라는 형태로 쓰였다고 한다. 셀주크 술탄의 깃발을 내보이며 성채를 공격하는 것은 성채 안에 포위된 자들에게는 약탈을 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보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한동안 산작은 셀주크 술탄만이 독점적으로 쓰는 상징물이었으나 12세기 중엽 모술의 아타벡 사이프 앳딘 알 가지기 아타벡 중에서 최초로 산작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유조의 왕족들도 산작을 흔히 썼음이 확인되고, 룸 셀주크 말기 아나톨리아에서 여러 공국들이 난립했을 때 산작은 새로 군주권을 주장하던 영주들에게 중요한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아식파샤자데에 의하면 룸 셀주크의 술탄 알라엿딘 2세는 오스만 건국 군주인 오스만에게 산작을 하사해 주어, 이로써 오스만이 '산작베이'가 된 것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사실의 정확성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오스만 국가 초창기에 산작이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었음은 확실하다. 오스만 국가 초창기를 다루는 연대기들에서 군사 및 행정 용어로 예니셰히르를 일종의 직할령(bey sancağı)이

라고 하는 것은 주로 14세기 중반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아마도 오스만 공국이 몽골과의 유대 관계가 느슨해진 점, 보다 독립적이 된 점, 정복의 진행에 따라 행정 구조가 발달하게 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작의 의미도 군사적인 것에 더하여 점차 행정 구획의 기본 단위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고로 산작이라는 용어가 초기에는 확실히 군사적인 의미가 강했다. 산작은 오스만 국가의 티마르 시스템 안에서 수조권을 보장하는 디를리크(dirlik: 국가에서 주는 수입)이자 군사 단위, 또한 그 산작에 속하는 군인들이 상주하는 지역 범위를 지칭했으며, 이 결과로 행정 단위의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후반 발칸반도로의 팽창이 신속하게 전개되자 무라드 1세(1362년~1389년)는 산작들을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베일레르베이’ 직을 두기 시작했다. 흔히 오스만 제국 이전의 정치적 경계 및 행정 구획들을 반영한 산작은 경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근대 튀르키예의 서부와 북부 아나톨리아의 현재의 행정 구획들이 여전히 15세기의 산작 구획들과 비슷하다. 산작의 크기는 어렵잡아서 몇 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였고 인구는 평균 100,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적어도 16세기 중엽까지 산작은 군사 지휘 계통이자 지방행정 단위였고, 산작 안에는 산작 베이 휘하에 여러 가지 규모의 티마르(봉토)를 받은 병력들 및 보조부대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산작베이는 자신의 공식적인 하스(has, 아랍어의 khass: 대규모 봉토, 연 수입 100,000약체 이상)의 수입을 통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사적으로 부양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쟁이 있을 때에 산작 베이는 자신이 사적으로 키운 병력과 산작 내부의 티마르 기병을 모두 이끌고 출정하게 되어 있었고, 베일레르베이의 지휘를 받았다. (산작 베이는 대개 자신의 하스 수입을 산작 내부의 주요 도시들로부터 받았으며, 흔히 그의 산작에서 하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는 10여 개의 제아메트(zeamet, 중급 봉토, 연 수입 20,000약체 이상 100,000약체 이하)와 수백 개의 티마르(timar: 소규모 봉토, 연 수입 3000약체 이상 20,000약체 이하)가 포함되었다. 베일레르베이는 또한 그의 베일레르베이릭 주요 지역의 산작베이이기도 했다.

산작의 행정적 역할이 중요했음은 지역 수준의 세속법전(kanunname)이나 토지-인구대장(tahrir)이 산작 단위로 만들어졌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셀림 1세의 정복이 완수되고 아직 헝가리와 동 아나톨리아의 병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1527년의 기록으로는 7개 베일레르베이릭에 97개 산작이 있었고 그에 더해 특수 지위의 쿠르드인 산작이 있었다. 16세기 후반에는 영토 팽창에 따라 기존 산작들을 베일레르베이릭으로 승격시키는 경향이 있어 30여 개 베

일레르베일릭 휘하에 500개 이상의 산작이 있었다. 특히 변방 지역에 많았던, 산작이 몇 개밖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베일레르베일릭의 설치는 민감한 구역에 군사력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산작 베이는 자기 산작의 군대의 지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지방 주둔 기병(시파히)의 가치가 줄어들어 따라 산작베이의 지위 자체도 17세기 이래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 후로는 지방 행정의 권위가 베일레르베이의 손 안에 집중되었으며, 그는 산작베이보다 지방 명사들에게 일상적인 행정 처리를 맡기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16세기 말에 베일레르베일릭을 에알레트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렇게 지위가 하락했음에도 티마르를 보유하는 지방 기병과 산작 베이의 존재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19세기 초에 이르면 베일레르베일릭은 25개, 산작의 수는 약 300개였다고 한다.

1837년 디를릭이 완전히 폐지되고 나서 산작은 단순히 행정 단위가 되었고, 산작의 우두머리인 무타사리프는 민정 관료였다. 산작 구획들은 오스만 제국 말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유지되었으며 1921년 새 공화국 헌법에 의해 산작이라는 용어가 폐지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산자크

●다국어 표기 Sancak(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J. Deny and M. Kunt, «Sandjak»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IX, 1997, pp.11~13.

İlhan Şahin, “Sancak,”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6, 2009, pp.97~99.

I D057 | 산푸라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Sampula Cemetery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호탄 지구(和田地區) 낙포현(洛浦縣)에 위치한다. 무덤 68기, 순마 갯 2기가 발견되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상자 혹은 시상을 만들어서 시신을 안치했다. 무덤은 단인장, 합장이 많고 수백 명 가족이 함께 매장된 경우도 있다.

무덤에서는 100여 기의 미라가 발견됐는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고, 목제, 모직, 복식 등 유기물질도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중원 지역의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동경, 칠기, 비단, 모직물 등이 발견되어서 고대 우전국의 생활 문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2001년에 중국의 전국 중점문화유산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다.

유적에서는 207건의 복식류와 직물이 출토되었는데, 모직물이 80%를 차지한다. 모직물 중에는 모를 압축시켜서 만든 펠트도 포함되어 있다. 의복류 가운데는 모자와 관두의(貫頭衣)가 잘 알려져 있다. 모자는 모직물로 된 것과 펠트로 된 것이 있다. 모직으로 된 것은 정수리 부분이 낮은 것으로 뒤쪽에 트임이 있고 끈을 달아 머리의 크기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것이다. 펠트로 된 것 중에 1점은 정수리 부분이 뾰족하게 처리된 것이 있다.

관두의는 일종의 튜닉이다. 중국 신장성의 산푸라 유적뿐만 아니라 돈황목고굴의 제 45굴, 제 332굴 등 벽화 속의 인물들과 서역 각국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서 실크로드 상의 관두의는 산푸라를 통해서 서역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푸라의 무덤은 호탄 지구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우전국의 사회 전반을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역할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산푸라 무덤군
- 다국어 표기 山普拉(중국어)
- 연관 검색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호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新疆文物考古研究所, 『中國新疆山普拉: 古代

于闐文明的揭示與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2001.

尹良老, 「古代毛織物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I D058 I 살나메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제도 ●유형 소분류2 공문서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alname

살나메(Salname)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주로 오스만 정부가 준비한 공식 연감 혹은 연례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페르시아어로 해를 뜻하는 ‘살’과 책을 뜻하는 ‘나메’를 합성한 것이며, 내용은 보통 유럽식의 편람(핸드북)에 달력과 전통적인 오스만 역사와 관료제 관련 정보를 포함했다.

살나메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인 국가 연감(데올레트 살나메시)은 매년 전 제국을 커버하는 범위로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국가 연감은 1847년에 출판되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 연감은 석판 인쇄로 제작된 소책자였으나 점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보였다. 또한 개별 정부 부처나 군대, 공공기관 등에서도 살나메가 제작되었고, 완전히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도 반쯤은 공공 기관의 성격을 지닌 적신월사(赤新月社)도 연감을 발행했다.

두 번째 유형인 지방 연감(일라예트 살나메시)는 한 일라예트(주) 범위의 정보를 담았는데, 1866년 보스니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가장 중요하고 수량이 많았던 살나메들이 바로 이 지방 연감이었다. 이들은 도시, 읍 건물들에 대한 지도, 사진, 평면도들을 포함했다. 이들은 또한 일라예트 안의 여러 수준의 행정 단위들의 지형, 인구, 상업, 사회, 정치, 사법, 문화적 조건과 역사를 포함하는 자세한 정보를 담았다. 예컨대 광물 자원, 농업 생산, 산업 활동, 인구, 도로, 교통, 산림, 종교 재단(와크프), 학교, 병원, 도서관, 모스크, 교회, 시나고그, 분수, 점포, 빵집, 탑, 방앗간 등에 대한 통계를 표로 제공했다. 그들은 또한 해당 지역 내의 무슬림과 비무슬림 집단의 축일과 종교 달력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러한 살나메가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중앙 정

부는 제국의 영토와 인구의 상태 및 부존 자원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로 사설 기관이나 개인이 출판한 연감들이 있는데 이는 좀 더 실용적 정보를 모아놓은 성격의 띠었다. 그 최초의 예는 알리 수아위가 파리에서 1871년부터 1873년까지 3년간 발행한 것이 확인되는 연감인데, 여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리, 인구, 농업, 산업생산, 육로와 해로, 상선과 항구, 화폐와 도량형 및 회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사설 연감 중 1873년 시작된 에부지야 테우피크의 연감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펴낸 연감들은 내용이나 출판 기술 면에서 오스만 출판업에서 가장 세련된 예로 꼽히는 손꼽히는 것이었고, 신문과 잡지에 실린 중요한 기사 모음과 함께 예술, 직업, 건강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글이 실렸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살나마

●다국어 표기 Salname(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hmet Zeki İzgöer, “Salname,”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01~502.

Kreiser, “Sâl-Nâme,”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VIII 1995, p.898.

Bilgin Kreiser, “Sâl-Nâme,” *Encyclopaedia of Aydın, “Salnam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6, 2009, pp.51~54.

I D059 | 살라르어

●시기 기타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언어 ●유형 소분류1 분류 ●유형 소분류2 언어명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alar language

살라르어는 살라르인들이 사용하는 투르크어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수 민족 중 하나인 살라르인의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10,000명~150,000명에 달하며, 칭하이성 남부 지역, 황하와 칭하이 호수 사이에 거주한다. 그들의 언어는 공식 언어로 문서화되어 체계화되지 못했다. 1960년대~1970년대부터 살라르인들은 그들의 문자를 표기하기 위해 라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언어는 투르크어 분류 체계 중 남서부 언어에 속하는 투르크멘어와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살라르인들은 14세기 말 사마르칸트에서 이주하여 현재의 위치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언어 역시 주변 언어인 몽골어, 티베트어 및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살라르어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칭하이성 주에서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수행한 아리엔 드와이어(Arienne Dwyer)에 의해 연구되었다. 드와이어는 훔볼트 장학금으로 마인츠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머무는 동안 ‘살라르어: 언어 변형 현상 및 지역 언어학 현상(The Salar-language: Contact-induced language change and areal linguistics)’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풍부하고도 독특한 연구 자료들을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살라르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양적으로도 다른 투르크어 연구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살라르 투르크어

●다국어 표기 Salarca(튀르키예어), 撒拉语(중국어), Salarische Sprache(독일어), Салар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サラール語(일본어), Salar langue(프랑스어)

●연관 검색어 투르크어 분류체계, 투르크멘어, 위구르, 신장위구르 자치구

●참고문헌(오프라인) Minahan, J. D. *Encyclopedia of Stateless Nations: Ethnic and National Groups around the World*. Santa Barbara, Denver: GREENWOOD, 2016.

Johanson, L.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çev. Demir, N., & Yılmaz, E.), Ankara: Grafiker, 2002.

I D060 | 살라르인

- 시기 기타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alar

살라르인은 중국에 사는 투르크 민족으로(중국어로는 사라족撒拉族이라 부른다) 칭하이성 원화 사라족 자치현(循化撒拉族自治县)과 간쑤성 지스산 바오안족 동상족 사라족 자치현(积石山保安族东乡族撒拉族自治县)에 주로 살고 있으며, 칭하이성, 간쑤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도 일부가 거주한다. 중국 내에서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10,000명~150,000명 정도이다. 살라르어는 중국어와 티베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늘날 문자는 라틴 문자로 표기한다. 종

교는 이슬람 수니파이고, 농업, 축산, 과수, 채소 재배에 종사하거나 대장장이, 도공으로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살라르인들은 쉬주크 투르크인으로부터 분리된 투르크멘 살리르 부족의 일파로 14세기 동쪽으로 이주한 집단이다. 살라르 전설과 중국의 역사서에 따르면 살라르안은 서돌궐 제국의 오구즈 투르크에 속했던 살리르 부족의 후손이다. 당나라 때 살리르 부족은 중국에 속했으며 이후 칭하이성과 간쑤성 경계 지역에 살았다. 전설에 따르면 한때 사마르칸트에 살았던 하라만과 아흐만 형제가 오늘날 살라르 민족의 조상이다. 그들은 이슬람 모스크의 고위직이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 통치자의 박해를 받았다. 두 형제는 18명의 부족민과 함께 흰 낙타를 타고 물과 흙, 코란을 가지고 동쪽으로 떠났다. 무리는 천산 산맥의 북사면을 따라 가육관(嘉峪關)을 지나 중국의 여러 지역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간쑤성의 샹허에 도착했고, 사마르칸트에서 출발한 또 다른 무리가 천산 산맥 남사면을 따라 칭하이로 왔다.

살라르인들은 14세기 명나라에 복속하여 명나라로부터 관직을 받았지만, 청나라 시기 정부가 칭하이, 간쑤 지방에서 반이슬람운동을 전개하면서 청나라 정부와의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18세기에는 반란과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세기 중국 내전 시기 칭하이성은 중국의 군벌 마부팡(馬步芳) 치하에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마부팡을 몰아내자 마부팡 휘하에서 군인으로 지냈던 살라르인들은 공산당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였다. 1950년대까지 칭하이성과 간쑤성에서 일부 살라르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지속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살라르부족, 살라르 투르크인

●다국어 표기 Салары(러시아어), Salar people(영어), 撒拉族(중국어)

●연관 검색어 사마르칸트, 돌궐

●참고문헌(온라인) 살라 소수 민족

<http://www.china.org.cn/e-groups/shaoshu/shao-2-salar.htm>

●참고문헌(오프라인) Lipman, Jonathan Neaman, Familiar strangers: a history of Muslims in Northwest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

James D. Minahan, Encyclopedia of Stateless Nations: Ethnic and National Groups around the World, Santa Barbara, Denver: GREENWOOD, 2016, 363~364.

I D061 | 살라바트 축제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례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alauat yyyyny

살라바트 축제는 1773년~1775년에 일어난 러시아 농민 반란에서 푸가초프의 전우였던 바시키르 영웅 살라바트 올라예프(러시아어 Салават Юлаев, 바시키르어 Салүат Юлай улы)를 기념하는 축제이다. ууууу(йыйыны)는 바시키르어로 '모임'이나 '만남'을 의미한다. 바시키르 공화국에서는 2004년 대통령 칙령으로 살라바트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때부터 매년 살라바트 축제가 바시코르토스탄의 도시들에서 개최되고 있다.

살라바트 축제의 목표와 과제는 ①민족 창작의 보호와 발전, ②살라바트 올라예프의 민족애와 조국애를 통해 미래 세대에 민족 자긍심과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과거 세대에 대한 존경심



살라바트 축제
Source: <https://kulturb.ru/>

교육, ③바시키르 민족의 관습과 전통의 홍보와 대중화, ④전통 스포츠의 홍보, ⑤건전한 삶의 모델을 홍보 등이다.

살라바트 축제에서는 ‘살라바트 축제 용사’, 미인대회, 유르트 경연대회, 전통 음악 연주대회(전통 피리 쿠라이 курай.), 전통 민속 경기(활쏘기, 쿠레시, 말타기, 자루들고 뛰기, 등) 등이 거행된다. 2015년 축제부터는 음악 부분에서 세센(сэсэн) 경연대회도 추가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살라우아트 이이이이니

●다국어 표기 Салават йыйыны(러시아어), Salavat bayramı(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어, 바시키르공화국, 유르트, 쿠레시

●멀티미디어 링크 살라바트 축제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IPQxURAd6Q>

<https://kulturarb.ru/images/uploads/253804032faa3cae1fcbaf06fd9658261024668.png>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bashinform.ru/news/1309347-v-bashkortostane-proydet-folklornyy-prazdnik-salauat-yyyny/>

●참고문헌(오프라인) Юсупова, Л. Я. “Современные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в республике Башкортостан.”
Образование: традиции и инновации 4 2014. Уфа. 50~54.

I D062 | 살라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기타 ●나라 시리아, 이집트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분파
- 집필자 이영희 ●라틴 문자 Salafyya

살라프는 19세기에 이슬람 내의 개혁을 추구하는 분파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살라프 운동을 전개한다. 현대 살라프파는 이슬람 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요하고, 서구 문화를 배척하는 이슬람 정치 사상을 의미한다.

살라프 또는 살라프 운동은 카이로의 무함마드 압두(Muhammad Abduh)와 그의 제자들을 포함한 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됐는데, 이들은 이슬람의 근원으로 돌아가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랍어로 조상을 의미하는 살라프(salaf)에서 이름을 따온 개혁가들은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전개했고 무슬림들이 이슬람 초기, 이슬람의 관습이 보전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라프파의 특징은 수피즘을 비이슬람적 관행으로 비난했다는 점이다.

19세기 살라프파의 중심지는 카이로였다. 살라프파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시리아 출신의 법학자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의 저술을 연구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코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샤피이(Shfi) 법학파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감옥에 투옥된 인물이다. 살라프파 개혁가들은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자 대응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는데, 서양의 사상과 제도를 채택하는 오스만 제국 사회에 이슬람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라프파의 개혁은 반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살라프파를 시작으로 이슬람 개혁운동은 오스만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살라피, 살라피즘, 살라피야

●다국어 표기 Salafi movement(영어) Salafizm(튀르키예어), Salafiyya(아랍어)

●연관 검색어 이슬람 근본주의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Salafiyya",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p.500~501.

I D063 | 살로니카

●시기 A.D. 1000년~A.D. 1800년 ●지역 기타 ●나라 그리스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alonica

살로니카는 에게해에 있는 테르마 만에 면한 도시이다. 최초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4세기였고, 알렉산드로스의 이복 자매 테살로니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아테네에 이어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였다. 오스만 치하에 있었던 1430년에서 1912년 사이에는 오스만 발칸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살로니카는 상품 수출을 하는 항구이자 제조업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만 시대에 경제적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살로니카에는 많은 이주민이 오스만 제국 전역과 제국 영역 밖에서도 찾아왔다.

오스만 세력이 팽창하기 이전에 살로니카는 비잔티움의 중앙 장악력이 미약해짐에 따라 슬라브족, 십자군 등의 압박을 받았고, 14세기 중엽부터 살로니카의 배후지는 오스만군의 공격을 받았다. 1387년 도시가 오스만군에 의해 포위되자 총독 마누엘 팔레올로고스가 도망쳤고, 시민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여 약탈을 면했다. 오스만 내전기에 살로니카는 다시 비잔티움에 양도되었으며, 무라드 2세 치하인 1430년 다시 포위되었는데, 저항했기 때문에 도시가 약탈되었고 많은 거주민들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나 일단 정복이 완료되자 무라드 2세와 무슬림 엘리트는 워크프를 건립하여 모스크와 카라반사라이, 마드라사 등의 건축을 지원했고, 그리스인 유력 가문들을 그들의 옛 집에 다시 초치하는 등 도시를 안정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복 과정에서 거의 비어 버린 이 도시에는 무슬림들도 다수 들어와 정착했다.

살로니카의 경제적 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은 바이에지드 2세(재위: 1481년~1512년) 당시 에스파냐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특히 살로니카에 많이 모여들어 1519년에는 추정 인구 약 30,000명~40,000명 가운데 15000명이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적은 없지만 이들은 오스만 시대 살로니카에서는 항상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 집단이었다. 이들은 특히 살로니카에서 추카(çuka)라는 모직물 광폭 원단을 만들어 오스만 왕실과 예니체리들에게 독점 공급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이러한 직물업으로 도시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16세기 말에는 인구가 50,000명~60,000명으로 늘었고, 알바니아



살로니카 전경

무슬림과 슬라브계 정교도 등이 이주민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모직물들이 수입되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모직물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살로니카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종말론자 샤바타이 즈비가 엄청난 수의 추종자를 거느리게 된 것도 이러한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살로니카는 샤바타이의 추종자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해 형성된 댄메(dönme) 집단의 가장 큰 중심지였다.)

18세기 살로니카는 밀, 면, 담배 등 발칸 농산물들의 수출항으로 번영했고, 살로니카의 무역업에는 역시 유대인 상인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한때 1774년 쿠틉 카이나르자 조약 이후 그리스인 상인들이 득세했으나 1821년 그리스 독립 전쟁이 발발한 후 세력을 잃었다. 19세기 후반에도 살로니카는 발칸의 주요 수출항으로 기능했으며, 1880년에는 100,000명, 1909년에는 150,000명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1909년에 인구의 약 30%는 무슬림, 30%는 기독교인, 40%는 유대인이었다. 20세기 초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살로니카를 차지하고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살로니카의 무슬림들은 이에 대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밀 조직인 연합진보당(ittihad ve terakki: '청년투르크')을 지지하게 되었다. 살로니카는 그들의 혁명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후에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무스타파 케말도 그들 중 하나였다.

살로니카를 오스만 제국의 일부로 유지하고자 했던 무슬림들의 희망은 1912년 발칸 전쟁이 일어나 알바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가 모두 살로니카를 차지하고자 시도하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 1912년 11월 8일 그리스 군이 살로니카로 진입하여 점령한 후 1913년 제2차 발칸전쟁 종전 후에 맺어진 부쿠레슈티 조약으로 그리스가 살로니카를 차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살로니카는 튀르키예-그리스 사이의 인구 교환(1923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니, 종전에 20%도 안되던 그리스 인구가 80%가 넘게 되었고,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무슬림과 된메는 튀르키예로 떠났다. 살로니카에 계속 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1941년 이 도시가 나치에 점령된 후 모두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스만 시대의 다종족 도시였던 살로니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에는 주로 그리스어를 쓰는 정교도들의 도시가 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살로니키

●다국어 표기 Selanik(튀르키예어), Salonica(영어), Thesaloniki(그리스어)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Salonica,"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02~504.

Machiel Kiel, "Selânik,"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6, 2009, pp.352~357.

I D064 I 살투크나메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서적 ●유형 소분류2 서사시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altuknâme

15세기 에빌하이르 루미(EBÜLHAYR RÛMÎ)에 의해 산문으로 작성된 투르크 서사시 중 하나인 살투크나메는 13세기의 사르 살투크의 서사적인 삶, 전쟁 및 다양한 기적을 다루는 대 서사시이다. 사르 살투크는 아나톨리아와 루멜리 정복 당시 전쟁에 참가하여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고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투르크인의 영웅이다. 살투크나메에 의하면 사르 살투크의 실제 이름은 셰리프 흐즈르(Şerif Hızır)이다.

살투크나메는 사르 살투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일부 전설에서는 이슬람 역사의 아라비아반도, 인도 및 이란의 역사 또는 전설적인 존재의 역사와 관련되어 사르 살투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사르 살투크는 평범한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15세기 아나톨리아 투르크어의 어휘, 문장 구조, 관용구 및 속담 등 당시 언어 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총 세 권으로 이루어진 살투크나메는 튀르키예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필사본으로 발견된다. 그들 중 세 권 모두를 포함하는 유일한 사본은 현재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살투크나메

●다국어 표기 Saltuknâme(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Demir, Necati. "Saltuknâme'nin Giriş Kısmına Göre Sarı Saltuk'un Şeceresi ve Anadolu'daki Bazı Şehirlerin Müslüman Türkler Tarafından Fethi," *Revak* (nşr. Sivas Vakıflar Bölge Müdürlüğü), Sivas, 1992, 83~91.

Yüce, Kemal. *Saltuknâme'de Tarihi, Dinî ve Efsanevî Unsurlar*. Ankara, 1987.

Fahir İz, "Saltuk-nâme." *TTK Bildirile*. VIII, 1981, 971~977.

I D065 | 삼두정치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사건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Üç Paşalar

오스만 제국의 삼두정치는 1913년 1월 23일 쿠데타로 집권한 수상과 내무성 장관을 역임한 탈라트 파샤(Talât Paşa: 1874년~1921년), 전쟁성 장관 엔베르 파샤(Enver Paşa: 1881년~1922년) 해군성 장관 제말 파샤(Cemal Paşa: 1872년~1922년) 등 3인이 오스만 제국의 실제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던 삼두정치를 말한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전 세계는 영국·프랑스·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연합국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를 주축으로 한 동맹국으로 나뉘어 전쟁에 돌입했다. 이 때 오스만 제국의 엔베르 파샤는 러시아가 속한 연합국에 맞서기 위해 독일과의 동맹을 주도하여 중동에는 추축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엔베르 파샤의 지휘하에 오스만 군대는 캅카스 지역의 사르카므쉬(Sarıkamış)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였지만 대패했고, 아르메니아 혁명 세력이 러시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1915년 제말 파샤는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중앙 정부로부터 군사 및 민간인 통치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이집트에 주둔하던 영국군을 몰아내고자 수에즈 운하를 공격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고 그의 관할 구역은 오스만 제국의 변방으로 전락했다. 1916년 말 대규모의 병사 이탈로 오스만 군대의 군사력이 약화된 데 이어 경제적 압박까지 가중되었다. 결국 1917년 10월 7일, 연합진보당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제트 파샤(Ahmet Izzet Pasha)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했다. 1917년 탈라아트 파샤가 수상의 자리에 올랐으나, 무너져가는 제국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로써 세 파샤의 삼두정치 역시 막을 내렸다. 1918년 10월 30일, 그리스 림노스 섬에서 체결된 무드로스 휴전 협정(The Armistice of Mudros)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은 동맹국의 패배로 끝이 났고, 오스만 제국은 연합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특히 세 파샤 중 엔베르 파샤는 파리에서 개최된 전범 재판에서 탈출해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 현지민의 대 소비에트 저항운동인 바스마치 봉기(Basmaçi revolt)에 참여하여 바스마치의 여러 조직과 연합하여 반(反)러시아 무슬림 투쟁을 주도하던 중 타지키스탄에서 살해되었다.

이들 세 파샤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오스만 제국을 통치한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삼두 정치를 이끌었지만 전쟁의 패배와 제국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특히, 아르메니아 학살 및 그리스, 아시리아인 학살의 주범으로 후대에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치 파샤라르

●다국어 표기 Young Turk triumvirate(영어), Three Pasha(영어), اوج پاشلار(오스만어), Üç Paşalar(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엔베르 파샤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Three_Pashas#/media/File:İkdam,_4_Kasım_1918.jpg

●참고문헌(오프라인) Allen, W.E.D. and R. Muratoff. *Caucasian Battlefields: A History Of The Wars On The Turco-Caucasian Border, 1828~19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Bedrossyan, Mark D. *The First Genocide of the 20th Century: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Flushing, NY: Voskedar Publishing, 1983.

Joseph, John. *Muslim-Christian Relations and Inter-Christian Rivalries in the Middle East*.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3.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Ⅰ D066 Ⅰ 샷터르 잡버르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attor Jabbor

샷터르 잡버르(Sattor Jabbor)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독일로 유학을 갔던 화학자이자 문학과 사회 비평가이다. 그는 1905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디드(jadid)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 후에 러시아 학교로 진학했다. 1917년~1921년에는 타슈켄트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나무나(Namuna)로 진학했다. 1920년~1921년에는 피트랏((Fitrat)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문학 조직 차가타이 구룽기(Chig'atoy gurungi)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같은 멤버였던 피트랏의 제자들과 함께 부하라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유학생으로 선발



샷터르 잡버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되어 독일로 파견되었다. 그는 1925년까지는 베를린에서, 1925년부터 1927년까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그리고 1928년부터 1931년까지는 베를린 대학 화학부에서 수학한다. 1930년 소련이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을 중단하자, 이에 샷터르 잡버르는 베를린 대학교 연구실에서 독일 교수들의 조교로 근무하면서 알렉산더 폰 훔볼트재단(Alexander Humboldt Foundation)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 학업을 마친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1931년 귀국하여 다음 해부터 1934년까지 중앙아시아 국립 의학연구소 일반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4년에 그는 자리파 사이트노시리바(Zarifa Saidnosirova)와 함께 화학 용어 사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무기화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했다.

샷터르 잡버르는 화학자인 동시에 문학인이었다. 학생 시절에는 투르크িস탄과 독일 언론에 시와 기사를 적극적으로 투고했고 스승 피트랏의 『인도의 혁명가들(Hind ixtilochilari)』이 베를린에서 출간되도록 노력했다.

1923년에는 베를린에서 발행된 잡지에 자신의 시 「소원(Tilak)」을 발표한다. 또한, 그는 ‘아르스런(Arslon)’, ‘수부터이(Subutoy)’와 ‘터쉬펠랏(Toshpolat)’ 같은 필명으로 베를린의 잡지에 「투르크িস탄의 시와 시인(Turkiiston she'riyati va shoirlari)」, 「투르크িস탄의 여성들(Turkiiston ayollari)」, 「공화국에서 목화를 위한 투쟁(Respublikada paxta uchun kurash)」, 「오늘의 투르크িস탄(Bugungi Turkiiston)」과 같이 조국의 현실과 운명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담긴 글을 기고한다.

1931년에는 ‘수부터이(Subutoy)’라는 필명으로 『구원의 길에서(Kurtulush yo'lunda)』라는 저서를 출간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미리이(Miriy), 싯디키이(Siddiqiy), 소피저다(So'fizoda), 함자(Hamza), 피트랏(Fitrat), 버투(Botu), 엘벡(Elbek), 출판(Cho'lpon), 마그잔(Mag'jan) 등 우즈베키스탄의 유명 작가의 작품과 활동을 논한다. 2부에서는 지자흐 봉기

(Jizzax qo'zg'oloni), 투르키스탄 자치국, 무함마드 아민벡(Muhammad Aminbek), 셰르무함맛벡(Shermuhammadbek), 안바르 포쉬쇼(Anvar poshsho)에 대하여 논했으며, 3부에서는 문학으로 지배계급에 대항해 투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삿터르 잡버르는 1937년 1월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간첩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 10월 9일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되었다. 1959년 그는 무죄를 선고받고 복권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토르 잡보르, 사토르 잡뽀르
- 다국어 표기 Sattor Jabbor(우즈베크어), Саатор Жаббо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지자흐 봉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f/Sattor_Jabbor.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arnews.uz/uz/post/miriy-turklaming-umumiy-vatani-turkiston-muhtalif-ajnabiy-hukumatlar-tarafidan-parchalanmish>
- 참고문헌(오프라인) Turdiev Sherali, Sattor Jabbor, *Ular Germaniyada o'qigan edelar*, Akadem-Xizmat, Toshkent, 2006.

I D067 | 상손가채

-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Shangsunjiacai

상손가채는 중국에서 발견되는 흉노 유적 가운데 행정 구역상 청해성에서 발견되는 유적인데, 황하 강 상류 지역이다. 청해성 서녕(西寧) 부근의 유적으로 1977년에 무덤 1기가 발굴되었다. 무덤은 천장이 궁륭식 전신묘이고 봉토가 씌워져 있다. 무덤의 입구에서 들어가는 곳에 묘도가 형성되어 있고, 입구에는 28기의 통나무를 바닥에 깔았다. 출토된 유물은 향로 모양으로 생긴 명기, 동경, 오수전, 청동도장 등으로 한(漢)식이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흉노의 유적은 황

하 상류이면서 북부 초원의 오르도스, 영하 감숙 지역, 하북성 북부 등이다. 주로 한(漢) 시기에 흉노의 유형 문화유산들이 현재 중국 국경 내에서 발견되는데, 이 유물들은 남흉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흉노 문화를 서한대와 동한대로 구분하는데, 거의 중국화된 단계가 동한대이다. 서한대에서 발견되는 흉노 무덤은 수혈식 토광묘인데 동한대에는 이를 벗어나 벽돌로 쌓은 전신묘가 발견되며, 유물도 중원화된다.

중국에서는 남흉노의 문화를 중국 한대의 유목 민족 문화권으로 구분한다. 반면에 남흉노와 구분되는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문화를 북흉노라고 하는데, 유형 문화유산으로도 확연하게 구분된다. 북흉노의 유적에는 정주성 취락지 및 대규모 성지, 생산 유적 등이 발견되어서 오히려 남흉노의 유적과 유물보다 훨씬 다양하고 두텁다. 북흉노의 문화는 ‘이동’이 강조된 중국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의 기록과 남겨진 유적과 유물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만 알 수 있으며 앞으로의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상순가차이

●다국어 표기 上孫家寨(한자)

●연관 검색어 흉노

●참고문헌(오프라인) 青海省文物管理處古隊, 「青海大通上孫家寨的匈奴墓」, 『文物』, 1979, 4期.

烏恩, 「試論漢代匈奴與鮮卑遺蹟的區別」, 『中國考古學會第16次年會文集』, 1987.

I D068 | 새드다디 왕조

●시기 B.C. ~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국가 ●유형 소분류2 왕조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Əli Şamil) ●라틴 문자 Shaddadids

새드다디 왕조(영어: Shaddadids, 아제르바이잔어: Şəddadilər dövləti)는 951년 살라리(Salari) 국의 매투지반 이븐 매함매드(Mərziban ibn Məhəmməd)의 사망 이후 매함매드 이븐

새다드 이븐 구르타그(Məhəmməd İbn Şəddad ibn Qurtaq)가 대빌(Dəbil, Dvin)을 침략하여 수립했다. 당시에는 봉건 영주들의 지위가 강력했지만 지방 총독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도 높아 그들 사이에 봉건적 억압과 자유를 둘러싼 투쟁이 빈번했다.

아랍 제국 외곽에는 소규모의 봉건 국가들인 토후국(əmirliklər)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토후국(əmirliklər)들은 아랍 군벌들에 의해 통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은 현지인과 섞여 아랍인의 정체성을 잃어 갔다.

압바스 왕조(Abbasilər xilafəti)의 붕괴와 함께 현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봉건제를 기반으로 한 많은 국가들이 수립되었다. 이슬람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의 투르크 및 비 투르크 민족의 통합에 큰 역할을 했다.

새드다디 왕조는 971년에 갠재(Gəncə)를 점령함으로써 더 강력해졌다. 패즐 이븐 매함매드(Fəzl ibn Məhəmməd, 985년~1030년)는 갠재(Gəncə) 주변의 모든 작은 봉건 영지들을 중앙 정부로 통합시켰다.

새드다디 왕조는 시르반샤흐 왕조(Şirvanşahlar dövləti)와 친족 관계였다. 또한 새드다디 왕조는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랩바디레르 왕조(Rəvvadilərler dövləti), 트빌리시의 에미르 애빌-패즐 재패르 이븐 엘리(Əbül-fəzl Cəfər ibn Əli)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1037년에 셀주크 투르크와 동맹을 맺은 새드다디 왕조는 대빌(Dəbil)을 점령하려고 했던 비잔티움-아르메니아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1038년 이슬람 토후국을 제거하기 위한 비잔티움과 조지아의 봉건 영주들로 연합된 티플리스 군대의 진격은 오구즈인들(oğuzlar)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새드다디 왕조는 애월새바르 샤부르(Əbüləsvar Şavur)의 통치 기간(1049년~1067년) 동안 더욱 강력해졌으며, 조지아와 그의 동맹국이었던 시르반샤흐 왕조와도 자주 전쟁을 했다. 조지아의 차르 바그라트 4세(4-cü Baqrat)는 새드다디 왕조의 강화를 두려워하여 캅카스 산맥의 북쪽의 알란족(Alanlar)과 동맹을 맺었다. 알란족의 군대는 대르얄 고개(Dəryal keçidi)를 넘어 조지아로 들어가 조지아군과 함께 새드다디 왕조를 공격했다.

조지아 왕자들은 대부분이 킵차크족으로 이루어진 알란족 병사들을 조지아 동쪽에 정착시켜, 새드다디 왕조(오구즈) 사이에 완충 지대를 만들었다. 오구즈와 킵차크의 충돌과 관련된 내용은 『현자 코르쿠트의 서』에도 등장한다.

셀주크 투르크는 새드다디 왕조와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격하며 비잔티움, 아르메니아, 조지아 봉건 영주들의 연합된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1073년부터 1074년 사이에 새드다디 왕조의 군주 패즐 2세(2-ci Fəzl)의 아들 패즐룬(Fəzlun)이 아버지 패즐 2세를 왕위에서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한다. 1075년 이 소식을 들은 셀주크 술탄 말리크 샤(Məlik şah)는 장군 사브태킨(Savtəkin)을 필두로 새드다디 왕조로 대군을 보냈고, 그 결과 패즐룬(Fəzlun)은 새드다디 왕조의 통치권을 셀주크에게 내주었다.

1075년 새드다디 왕조가 붕괴되자 셀주크 투르크 술탄은 말리크 샤 오굴르 맬리크매햄매드(Məlikşah oğlu Məlikməhəmmədi)를 새드다디 왕조로 보내, 그를 아타베이(atabəy, 아타베그) 총독으로 임명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샷다디 왕조, 샤다디조, 새드다디 조
- 다국어 표기 Schaddadiden(독일어), Shaddadids(영어), シャッター朝(일본어), Şeddâdîler(튀르키예어), شدادیون(아랍어)
- 연관 검색어 말리크 샤, 킵차크, 오구즈, 현자 코르크트의 서
- 참고문헌(오프라인)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Qeybullayev, Q. *Azərbaycan türklərinin təşəkkülü tarixindən*. Bakı: Azərbaycan Dövlət Nəşriyyatı, 1994.
 Mahmud, İsmayıl. *Azərbaycan xalqının yaranması*. Bakı, 1995.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Bakı: Mütərcim, 2015.
 Rəcəbli, Qəzənfər. *Azərbaycan tarixi*. Bakı: Elm və təhsil, 2013.

I D069 | 새로운 행복

-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작품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라틴 문자 Yangi saodat

『새로운 행복(Yangi saodat)』은 함자(Hamza Hakim zoda Niyoziy, 1889년~1929년)의 소설이다. 함자는 원래 시인 출신인데, 시인이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쓴 첫 번째 소설이다. 그는 1914년에 작품을 완성했고, 1915년에 출판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등장인물 묘사나 아이디어의 전개 그리고 간결한 문체 등 매우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고, 작가에게 소설가로의 길을 열어주는 매우 성공적인 작품이었다. 작품의 주제는 ‘지식은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다.

주인공 올림전(Olimjon)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주인공의 아버지는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게 된다. 그러자 돈을 벌 능력이 없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다. 올림전의 어머니 마르얌(Maryam)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려 노력하는 강인한 여성이다. 그녀는 남은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키운다. 올림전은 자디드(Jadid) 학교를 졸업한다.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어 어느 상인의 비서 일을 하다가 상인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올림전은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는 타슈켄트에서 구두 수선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올림전은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모셔온다. 올림전의 장인이 올림전에게 재산을 물려준 덕택에 올림전과 가족들은 다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 올림전과 그의 가족은 지식을 쌓고, 정직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극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올림전과 같이 삶의 고단함을 극복하고 빛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힘없는 국민에게 꼭 필



『새로운 행복』 표지
Source: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

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디드(jadid) 문학의 특징이다. 작가는 이런 주인공을 제시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모범적 인물상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했다. 특히, 작품의 중심에는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못 받은 자'의 상반된 운명이 극적으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주인공 얼림전은 무지한 아버지를 밑바닥 인생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아버지는 성실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신한다.

작가는 무지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지혜가 남성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묘사한다. 무지한 남편 때문에 가족이 가난 속으로 몰락했을 때 마르얌은 “애들아, 왕들이 언젠가 우리처럼 거지가 될 수 있듯이, 거지들도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단다(Shohlar bir kun gado bo'lur, bizlarga o'xshab. Gadolar yana bir kun shoh bo'lub qolur, bolajonlarim).”라고 말한다. 이야기의 결론은 마르얌이 예견한 대로 되었다.

작가는 작품의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밀을 심은 자는 밀을 얻고, 보리 심은 자는 보리를 얻을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나 학자가 되어 행복을 얻을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흉악한 일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 얼림전 때문에 얼림전의 아버지가 깨우친 것처럼 다른 동시대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는 계몽주의 이념을 독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는 감성적인 감정 묘사 방식이다. 작가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을 감성적으로 묘사한다. 비평가들은 자디드 문학에서 『새로운 행복(Yangi saodat)』만큼 감성적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은 없다고 평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기 사오닷

●다국어 표기 Yangi saodat(우즈베크어), Новое счастье(러시아어), New happiness(영어)

●연관 검색어 함자, 자디드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S/compressed.photo.goodreads.com/books/1600724437i/55421451.jpg>

●참고문헌(오프라인) Hakimzoda N. Hamza, *Yangi saodat, To'la asarlar to'plami*, Fan, Toshkent,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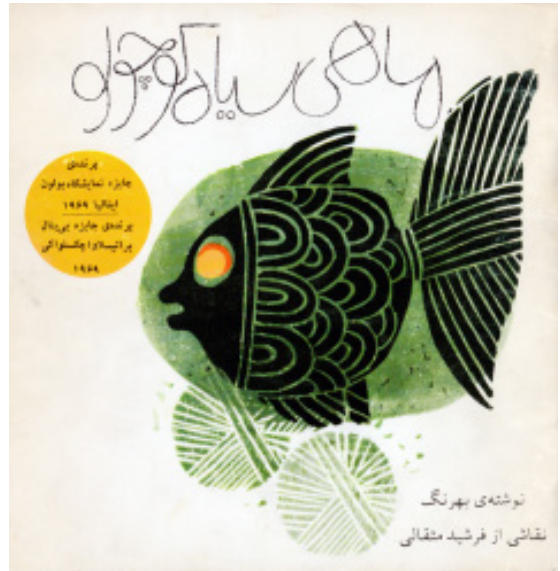
Karimov N.,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O'qituvchi*, Toshkent, 1995.

Mirzayev Saydulla, *XX Asr O'zbek Adabiyoti, Yangi asr avlodi*, Toshkent, 2005.

I D070 | 새매드 베흐랭기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작가 ●유형 소분류2 동화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amad Behrangi

새매드 베흐랭기(Səməd Behrəngi)는 1939년 남부 아제르바이잔(이란 북부) 태브리즈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태브리즈에서 초등교육(Tərbiyyət)을 받았고, 이후 태브리즈 교육전문학교(Təbriz Pedaqoji Texnikumu)를 졸업했다. 1956년~1961년에는 태브리즈 대학교(Təbriz Universiteti) 영어 영문학과에서 수학했다. 그는 아제르세흐르 지역의 마마간과 고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때 아제르바이잔의 전래 동화들을 수집해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후, 동료였던 베후르즈 데흐가니(Behrüz Dehqani)와 함께 출판했다. 또한 그는 페르시아어에서 아제르바이잔어로 옮긴 번역 작품들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1967년 8월 31일 28세의 젊은 나이로 남 아제르바이잔의 쿠마를르(Xumarlı) 거주지 근처에 있는 아라즈 강(Araz çayı)에서 사고로 익사했다. 이란 테러단체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테브리즈 도시에 있는 이맘미야 묘지에 안장됐다.



『작고 검은 생선』 초판본 표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그는 대학시절에 창작을 시작했으며, 그의 첫 작품은 1959년에 출판됐다. 그의 유명한 동화 『작고 검은 생선(Balaca Qara balıq)』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시에서 열린 아동 도서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튀르키예어로 번역 출판됐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 출판됐으며, 2014년에 아제르바이잔에는 새매드 베흐랭기 이름을 딴 문학상이 제정됐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새매드 베흐랭기

●다국어 표기 Samad Behrangi(튀르키예어), Samad Behrangiy(영어), Самед Бехранги(러시아어), صمد بهرنگی(페르시아어), Səməd Behrəng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4/46/Balaca_Qara_Bal%C4%B1q.png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Nəbioğlu Sabir, *Səməd Behrəngi (monoqrafiya)*, Bakı: Azərənəşr, 2009.

Sulanlı Vaqif, İsmayılı İrəc, *Güney Azərbaycan nəsr(antologiya)*,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7.

I D071 | 새매드 우르군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시인
●집필자 오은경(자문위원: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amad Vurghun

새매드 우르군(Səməd Vurğun)은 1906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자흐 지역의 시골 마을인 유카르 살라흐르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가자흐 학교(Qazax Müəllimlər Seminariyası)에서 공부했다. 1924년 가자흐 학교를 졸업한 그는 가자흐, 구바와 간자에서 아제르바이잔어와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1920년대부터 여러 문인들과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매드 우르군은 1929년에 제2 모스크바 대학교(kinci Moskva Universiteti) 문학부에 입학했고, 모스크바 유학 생활 동안 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1954년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의 부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사망 직전에 '아제르바이잔 민족시인(Azərbaycanın xalq şairi)'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는 1956년 50세의 나이로 사망해 바쿠의 현충원(Fəxri Xiyaban)에 묻혔다. 그의 자녀들인 유시프 새매드 오굴르(Yusif Səmədoğlu)와 와기프 새매드오굴루(Vaqif Səmədoğlu) 역시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중요한 문인들이다.

그가 당시에 저술한 정치적 내용의 서정시들은 1930년에 발간된 『시인의 맹세(Şairin andı)』

라는 책에 담겨 있다. 그가 1933년에 쓴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이라는 시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이 시에서 그는 조국의 고대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는 번역가로도 활동했다. 1930년에 알렉산드르 푸시킨(Aleksandr Puşkin)의 『예브게니 오네긴(Yevgeni Onegin)』, 막심 고리키(Maksim Qorki)의 『죽음과 소녀(Qız və ölüm)』, 쇼타 루스타벨리(Şota Rustaveli)의 『표범 가죽을 두른 기사(Pələng dərisi geymiş pəhləvan)』, 니자미 갠재비(Nizami Gəncəvi)의 「레일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 등 여러 작품들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애국심을 주제로 많은 시를 썼다. 동시에 희곡 창작에도 주력해했고, 『와기프(Vaqif)』, 『칸들(Xanlar)』, 『페르하드와 쉬린(Fərhad və Şirin)』 그리고 『사람(İnsan)』 등을 저술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아이귄(Aygün, 1950~1951)』, 『무간(Muğan, 1948)』, 『달의 전설(Ayın əfsanəsi)』, 『흑인의 욕망(Zəncinin arzuları)』, 『시간의 깃발(Zamanın bayraqdarı, 1952)』 등의 시집이 있다.



사메드 우르군 묘지와 기념비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메드 부르운

●다국어 표기 Samet Vurğun(튀르키예어), Samad Vurghun(영어), Сәмед Вурғун, وورگون سامت, Səməd Vurğun(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바쿠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yev Cəlal, *Səməd Vurğunun sənət dünyası*,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6.

Bayramov Adilxan, *Səməd Vurğun: milli və ümumbəşəri*, Bakı: Səda nəşriyyatı, 2006.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Vahabzadə Bəxtiyar, *Səməd Vurğun*, Bakı: Gənclik, 1984.

I D072 | 새피엣딘 우르매비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인물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əfiəddin Urmevi

새피엣딘 우르매비는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음악가이고, 서예가이며, 교육자인 동시에 작곡가이다. 본명은 새피엣딘 앵달뫼민 이븐 유시프 이븐 파히르 우르매비(Səfiəddin Əbdülmömin ibn Yusif ibn Faxir Urməvi, 1216년~1294년)이다. 그는 1216년에 우르미야(Umiya)에서 태어났다. 초등 교육을 우르미야에서 받고, 고등 교육은 아랍 제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 있는 뮈스텐새리에 대학(Müstənsəriyyə universiteti)에서 수학했다. 이후 그는 서예가 및 음악가로 인기를 얻어 엘-뮈스태심(əl-Müstəsim) 궁으로 초대받았다. 곧 그는 궁내 도서관장과 서예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전통 악기 우드(ud) 연주에도 탁월했다. 그의 명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낙타와 관련된 일화이다: 어느 날 40일 동안 물을 안 마신 낙타가 물을 마시는 데, 옆에서 새피엣딘의 우드 연주 소리를 듣고 멈췄다. 새피엣딘이 연주를 멈추자 낙타는 다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시 한번 우드가 연주되자 낙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새피엣딘이 바그다드 정원에서 우드를 연주할 때의 일화 또한 유명하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정원에 있는 나이팅게일이 날개짓을 멈췄다. 나이팅게일은 새피엣딘 가까이 있는 나무에 앉아 우드 연주 소리를 듣더니 음악에 감명을 받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노래하기 시작했다. 음악에 맞춰 날개도 펴졌다. 잠시 후 나이팅게일도 겁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피엣딘은 교육자로도 활동했다. 앵딜개디르 마라가이(Əbdülqədir Marağayi)는 자신의 작품 『매가시딜-엘한(Məqasidül-əlhan)』에서 새피엣딘 우르매가 유명한 음악가들 즉, 샘셋딘 쇠흐래베르디(Şəmsəd-Din Söhrəvərđi), 엘리 시탄(Əli Sitan), 해산 재페르(Həsən Zəfər) 및 휘사멧-딘 구트룩 부그(Hüsaməd-Din Qutluq Buğ))의 스승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새피엣딘은 ‘뉘즈해(Nüzhə)’와 ‘뫼그니(Müğni)’라는 두 종류의 새로운 악기를 고안해내기도 했다. 뉘즈해(Nüzhə)는 현대의 하프(arfa)나 캐논(kanon)과 비슷한 악기이다. 이 악기는 81개의 현과 버드나무나 편백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뫼그니(Müğni)는 33개의 현으로 만든 외관상으로는 류뱃(rübab, 악기)과 닮은 악기이다. 류뱃과 다른 점은 아래 부분이 류뱃보다 크다는 점이다. 뫼그니(Müğni)는 살구나무로 만든다.

새피엣딘이 악기 연주로 홀라구 칸 군대를 감화시킨 일화도 있다. 1258년 칭기즈 칸의 손자인 홀라구 칸 군대가 바그다드를 점령하여 칼리프와 가족 모두를 처형했다. 그는 포위되었고, 칼리프와 친한 관계였기에 곧 처형될 위기였다. 새피엣딘은 군 장교를 설득해 그를 홀라구 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그곳에서 우드를 연주했고, 홀라구 칸의 고관은 감동한 나머지 자기 아들의 교육을 새피엣딘에게 맡겼다.

새피엣딘은 다수의 창작물을 남겼다. 「키타비-엘-애드바르'(Kitab-əl-ədvar)」 및 「새래피예(Şərəfiyyə)」 음악서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여전히 무감 분야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피엣딘이 고안한 시스템에 따라, 음악은 ‘해르피-애배디’(hərfi-ədədi) 형태로 쓰여졌다. 아랍인들이 속해 있던 앵재드(əbcəd)계의 글자는 소리로 음조를 나타내며, 숫자는 소리의 길이를 가리킨다.

새피엣딘의 논문들은 학문의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에도 분실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뉴욕, 파리, 베를린, 비엔나, 카이로, 이스탄불, 바쿠와 같이 전 세계 여러 도시의 도서관에 필사본이 소장돼 있다. 유명한 유럽 학자인 라파엘 게오르그 키제베테르(Rafael Georq Kizevetter)는 그를 ‘동양의 기오세포 자를리노(Gioseffo Zarlino)’라고 했다. 영국의 위대한 학자 ‘차를즈 파리’(Çarlz Parri)는 새피엣딘이 체계화한 분류 표를 역사상 가장 완벽한 표로 여겼다. 조르즈 페르메르(Corc Fermer)는 새피엣딘을 빛나는 별에 비유하여 그를 ‘체계화 시스템’의 창시자라고 불렀다. 그의 작품들은 동양의 음악 이론과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기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새피엣딘의 위대한 업적은 동양음악 체계를 정립한 것이며, 음악

계에 ‘시스템주의’를 세운 창시자로 평가되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피엠티딘 우르메비

●다국어 표기 Safiaddin Urmevi(영어), Sefieddin Urmevi(튀르키예어), Сафиеддин Урмеви(러시아어)

●참고문헌(오프라인) Naci bəyov Üzeyir, *Azərbaycan xalq musiqisinin əsasları*, Bakı, 1950.

Каждар Чингиз, *Выдающиеся сыны древнего 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Азербайджана.*—Баку, издательство «Эргюн», 1995, 392 с.

I D073 | 셋타르 배흐룰자대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화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Sattar Bahlulzade

셋타르 배흐룰자대(Səttar Bəhlulzadə)는 1909년 12월 15일 바쿠(Bakı)의 시골 마을인 애미르잔(Əmircan)에서 태어났다. 아제르바이잔 미술학교(Azərbaycan Rəssamlıq məktəbi)를 졸업하고, 1933년에 모스크바 국립 미술대학교에 입학했다. 이어 1941년에는 수리크오브 모스크바 미술대학교(V.İ.Surikov adına Moskva Rəssamlıq İnstitutu)를 졸업했다. 그는 유명 화가 파보르스키(V.Favorski)와 샤갈(Q. Saqalın)의 제자이기도 하다.

셋타르 배흐룰자대는 카툰을 그리면서 첫 예술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 역사적 주제와 역사적 인물들을 다루는 것을 선호했다. 동시에 자연에 대한 묘사도 즐겨해서 압세론(Abşeron)의 자연미를 그렸다. 그의 대표적인 풍경화들로는 「부조브나의 유전(Buzovna neft mədənləri)」, 「애미르잔(Əmircan)」, 「카스피해 해안가의 밤(Xəzər üzərində axşam)」, 「카스피해의 미인(Xəzər gözəli)」, 「캐패지의 눈물(Kəpəzin göz yaşları)」, 「수라칸 불의 성전(Suraxanı atəşgahı)」, 「원유 원석(Neft daşları)」, 「구드알르차이(Qudyalçay)」 등이 있다. 그의 창작물에서는 정물화, 초상, 카펫 장식을 반영한 민속적인 모티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벨기에, 프랑스, 쿠바, 캐나다,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시



「카스피해 해안가의 밤(Xəzər üzərində axşam)」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리아, 튀니지 등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개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전 세계 박물관에 그의 작품들이 영구 전시품으로 보존돼 있다. 많은 그림들이 우표에 실리기도 했다.

그는 자연 풍경도 그림에 담았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여행하면서 자연 모티프를 다채롭게 그림으로 옮겼다. 산의 경치와 과수원, 봄의 아름다움, 목화 밭, 가을의 황금빛갈, 카라바흐(Qarabağ)의 절경들을 린넨 화폭에 담아냈다.

그는 서정적이고 시적인 경치를 담은 회화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흰색, 파란색, 초록색 등 밝은 색들을 조합해 경치를 표현했다. 그의 작품들은 무스타파예브 아제르바이잔 국립 예술 박물관(R.Muštafayev adına Azərbaycan Dövlət İncəsənət muzeyi)과 아제르바이잔 국립 갤러리(Azərbaycan Dövlət Şəkil Qalereyası)에 소장돼 있다. 이 외에도 모스크바(Moskva) 등 여러 도시의 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대다수는 개인 소장품이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화가로 아제르바이잔 명예 예술가(1960년), 아제르바이잔 국

민화가(1963년) 칭호를 수여받았고, 아제르바이잔 국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화풍 창시자 중 한 명이며, 1974년 10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타르 바흐룰자데, 샷타르 배흐룰자데

●다국어 표기 Sattar Bahlulzade(튀르키예어), Setdar Behlulzade(영어), Сеттар Бехлұлзаде(우즈베크어), Səttar Bəhlulzadə(아제르바이잔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d/d2/S._B%C9%99hlulzad%C9%99_-_X%C9%99z%C9%99rd%C9%99_ax%C5%9Fam.JPG

●참고문헌(오프라인) Ələsgərov B., *Boyalarda yaşayan ömür*, Bakı, 2009.

I D074 | 생명의 나무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생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Tree of life

세계수라고도 불리는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은 전 세계의 종교, 신화 및 철학에 널리 퍼져 있으며 수목 신앙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생명의 나무의 뿌리, 몸체 및 가지와 덩굴은 세계의 3층을 의미하며, 나무의 연결은 곧 우주의 층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생명의 나무는 우주의 중추이다. 인간의 뼈는 생명의 나무로 개인화된다. 혈통-족보 역시 인간과 생명의 나무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를 뜻한다.

투르크 신화에도 역시 이 생명의 나무 개념이 널리 퍼져 있다. 야쿠트와 알타이 투르크에게 생명의 나무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고 북극성과 연결되어 있고, 샤먼이 나뭇가지를 통해 저승으로 여행할 수 있다. 야쿠트 투르크에 전해지는 또 다른 전승에서는 신은 여덟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불사의 샤먼은 하늘에 있는 나무에서 탄생했으며, 하늘에 존재하는 이 성스러운 나무의 잎사귀는 시들지 않는다. 필멸하는 샤먼들은 땅에 있는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아쿠트족의 세계수인 아알 루우크 마스(aal luuk mas)를 형상화한 조각

알타이 투르크의 다른 신화에서는 사람들이 탄생할 때 우마이 아나와 함께 두 그루의 너도밤 나무도 땅에 전해졌다고 믿었다. 알타이의 아바칸 투르크는 세계의 중심에 철산(鐵山)이 있고, 철산 위에 7개의 가지가 있는 하얀 자작나무가 있다고 믿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커다란 산의 바닥에 강이 있었고, 일레 칸의 네모난 집이 있었으며 집 앞에 아홉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고 믿었다. 아홉 개의 가지가 달린 하늘 나무 곁에는 해와 달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 신화는 서쪽으로 갈수록 변형되며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하늘 나무가 된다. 일부 투르크는 가지가 아닌 뿌리가 아홉 개라고 믿기도 한다.

생명의 나무는 샤머니즘과 연결 고리가 깊은 만큼 일부 샤먼 제례에 생명의 나무를 형상화한 조각 따위를 이용하기도 한다. 생명의 나무는 예술 작품에서 모티브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투르크 국가에서는 국가의 상징이나 기관의 상징에 일부 사용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계수

●다국어 표기 Жашоо дарагы(키르기스어), Həyat ağacı(아제르바이잔어), Hayot daraxti(우즈베크어), Hayat ağacı(튀르키예어), Өмүр ағашы(카자흐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rslan, Seher. “Türklerde Ağaç Kültü ve Hayat Ağacı”, Uluslararası Sosyal ve Eğitim Bilimleri Dergisi, s.1, 2014.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Cilt 2, Ankara: Türk Tarih Kurumu, 2010.

I D075 | 생활민요(아제르바이잔)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민요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Meişet mahnıları

아제르바이잔의 민요들은 그 주제에 따라 사랑가(歌)와 생활민요 등으로 나뉘어진다. 생활민요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과 욕망을 담은 노래이다. 생활민요는 특정한 의식이나 행사와 연관돼 있으며, 텍스트, 내용, 예술적 특징,

표현되는 감정과 이미지 측면에서 다른 민요들과 다르다.

생활민요에는 자장가, 엄마가 아기를 깨울 때 부르는 노래의 일종인 쓰다듬질(oxşama) 노래, 서정요(lyrical songs),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풍자가(歌)들이 포함된다. 자장가에는 아이의 장래에 대해 긴장하고 걱정하는 엄마의 감정과 소망이 반영돼 있다. 자장가는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것인 반면에, 쓰다듬질(oxşama) 노래는 아기를 깨울 때 부른다. 쓰다듬질(oxşama) 노래를 때로는 ‘아이를 귀여워해준다’는 의미로 ‘기 살리기(nazlama)’로 부르기도 한다. 자장가는 낮은 톤이고 조용하지만, 쓰다듬질(oxşama) 노래는 명랑하고 리드미컬하다. 이 노래들은 아이들에게 민첩성이나 용기와 같은 높은 자질을 심어주며, 어른들이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장가와 쓰다듬질(oxşama) 노래의 음계와 시적 언어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멜로디가 풍부한 생활민요들은 독특한 스타일로 연주된다.

아제르바이잔 생활민요만의 고유한 특성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작곡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인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이폴리토프 이바노프(Mikhail Mikhaylovich İppolitov-İvanov)가 1930년에 교향악단을 위해 창작한 작품 「투르크 프래그먼트(Türk fraqmentləri)」와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작곡가인 위제이르 하즈베일리(Üzeyir Hacıbəyli)가 4인조 합창단(four-voiced choir)에서 이 생활민요들의 멜로디를 새로운 버전으로 연주했다.

생활민요의 대다수는 서정요이다. 서정요는 멜로디와 내용 면에서 다른 생활민요들과 다르다. 사람들의 일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태도와 순수한 사랑, 그리움과 이별, 사랑의 고뇌, 기쁨과 슬픔 등의 인간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다. 「할머니야, 내 애인이 오게 해 줘(Qoy gülüm gəlsin, ay nənə)」, 「나이팅게일들이 지저귄다(Bülbüllər oxur)」, 「꽃미남(Gül oğlan)」, 「검은 점이 있는 애인(Qara xal yar)」, 「검은 머리카락(Qara tellər)」, 「애인이 우리 집으로 손님으로 온단다(Yar bizə qonaq gələcək)」 등의 노래들은 시적 텍스트와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예들이다. 생활민요의 종류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해학요(諧謔謠)이다. 이 노래들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미래에 대한 믿음, 사랑과 좋은 기분 등을 찬양한다. 즐거운 멜로디와 기쁘고, 명랑함이 해학요의 특징이다. 「찰파팍(Çalpapaq)과 매멤드해센(Məmməd həsən)」이 이러한 친밀한 유머와 해학이 느껴지는 대표작이다.

한편, 풍자가(諷刺歌)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와 인간관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노래이다. 이들 노래에서는 인간의 위선, 거짓말, 오만,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인 특징이 풍자적인 요소를 통해 표현된다. 사적이고 서정적인 사랑의 모티프들이 결합되기도 한다. 이 노래들에는 불평과 항의의 정신이 담기기도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Aman nənə)」가 그 예 중의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이셧 마흐느라드
- 다국어 표기 Meişet mahnıları(아제르바이잔어), household songs(영어), домашние песни(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ərimi S., *Xalq mahnıları*, Bakı, 2014, səh.74.

I D076 I 샤압바스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이란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이주연 ●라틴 문자 Shah Abaas I

샤압바스(1571년~1629년)는 16세기~17세기 이란 사파비 조의 다섯 번째 군주(Shāhanshāh)이다. 그의 아버지는 술탄 무함마드 샤(무함마드 후다반다)였다. 그는 1588년 즉위하여 약 41년 샤한샤의 자리에 있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사파비 조의 두 번째 군주이자 조부인 타마스프 1세가 군주로 있었다. 타마스프 1세가 1576년 사망한 후, 그의 숙부 이스마일 2세는 부친과 떨어져 헤라트에 있었던 그를 살해하라고 헤라트의 총독에게 명을 내렸다. 이 명령은 총독의 거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스마일 2세는 1년만에 크즐바슈 아미르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러나 부친인 후다반다는 그의 부인과 투르크멘 부족 및 타칼루 크즐바슈(Takkalū Qezelbāš) 부에게 휘둘렸고, 이때 후라산에 있던 다른 크즐바슈 부인 오스타즈루(Ostājīlū)와 샴루(Šāmlū) 부는 여전히 헤라트에 있던 왕자 압바스를 내세워 1581년 반란을 일으켰다. 이는 곧 진압되었으나 1585년에 재차 오스타즈루 부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은 카즈빈에서 계승자 분쟁 중이었던 다른 왕자들에게 맞서 서쪽으로 진군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지지를 얻었다.

결국 1588년 부친인 후다반다는 그에게 샤한샤의 지위를 물려주었고, 그를 내세워 반란을 일

오킨 오스타즈루 부의 무르시드 쿨리 칸(Moršed-qolī Khan)은 그의 디반 알라의 와킬(vakīl-e divān-e ‘ālī)이 되었다. 이렇듯 그는 여러 크즐바슈 부족의 도당 형성 및 갈등의 상황, 그리고 동쪽에서는 우즈베크가, 서쪽에서는 오스만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샤한샤가 되었다. 이에 그는 크즐바슈 부족의 군사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 개인의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 자신의 개인 근위병(golāmān-e kāšša-ye šarīfa)을 조직했다. 이들은 오스만의 예니체리와 유사하게 조지아, 아르메니아, 캅카스 그리스도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과거에 사파비 조의 캅카스 원정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었다. 샤 압바스는 이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왕실의 업무와 행정을 교육시킨 다음, 샤한샤 개인에게 복종하는 군대의 일원으로 키웠다. 이들은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었으나 당시 샤한샤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료제 내에서도 이 굴람들이 주요 관직을 점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크즐바슈와 페르시아인 관료라는 양강 경쟁 관계에 변화가 생겨났다. 또한 이로 인해 행정의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고, 수피 종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특한 역사로 인해 끊임없이 샤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는, 이념상 샤의 스승인 수피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상의 개혁으로 인해 사파비 정권은 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가 처해 있던 또 하나의 난관은 동쪽의 우즈베크과 서쪽의 오스만에 대한 대외 정책이었다. 그가 카즈빈에서 부친에게서 왕위를 선양받을 때 그의 본거지인 후라산은 우즈베크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영토가 우즈베크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대도시인 마슈하드나 칸다하르가 각기 우즈베크와 무굴 제국의 손에 있기도 했다. 압바스는 우즈베크의 칸이 사망했을 때 기회를 잡아 1598년경 헤라트와 마슈하드를 탈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흥하는 잠시 정복에 그쳤을 뿐 새로 우즈베크의 칸이 된 바키 무함마드에 의해 빼앗겼고, 그는 그곳에서 많은 친위 굴람을 잃었다.

한편 그는 서쪽으로는 오스만에 맞서 1603년~1604년에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여 나흐트반과 에리완을 차지했으며 간자와 티플리스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이 시기 내부 갈등에 처해 있었던 오스만은 잠시 1617년~1618년에 평화조약을 맺었으나 수년 만에 압바스가 조약을 깨고 바그다드와 디야르바크르까지 차지했다.

한편 사파비는 이 시기에 다른 방향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1601년~1602년에 바레인, 1607년~1608년에는 시르완을 병합했고, 호르무즈섬을 1620년~1621년에 포르투갈로부터 탈환했다. 그러나 조지아에 대한 전쟁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아, 최종적인 병합까지 이



이스파한(이란)

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사파비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수도, 이스파한으로 천도한 샤한샤이기도 하다. 지금도 남아 있는 이스파한의 여러 건축물, 특히 니스프자한을 둘러싼 루트풀라 마스지드나 샤마스지드 등은 그의 시대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또한 카즈빈의 왕궁이나, 카스피안 해의 아슈라프(동영지) 등도 건축했고 마슈하드의 이맘레자 성묘도 복구했다. 특히 이 이맘레자 성묘의 복구는 아르다빌의 사파비 종단 셰이흐들에 대한 그의 종속적 입지를 조금이나마 탈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었다. 또한 그는 전국에 대상소와 길, 그리고 다리 등을 건축하여 국가 내에서의 유통을 증진시키고자 했으며, 여러 세속적인 기능을 지닌 건축물, 학교나 병원, 목욕탕 및 다른 공공 시설을 짓는 데도 열심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샤 압바스의 시대는 페르시아의 고전 예술이 마지막으로 꽃피운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아름다운 예술품은 사치품으로 타국의

주목을 받았고, 이스파한은 사방에서 수많은 해외 장거리 상인들이 몰려들어 그들의 공예품을 구매하는 곳이 되었다. 지금도 이스파한의 주요 상업 거리인 졸파 구역은 원래 아나톨리아 장인들과 상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인데, 이곳의 상인들은 이란을 사방에서 횡단하는 상업 을 통해 이란의 대외 무역 수입의 큰 몫을 담당했다. 또한 그의 시대에는 많은 유럽 상인, 선교사, 탐험가들이 그의 궁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셰르레이(Sherley) 형제, 피에트로 델라 바예(Pietro della Valle) 등이다. 그는 유럽의 세력과 더불어 오스만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기를 바랐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크림미아의 타타르 칸이나 모스크바 공국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은 반란으로 인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되어, 전통에 따라 자녀들을 각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하고 크즐바슈 아미르를 후원자로 삼는 정책을 철회하고 그들을 하렘에 두었다. 그러나 결국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군주로서의 자질을 배우지 못했고, 하렘의 세력이 오히려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그는 한 아들을 처형하고 다른 두 아들을 눈멀게 했으며, 그가 1629년 사망할 때 즈음에는 그를 계승할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사파비 조의 점진적인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희압바스

●다국어 표기 Şah Abbas (튀르키예어), شاه عباس بزرگ (페르시아어)

●연관 검색어 사파비 조, 키질바슈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bbas-i>

●참고문헌(오프라인) Savory, R. M. "Abbas 1,"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pp.7~8, 1986]Sheila R. Canby, Shah 'Abbas - the Remaking of Iran, London: the British Museum Company Press, 2009.

I D077 | 샤 이스마일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이란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이주연 ●라틴 문자 Shah Ismail I

샤 이스마일은 1487년 사파비 수피 종단의 셰이흐 출신으로 술탄을 칭하며 세속 군주가 되기 시작한 셰이흐 하이다르 사파비 술탄과, 아크코윤루(백양조)의 군주 우준하산의 딸 알람 샤 베클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파비 종단은 이란 서북부 길란의 도시, 아르다빌에서 200여 년간 성장한 수피 종단으로, 이스마일의 조부인 주나이드는 세속 군주로서의 야욕을 가지고 스스로 술탄이라고 칭했다. 그의 모친과 조모는 모두 아크코윤루 왕가의 여인이었으나, 이 셰이흐-술탄의 세력이 성장하자 결국 아크코윤루와 사파비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부친인 하이다르는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했다. 그런데 1394년에 아크코윤루의 왕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빚어졌고, 그 중에 루스탐이라는 왕자가 사파비의 도움을 얻어 그의 맞수를 제거했다. 그러나 이 루스탐은 점차 사파비를 위협으로 여겨 이스마일의 형인 알리를 살해했다. 이에 이스마일은 사파비의 본산이었던 아르다빌로 도주했다. 그는 길란의 라히잔에 약 5년간 숨어 있었으나 그의 제자들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나톨리아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투르크멘 부족민 출신의 크즐바슈였다. 그가 유목 부족인 크즐바슈들에게 맞는 투르크식 기도문을 짧게 만들어 내는 등 그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세력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그가 1499년에 길란에서 출사하여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를 추종하여 에르진잔에 모여든 수피, 즉 크즐바슈 부족세력이 약 7,000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들을 앞세워 주변 지역을 원정하기 시작했고, 시르반과 아크코윤루를 넘어 아제르바이잔, 타브리즈를 차지하게 되어 그곳을 수도로 삼아 1501년 즉위했다. 이때는 그의 나이 14세였다.

그는 더 나가 중앙아시아에서 티무르 조를 몰아내고 성장한 우즈베크의 무함마드 샤이바니 칸에게 1510년, 마르브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년 후에 티무르 조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자히르 앳 딘 바부르가 샤이바니 벵을 몰아내기 위해 원군을 요청했으나, 결국 바부르와 크즐바슈 연합군은 샤이바니에게 패배했다. 바부르는 중앙아시아를 포기하고 인도로 남하하여 무굴 제국을 건설했고, 사파비 조와 우즈베크 샤이바니 조는 변경을 마주한 채로 오랜 시간에

걸쳐 국경 분쟁을 치르게 되었다.

현 이란의 강역은 이스마일의 즉위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완성되었는데, 그 마지막은 아크 코윤루의 영역이었던 바그다드를 1508년에 차지한 것이었다. 그리고 1514년에는, 사파비 조의 전투 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인 찰드란(Chaldran) 전투가 발생했다. 이는 당시에 역시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고 있던 오스만의 술탄 셀림 1세가 사파비 조로 쳐들어와 그를 패배시킨 것이다. 이 전투로 인해 사파비 조의 팽창이 막을 내렸다. 사실 이 시점이 되면 사파비는 그 주변을 둘러싼 세력들로 인해 더 이상의 팽창이 불가능했다. 서북쪽으로 오스만, 동북쪽으로 우즈베크, 동남쪽으로 무굴 제국이 있었으며 서남쪽은 바다가 있었다. 이 시점부터 그가 사망하던 1524년까지, 그는 더 이상의 군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 행정과 정치 업무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외교 활동을 통해 오스만을 견제하는 정책을 고안하여, 유럽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오스만을 양측에서 고립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시아파의 12대 이맘파를 국교로 선포한 군주인데, 본래 그는 수피 종단의 셰이흐 중에서도 주장인 ‘완전한 영적 안내자(Murshid-I Kamil)’의 반열에 있었다. 그로 인해 그의 수피 셰이흐로서의 역할과 세속 군주인 파디샤로서의 역할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그의 휘하에 있던 크즐바슈 유목 세력과 페르시아 관료 세력도 갈등을 빚었다. 또한 아직까지 다수를 차지하던 수니 피지배민들을 어떻게 시아파로 개종시키는가도 문제였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 가운데 일부는 그의 대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나, 일부는 후대의 몫이 되었다. 그는 1524년에 사망하여 가족 묘가 있는 아르다빌에 매장되었고, 그의 아들 타마스프 1세가 그를 계승했다.

사파비 조는 사산 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란이 이슬람화 된 후에 최초로 건국된 국가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재 시아파의 맹주이기도 한 이란이 공식적으로 처음 12대 이맘파를 국교로 받아들인 시기도 사파비 조 시기였다. 이를 통해 사파비 조는 당시에 그들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침공했던 수니파 주변 정권인 우즈베크나 오스만에 대한 사파비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내부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흐 이스마일

●다국어 표기 Şah İsmail(튀르키예어), شاه اسماعیل(페르시아어)

●연관 검색어 크즐바슈, 샤이바니 칸, 샤이바니 조, 찰드란 전투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bbas-i>

●참고문헌(오프라인) R. M. Savory, “Abbas 1,” Encyclopaedia of Islam 4, Leiden: Brill, 1997, pp.186~187.

I D078 | 샤가아(샤그 아아지)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례 ●유형 소분류2 명절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hagaa

샤가아는 투바 민족의 불교식 음력 새해 축제로 2월이나 3월에 기념하는 가장 성대하고 큰 명절이다. 오래된 고대의 의식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 명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 탄생, 부활, 정결을 의미한다. 투바인들에게 새해는 시간의 철학적 인식과 연관된다. 지난 해의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기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새해이다. 그래서 새해는 삶과 인간, 우주의 시간들의 위대한 연결을 확인해 준다.

샤가아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순환’이란 뜻을 가진 단어 샤그닝 타아지(шагның чаазы)에서 유래한다. 샤가아는 종교적이고 영적, 도덕적 의미를 잘 드러내는 행사들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정화 의식이다. 투바인들은 샤가아 기간 전에 집과 마을, 주변을 미리 깨끗이 청소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늦게 잠자리에 든다. 다음 날엔 불교 사원에 등잔과 음식을 공양하고, 태양과 불에 경배하는 상 살리르(сан салыр:노가지 나무 태우기) 의식을 치른다. 불교 사원에서의 행사는 라마들이, 상 살리르는 무당들이 주관한다. 투바 민족은 태양과 불을 신성하게 여기는 민족이고 상 살리르 의식은 이것이 잘 반영한다.

샤가아에서는 투바 민족의 전통 인사 의례인 출루크슈우르(чолукшуур)를 행한다. 손님을 환대하는 샤가아 기간에는 서로 방문하며 대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명절 음식을 대접한다. 그리고 샤가아 기간에는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잃지 않는 전통 놀이(활쏘기, 후레시(хуреш: 몽골식 씨름), 스키 등)를 즐긴다.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샤가아는 러시아 남부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들과는 달리 몽골의 종교적, 문화적 영향과 고유의 세계관을 잘 반영하는 북아시아 투르크 민족의 독특한 세시풍속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가
- 다국어 표기 Шараа(러시아어), Şaga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바, 투바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TIR5-YEo-4>
<https://www.youtube.com/watch?v=cmK34tvo3N0>
- 참고문헌(온라인) http://gov.tuva.ru/press_center/news/holidays/846/
<http://travelask.ru/articles/tuvintsy-gorlovoe-penie-sumo-i-solenyy-chay>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рбатский, Г.Н. Тувинские праздники. Шагаа. Кызыл: Тув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73, 3~20.

I D079 I 샤거우 유적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운 ●라틴 문자 Xiagou Cemetery

샤거우 유적은 중국 신강성 하미지구(哈密地區) 우현(伊吾縣)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샤거우(峽溝)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이 유적지에서는 주거지와 무덤이 발견되었다. 건물지는 석축으로 담장을 쌓고 그 중앙에 주거지를 세웠다. 석축의 높이는 대략 1.2m이고 중앙에는 6.4m×6.4m가량이다. 이 유구는 제사 유적 혹은 지역의 유목민 겨울 주거지라는 의견이 있다.

무덤은 남과 북쪽 구역으로 나뉘는데 북쪽은 적석묘이고, 남쪽은 무덤의 가장자리에 돌을 두른 수혈묘(구덩이)이다. 1호 무덤은 장방형 석곽이 적석 사이에 작게 만들어졌다. 남쪽의 수혈묘는 석곽을 두른 것으로 인골은 옆으로 누운 채로 다리를 굽힌 채 묻혔다.

이 유적은 기원전 4세기~3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이 있는 주거지는 동헤이거우(東黑溝)에서 발견된 바 있다. 샤거우 유적은 동헤이거우 문화와 함께 바리쿤 지역의 고대 유목민의 주거지와 무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적석묘 및 석곽묘도 함께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중국 사서에 ‘월지(月氏)’로 기록된 집단과 토착민일 가능성이 크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아고우 유적

●참고문헌(오프라인) 西北大學文化遺產學院, 「2008年新疆伊吾峽溝墓地發掘簡報」, 『考古與文物』1期, 陝西省考古研究院, 2016.

I D080 | 샤드르반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구조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şadırvan

샤드르반은 일반적으로 모스크의 마당 가운데에 있는 시설로, 가운데의 분수 기관과 작은 수도꼭지를 통해 물이 흐르게 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윗부분은 지붕으로 덮여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슬람 초기 시대에 메카에 존재하던 잠잠의 샘 곁에 물을 마시고 세정의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이것이 샤드르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전통에 따라 이슬람 초창기부터 모스크에는 신자들이 세정 의식(우드)을 할 수 있도록 인공 못, 수조, 우물 또는 음수대와 같이 물과 관련된 다양한 설비를 구축했다.

그중 샤드르반은 특히 튀르크인들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졌다. 샤드르반은 모스크뿐만 아니라 대상 숙소, 마드라사나 정원 등에도 자리하고 있으며, 광장이나 시장에도 음수대 역할을 하는 샤드르반이 있다.

오스만 시대에 건축된 샤드르반의 대부분은 단순한 형태이나 술탄이나 재상과 같이 지위 높은 인물들이 후원하여 만든 샤드르반의 경우 화려하고 장식성을 갖추고 있다.

샤드르반은 가운데에 존재하는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 윗면이 개방된 수조에 흐르고, 이 물은 다시 수도꼭지나 수도관을 통해 밖으로 나와 여기서 나온 물로 세정 의식을 하거나 마실 수 있다.



샤드르반(Güzelce Kasımpaşa Mosque, 이스탄불)

오스만 시대에 처음으로 ‘샤드르반’으로 명명한 설비는 1470년에 건설된 이스탄불 파티흐 모스크(Fatih camii) 중정에 위치한 샤드르반이다. 팔각형의 천개(天蓋) 형태의 샤드르반으로 뾰족한 원뿔형 지붕을 여덟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샤드르반은 보통 4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셀주크 시대와 오스만 시대에 주로 지어진 수조 형태의 샤드르반이다. 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다.

둘째, 다각형 수조 모퉁이에 세워진 기둥을 세워 지붕을 올리고, 일반적으로 처마가 넓은 샤드르반으로, 세정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비나 눈, 햇살 따위를 피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천개 형식의 샤드르반으로, 오스만 시대의 대부분의 샤드르반이 이런 형태이다. 위에 지붕이 있고 옆 벽면이 없는 형태이다.

넷째, 샤드르반이 건물의 다른 부분에 붙어 있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이즈미르 샤드르반알

트 모스크(Şad.ırvanaltı Camii)의 경우 모스크 도서관 하단부에 샤프르반이 위치해 있으며, 부르사 티무르 타쉬 파샤 모스크(Bursa Timurtaş Paşa Camii)의 경우 미너렛 지지대 부분에 샤프르반이 설치되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모스크 분수대, 샤프리반

●다국어 표기 şadırvan(튀르키예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cUDD>

<https://zrr.kr/CTCo>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02072013/53949926-4551-44f1-858c-9f7cfcb7ba01.JPG>

●참고문헌(오프라인) Önge, Yılmaz. Türk mimarisinde Selçuklu ve Osmanlı dönemlerinde su yapıları, Ankara: Türk Tarih Kurumu, 1997.

Kılıcı, Ali. “Şadırva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38, İstanbul, 2010, pp.219~221.

I D081 | 샤프르 라쉬더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arof Rashidov

샤프르 라쉬더브(Sharof Rashidov)는 1917년에 지자흐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1941년~1942년 군복무 당시 나치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다. 이후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레닌의 길(Lenin yo'li)> 신문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그는 1944년부터 1947년까지 사마르칸트 지역 위원회 서기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신문의 책임 편집자, 1949년부터 1950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회장을 맡았다. 또한 그는 1950년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의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59년까지 복무했다. 이후 1959년부터 1983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 서기장을 맡았다.

당의 핵심 요직으로 복무한 정치인이었던 샤러프 라쉬더브(Sharof Rashidov)는 우즈베크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문학 평론가, 문학 연구자 그리고 산문작가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사회평론가 및 언론인이기도 하다.

그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시인으로, 이어 1940년대 말부터는 문학평론가이자 문학연구자로서 활동하며 입지를 다졌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생과 문학의 혁신(Hayot va adabiyot yangiliklar)』, 『예술과 이념의 고도를 위하여(Badiiy va g'oyaviy yuksaklik uchun)』, 『높은 이상을 향한 길(Yuksak ideallar yo'lida)』, 『마음 속 부름으로(Qalb da'vati bilan)』, 『현대성-문학과 예술의 내면(Zamonaviylik - adabiyot va san'atning qalbi)』, 『형제들 사이의 형제(Birodarlar orasida birodar)』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은 현대 문학의 특징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문학 발전의 원천에 대한 문제제기,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에 대한 질문, 현대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문학적 소통 등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 당시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의 단편소설로는 『우승자들(Goliblar, 1951)』, 『카슈미르의 노래(Kashmir qo'shig'i, 1957)』, 『폭풍보다 더 강한(Bo'rondan kuchli, 1958)』, 『강력한 파도(Qudratli to'lqin, 1964)』, 『마음의 명령(Dil amri)』 등이 있다.

현대 우즈베크 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샤러프 라쉬더브는 1983년 10월 31일 세상을 떠났다.



샤러프 라쉬더브 동상(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러프 라쉬도프, 샤러프 라쉬도브
- 다국어 표기 Sharof Rashidov(우즈베크어), Шараф Рашид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8148.jpg

●참고문헌(오프라인) Ergashev Sh, *Erk istar ko'ngil atoqli davlat arbobi va yozuvchi Sharof Rashidov tavalludining 100 yilligiga bag'ishlanadi*, O'zbekiston, Toshkent, 2017.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O'zbekiston, Toshkent, 1993.

I D082 | 샤리프 버쉬베커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희곡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arof Boshbekov



샤리프 버쉬베코프

Source: <https://xs.uz/upload/post/2020/01/13/>

우즈베키스탄의 극작가인 샤리프 버쉬베커브(Sharof Boshbekov)는 1951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예술대학 뮤지컬학과에서 공부했으며, 무키미 극장과 국립 시르다리아 극단에서 배우로 연기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에서 근무했으며, 1986년부터 1987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아카데미 드라마 극장 문학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G' 형(G'varianti, 1981)», 「자부심(G'urur, 1982)», 「수수께끼(Jumboq, 1986)」 등 단편소설

을 출간했으며, 「동여맨 앞다리 줄을 끊어낸 말들(Tushov uzgan tulporlar, 1983)», 「운명의 문(Taqdir eshigi, 1987)», 「노크한 사람 누구일까?(Eshik qoqqan kim?, 1987)», 「구도시의 가브리쉬(Eski shahar gavroshlari, 1998)», 「철의 여인(Temir xotin, 1989)」 등의 희곡을 집필했다. 특히 「철의 여인(Temir xotin, 1989)」은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 상연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 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세계관의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사회현상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그는 「샤리프와 마루프(Sharif va Ma'ruf)」, 「뽀뽀한(Yuzsiz)」, 「황금 아이(Tilla bola)」와 같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으며, 영화 「광대(Masxaraboz, 1996)」, 「파르허드와 쉬린(Farhod va Shirin)」의 경우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으로 참여했다. TV 시리즈 「물레방아(Charxpalak)」의 시나리오 역시 그의 작품이다. 이외에도 영화 「게임(O'yin, 2002)」,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Doka ro'molning qurishi, 2004)」의 각본을 쓰고 영화 「막다른 길(So'qmoq, 2003)」, 「사랑과 모제르 소총(Mehr va mauzer, 2007)」을 감독했다.

『운명의 테(Falakning gardishi, 2009)』, 『이방인이 될 때까지(Musofir bo'lmaguncha, 2009)』, 『어리석은 천사(Tentak farishta, 2010)』 등과 같은 그의 기고문, 단편소설 그리고 시나리오 선집도 출간되었다.

그는 「철의 여인(Temir xotin, 1989)」으로 1989년에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으로부터 '샤이 흐저다(Shayxzoda) 상'을 수상했으며, 1990년에는 국가상을 받았다. 이어 1999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문화인 칭호를 받았다. 2001년에는 노동명예훈장을 받았다.

샤리프 보쉬베코브는 2022년 1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로프 보쉬베코프, 샤로프 보쉬베코브
- 다국어 표기 Sharof Boshbekov(우즈베크어), Шараф Башбеко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xs.uz/upload/post/2020/01/13/47a70ae9ed8e16e14ebd2929a1ab8bd20113.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nasri/sharof-boshbekov/>
<https://arboblar.uz/uz/people/boshbekov-sharof>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Fan, Toshkent, 2007.

I D083 | 샤른 캐니언

-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계곡
-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Charyn Canyon

샤른 혹은 차른 캐니언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서 동쪽으로 20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유사한 계곡 지형이다. 승용차로 달릴 경우 도로 사정 때문에 3시간 이상 소요된다. 붉은색 토양의 계곡이 150km 정도로 이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30,000ha에 이른다. 근처에 흐르는 강이 샤른 강이며, 이 강은 발하쉬 호수 쪽으로 흘러간다. 계곡의 풍광은 웅장하며 특정 지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강 근처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축소판에 비유된다.



샤른 캐니언

계곡 형성의 시기는 약 3백만 년 전인데, 해당 지역이 융기하여 거대한 호수가 빠져나가면서 계곡이 만들어졌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지진과 풍화 작용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차량을 타고 계곡 지형을 관람할 수 있지만, 대략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도보로 움직인다. 가다 보면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형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생긴 모습이 성채와 같은 곳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야영지에는 간단한 식당이 있고 바로 샤른 강이 인접해 있다. 강을 타고 하류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물살이 매우 세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샤른은 위구르어 단어인데 물푸레나무에 속하는 식물 이름이며 그 결과 현지의 지역명이 만들어졌다.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 지형은 200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샤른은 카자흐어식 발음이고 일반적으로 차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차른 캐니언
- 다국어 표기 Шарын шатқалы(카자흐어), Чарынский каньо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weDsOgHZ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5/CharynCanyon.jpg/1024px-CharynCanyon.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lmaty-kazakhstan.net/attractions/parks/charyn-canyon/>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D084 | 샤바타이 즈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종교인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Shabbatai Sebi

샤바타이 즈비는 유대교 신비주의자이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한 유대인 랍비였다. 그는 1626년 이즈미르에서 펠로폰네소스 출신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부터 유대 신비주



샤바타이 즈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의 카발라를 학습하고 연구했으며, 금욕과 고행을 일상적으로 행했다. 그는 대단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고 논란이 많은 종교 행위를 권장하여 기성 랍비들의 비난을 샀다. 그는 고향 이즈미르에서 1651년 추방되었고 살로니카, 이스탄불, 예루살렘, 카이로 등 여러 지역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가자의 랍비 나탄 아쉬케나지를 방문해서 그에게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나서, 나탄이 여러 지역에 그를 메시아로 선전하는 회람문과 소책자를 보내자 이는 쿠르디스탄, 모로코, 유럽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의 유대인 세계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추종자들로부터는 열광적 환영을 받았지만, 기성 랍비들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존재였고, 랍비들이 그를 카디 법정에서 고발하기도 했다. 샤바타이 즈비 열풍은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서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더 고조되었다고 한다. 나탄의 예언에 의하면 그는 이스탄불에서 어려움을

없이 술탄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1666년 초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오스만 당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샤바타이 즈비를 체포하여 다르다넬스의 성채에 가두었다. 그러나 성채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그는 많은 방문객들과 추종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샤바타이 추종 현상은 계속되었다. 결국 1666년 9월 그는 당시의 술탄 메흐메드 4세가 사냥을 위해 종종 머무르던 에디르네로 소환되어 죽음과 개종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결국 개종을 선택했다. 그는 경건주의 이슬람 운동 카드자델리의 거두였던 와니 에펜디에게서 이슬람 교육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믿고 따르던 메시아의 ‘개종’은 크나큰 충격이었으나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샤바타이 즈비의 개종은 메시아로서 그가 겪어야 하는 신성한 고난으로 여겨졌고, 상당수가 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샤바타이 즈비는 일부 고위급 신도들에게 그를 따라 개종하는 ‘특권’을 마련해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생겨난 그의 추종자 출신의 무슬림들은 샤바타이 파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무슬림들과 통혼하지 않았다. 이들은 겉으로 무슬림의 외양을 보이면서도 샤바타이 신앙을 견지했는데, 이들은 ‘뉘메’(dönme: ‘개종자’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오스만인 사이에서 불렸으며, 3개의 분파로 나뉘었고 특히 샬로니카를 중심으로 번영하는 집단을 이루었다.

샤바타이 즈비 사건은 17세기에 유대인들이 이전에 비해 중앙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상태 및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대량 유대인 학살로 높아진 집단적 불안감과도 관련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스만 제국 내부뿐 만 아니라 전 유럽과 전 지중해에 걸친 유대인들의 상호 연결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바타이 제비

●다국어 표기 Sabatay Sevi(튀르키예어), Sabbatay Zev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카드자델리 운동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Brockhaus_and_Efron_Jewish_Encyclopedia_e13_783-0.jpg/800px-Brockhaus_and_Efron_Jewish_Encyclopedia_e13_

●참고문헌(오프라인) “Shabbatay Sevi”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Cengiz Sisman, Burden of Silence: Sabbatai Sevi and the Evolution of the Ottoman Turkish Dön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Ⅰ D085 Ⅰ 샤브르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악기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habr

샤브르는 백파이프로 분류되는 추바시 민족의 전통 악기이다. 시비르(шыбыр), 푸지리(пузырь)로 부르기도 하며 마리인들의 슈비르(шувыр)와 닮았지만 약간 더 크다. 공기 주머니는 동물의 방광으로 만들며, 공기관은 뼈나 금속관과 두 개의 160mm~230mm의 멜로디 관

이 공기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다. 소의 뿔로 만든 나팔 모양의 토출관이 멜로디 관 끝에 달려 있다. 왼쪽 관은 2~3개의 연주 구멍이 있으며 오른쪽 관은 3~7개의 구멍이 더 달려 있다. 오른쪽 관의 아래에는 3~7개의 작은 구멍이 더 있는데, 이 구멍들로 음의 조율을 한다. 피리는 갈대 깃대나 거위로 만든다. 타타르공화국 테투스크 지역에 사는 추바시인들은 샤브르에 두 개의 깃대를 달기도 한다. 샤브르를 연주하면서 숨을 들이킬 때 손으로 공기 주머니를 쥐면 끊기지 않고 고른 소리를 낸다.

샤브르는 오래된 악기이자 추바시 민족의 기본 악기여서 결혼식, 축제, 장례식에서 항상 들을 수 있었다. 결혼식에서는 춤과 결혼식과 관련된 특별 연주가 이루어졌다. 결혼식에서 신부 측, 신랑 측 샤브르 연주자들이 만나면 연주 시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쉬지 않고 오래 연주한 이가 승자가 된다. ‘아카투이’ 같은 축제 기간이나 결혼식에서 여러 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합주를 하는데 샤브르도 여기에 들어간다.

최근에 샤브르는 아코디언에 점차 밀려나고 있지만 취미 음악 활동이나 민속 행사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브르, 시비르

●다국어 표기 Шарб(러시아어), шыбыр(추바시어)

●연관 검색어 아카투이

●멀티미디어 링크 샤브르 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nm8OwQrkt-0>

●참고문헌(오프라인) Вертков, К. А., and Георгий Иванович Благодатов. Атлас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Гос. музыкальное изд-во, 1963, С. 53.

I D086 | 샤쉬마컴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장르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ashmaqom

샤쉬마컴(Shashmaqom)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발전한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의 고전음악이다. 2003년 11월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고, 2008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샤쉬마컴(Shashmaqom)은 250개 이상의 반주와 가사로 이루어진다. 18세기 부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원은 이슬람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시(詩)와 수피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 샤쉬마컴(Shashmaqom)은 6개 마컴이라고도 불리는데, 부즈룩(Buzruk), 로스트(Roʻst), 나보(Navo), 두거흐(Dugoh), 세거흐(Segoh) 그리고 이록크(Iroq)가 6개 마컴이다.

샤쉬마컴은 1923년 러시아 작곡가이자 민속학자인 우스펜스키(V. A. Uspenskiy)가 부하라에서 마컴 연주가 어타 잘롤 노시로브(Ota Jalol Nosirov)와 어타 기요스 아브두가니(Ota G'iyos Abdug'ani)의 연주를 기록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샤쉬마컴 관련 저서 『6개 마컴(Olti musiqali poema, 1924)』을 모스크바에서 출판했다.

1950년부터 1961년까지의 샤쉬마컴은 파이줄라예브(B. Fayzullayev)와 서히버브(Sh. Sohibov) 그리고 샤희버브(F. Shahobov)가 기록하여 모스크바에서 타지크어로 출판했다. 1958년 유누스 라자비(Yunus Rajabiy)는 『우즈베크 민속음악(O'zbek xalq musiqasi)』을 우즈베크어로 출판했다.

샤쉬마컴(Shashmaqom)은 마컴치(maqomchi: 마컴연주가)가 연주한다. 부하라의 마컴 연주자로는 어타 잘롤 노시러브(Ota Jalol Nosirov), 어타 기요스 아브두가니(Ota G'iyos Abdug'ani), 레비차 허피즈(Levicha hofiz), 도물라 할림 이버더브(Domla Halim Ibodov), 사마르칸트 허지 압둘아지즈 아브두라술러브(Hoji Abdulaziz Abdurasulov), 타슈켄트 물라 토이츠 허피즈(Mulla To'ychi hofiz) 그리고 셔라힘 셔우마러브(Shorahim Shoumarovlar)를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샤쉬마컴(Shashmaqom)」이라는 제목의 뮤지컬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 영화들은 샤쉬마컴(Shashmaqom)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샤쉬마콤 연주 장면(부하라, 우즈베키스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쉬마콤, 샤쉬무قام
- 다국어 표기 Shashmaqom(우즈베크어), Шашмаком(러시아어), Shashmuqam(영어)
- 연관 검색어 마콤, 부하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ZagFXO6uVXE?si=BTgudbv2G_C1jxtt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yev S. Rustam, *O'zbek mumtoz musiqasi*, Yangi nashr, Toshkent, 2008.
Rajabiy Yunus, *O'zbek Maqomlari Shashmaqom*, O'zbekistondagi YUNESKO, 2007.

I D087 | 샤오홍나하이 석인상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석인상
●집필자 김재운 ●라틴 문자 Turk Stone Figure from Xiaohongnahai Tomb

석인상은 중앙아시아에 넓게 분포하는데, 입석의 형태로 세워져 있다. 신강성에는 동북부 초원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석인상이 세워진 초원의 무덤은 대형 석총이며 돌을 덮은 형태에 따라서 여러 형식이 있다. 무덤 앞에 세워진 석인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 1점~2점이 세워지지만, 4점까지 세워지기도 한다. 석인상은 동일하지 않고 체격, 얼굴, 복식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석인상은 만들어진 장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어 문제가 있다.

신장 지역의 석인은 청동기 시대 기원전 1200년~700년경에 출현했고, 기원후 6세기~9세기에 돌궐 계통의 복식을 입은 석인이 세워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샤오홍나하이(小洪那海) 무덤 앞의 석인상이다. 적석묘 앞에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석인은 흑운모화강암을 쪼아서 만든 것인데, 흉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높이는 2.3m이다. 얼굴은 장방형이고, 턱은 둥글고, 눈은 가느다랗고 눈썹은 둥글고, 코는 좁다. 머리에는 원형의 장식이 달린 관이다. 오른손에는 잔을 들어 가슴에 대고 있다. 석인은 변발을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서 발견된 돌궐인과 유사한 머리 모양이다.

이 석인상에는 소그드어로 된 명문이 남아 있었다. 샤오홍나하이 석인상은 서돌궐 제국 니리카간(泥利可汗, 587년~604년)의 조각상으로 추정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홍나해 석인상

●다국어 표기 小洪那海 突厥石人像(중국어)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新疆草原石人與鹿石』, 北京: 科學出版社, 2011.

I D088 | 샤이버니이 칸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Muhammad Shayboniy

샤이버니이 칸(Muhammad Shayboniyxon, 영문 표기: Muhammad Shaybani, 샤이바니, 1451년~1510년)은 부하라 칸국, 샤이반 왕조의 건국 군주이다. 당대 자료에서는 ‘시대의 이맘과 알라의 칼리프(azrati imomuz-zamon xalifatur-raxmon)’라고 기록되기도 했다. 부하라에서 탄생했으며 아버지는 셔흐 부두그 술탄(Shox Budug’ Sulton), 할아버지는 압둘하이르 칸(Abdulxayrxon)이다. 어린 시절 티무르 왕조의 후원 하에 교육을 받았으며 군사적인 경험을 쌓았다. 샤이버니이 칸은 술탄 아흐마드 미르저(Sulton Axmad Mirzo, 재위: 1469년~1494년) 사망 이후 트란스옥시아나 지방을 티무르 왕조로부터 빼앗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특히 사리풀(Saripul) 전투에서 버부르(Bobur)의 부대를 상대로도 승전하여, 버부르는 트란스옥시아나를 떠나 발흐(Balx)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1501년 사마르칸트를 정복한 샤이버니이 칸은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 샤이반 조를 세웠으며 수도를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옮겼다. 즉, 부하라 칸국이 건립된 것이다. 샤이반 조가 부하라 칸국을 통치한 것은 1601년까지이다.

샤이바니 칸은 부하라 칸국의 건립 이후 1507년 헤라트 지방을 정복하게 되었다. 샤이버니이 칸은 헤라트 지방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티무르 조 술탄의 아들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패퇴시키며 호라산의 티무르 왕조를 끝내게 된다. 당시 부하라 칸국은 사파비 왕조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수니파 영웅이 된 샤이버니이 칸은 사파비 왕조의 샤 이스마일(Ismail I, 재위: 1501년~1524년)에게 시아파가 아닌 수니파가 되기를 바라며 조상들과 같이 이슬람 탁발승이 되라는 서신을 보냈다, 결국 버부르와 합류한 이스마일 샤와 전쟁을 하게 된다. 1510년 1월 메르브에서 발발한 샤 이스마일과의 전쟁에서 샤이버니이 칸은 사망했다. 샤이버니이 칸은 재위 동안 마드라사와 와크프를 재건하기도 했으며 이마레트를 수리하기도 했다. 제라프산 분지와 시르다리야 분지를 개간하기도 했다. 은과 구리로 된 동전을 제작하여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 티무르 조의 동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샤이바니이 칸은 그 자신이 시인이기도 했는데, 그는 페르시아어로 가잘(G'azal) 및 루버이(Ruboi)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 일부는 오스만 왕조에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중세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작성된 디완 시집[아흐메드 3세 도서관 소장, 튀르키예: III. Ahmed kütüphanesi, nr. 2436]과 1508년 작성한 234절의 메스네비 스타일로 종교적, 도덕적 문제 및 일상적인 언행과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 바흐룰 후다[(Bahru'l-huda, 대영박물관 소장, British Museum, Add. 7914, vr. 1b~22b), 등을 비롯하여 그의 작품 일부가 아직 보존되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 샤이바니, 샤이바니 칸

●다국어 표기 Şeybânî Han(튀르키예어), Muhammad Shaybani(영어), Məhəmməd Şeybani(아제르바이잔어), Mұхаммед Шайбани(카자흐어), Мухаммед Шейбани(키르기스어)

●연관 검색어 부하라 칸국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хаммад Солих. Шайбонийнома. Т., Тафур Г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 1989.

Хофиз Таниш Бухорий. Абдуллонома. Т., «Шарк», 1-китоб: 1999; 2-китоб: 2000.

Б.Ахмедов. Тарихдан сабоқдар. Т., «Ўқитувчи», 1994.

А.Фитрат. XVI асрдан сунгра узбек адабиётига умумий бир караш. Танланган асарлар. 2-жилд.

İsmail Türkoğlu, "Şeybânî Ha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9, İstanbul: 2010, pp.43~45.

I D089 I 샤질리 종단

●시기 A.D. 10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종단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hadhiliyya

샤질리 수피 종단은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종단이다. 이 종단은 형식적인 의례를 만들지 않는 독특한 개성이 있었으며 일부 종단이 불허하는 음악과 춤을 허용했으나, 그 외에는 수피 수행을 전통적 이슬람의 틀 안에서 유지했다. 또한 수피 성인을 지나

치게 숭배하거나 수피 영묘를 방문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수행에 어긋나는 걸치레라고 비난했다. 이 종단은 시인과 이슬람 학자를 많이 배출한 엘리트 종단이었고 동시에 오스만 시대 전체를 통틀어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있는 종단이었다. 종단의 창시자 아부 알 하산 알 샤질리는 모로코 출신의 13세기 신비주의자였는데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1258년 사망했다.

샤질리 종단은 아나톨리아에서는 교세가 크지 않았으나 술탄 압뒐 하미드 2세(재위: 1876년~1909년)가 샤질리 종단에 가입한 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샤질리 종단은 금욕과 청빈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으니, 신이 그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비록 온건한 수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8세기 카이로에서는 이 종단의 추종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범신론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에 있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질리아

●다국어 표기 Şâzelîlik(튀르키예어), Şaziliyyə(아제르바이잔어), Аш-Шазилийя(카자흐어)

●연관 검색어 수피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Shadhiliyya,”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25~526.

Ahmet Murat Özel, “Şazeliyy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8, 2010, pp.387~390.

I D090 | 샤하다

-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라틴 문자 Shahadah

샤하다(shahāda)는 ‘증언하다’는 뜻의 아랍어 동사 ‘샤히다(shahida)’의 동명사형으로 ‘증거함’을 뜻한다. 이는 이슬람 신앙으로 들어서는 필수적인 신앙 증언을 뜻하고, 신앙의 다섯 가지 기둥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신앙 증언문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알라 외에 신은 없다(ashhadu an la ilaha illa llah)’라고 증언한다. 신의 유일성(타우히드 Tawhid, توحيد)을 강조하는



이슬람 신앙의 첫 기둥인 ‘샤하다’

데, 유대교, 그리스도교도 공유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슬람이 보편적인 유일신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ashhadu anna Muammadan rasulu llah)’라고 증언한다. 이슬람교의 독자적인 고백으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인정하지 않는 증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증언과 달리 두 번째 증언은 이슬람의 고유성 내지 독특성을 담보한다. 신앙 증언이 두 개이므로 쌍수복수를 사용하여 샤하다탄(shahadatan)이라고도 부른다. 시아파는 ‘알리는 알라와 가까운 분이다(알리운 왈리울라, ‘Aliyun wali ullah)’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은 신앙 증언 두 문장을 국기에 쓰고 있고,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첫 번째 증언인 타우히드를 국기 중앙에 붉은 틀립 형태로 장식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신앙고백

●다국어 표기 Shahada(아랍어), Kelime-i şehadet(튀르키예어), Kalimai shahodat(우즈베크어), Kəlmeyi-şəhadət(아제

르바이잔어), Шаһадә(카자흐어)

●연관 검색어 알라, 무함마드, 알리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7kZi>

●참고문헌(오프라인) Gimaret, D. “Shahāda.”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9, 201. Leiden: Brill, 1997.

Rippin, Andrew. “Witnessing to Faith.”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vol. 5, 488~491.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6.

Wensinck, Arent J. and Andrew Rippin. “Tashahhud.”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10, 340~341. Leiden: Brill, 2000.

I D091 | 샤흐 이스마일과 애랩젠기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유형 소분류2 서사시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Şah İsmayıl və Ərəbzəngi

「샤흐 이스마일과 애랩젠기(Şah İsmayıl və Ərəbzəngi)」는 아제르바이잔의 구비서사시이다. 이 서사시는 사랑과 영웅성을 다루고 있다. 샤흐 이스마일(Şah İsmayıl)과 애랩젠기(Ərəbzəngi) 간의 사랑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도 반영한다. 이 이야기는 <샤흐 이스마일과 애랩젠기>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서사시의 기원은 16세기~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샤흐 이스마일(사파비 제국 건국)의 영웅주의와 그의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그리고 그의 시인이며, 통치자이고, 종파의 셰이크로서(şeyx)로서의 활동은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샤흐 이스마일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를 남겼다.

샤흐 이스마일이 신화적 상상력의 주인공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타즐르베이임(Taclıbəyim)과 배흐루즈(Bəhrüz)에 대한 사랑이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아랍족을 만난 자리에서 족장의 딸인 귤자르(Gülzar)에게 반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 이븐 타히르(İbn Tahir)는 딸을 애부 햄재(Əbu Həmzə)라는 사람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 귤자르는 간신히 샤흐 이스마일에게 그 사실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게 된다. 귤자르를 구하려고 길을 나선 샤흐 이스마일은 애랩젠기를 만나 싸워 이긴다. 샤흐 이스마일이 애

랩쟁기를 물리치고 죽이려는 찰나, 그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애랩쟁기를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

이 서사시에는 샤희 이스마일와 애랩쟁기의 결투, 애딜 샤희(Ədil şah)의 꺾자르 납치 등이 장애와 고난으로 작용한다. 주인공 샤희 이스마일은 눈을 뽑힌 뒤 어두운 우물 속에 처박혀 갇힌다. 이후 호자 애지즈(Xoca Əziz)라는 사람이 그를 우물에서 꺼내준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세 마리의 비둘기 깃털을 뽑아 그의 눈을 치료해 준다. 샤희 이스마일은 눈이 회복되자 장애를 극복하고 꺾자르를 구한다. 그 과정을 애랩쟁기가 돕는다. 샤희 이스마일은 여자친구 꺾자르 그리고 애랩쟁기와 함께 돌아온다.

그의 아버지 아슬란 샤희(Aslan şah)는 적의 우두머리와 겨룬 후 머리를 잘라서 가져오도록 아들에게 요구하지만 샤희 이스마일은 이를 거부한다. 그러자 아슬란 샤희는 샤희 이스마일을 사형시키라고 명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샤희 이스마일의 눈을 빼 실명만 시키고 살려둔다. 서사시에서는 샤희 이스마일의 눈을 떼어내 아슬란 샤희가 손으로 움켜쥔 채 샤희 이스마일을 우물에 버린다. 우물 속에서 지내던 샤희 이스마일을 길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구해준다. 그 사람이 새들의 도움을 받아 샤희 이스마일의 눈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치료한다. 이스마일의 아버지인 아슬란 샤희의 군대와 싸우는 애랩쟁기를 샤희 이스마일이 돕는다. 그들은 힘을 연합해 승리한다.

‘샤희 이스마일과 애랩쟁기’ 서사시에는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묘사되는데, 이러한 고난은 줄거리 구조의 일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서사시에서는 영웅의 ‘길 떠남’이 등장하고, 이 여행은 항상 ‘귀환’을 동반한다.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주인공을 시험하면서 주인공의 약점과 강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희 이스마일과 아랍쟁기

●다국어 표기 Epik of Shah İsmail and Arabzengi(영어), Şah İsmail ile Erebzengi(튀르키예어), Шах Исмаил и Аребзэнги(러시아어), Şah İsmayıl və Ərəbzəng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샤희 이스마일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I D092 | 샤흐 파질 영묘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키르기스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영묘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hakh Fazil Mausoleum

키르기스스탄 잘랄 아바트 주 사피드 불렌드 지역에 건설된 샤흐 파질 영묘의 정확한 건축 연도와 영묘의 주인 및 후원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묘에 많은 서체 장식이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는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묘의 이름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샤이크 파들(Shaikh Fadl) 영묘, 샤흐 파질(Shakh Fazil) 영묘, 사피드 불렌드(Safid Bulend) 등으로도 불린다.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13세기 이슬람이 전파되던 시기에 이슬람을 전파하려 했던 2,700여 명의 전사가 사망했고 샤흐 자지르(Shah-Jarir)의 아내였던 사피드 불란(Safedbulan)가 이들의 장례를 치르며 대신 눈물을 흘려 주었고, 이 영묘가 그녀의 무덤이라는 전설이다. 후에 샤흐 파질 시대에 이 지역에 이슬람이 정착했고 이로 인해 이 영묘의 이름이 샤흐 파질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영묘는 13세기의 것이어야 하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영묘의 양식에 기반하여 11세기~12세기에 건설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축물이 영묘가 아닌 모스크나 복합단지의 일부라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영묘 건물의 내부는 7.85mx7.85m, 외부는 11.10mx11.10m 크기의 정사각형 플랜과 중앙에 하나의 돔이 있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정사각형 공간의 네 모서리에는 첨두아치가 있는 트롬프가 있으며, 세 단계로 이루어진 팔각의 드럼과 둥근 드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뿔에 가까운 돔은 이 돔 지지대 위에 있다. 건물 벽의 대부분은 벽돌이나 건물의 하단 부분은 석재 벽이다. 북서면 중앙에는 문이 있고 양옆으로 창문이 있다. 내부의 동남쪽 벽은 벽감이 있는데, 원래는 창문이었으나 후에 벽돌로 막아 벽감으로 꾸민 것을 보인다. 남서쪽 벽 중앙에도 창문이 있다. 내부는 설화석고를 음각하여 만든 장식 띠가 벽에서부터 돔까지 이어져 있다. 덩굴 문양, 연꽃, 팔메트, 루미, 잎사귀와 같이 양식화된 식물 문양과 첨두아치 문양, 쿠픽 서체로 이루어진 띠뿐만 아니라 반원, 삼각형, 육각형, 지그재그, 띠가 얇힌 문양과 같이 기하학 문양까지 매우 다양하다. 돔 지지대의 트롬프 사이에는 작은 벽감이 존재한다.

영묘의 북쪽 마당에는 건물의 흔적과 무덤군이 존재하는데, 지역 전설에 의하면 앞서 말한



샤흐 파질 영묘

Source: <https://silkroadresearch.files.wordpress.com/2018/08/>

2,700명의 전사와 사피드불란이다. 이 무덤군에는 일부 묘비가 있으며, 일부는 관이 남아 있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2세기~13세기 것들이다. 이로 인해 이곳에 다른 영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영묘의 풍부한 장식이 카라한 칸국 당시의 예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돔 형태 등은 당대에 보기 드문 예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영묘는 사피드불란 지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지정되며 함께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 파질 영묘, 샤흐 파들 영묘, 사피드 불랜드, 사페드 불론
- 다국어 표기 Safid Buland(페르시아어), Safed Bulon(페르시아어), Şah Fazıl Türbesi(튀르키예어), Шах Фазил кумбёзы(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ilkroadresearch.files.wordpress.com/2018/08/shah-fazil-mausoleum-2.jpg>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28742/original/ICW0135.JPG?1384703434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28750/original/ICW0143.JPG?1384703440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906>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D093 | 샤흐리사브즈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hahrissabz

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사마르칸트에서 약 80km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샤흐리사브즈’의 의미는 페르시아어로 ‘초록색의 도시’이다. 이는 인근 지역의 토양이 비옥한 데서 기인한다. 샤흐리사브즈의 옛 이름은 키쉬(kish), 또는 케쉬(kesh)였다.

샤흐리사브즈는 기원전 6세기~4세기에는 아케메네스와 페르시아 영토의 일부였고, 소그디아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에서 아내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기원후 6세기~8세기 샤흐리사브즈의 통치자들은 서돌궐의 칸에게 세금을 냈다. 중세 초기에는 사마르칸트와 발흐를 잇는 무역로 상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가 특히 발달했다.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정복하기 위하여 진군했던 이슬람 세력은 샤흐리사브즈를 본부로 삼으며 요지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사마르칸트와 부하라가 발전하면서 사만조 시대(819년~999년)에 샤흐리사브즈는 폐허가 되었다. 1220년 몽골 침공 당시에도 쉽게 항복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지역은 차가타이 칸이 겨울을 보내는 곳이 되었다.

티무르(Timur, 재위: 1370년~1405년)는 샤흐리사브즈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14세기에는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상당한 후원을 하게 된다. 1387년 킵차크 칸국이 이 도시를 침략했으나, 곧 티무르가 이곳을 수복하기도 했다. 1405년 티무르는 그가 존경했던 셰이크 아미르 쿠랄



샤흐리사브즈의 티무르 동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Amir Kulal, 1278년~1370년)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티무르 사망 후, 이곳은 왕위 계승의 전쟁터가 되며 다시 폐허가 되었다.

16세기 부하라 칸국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 샤흐리사브즈는 독립을 선언했고, 도시의 이름인 '샤흐리사브즈'가 새겨진 동전이 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압둘라 칸 2세(Abdullaxon II, 재위: 1534년~1598년)는 이 도시를 다시 부하라에 귀속시켰다.

18세기 초 코칸트 칸 압두라힘비이(Abdurahimbiy, 재위: 1721년~1733년)가 샤흐리사브즈를 자신의 통치 지역으로 삼게 되었고, 1860년에는 부하라 토후국 아미르 나르술라 칸(Nasrullaxon, 재위: 1827년~1860년)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1865년 샤흐리사브즈는 러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는 몇 번 이곳에서 철수했으나, 결국 1920년 소련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1991년 8월 31일 우즈베키스탄 공



샤흐리사브즈의 콕 검바즈 모스크

화국의 독립으로 이곳은 온전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지역이 된다.

1380년에 건설된 악사라이(Ak saray) 궁전은 티무르의 여름 궁전이며, 현재는 탑 일부만 남아 있다. 1436년 울루그 베그(Ulugh Beg, 재위: 1447년~1449년)가 건설한 콕 검바즈(Kok Gumbaz) 모스크나, 하즈라티 이맘(Hazrat-i Imam) 복합단지, 티무르 영묘 등, 티무르 시대의 다양한 건축물이 있다. 샤흐리사브즈는 도시 전체가 2000년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앞서 언급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보호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샤흐리사브즈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흐리삽스, 샤흐리삽즈
- 다국어 표기 Shakhriyabz(영어), Shahrisabz(우즈베크어), Şehr-i-Sebz(튀르키예어), Şehrisəbz(아제르바이잔어), Шәһресәбз(타타르어), Şahrisabz(투르크멘어), Шахрисабз(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5Kht>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stat.uz/upload/str2.jpg>

I D094 I 샤희메란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화 ●유형 소분류2 생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Şahmeran

샤희메란 또는 샤희마란은 아나톨리아,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등지에 널리 퍼진 반은 인간이고 반은 뱀인 신화 속 생물이다. 어원인 샤희마란은 페르시아어로 왕을 뜻하는 샤희(شاه)와 뱀의 복수형인 마란(ماران)가 결합된 단어이다. 튀르키예에서는 샤희메란(Şahmeran)이라고 표기한다.

샤희메란은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 양측 모두에 등장한다. 샤희메란 전설은 인도에서 이란을 거쳐 아나톨리아반도와 카프카스 지역까지 퍼진 것으로 보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히타이트를 기원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을 종합하면 최소 기원전 1000년 이전부터 내려온 전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샤희메란 전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잠마스브나메(Câmasbnâme)라는 작품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나톨리아반도의 샤희메란 전설은 지역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큰 줄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잠사브(Camsab)라는 나무꾼이 숲속에서 꿀이 가득한 우물을 찾았고 꿀을 건지기 위해 우물 밑으로 내려간다. 그 우물에서 샤희메란을 만나게 된다. 잠사브는 우물에서 나가려 하지만 샤희메란은 자신이 있는 곳이 탄로날 것이라며 잠사브를 보내주지 않으려 한다. 샤희메란은 잠사브가 비밀을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잠사브를 돌려보내 준다. 그런 와중 타르수스(Tarsus)의 왕이 병에 걸리고 그의 재상은 샤희메란의 살을 먹으면 낫는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샤희메란이 있는 곳을 아는 자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아는 이가 없었다. 재상은 샤희메란을 본 사람의 등에는 뱀 같이 비늘이 인다고 이르자 왕은 백성을 모두 목욕탕에 보낸다. 잠사브 역시 강제로 목욕탕에 가게 되고, 그가 샤희메란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고 강제로 말하게 한다. 샤희메란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저항하지 않는 대신 잠사브에게 자신의 죽인 후 살을 끓여 첫 물은 재상에게, 두 번째 물은 왕에게, 세 번째 물은 잠사브가 마시라고 시킨다. 샤희메란은 목욕탕으로 끌려가 죽고 그 고기를 끓이게 된다. 첫 번째 물을 마신 재상은 죽고, 두 번째 물을 마신 왕은 회복하고, 세 번째 물을 마신 잠사브는 지혜로워져 왕의 재상이 된다.

또 다른 유명한 버전의 주인공은 로크만 헤킴(Lokman Hekim: 코란과 전설에 언급되는 지혜로운 인물)이다. 나무꾼 로크만은 어느 날 상처 입은 샤희메란을 만나고 샤희메란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도와준다. 샤희메란은 그 보답은 자신은 언젠가 인간의 손에 죽을 것이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로크만은 샤희메란과 만난 후 다른 사람인 듯 지혜로워진다. 그 후 어느 날 타르수스 왕의 딸을 목욕탕에서 훔쳐보던 샤희메란은 공주의 하인들로부터 살해를 당한다. 로크만은 그 소식을 듣고 샤희메란이 시킨 대로 목욕탕으로 간다. 한편 타르수스의 왕은 병에 걸리고, 점술사는 샤희메란의 고깃국물을 먹어야 낫는다고 알려준다. 로크만은 그 준비를 맡게 되는데, 샤희메란이 알려줬던 대로 몸을 꼬리와 몸, 머리 삼 등분을 하여 각각 국을 끓인다. 이때 재상은 인간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재상은 사실 왕을 죽인 후 타르수스의 딸과 결혼한 후 나라를 지배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눈치챈 로크만은 반대로 재상에게 독이 되는 꼬리를 삶은 물을 주고 왕에게는 머리를 삶은 물을 주어 낫게 한 후 자신은 초능력을 주는 몸통 부분을 마신다. 그 후 로크만은 꽃과 식물의 말을 알아들어 이들이 어떤 질병에 좋은지 기록해 최고의 의사가 된다.

마르딘 지방에서 내려오는 샤희메란 전설에서는 재상의 아들이 우물에 빠져 탈출하려다가 샤희메란을 만나는데, 그는 샤희메란이 있는 곳을 소문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왕이 아파 샤희메란의 고기가 필요해지자 그는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전설에 기반하여 아나톨리아반도에서 샤희메란은 인간에게 생명이나 약을 주고, 사람을 보호하며 행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죽지 않는 존재로 믿어진다. 사람들은 '샤희메란 기도'라고 해서 칠 일간 그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민속 신앙이 있기도 하다. 기도 외에도 샤희메란의 흔적이라고 믿는 것을 몸에 문지르면 병이 낫는다는 신앙이 있기도 하다. 아나톨리아반도 아다나 지방의 이올란르 칼레(Yılanlı Kale: 뱀이 있는 성)라는 지명은 샤희메란 칼레시(Şahmeran Kalesi: 샤희메란 성)라고 불리기도 하며 타르수스 지방에서는 샤희메란 하



민간의 샤희메란 그림

마르(Şahmeran Hamamı: 샤희메란 목욕탕)라는 목욕탕이 있기도 하다. 두 곳 모두 샤희메란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믿는다. 아나톨리아반도에서는 샤희메란이 가정을 지키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에 종종 샤희메란을 그린 그림이나 수예 작품을 벽이나 창문에 걸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신화적 존재이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희마라, 샤희마란
- 다국어 표기 Şahmeran(튀르키예어), Вёреçлен(추바시어), Şahmara(타타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9/%C5%9Eahmara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Sökmen, Sultan & Zeynep Balkanal, "Anadolu'da Önemli Bir Simge Olan Şahmeran'ın Halk

İnanişlarındaki Yeri”, Bingö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Yıl: 8 ▪ Cilt: 8 ▪ Sayı: 15 ▪ Bahar/Spring, 2018, pp.281~296.

Çıblak, Nilgün. “Tarsus Kültürünün Tanıtımında Şahmeran Efsanelerinin Önemi”, Ç.Ü.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Cilt 16, Sayı 1, 2007, pp.185~196.

I D095 I 샤흘리차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악기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hakhlycha

샤흘리차는 추바시 민족의 전통 악기이다. 세로로 부는 플루트 종류인데, 단풍나무나 보리수 나무 껍질, 또는 얇은 주석으로 만든다. 샤흘리차는 소리 내는 방식에 따라 오픈형과 폐쇄형이 있다. 길이는 35cm 정도이며, 오픈형 샤흘리차는 5개~6개의 구멍을, 폐쇄형은 2, 4, 7개의 구멍을 가진다. 2개의 구멍만 가진 샤흘리차는 두 개를 모두 열었을 때는 제3도를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음에서 제 4도를 소리내기 위해 배치된 것이다. 이 악기는 전음계에서 2옥타브까지의 음역대를 가진다.

샤흘리차의 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하다. 이 악기는 남자만이 연주하는데(주로 젊은 남자) 서정적이거나 춤곡을 즉흥적으로 연주한다. 보통은 봄에 씨뿌리기 직후나 여름 풀베기 직후에, 또는 연주자들이 개최하는 야회에서도 연주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클리차

●다국어 표기 Шахлыча(러시아어)

●참고문헌(오프라인) Илюхин Ю. Музык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Чувашкой АССР//Музык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автономных республик РСФСР, М., 1957, С. 308.

Вертков, К. А., and Георгий Иванович Благодатов. Атлас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Гос. музыкальное изд-во, 1963, 175.

I D096 I 샤히진다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영묘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hah-i Zinda

‘살아있는 왕’이라는 의미의 샤히진다(Shah-i Zinda)는 8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영묘 단지로 사마르칸트 북쪽의 아프시아브(Afrasiyab) 언덕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영묘 단지는 이슬람의 전래 이후로 형성되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인 압바스(Kusem b. Abbas, 624년~677년)가 포교를 위해서 이 지역까지 왔다가 처형을 당했고, 그의 무덤 주변에 영묘와 무덤이 만들어진 것이 시작이라고 전해진다. 1220년 몽골이 침략했을 때 이 주변의 영묘가 모두 파괴되었고 1335년 압바스의 영묘와 모스크를 시작으로 재건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19세기까지 꾸준히 영묘 건설이 일어나게 되고 20세기에 다양한 발굴 활동과 함께 이 지역의 복원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아직 이곳의 영묘 중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오늘날의 모습을 기준으로 울루그 베그(Ulugh Beg, 재위: 1409년~1447년)가 1434년 건설한 대형 정문에서부터 이 영묘 단지가 시작된다. 대문 동쪽에는 마드라사(1831년), 서쪽에는 울루그 베그 시대에 울루그 베그의 아들인 압달-아지즈(Abdal-Aziz)의 이름으로 건설시킨 모스크와 다르가흐(Dargah Abd al-Aziz, 1435년~1436년)가 있다. 이 건물은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 약 200m가량의 경사진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가면 계단이 나오고, 그 끝에 두 번째 문, 정확히는 차하르탁(chahartaq)가 나오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세 번째 차하르탁카가 나온다. 두 번째 차하르탁 서쪽에는 아미르 자데흐(Amir Zadeh) 영묘(1386년 건설), 샤디 물크 아카(Shad-i Mulk Aqa) 영묘(1371년 건설), 동쪽에는 투그흐룩 테킨(Tughluq Tekin) 영묘(1376년 건설), 쉬린 베그 아가(Shirin Beg Agha) 영묘가 있다. 특히 샤디 물크 아카 영묘는 티무르의 누나인 투르칸 아가가 딸을 위하여 건설한 영묘이다. 투그흐룩 테킨 영묘는 현재 거의 폐허인 상태이다.

세 번째 차하르탁을 지나면 압바스의 영묘와 모스크가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영묘와 모스크가 발달되어 있다. 차하르탁 동쪽 복도를 통해 15세기 후반에 건설된 모스크에 들어갈 수 있으



샤히진다 영묘 단지(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며 모스크의 남동쪽 문을 통해 아미르 부룬дук(Amir Burundug) 영묘로 들어갈 수 있다. 차하르탁 서쪽 문은 투만 아카(Tuman Aqa) 복합 단지(1404년~1405년 건설)로 연결된다. 투만 아카는 티무르의 아내이다.

차하르탁을 지나가면 북쪽 끝에는 14세기에 중엽에 건설된 호자 아흐메드(Khwaja Ahmed) 영묘가 있으나 현재는 정면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영묘가 샤히진다에서 가장 오래된 영묘이다. 동쪽에는 1361년에 건설된 주인이 알려지지 않은 영묘가 있으며 서쪽에는 투만 아카 영묘가 있다. 압바스의 영묘 건너편에는 11세기 카라한조 탐가츠 부그라 칸(Tamghach Bughra Khan, 재위: 1052년 ~1066년) 시대에 건설된 마드라사의 흔적이 발굴되기도 했다.

샤히진다의 영묘는 대부분 사각형의 무덤 방은 돔으로 덮여 있고, 전면에 피슈타크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문은 대부분 모자이크 타일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무덤 방 아래에는 실

제 무덤이 있는 지하 묘방이 있다.

샤히진다는 UNESCO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흐진데, 샤히진데, 쇼흐진다, 셔히진다, 샤흐진다

●다국어 표기 Şah-i Zinde(튀르키예어), Shah-i Zinda(영어), Shohizinda(우즈베크어), شاه زنده(페르시아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3oLL>

https://en.unesco.org/silkroad/sites/default/files/styles/silkroad_colorbox/public/webform/samarkand.jpg?itok=bYYU9PXS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45>

●참고문헌(오프라인) Golombek, Lisa; Donald Wilber. The Timurid Architecture of Iran and Tur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Beksaç, Eegin, “ŞÂH-ı ZİND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38, İstanbul: TDV, pp.267~269.

I D097 | 샬키즈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시인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hal-Kiz

샬키즈 이이라우는 타타르 칸국의 벨클랴르벡(총리대신) 티무르(Темир)의 측근이자 즉흥시인으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Шалгыз, Шалгыйыз, Шалгииз Теленси улы, Шал-Кийиз Тиленши’ улы 등으로 표기된다. 바시키르, 카자흐, 카라칼파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1465년 태어났다. 샬키즈는 원정에 참가해 크림, 북캅카스에 머물렀으며 1560년 무렵 돈 강 계곡에서 사망했다. 후사이노프(Г.Б. Хусаинов)에 따르면 샬키즈는 노가이 인들과 함께 우랄 남부 지역을 떠난 바시키르인이다. 고향을 떠나면서 샬키즈는 「이델(우랄 바티르의 아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란 쿠바이르를 썼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샬키즈의 운문 작품들은 600행이 넘는다. 즉흥시인의 시는 주제적 차원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1) 작가가 일상의 조언을 하는, 먼 나라의 전장으로 떠나는 통치자 티무르를 위한 시
- 여기서 통치자의 형상은 이중적인데, 조언자를 필요로 하는 완고한 고집불통의 형상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칸국 주민들의 희망이자 자상한 주인의 형상이다.
- 2) 선과 악, 평화의 무상함, 인간의 운명을 노래하는 초원의 서정시.
- 3) 서로 적대적인 민족에 속한 두 장군의 대화를 담고 있는 운문 서사.

샬키즈의 작품 중 일부는 1875년 러시아 제국 시기에 채록되었고, 1976년 아랍어로 쓰인 샬키즈의 시 노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샬키즈의 문학은 바시키르, 카자흐, 카라칼파크, 노가이 민족 공동의 유산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샬키즈

●다국어 표기 Шалкииз(러시아어), Шалкиіз Тіленшіұлы(카자흐어)

●연관 검색어 이이라우, 바시키르인, 쿠바이르

●참고문헌(오프라인) Сикалиев, А.И. Ногай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 Ин-т гуманит. Исслед. - Черкесск, 1994, 326.

I D098 | 서구반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Xigouban

서구반 유적은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어얼뒤쓰시(오르도스)에 위치하는 남흉노의 무덤이다. 1979년과 1980년에 걸쳐서 모두 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장방형의 수혈식 토광묘이고 단인장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사지를 뻗은 자세인 앙신직지 장법으로 사람이 매장되었다.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 있다. 무덤 내에는 말, 양, 개의 뼈가 함께 매장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와 동물 장식과 금 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서구반 유적은 보통구 유적과 인접해서 위치하며, 중국 북

쪽의 몽골에서 발견되는 수혈 토광묘와 거의 유사한 무덤 형식이며, 무덤도 거의 전형적인 흉노 유물이다. 그래서 두 유적은 같은 서한대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흉노 무덤은 오르도스, 영하, 섬서성, 청해성 등지에서 발견되는데 오르도스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 가장 이른편으로 서한대가 많다. 무덤의 특징 또한 원래 흉노와 가장 가깝고 출토 유물에서도 중국식의 유물이 적은 편이다. 동한대의 유적에서는 동물 장식이 줄어들고 중국식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특징이며, 영하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하지만 동한대의 유적이면서 중원식의 묘제로 바뀐 무덤이 섬서의 客省庄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흉노 문화의 유적 가운데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혈 토광묘가 발견되는 유적은 남흉노로서 중국 한대의 유목 민족 문화권, 자바이칼과 몽골의 흉노 문화는 북흉노 문화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문화상은 역사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록에서는 북흉노는 이동성이 강하고, 호전적이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자바이칼 유역의 유적이 훨씬 많이 남아 있으며 정주성 취락지 등이 발견된다. 반면에 오르도스 지역에서는 무덤을 중심으로 한 유적이 있어 상대적으로 자바이칼 지역보다 훨씬 유적의 빈도수가 드물다. 이러한 경향을 남흉노는 한(漢)의 서포트를 받은 것으로, 북흉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지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중국 한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남아 있는 유적의 수나 출토된 유물이나 규모 등은 자바이칼 지역이 월등하기 때문에 한과의 관련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오구반

●다국어 표기 西溝畔(한자)

●연관 검색어 흉노

●참고문헌(오프라인) 伊克昭盟文物工作站, 「西溝畔漢代匈奴墓地調查記」, 『內蒙古文物與考古』, 創刊號, 1981.
 烏恩, 「試論漢代匈奴與鮮卑遺蹟的區別」, 『中國考古學會 第16次年會論文集』, 1987.
 강인욱, 「고고학으로 본 흉노의 발생과 분포」, 『문화재』, 2003.

I D099 | 서비르 미르발리에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obir Mirvaliyev



서비르 미르발리에브
Source: <https://www.ziyouz.uz/wp-content>

서비르 미르발리에브(Sobir Mirvaliyev)는 1933년에 타슈켄트에서 태어났으며, 1956년에 타슈켄트 사범대학교(야간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삶과 투쟁의 시(Hayot va kurash poeziyasi, 1962)』, 『마음에서 마음으로(Qalbdan qalblarga, 1966)』, 『우즈베크 소설(O'zbek romani, 1969)』, 『1970년대 우즈베크 산문(70-yillar o'zbek nasri, 1972)』, 『역사성과 현대성(Tarixiylik va zamonaviylik, 1976)』, 『산문, 시대와 영웅(Nasr, davr va qahramon, 1983)』, 『소설과 시대(Roman va zamon, 1984)』, 『재능의 이중 날(Iste'dodning qo'sh qanoti, 1993)』, 『압둘라 커

드리아(Abdulla Qodiriy, 2004)』 등 30권 이상의 학술서적과 교과서 그리고 논문의 저자이다. 400편 이상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다.

서비르 미르발리에브(Sobir Mirvaliyev)는 이들 작품에서 20세기 우즈베크 문학의 포폴리즘과 민족문학의 영웅 그리고 전통 및 혁신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 또한 20세기 우즈베크 산문의 탄생과 발전, 압둘라 커드리아(Abdulla Qodiriy), 어이벡(Oybek), 압둘라 카허르(Abdulla Qahhor), 올마스 우마르베커브(O'lmas Umarbekov)의 작품에 대한 깊고 흥미로운 평론을 쓰기도 했다.

또한 저자는 자신의 저서에 당시 금서로 지정되었던 이쇼크 토라 이브라트(Is'hoq To'ra Ibrat), 타발로(Tavallo), 압둘라 아블러니이(Abdulla Avloniy), 거지 유누스(G'ozi Yunus), 후르쉬드(Xurshid), 굴롬 자파리이(G'ulom Zafariy), 셔키르 술라이먼(Shokir Sulaymon), 라피크 모민(Rafiq Mo'min), 압둘라 알라비이(Abdulla Alaviy), 톨립 올더쉬(Tolib Yo'ldosh)들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비르 미르발리에브(Sobir Mirvaliyev)는 1957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연구소와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신진학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서비르 미르발리에브(Sobir Mirvaliyev) 2000년 국가 명예훈장(El-yurt xurmati)을 받았으며, 2019년 6월 18일에 세상을 떠났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서비르 미르발리에브

●다국어 표기 Sobir Mirvaliyev(우즈베크어), Соби́р Мирвалиев(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아브둘라 커드리아, 어이벡, 아브둘라 카허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ziyouz.uz/wp-content/uploads/2013/07/ulmas_umarbekov.jpg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ilm-va-fan/adabiyot/sobir-mirvaliev-serfa-z-bog-sohibi>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Nigmatova Z. A., *Professor Mirvaliyev Sobir Mirvalievich*, N-rsiz, Toshkent, 1987.

I D100 | 서비르 압둘라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obir Abdulla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이며 극작가인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는 1905년에 코칸드(Qo'qon)에서 태어났다.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의 부친 알리머브 압둘라(Alimov Abdulla, 1863년~1933년)는 미르저(서기관)였으며, 우즈베크·페르시아·타지크 고전문학을 잘 아는 지식인이었다. 알리머브 압둘라는 당대 시인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 자비키(Zavqiy), 마블로니(Mavloniy), 율더쉬(Yo'ldosh) 등과 가깝게 지냈다.



서비르 압둘라
Source: <https://www.ziyouz.uz/ru/>

그의 어머니 허자르비비 무함마드아민 키즈(Xojarbib Muxammadamin qizi) 역시 지식인이었다.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많은 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가잘(g'azal), 마스나비(masnavi) 및 카시다(qasida)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직접 시를 짓기도 했다.

1920년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는 코칸드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1924년부터 1926년까지 <Yangi Fargona(새로운 페르가나)>신문의 유머 부서인 'Chig'irlik'에서 일하며 지역 및 중앙 공화당 신문과 잡지에 그의 시를 적극적으로

출판했다. 동시에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는 페르가나 지역 실행위원회의 비서직을 맡는다. 1928년 언론인 교육과정을 마친 그는 코칸드(Qo'qon)로 돌아가 페르가나 지역에 있는 공화당 신문 <Qizil O'zbekiston(붉은 우즈베키스탄)>의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동일 해부터 생애 말년까지 공화당의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잡지 <Mushutum>에 다양한 작품들을 게재한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시집 『자유의 영감(Erk ilhomlari, 1931)』, 『봄의 소리(Ko'klam nash'asi, 1932)』, 『재미(Zavq, 1932)』, 『정원(Gulshan, 1939)』, 『시대의 노래(Davr qo'shiqlari, 1949)』, 『삶의 정원(Hayot gulshani, 1959)』, 『삶의 노래(Hayot qo'shiqlari, 1962)』 등이 있다. 사람들의 삶과 시인의 영적 세계를 묘사한 단편집 『봄(Navbahor, 1930)』, 『우정(Do'stlik, 1937)』, 서사시 『밤과 아침(Tun va tong, 1971)』, 희곡 「정원사 소녀(Bog'bon qiz, 1930)」, 「오이헌(Oyxon, 1935)」, 「토히르와 주흐라(Tohir va Zuhra, 1939)」, 「알퍼미쉬(Alpomish)」, 「무키미이(Muqimiy)」, 「희생자 우마러브(Qurbon Umarov, 1941)」, 「다브론 어타(Davron ota, 1942)」,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애국심과 근면함을 찬양하는 노래 『조국에 대한 사랑(Vatan sevgisi)』, 『팍타코르 아침(Paxtakor tongi)』 등도 주목할만한 작품이다.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는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으며,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으로서 함자 공화국 상을 수상한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는 1972년 10월 24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나 치가터이(Chig'atoy)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비르 압둘라
- 다국어 표기 Sobir Abdulla(우즈베크어 라틴문자), Сабир Абдулл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 함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ziyouz.uz/ru/images/stories/sobir_abdulla.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ru/people/abdulla-sabir>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sobir-abdulla-1905~1972>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 Sobir, *Asarlar,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yat nashriyoti*, Toshkent, 1978.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I D101 | 서사시 타히르와 죄흐래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유형 소분류2 서사시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Epic of 'Tahir and Zohre'

서사시 「타히르와 죄흐래(Tahir və Zöhrə daştanı)」는 아제르바이잔의 낭만서사시 중 하나이다. 타히르와 죄흐래는 캅카스 지역 대부분에서 사랑받았다. 조지아의 아시옥들 역시 이 서사시를 사용하기도 했다. 타히르와 죄흐래는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타타르, 위구르, 동투르키스탄, 튀르키예 등 투르크 민족, 국가별로 다양하게 전승되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내에서도 지역별로 수집된 약 20여 종의 버전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옥마다 부르는 버전이 다른 것이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구성은 유사하지만 완곡을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를 부르거나 요약본을 부르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구전된 이 서사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흐래(Zöhrə)는 가라만(Qaraman)의 왕 하탐 술탄(Hatəm sultan)의 딸이다. 그녀는 타히르(Tahir)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타히르와 죄흐래는 함께 자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 버전에 따라 가라 배지르(Qara Vəzir)의 아들이나 몰라 배델(Molla Bədəl: 버전에 따라 케찰(Keçəl))이 죄흐래와 결혼하길 바라며 이간질을 하게 되고, 하탐 술탄은 자신의 형제인 타히

르의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 추방된 타히르는 세상을 떠돌다가 한게르디 쇠브대개르(Xanverdi sövdəgər)의 딸인 내르기즈(Nərgiz)를 만난다. 내르기즈는 타히르를 사랑하게 되지만, 타히르는 죄흐래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몰래 돌아온다. 죄흐래는 타히르를 상자에 넣어 물속에 숨기지만, 상자를 지탱하던 밧줄이 끊겨 물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죄흐래는 고시마(qoşma, 아제르바이잔 전통 시)를 부르며 상자를 물속에서 구한다. 이 상자는 중국으로 가게 되고, 중국의 왕 바누(Banu)는 하탐 술탄을 죽이고 죄흐래와 타히르를 결혼시킨다.

매함매드휘세인 태흐매사이브(Məmmədhüseyn Təhmasib)는 타히르가 추방된 후 겪는 모험은 달의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 서사시의 등장인물이 천문학적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탐 술탄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며 ‘낮’을 상징하는 그의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다. 죄흐래는 별을, 타히르는 달을 상징한다. 이런 사실로 인해 죄흐래와 타히르가 엘리트에 의하여 창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서사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지난 세기 초에 엘라크베르 휘세이노프(Ələkbər Hüseynov)에 의해 처음 출간되었고, 이후 다양한 형식으로 발간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히르와 죄흐래 서사시, 타히르와 쥐흐레
- 다국어 표기 Tahir and Zohre(영어), Tahir ile Zühre(튀르키예어), Тахир и Зоҳра(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intangible.az/front/az/aboutExample/19280>
- 참고문헌(오프라인) Albayrak, Nurettin. “TÂHİR İLE ZÜHR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9, İstanbul: TDV, pp.400~401.
Türkmen, Fikret. Tahir ile Zühre, Ankara, 1983.

I D102 | 서역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지역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Hsi-yu

일반적으로 중국의 서쪽에 있던 여러 나라를 총칭한 역사적 용어로, 서방 지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이, 서용, 서번이라는 유사어가 있으나, 그것은 티베트인을 포함한 서방 여러 민족을 뜻하며, 서역은 지역명이다. 서역이라는 말은 『한서(漢書)』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동(東)투르키스탄(대체로 현재의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의 타림 분지에 산재해 있던 오아시스 도시 국가들을 통칭하여 ‘서역 36국’이라고 불렀다. 그 뒤 중국인의 서방에 관한 지식이 커짐에 따라 서역이 뜻하는 지역 범위도 확대되어, 서(西)투르키스탄·서아시아·소아시아, 때로는 인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동·서투르키스탄을 합친 중앙아시아, 특히 동투르키스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역(西域)’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범주를 한정지어 주는 하나의 고유 명칭인데, 중국을 비롯한 한(漢) 문명권에서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용되어 왔다.

유럽인들이 유럽의 동쪽 전역을 아시아 혹은 동양(Orient)이라고 통칭하듯이 중국인들 역시 중국의 서쪽 전역을 서역(西域)이라 불렀다. ‘서역’은 장건의 서역 사행 이후에 생겨난 명칭인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대원전」의 관련 기록을 보면, 장건의 사행으로 인해 비로소 한이 ‘서북국(西北國)’, 혹은 ‘외국(外國)’과 처음으로 통교를 하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의 ‘서북국’이나 ‘외국’은 바로 차후의 서역 제국(諸國)을 가리키는 용어로 볼 수 있으며, 장건의 서역 사행 당시나 직후까지만 해도 아직 ‘서역’이란 명칭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역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이 속적 흉노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하여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를 양관(陽關) 서쪽 오루성(烏壘城)에 설치하고, 정길(鄭吉)을 서역도호로 임명한 선제(宣帝) 신작(神爵) 2년(기원전 60년)이었다. 한 무제의 공약으로 인해 흉노는 텐산 북도(天山北道)의 한 귀퉁이로 몰리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타서 선제는 이 지역을 통괄할 기구로 서역도호부를 설치하고 서역 경략을 시도했다. 서역은 전한 무제 때 한과 교류했

는데, 본래는 36개국이었으나 그 후에 갈라져서 50여 개국이 되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흉노의 서부와 오손(이리하(伊犁河) 이남에 정주)의 남부 일대에 산재해 있는데, 남과 북에는 큰 산들이 있고 중앙부에는 하천이 있으며, 동서로 6,000리, 남북으로 1,000여 리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대 이후 중국의 대외 교섭과 교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서역이 포괄하는 지역적 구획도 더 넓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서역이란 명칭에 대한 협의(狹義)와 광의(廣義)의 이원적 이해 태도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협의로서의 서역은 한대에 존재했던 경계를 말하고, 광의로서의 서역은 그 이후 확장된 경계를 뜻한다.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나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의 저서 제목이나 그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대에 서역은 인도뿐만 아니라, 파사(波斯, 페르시아)나 대식(大食, 아랍)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송·원대를 지나 명대에 이르러서는 서역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 동·서투르크스탄은 물론, 티베트에서 네팔·아프가니스탄·이란, 그리고 멀리 지중해 동안의 아랍 등 중앙아시아 및 그 이남, 이서의 광활한 아시아 지역을 망라하게 되었다.

● 다국어 표기 西域(중국어), The Western Regions(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장건,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blog.naver.com/hl2xli/222174150849>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서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1242&cid=40942&categoryId=34031>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 사전, 서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972&cid=62093&categoryId=62093>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 March 2009.

Maenschen-Helfen, Otto, *The World of the Huns: 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Yap, Joseph P, *The Western Regions, Xiongnu and Han, from the Shiji, Hanshu and Hou Hanshu*, 2019.

I D103 | 서융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집필자 김재운 ●라틴 문자 Xionities

서융은 중국에서 볼 때 서쪽에 사는 자신들(한족)과 다른 민족을 일컫는다. 동아시아 고대사는 중국의 문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황하를 중심으로 성장한 중원 왕조는 주변 정치체에 대해 매우 소략한 기록을 남겼다. 기본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유목 사회가 중원 왕조와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기원전 4세기~3세기 이후에는 유목 사회가 중원 왕조의 기록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 당시의 기록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훨씬 지나서 기원전 2세기 말 전한 중기에 쓰인 사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 이유는 중원 왕조에서 현실적 관심이 매우 증대했기 때문인데, 이때 한과 흉노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던 시기여서, 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기록이 남겨 된 것이다. 오랑캐라고 일컬었던 민족을 북쪽에는 북적(北狄), 남쪽에는 남만(南蠻), 동쪽에는 동이(東夷), 서쪽에는 서융이 살았다고 매우 간략하게 남겼다. 서융이라고 일컫던 민족이 살았던 시기는 주로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나타났고 특히 주나라와 오랜 기간 적대 관계로 알려졌다. 주나라는 서융뿐만 아니라 귀방, 험윤, 견융 등과 대립 관계로 알려졌다.

서융은 현재의 중국 감숙성에 살던 민족이다. 그중에서 서융과 북적이 살았던 곳은 목축 혹은 유목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중원과 다른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생산 양식을 발전시켰으며, 전국 이후 한대까지도 중원과 경쟁하고 대립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목 제국을 성립했다. 한나라 이후에도 서융이 나타나는데, 저족(氐族)과 강족(羌族)이 서융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때 서융은 서역 경영을 담당했는데, 서융교위(西戎校尉)와 같은 직책도 생겨났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서윤

●다국어 표기 西戎(한자), Xionities(영어)

●연관 검색어 흉노

●참고문헌(오프라인) 김상기, 「東夷와 淮夷 徐戎에 대하여(續·完)」, 『동방학지』 제2호, 1955.

丘菊贤, 西戎简论. 1988.

니콜라 디코스모 저, 이재정 옮김,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RISS., 2002.

I D104 | 선비

-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몽골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Xianbei

중국 『사서』에 따르면 선비(鮮卑)는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중국에 자주 침입했으며 후에 흉노(匈奴)에게 멸망된 동호(東胡)의 후예라고 전하고 있지만 분명하지가 않다. 선비가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흉노의 피지배 종족으로서 1세기 초부터이고, 시라무렌 강 유역에서 유목을 하고 있었다. 1세기 말 북흉노가 후한(後漢)에 격파되자, 선비는 흉노에 이어 몽골 지역에서 번영했다. 2세기 중엽 단석괴(檀石槐)가 선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국가를 세운 후 자주 후한에 침입하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단석괴는 흉노처럼 영역을 중앙과 동부 및 서부의 3부분으로 나눠 분할 통치했다. 그 무렵 중국은 정세가 어지러워 많은 중국인들이 장성을 넘어 선비의 영역으로 이주했다. 인구가 증가하여 농업과 목축업, 수렵만으로는 식량이 부족해 어업을 적극 장려했다. 단석괴의 사후 선비는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소부족 출신 가비능(軻比能)이 지도자로 부상했지만 단석괴 시대의 세력에는 미치지 못했고 탁발부(拓跋部), 모용부(慕容部), 단부(段部), 우문부(宇文部), 흘복부(乞伏部) 그리고 독발부(秃髮部) 등 6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졌다. 이후 이상의 선비족은 화북 지역에 정착하면서 중국 대륙에서 북조를 건설했는데, 문화적으로는 한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향했다. 이러한 선비족들이 본격적으로 한족에 동화되는 과정은 선비족이 북위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투르크 족이 지배 세력이었던 탁발부의 북위(北魏)는 439년에 화북을 통일하여 이후 중국사에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다. 그 후 중국 남조를 정복하고 북주와 북제로 나뉘어졌다. 나중에는 수나라의 양견(楊堅)에 의하여 중국이 통일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선비

●다국어 표기 鮮卑(중국어), Xianbei(영어)

●연관 검색어 흉노, 유연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jstor.org/stable/40727370>

●참고문헌(오프라인) Chen, Sanping, "A-Gan Revisited — The Tuoba's Cultural and Political Heritage". 《Journal of Asian History》 30 (1). 1996.

薇元, 『北朝胡姓考(修訂本)』, 中華書局, 2007.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D105 I 설비 올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몽골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SOLBI UUL

설비 올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트첵겔르 솜 중심지 서쪽으로 5km 떨어진 설비 산 남쪽 평탄지에 분포한다. 산의 남쪽과 서남쪽에 분포하는 무덤들은 동군과 서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군에 남북 방향으로 141기, 동군에 서남-동북 방향으로 57기 무덤이 분포한다. 대부분의 무덤은 중심부가 흙으로만 채워진 고리형 적석유구이다. 규모가 비교적 큰 무덤의 적석은 눈에 띄게 축조되었으나, 소형은 높이가 지표면과 거의 비슷하게 일부만이 노출된 상태로 확인된다. 대형 무덤의 적석유구는 20m~25m에 이르고, 소형은 4m~6m이며, 중형은 8m~12m 정도이다. 1980년에 몽골-소련 조사단이 무덤 3기, 1987년에 2기, 2000년에 4기를 연구했고, 2001년에는 한국과 공동연구했다. 설비 올 87-1호는 동쪽 무덤군으로 서쪽 가장자리에 고리형으로 돌을 쌓은 흔적이 남아 있다. 직경은 5.4m이고, 흙으로만 채워진 부분의 지름은 3.2m이다. 적석을 제거하자 서북 동남 방향의 각장방형굴 광선이 확인되었고, 지표 아래 3.05m에서 목관이 노출되었다. 목관은 길이 2.2m, 머리쪽 폭이 0.7m, 다리쪽 폭이 0.6m이며 높이는 약 0.4m이다. 목관 내부에는 대퇴골만 남아 있었으며 중앙에서 철제 고리와 묶은 동전 6점이 출토되었다. 설비 올 87-2호는 1호와 마찬가지로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지름 6.1m의 적석유구로 확인되

었고 흙으로만 채워진 유구 중심부는 반경 3.1m 범위이다. 지표 아래 1.72m 지점에서 매장 주체부가 드러났는데, 인골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적색토기 1점 외에는 다른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솔비울, 솔비울

●다국어 표기 Солби уул(몽골어), SOLBI UUL(몽골어)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흥노무덤(1)』, 2011.

I D106 | 셋티 후사인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비평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otti Husayn

우즈베키스탄 문학비평의 탄생과 발전에 공헌한 셋티 후사인(Sotti Husayn)은 1906년에 코칸트에서 태어났다. 우즈베크식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후, 기숙 학교로 진학했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아마추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단편 희곡을 집필했다. 학창 시절의 작품을 동아리 무대에 올리며 직접 연출을 맡기도 했다. 지역 청년위원회는 그를 타슈켄트에 있는 중앙아시아대학교(현 타슈켄트국립대학교)로 보낸다. 그는 1927년~1928년 신문 <젊은 레닌주의자(Yosh leninchi)>의 편집자로서 재직하며 문학·문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젊은 시절부터 희곡을 집필하며 문학에 관심을 보였던 셋티 후사인은 소설과 연극 평론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집필했던 평론이 담긴 『우즈베크 극장(O'zbek teatri)』은 1929년 출간되었다. 또한, 그가 지도했던 젊은 문인 동아리의 문집 『선물(ko'rmana)』의 서문에서 그는 미래의 우즈베크 문학계를 이끌게 될 문인들인 미테미르(Mirtemir), 커밀 야신(Komil Yashin),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 등의 초기 작품을 소개했다.

셋티 후사인은 우즈베크 문학 및 문학비평, 극작법 문제, 러시아 고전 및 이웃 나라 작가

와 시인들에 대해 여러가지 글을 집필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즈베크 드라마 극작법의 일반론(O'zbek dramaturgiyasiga umumiy bir qarash)」, 「15년간의 소비에트 우즈베크 문학(15 yil ichida o'zbek sovet adabiyoti, 1939)」, 「우즈베크 무대에서 상연된 고골의 “결혼”(Gogolning 'Uylanish' pyesasi o'zbek sahnasida, 1936)」, 「루스타벨리 번역에 관하여(Rustaveli tarjimasi haqida, 1939)」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우즈베크 고전 및 현대 문학 대표 작가들의 삶과 작품 그리고 그들의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소비에트 문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치에 대한 글을 썼다.

특히 함자(Hamza Hakimzoda Niyoziy) 작가의 선집 서문에서 그는 우즈베크 산문, 극작법, 시의 발전에서의 함자의 역할을 평가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함자학(hamzashunoslik)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된다. 함자의 작품 활동을 정당하고 긍정적으로 논평하고 소련 문학의 지지자로 평하는 것은 섯티의 이 서문 이후부터였다. 그는 연출, 오페라, 오페레타, 음악, 문학 번역 등을 이론과 현장에서 모두 다룰 줄 아는 능력자였다.

안타깝게도 섯티 후사인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몇 달 전인 1942년, ‘반 소비에트 운동 일원’ 혐의로 사형되고 만다. 1956년에 다른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섯티 후사인도 무죄를 선고받고 복권(復權)되었다. 1974년에 섯티 후사인의 선집이 출판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티 후사인, 섯티 후사인

●다국어 표기 Sotti Husayn(우즈베크어), Сатти Хусайн(러시아어)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satti-khusain>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Nazarov, B., *O'zbek adabiy tanqidchiligi tarixi*, Cho'lpon nomidagi nashriyot-matbaa ijodiy uyi, Toshkent, 2012.

I D107 | 성 루이 세레반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북아프리카 ●나라 이집트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공예 ●유형 소분류2 금속공예
●집필자 이수정 ●라틴 문자 Baptistarium of Saint Louis

성 루이 세레반은 구리 세공인인 무함마드 이븐 알-자인(Muhammad ibn al-Zayn)이 만들었다. 황동에 금과 은으로 상감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 교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 지역과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맘루크 조 이슬람 법원에서 의식용 세척 그릇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기독교 후원자의 주문으로 기독교 의례용품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성 루이 세레반은 1440년 생트 샤펬 드 뱅센(Saint-Chapelle de Vincennes)의 보물 미공개 목록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후 1606년 루이 13세의 세례 의식에 사용되었다.

세레반의 크기는 높이는 22cm~24cm이며 직경은 50.2cm~20.4cm이다. 세레반 바깥쪽과 안쪽의 모든 다양한 장식은 상감 기법으로 처리되어 있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 잎사귀 패턴이 주로 활용되었다. 또한 아랍어로 작성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세레반 외부에는 20명의 사람들 모습이 있다. 그중 4명의 모습은 메달리온이라고 하는 둥근 테두리 안에 묘사되어 있다. 메달리온 안에 있는 3명은 말을 탄 기수로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기수는 창으로 곰을 죽이는 사냥꾼으로, 턱끈 모자를 쓰고 긴팔과 코트를 입고 있다. 뒤쪽으로 스카프, 혹은 망토로 보이는 천이 날아가는 모습이다. 얼굴은 길고 턱에는 점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다.

두 번째 기수는 터번을 쓰고 반팔 코트를 입고 있으며 폴로 지팡이를 착용한 상태이다. 얼굴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 뾰족한 부리가 있는 긴 목을 한 새가 등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기수는 몸이 매듭 모습을 하고 있는 뱀처럼 생긴 용의 입에 창을 꽂는 사냥꾼의 모습이다. 모자를 쓰고, 반팔 코트를 입고 있으며 가슴에 달린 망토는 등 뒤로 펼쳐진다. 길게 표현된 얼굴에는 수염이 있다.

네 번째 기수는 머리 장식을 쓰고 있으며 둥근 얼굴에 콧수염을 하고 있다. 긴팔 코트를 입고 있으며 궁수의 모습을 하고 있다. 4개 화살이 들어 있는 화살통을 가지고 있다.

메달리온 밖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세레반 내부에도 메달리온 장식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 중 두 개의 메달리온에는 중앙에 방패가 묘사되어 있고, 주변에는 다섯 개 꽃잎으로 장식된 꽃과 식물이 묘사되어 있다. 다른 한 쌍의 메달리온에는 왕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왕좌에 앉아 있고, 해당 왕좌는 두 마리의 사자가 지탱하고 있다. 주변에는 긴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메달리온 주변에는 외부 장식과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을 묘사한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다.



성 루이 세레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세레반에는 여러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아랍어로 장식되어 있다. 서체는 이슬람 세계 초기 서체 중 하나인 나스크체(Nasq)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과 식물 모양이 장식되어 있는데, 특히 세레반 바닥에 많이 나타난다. 물고기가 묘사되어 있으며, 가젤, 산토끼, 멧돼지, 사자, 곰, 여우 등의 모습이 보이고, 코끼리, 낙타, 말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그리핀, 스피르크스, 유니콘, 용과 같은 상상의 동물도 묘사되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성 루이 세레반

●다국어 표기 Baptistère de Saint Louis(프랑스어), Baptistarium of Saint Louis(영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OMGg>

●참고문헌(오프라인) Bloom, J. M., A Mamluk Basin in the LA Mayer Memorial Institute. *Islamic Art*, 2, 1987, 15~26.

Rice, D. S., The Blazons of the "Baptistere de Saint Loui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3(2), 1950, pp.367~380.

I D108 | 성자 숭배

-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중국
-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aint Cult

성자 숭배는 오늘날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동 투르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투르크 민족 이슬람의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성자들의 영묘는 현지 무슬림들의 지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영묘를 방문해 죽은 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덕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기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다. 오늘날 수백 개의 영묘가 존재하는 이스탄불의 경우, 코윤 데데(Koyun Dede) 영묘같이 개구쟁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이가 온순해진다는 성묘가 있는가 하면, 바바 자파르(Baba Jafar) 성묘는 특히 임산부에게 효험이 있다고 전한다.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영묘를 방문해 갓난아이에게 입힐 옷이나 기저귀들을 일정 기간 놓아둠으로써 자파르 성인의 성덕이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순례객이 성묘를 방문하면 일정한 의식이 치러진다. 통상은 코란을 읊으며 성묘 안에 들어간 후 성자의 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소원을 빈다. 영묘가 잠겨 있는 경우는 문 앞이나 성자의 관이 보이는 창살 문 앞에서 동일한 의식을 치른다. 특정 지역에서는 쇠창살에 형겼을 묶어 놓기도 하는데, 일종의 매듭 신앙으로써 자신의 소원이 꼭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성인숭배

●다국어 표기 Evliya Kültü(튀르키예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yN6F>

●참고문헌(오프라인) 신앙섭, 「이슬람의 벡타쉬 종단 연구」, 『종교연구』, 1996.

우덕찬, 「터키 알레비종파에 나타난 샤머니즘 모티프」, 『중동문제연구』 8(1), 2009.

우덕찬, 「터키 알레비종파에 나타난 싱크레티즘」, 『중동문제연구』 9(2). 2010,

Ocak, Ahmet Yaşar, Alevî ve Bektaşî İnançlarının İslam Öncesi Temelleri,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5.

I D109 | 세금 청부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제도 ●유형 소분류2 세금
-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Tax-farming

세금 청부는 오스만 제국이 조세 수입을 얻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한 방법으로, 관료들로 하여금 세금을 직접 걷게 하는 대신 세금 징수를 지역과 세목에 따라 나누어서 적절한 지원자에게 위탁하는 형태였다.

널리 알려진 일티잠이라는 시스템의 경우 경쟁 입찰에 붙여 가장 많은 세수를 보장하는 후보에게 계약이 주어졌다. 하나의 일티잠은 여러 가지 조세 수입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티잠 계약을 가진 세금청부업자를 밀테짐이라고 불렀다. 밀테짐은 계약으로 넘겨받은 징세 대상의 세금 항목들을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 징수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하청을 주었다. 하청은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등록되었다. 세금 청부의 단위는 가변적이었으니, 하나의 세금 청부 계약 단위에서 조세 수입원을 더하거나 덜어내서 옮기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여러 다른 세금 청부 단위에서 조세 수입원들을 조금씩 떼어내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밀테짐은 특정 지역에서 미리 정해진 액수의 조세 수입을 국고에 바칠 것을 약속해야 해당 지역에서 1년3년간 세금을 걷도록 허락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오스만 국가와 밀테짐 사이의 계약에 의해 합법화되었고, 밀테짐에게는 그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모든 조세 수입원들이 열거되고 지정된 카눈나메를 받았다. 밀테짐은 세금 청부를 혼자서 혹은 동업으로 할 수 있었고, 세금 청부 계약에서는 3년 주기를 타흐윌(tahvil)이라고 불렀고 2번~3번의 주기를 한 번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징수한 금액이 미리 예정된 국고 납입분을 넘으면 이득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었다.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밀테짐이 정해진 액수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액수를 대납할 보증인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밀테짐은 계약 초입에 일종의 선납금(kefalet bedeli)을 내야 했다. 세금 청부는 순전히 재정적인 업무였고 밀테짐은 치안이나 군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므로 티마르 기병이 대거 파직되고 밀테짐이 세금을 걷게 된 광범위한 흐름은 지방 치안의 붕괴로 이어졌다.

밀테짐의 임무에는 세금 징수 관련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있었으니, 장부를 꼼꼼히 적지 않거

나 제출을 못하면 파직될 수 있었다. 세금 징수 정산은 일티잠 계약의 지속 여부와는 관련없이 국가와 뮐테짐이 매년 하는 일이었다. 연례 납부액(kıstelyem)은 뮐테짐이 경매 당시 제시했던 액수와 같았다. 뮐테짐은 일반적으로 서기와 회계사와 함께 매년 세금 징수 기록을 제출했다. 뮐테짐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계약된 기간 중 아무 때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현재의 뮐테짐에게 도전할 수 있었다. 현임자가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도전자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청부업자가 계약을 따서 전임자를 대체한다고 해도 이는 세금 정산기간을 바꾸거나 세금 징수 기간의 시작점을 바꾸지 못했다. 일티잠 체제는 흔히 직책의 세습 등에 남용되었고 뮐테짐은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별도의 계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티잠은 중간에 도전자에게 쉽게 넘어가서 계약자가 자주 바뀌는 등 불안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17세기 말에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야기된 재정 파탄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만 정부는 1695년 새로운 형태로 종신 세금 청부 계약인 말리카네(malikane)를 1695년에 도입했다. 말리카네의 경우에도 세금 징수와 납부는 매년 정산되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말리카네 보유자의 계약은 취소되고 체포당하게 되어 있었다. 말리카네 보유자들은 다양한 조세 수입원들에서 스스로 징세를 할 수도 있었고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도 있었는데, 후자도 역시 합법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말리카네 제도는 탄지마트 개혁기(1839~1876)까지도 지속되었다.

에스함(esham) 제도는 말리카네에서 또 한 단계 진화한 세금 청부 체제였다. 1775년에서 1870년 사이에 오스만의 국가 재정은 반복된 패전으로 인한 전쟁 배상과 전반적인 근대 개혁의 추진에 따른 엄청난 지출, 국내 여러 사회 집단들의 불만 표출과 소요 등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다. 이에 오스만 중앙 정부는 채권 발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장기 국채로서 에스함을 시작했다. 국고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특정 조세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을 평가하여 그것을 파이즈(faiz)라고 불리는 많은 수의 몫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 파이즈의 값으로 치러진 대금은 해당 조세수입원의 연간 수입액보다 5배~7배 높았으나 파이즈는 보유자가 살아 있는 한 매년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 해당 조세 수입원의 연간 이윤율이 등락하는 것은 파이즈 보유자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에스함 제도는 말리카네 제도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고, 말리카네 제도를 계승하면서 세금 청부 체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진 제도였다. 그러나 에스함 역시 수익이 나지 않았고 관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적자로 운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티잠

●다국어 표기 iltiza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티마르

●참고문헌(오프라인) Baki Çakır, “Tax Farming”,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55~557.

Yavuz Cezar, “From Financial Crisis to the Structural Change: The Case of the Ottoman Empire in the Eighteenth Century”, Oriente Moderno, Nuova erie, Anno 18 (79), Nr. 1, 1999, pp.49~54.

I D110 I 세르베티 뛰눈 문학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분류 ●유형 소분류2 동인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TURKISH LITERATURE IF SERVET-I FUNUN PERIOD

세르베티 뛰눈 문학은 오스만 제국 압딜 하미드 2세 시대 활동했던 문인들과 문학 동인지를 일컫는 말로 그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877년에서 1878년 사이에 일어난 오스만 제국-러시아 전쟁은 튀르키예에서 '93 전쟁(harbi)'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됐다. 오스만 제국은 산 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1876년 8월 31일 압딜 하미드 2세(II. Abdülhamid)가 즉위했을 때 오스만 제국의 경제, 정치, 군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탄지마트 칙령을 공포한 삼촌 압딜 메지드(Abdülmecid)가 술탄 자리에서 퇴위하고 형 무라드 5세(V. Murat)가 왕위에 올랐으나 3개월 뒤 정신적 질환으로 폐위돼 츠란 궁전에 갇혔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제국을 통솔하게 된 압딜 하미드 2세는 자신이 살해 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와 정부의 권력을 모두 자신이 독점하고 광범위한 사찰 조직을 만들었다. 이때를 '독재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억압과 공포 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당연히 사상가, 문학가,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사회 문제와는 거리가 먼 주제들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할리트 지야 우샤크길(Halit Ziya Uşaklıgil),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 제나프 샤흐베티(Cenap Şahabettin), 쉴레이만 나지프(Süleyman Nazif), 휘세인 자히트 알촌(Hüseyin Cahit Yalçın), 메흐메트 라우프(Mehmet Rauf)는 모두 이 시기 유년기를 보낸 작가들이다.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이 시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결국 작가로 성장했을 때 <세르베티 뤼논(Serfetiünun)>이라는 저널을 만들어 문학활동을 하게 된다.

<세르베티 뤼논(Serfetiünun)>은 초기에는 학술지 성격이 짙었지만 1896년 2월 7일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가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문학 작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예지가 되었다. <세르베티 뤼논> 동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새로운 문학’이라는 뜻으로 <에데비아트 제디데>이다.

<세르베티 뤼논> 작가들의 문학은 튀르키예 문학의 시와 산문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특히 서구적 문학 형식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 시기에 이야기와 소설은 크게 개선됐으며 사실주의 구성을 추구했다.

세르베티 뤼논 작가들의 소설과 이야기의 배경은 대개 이스탄불이었고 주인공들은 지식인이었다. 예를 들어 세르베티 뤼논 단체와 튀르키예 문학의 대가인 소설가 할리트 지야 우샤크길의 『파랑과 검정(Mai ve Siyah)』, 『금지된 사랑(Aşk-ı Memnu)』과 같은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지적이고, 예술과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메흐메트 라우프의 소설 『9월(Eylül)』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극히 일부지만 지식인들 주변 밖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할리트 지야 우샤크의 『구속된 마을(Mahalle Mevkuf)』, 『소박한 무언가(Sade Bir Şey)』, 『시녀 페르훈데(Ferhunde Kalfa)』 작품에서는 이야기 주제와 등장인물이 대중이었다.

탄지마트 시대 작가들처럼 세르베티 뤼논 문인들도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탄지마트 작가들은 낭만적인 반면에, 세르베티 뤼논 작가들은 플로베르(Flaubert), 도데(Duadet), 콩쿠르(Goncourt) 같은 프랑스 사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독재 시대의 여파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 세르베티 뤼논 작가들은 문학 작품의 언어와 형태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으려고 했고, 시에서도 새로운 구조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문학가들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에서 고안하는 것이다.

세르베티 튀논 시인들은 내용 면에서는 풍부한 시가 없지만 형식 면에서는 새로움을 과감하게 시도했다. 운율에 쉽게 조화되는 독자적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르베티 튀논 시인들은 애써 사회적인 주제와 행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서 추상적인 자연을 묘사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작가들 대부분이 힘겨워진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절망과 극도의 우울함에 빠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압달 하미드 2세의 정권 막바지에 테브피크 피크레트는 오직 자신만이 ‘생각, 의식, 양심이 자유로운 시인’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다.

세르베티 튀논 시기에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연극 장르의 작품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환경은 독재 정치로 인해 많은 것들이 금지됐는데, 특히 연극이 대중의 삶을 언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세르베티 튀논 작가들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볼까 두려워 1908년까지 연극 작품을 쓰지 못했고 이 이후에 쓴 작품들도 썩 성공적이지 못했다.

산문 장르에서 작품으로 대중에게 인정받은 대표적인 예술가들은 하리트 지야 우샤크르길(Halit Ziya Uşaklıgil, 1866년~1945년), 메흐메트 라우프(Mehmet Rauf, 1870년~1927년), 사페티 지야(Saffeti Ziya, 1875년~1929년), 아흐메트 슈아이이프(Ahmet Şuayıp, 1876년~1901년) 등이며, 시 장르에서는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 1867년~1915년), 제나프 샤후베틴(Cenap Şahabettin, 1870년~1934년), 휘세인 시레트(Hüseyin Siret, 1872년~1959년), 휘세인 수아트(Hüseyin Suat, 1867년~1942년), 알리 에크렘(Ali Ekrem, 1867년~1937년), 쉴레이만 나지프(Süleyman Nazif, 1870년~1927년), 제랄 사히르(Celal Sahir, 1883년~1935년) 등이다.

1896년에 테브피크 피크레트가 동인지 <세르베티 튀논>의 편집장을 맡았다. 1901년 10월 16일 휘세인 자히트 알촌이 「문학과 법」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789년 왕조 프랑스에서 분열이 발생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문장이 프랑스 혁명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동인지가 폐간되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르베티 튀논 시대 문학

●다국어 표기 Servetifünuncular(튀르키예어), TURKISH LITERATURE IF SERVET-İ FUNUN PERIOD(영어)

●연관 검색어 압틸하미드 2세

●참고문헌(오프라인) Akay Hasan, *Servit-i Fünun Şiir Estetiği*,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98.

Kavcar Cahit, *Batılılaşma Açısından Servet-i Fünun Romanı*,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5.

Kutlu Şemsettin, *Serveti Fünun Edebiyatı*,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76.

Özdemir Emin, *Türk ve Dünya Edebiyatında Dönemler-Yönelimler*, Bilgi Yayınevi, Ankara, 1999.

Tanpınar Ahmet Hamdi, *Edebiyat Üzerine Makaleler*, Dergah Yayınları, 3. Baskı, İstanbul, 1992.

Tuncer Hüseyin, *Servet-i Fünun Edebiyatı*, Akademi Kitabevi Yayınları, İzmir, 1998.

I D111 I 세마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의식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ema

세마(Sema)는 튀르키예 코니아 출신의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가 메블라나 루미를 숭모하는 종교 의식에서 비롯된 이슬람 신비주의 명상 춤이다. 일명 메블라나(Mevlana)라고도 부르는데, 튀르키예의 대표 무형문화재 중의 하나다. 명상 춤의 시작은 함께 기도를 한 후 네이(튀르키예 피리)를 불면서 시작된다. 이 춤은 피리와 북소리에 맞춰 튀르키예어로 된 수피 노래인 일라히(İlahi)라는 찬송을 부르며 디크르(Dhikr, 알라를 염원하는 명상 기도)를 준비한다. 디크르가 시작됨과 동시에 두터운 긴 치마를 입은 세마젠들이 1시간가량 쉬지 않고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 춤을 춘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정신적 스승인 세이히가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 갈대로 만든 피리 네이를 부는 것으로 끝이 난다.

네이 소리는 신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한다. 세마젠들은 먼저 세이히의 손에 입맞춤을 한다. 그후 우주를 향하는 여행객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주를 향하는 춤 여행은, 먼저 무덤에서 나와서 우주의 신에 대해 의식이 준비됐음을 알리기 위해 망토를 벗는다. 명상 춤은 한 손을 위로 향하고, 또 한손은 아래로 향하는데 이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명상 춤은 처음에는 천천히 돌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더 빨리 돌기 시작한다. 빠른



세마 명상 춤(코니아, 튀르키예)

물살이 깊은 웅덩이를 만들 듯이 빠른 회전을 통해 우주의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의 표현이다. 메블라나의 사상은 분명 정통적인 이슬람 사상과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튀르키예인들은 메블라나의 사상에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매년 12월이면 코니아(Konya)에서 메블라나 축제가 열린다. 이때 우주의 신과 깊은 만남을 열망하는 메블라나 추종자들의 숙련된 춤을 관람할 수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르두

●다국어 표기 Sema(튀르키예어), Urdu(페르시아어), سَمَاع - samā'un(아랍어)

●연관 검색어 코니아, 메블라나 루미, 네이, 튀르키예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지중해이야기 24_ 터키의 명상 춤 세마(Sema), 교수신문, 2014.10. 07.

유재원, 『터키 1만 년의 시간여행 1』, 책문, 2010.

I D112 | 세멘 프로코프예비치 카디셰프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라틴 문자 Semen Prokopyevich Kadyshev

세멘 프로코프예비치 카디셰프는 차르 러시아 시대인 1885년 9월 14일 예니세이 아친스크 지역 크즐 초원 일대의 타르치 마을에서 태어나, 1977년 7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하카스 전설 및 민담꾼이었으며, 민속시인, 전통 하카스 악기인 차크한(Chakhan)의 대가였으며 1959년 소련 작가 협회 회원으로 예술 및 문화 활동가로 활동했다.

사냥꾼이자 민담꾼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로, 다자녀가정에서 자란 세멘 프로코프예비치 카디셰프는 평생을 'Çooḥçıl(민담꾼, 민담을 좋아하는)' 마을에서 살았다. 그가 사망한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박물관을 설립했다.

카디셰프는 하라 마트피 발라친(Hara Matpıy Balahchin), 차쿰 아브도린(Chakım Abdorin), 슬로 카디셰프(Slo Kadyshev), 안치 바이도셰바(Ançi Baydosheva), 아토이 바라셰바(Atoy Barasheva)와 같은 민담가들로부터 예술을 배웠다. 카디셰프는 총 31개의 영웅 서사시를 남겼지만 그것들 중 21개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21개의 서사시 중 「Albınjı», 「Alıp Han», 「Kün Töñis», 「Altın Arıǵ», 「Han Kiçegey», 「Ay Huucın», 「Ah Çibek Arıǵ», 「Kök Han」 등이 출판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어와 튀르키예어로 번역이 되었다. 카디셰프는 영웅 서사시 이외에도 많은 설화와 전설, 민담들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멘 프로코프예비치 카디셰브
- 다국어 표기 Semyon Prokopyevich Kadyshev / Семён Прокопьевич Кадыше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SY50>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айногашева В.Е. «Кадышев Семен Прокопьевич».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на стр.249, Абак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I D113 | 세브르 조약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사건 ●유형 소분류2 조약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Treaty of Sevres

세브르 조약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전한 후 프랑스의 세브르에서 열린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그 영토를 분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약 내용에 대해 많은 협상과 논의가 있었으나 튀르키예 국민 의회는 세브르 조약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이 조약은 실행되지 못했다. 연합국(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미국)과 오스만 정부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 지역들에 대한 영유권을 빼앗았으며, 아르메니아 독립 국가를 승인하고 그리스에 에게해 섬들의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튀르키예 국민 의회에서 거부되었고 세브르 조약은 1923년 로잔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제1차 대전의 오스만 지역 전선은 1918년 10월 30일 종전에 이르렀고, 연합국은 패전한 제국들, 즉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모두 해체할 것을 원했다. 연합국은 1919년 1월 파리 평화회의를 열었고, 여기에서 독일에게 가혹한 조건을 강요하여 1919년의 악명 높은 베르사유 조약이 나오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대표들도 파리 평화회의에 초대되었으나 이들이 요구한 국제법상의 월슨주의 원칙들은 연합국에 의해 거부되었고, 아나톨리아에서는 연합국에 대항하여 무스타파 케말 파샤 휘하에서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연합국들이 중시한 이슈는 오스만 제국의 미래, 이스탄불 주변 해협을 통과할 권리, 이스탄불의 통제 등이었다. 1920년 4월 18일에서 26일까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수상과 일본, 그리스, 벨기에의 대표단이 이탈리아의 산 레모에서 회의를 열고 오스만 제국과의 평화 조약안을 준비했고, 이 조약안은 5월 11일 파리에서 대재상 테우피크 파샤에게 전달되었다. 나중에 세브르 조약이 된 이 조약안에 따르면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에 주어지되, 튀르키예의 서쪽 국경은 차탈자(지금은 이스탄불 경계 안에 포함)로 설정하고, 이즈미르와 그 주변 및 동 트라키아(에디르네 포함)와 모든 에게 해의 섬들을 그리스에게 주어지고, 이스탄불과 차낙칼레(다르다넬스)의 해협들이 모두 국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이 축소되고 카피톨레이션이 증가된다. 튀르키예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하고, 대



세브르 조약 직후 누스레티예 모스크 앞에서 행진하는 영국군(1920년, 이스탄불)

신 그 지역들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령들이 들어선다. 히자즈에는 히자즈 왕국이, 동 아나톨리아에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아르메니아 독립 국가가 수립되고, 쿠르드 인이 다수인 동남 아나톨리아에 쿠르드인 자치령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조약 내용은 테우피크 파샤에게 오스만 제국을 파괴하는 조치로 느껴졌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오스만 대표단은 대재상 다마트 페리드 파샤와 논의하여 대안을 만들어 연합국에 제시했으나 연합국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고 7월에 최후 통첩을 했다. 또한 그리스는 1920년 6월 12일 오스만 제국이 세브르 조약을 받아들일도록 아나톨리아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한편 아나톨리아에서 1920년 4월 23일 새로 구성된 튀르키예 국민 의회는 오스만 정부에 의해 1920년 3월 16일 이후에 공포된 법률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술탄 메흐메드 6세의 정부는 르자 파샤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국 세브르 조약을 받아들였고, 1920년 8월 10일 조약에 오스만 대표

단이 서명했다. 무스타파 케말의 튀르키예에는 세브르 조약이 큰 후퇴였지만 1876년의 오스만 제국 헌법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제 협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튀르키예 독립운동의 결과로 세브르 조약은 발효되지 못했다.

●다국어 표기 Sevr Antlaşması(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6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참고문헌(오프라인) Mustafa Budak, «Sèvres, Treaty of,»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20~522.

Cevdet Küçük “Sevr Antlaşmas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7, 2009, pp.1~5.

I D114 I 세센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유형 소분류2 인물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esen

세센은 ‘현명한’을 뜻하는 몽골어 체첸(Цэцэн)에서 유래했고 바시키르인의 즉흥 시인을 일컫는 말이다. 세센은 민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것을 공연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자 민담가이다. 그래서 세센은 즉흥 시인의 성격과 이야기꾼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창작 능력과 재능, 특징, 공연의 시간과 공간 등에 따라 세센은 전통 작품들을 변형시키고 해석한다. 널리 알려진 세센으로는 알무하메토프(X.X. Альмухаметов), 가비트-세센(Габит-сэсэн), 무하메트쿨로프(C.M. Мухаметкулов), 쿠세바예바(X.Y. Кусебаева) 등이 있다. 세센의 주요 장르로는 바이트(байт: 타타르, 바시키르 서사시), 노래(йырсы), 민담 등이 있다.

세센의 작품들은 여러 세기 동안 바시키르 민족의 미적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세센의 주요한 자질로는 통찰력, 복잡한 인생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지나간 사건과 상황들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들을 사실적으로 민중들에게 전달하는 용기 등이다. 세센은 자신의 작품들을 서창

으로 연주하는데, 자주 전통 악기들을 반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기교의 발전도에 따라 세센은 몇몇 단계로 구분된다 예로부터 카타이 갈리 세센(Катай Гали-сэсэн), 투루므타이 세센(Турумтай-сэсэн), 수윤дук 세센(Суюндук-сэсэн), 킬디시 세센(Кильдыш-сэсэн), 엠메트 세센(Еммет-сэсэн), 카라카이 세센(Каракай-сэсэн), 야히야 세센(Яхья-сэсэн) 등이 명성을 떨쳤는데 즉흥 작품들은 남아 있지 않다. 세센이 번영한 시기는 16~18세기인데, 이 시기에 구비 문학의 주요 장르인 서사시, 쿠바이르, 아이티시, 노래 등이 쿠바구시 세센, 예르엔세 세센, 카라스 세센, 바이크 아이다르 등의 창작에 등장했다.

20세기 초반 바시키르 민족의 세센 전통은 창작자들이 문자 예술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1998년 청년 이야기꾼 대회가 개최되면서 구비 문학의 부활 조짐이 보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센
- 다국어 표기 Сэсэ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인, 쿠바이르, 아이티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o4L8kspCMU>
- 참고문헌(온라인) <http://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3324-kubair.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Султангареева, Р. А. “Сказитель(Сэсэн) и сказительство тюрков: защита, модели пользования и принципы творческих традиций.” Конференция. Народы и культуры Саяно-Алтая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Абакан, 2020, 241~247.

I D115 | 세엠비케 탑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탑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öyembikä Tower

카잔 크렘린 내에 있는 세엠비케 탑의 건설 연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탑 건설과 관련된 전설에서는 러시아의 차르 이반 4세(Иван IV Васильевич, 재위: 1547년~1584년)



세엠비캐 탑(카잔 크렘린, 러시아)

가 카잔 칸의 섭정이었던 세엠비캐 왕비(Сөембикә, 1516년~1554년 이후)와 결혼하길 원했다. 세엠비캐는 일곱 층의 탑을 모두 건설하면 이반 4세와 결혼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탑이 완성된 후, 그녀는 탑에 올라 카잔을 바라본 후 자살했다고 한다. 이 세엠비캐의 이름을 따서 탑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설과 달리 세엠비캐는 1551년 러시아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카시모프에서 사망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탑의 양식으로 보아 실제 건설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대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탑의 높이는 총 58m이다.

주재료가 벽돌인 탑의 하단부 3개 층은 각기 다른 높이며,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 3개 층상단의 2개 층은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첨탑 바로 하단은 팔각기둥형이며 그 위에 녹색 첨탑이 위치해 있다. 각 층의 가장자리는 벽돌로 된 몰딩으로 처리되어 있다. 1층 탑에는 코린트식 기둥이 입구 양옆에 붙어 있으며 입구는 아치형이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층마다 단순하지만 각기 다른 형식의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다. 2, 3, 4, 5층에는 각기 창이 있으며, 각 창문 역시 벽돌로 몰딩 되어 있다. 창문은 각기 다른 층과 교차된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 창문과 창문 사이의 공간은 창문과 유사한 형태인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5층의 창문은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다. 탑의 6층 남쪽과 북쪽 정면에는 둥근 창문이 있으며, 7층에서 다시 가느다란 아치형의 창문이 위치해있다.

탑은 원래 축에서 남동쪽으로 1.98m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20세기 초부터 이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복원을 거쳐 현재는 1.8m가량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복원 공사를 시행하며 투르크 전통의 심볼과 별자리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장식된 대문과 첨탑 꼭대기에 초승달을 추가하기도 했다.

2000년 카잔 크렘린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크렘린 내에 존재하는 이 탑도 함께 보호되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쇠엠비카 타워, 쇠엠비카 마나라스

●다국어 표기 Сөембикә манарасы(타타르어), Башня Сююмбике(러시아어), Süyümbike Kulesi(튀르키예어), Süyümbikə minarəsi(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카잔 크렘린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980/](https://whc.unesco.org/en/list/980)
<https://kazan-kremlin.ru/muzej-zapovednik/o-kremle/istoriya/>

●참고문헌(오프라인) Bukharaev, Ravil', Kazan : the enchanted capital, London: Flint River Press, 1995.

I D116 | 세이드 니가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온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라틴 문자 Seyid Nigari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종교 시인인 세이드 니가리(Seyid Nigari)는 1805년에 카라바흐 배

르귀사드 지역(Bərgüşad Mahalı; 지금의 소도시 라친 Laçın)에 있는 시골마을 지짐리(Cicimli kəndi)에서 태어났다. 그의 원래 이름은 세이드 미흐 햄재 니가리(Seyid Mir Həmzə Nigari)이다. 그는 문학에서는 세이드 니가리(Seyid Nigari)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등 교육을 새키(Şəki)의 대흐내(Dəhnə kəndi)에서 받았다. 그는 후에 멘토를 찾고자 바그다드로 가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튀르키예의 도시 하르푸트(Harput)과 시바스(Sivas)를 여행하고 카라바흐로 돌아왔다. 그는 카라바흐에서 쿼르대미르로 가서 이스마일 시르와니(İsmayıl Şirvani)의 제자가 됐다. 이스마일 시르와니가 튀르키예로 이민 간 이후 세이드 니가리도 자신의 스승을 따라 튀르키예로 갔다. 그는 에르주룸(Ərzurum), 카르스(Qars), 이스탄불, 하르푸트(Harput) 등지에서 살다가 마침내 아마시아(Amasya)에서 정착했다. 그리고 1886년 10월 15일에 튀르키예의 하르푸트(Harput)에서 사망하여 아마시아의 시르반르 모스크(Şirvanlı cəməsi)에 묻혔다.

낙취반디 종단(Nəqşbəndiyyə təriqəti)에 속했던 그는 이슬람 신비주의 시의 중요한 인물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로 고전 시형식인 디반시를 썼으며 「니가르나매(Nigarnamə)», 「차이나매(Çaynamə)」와 「사기나매(Saqinamə)」의 저자이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위대한 시인인 세이드 니가리는 온 세계를 사랑의 맥락에서 묘사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카라바흐에 대한 사랑은 작가의 시 속에 깊이 담겨 있다. 세이드 니가리는 디반문학 장르와 전통시 형태로도 작품들을 썼다. 그는 아루즈(əruz vəznı)와 음절 음운(heca vəznı)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그의 디반 시는 1883년에 최초로 이스탄불에서 출간되었고, 그 후 1908년에 티빌리시에서 재출간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되찾은 후 세이드 니가리의 작품들이 여러 버전으로 바쿠에서 출간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이드 니가리

●다국어 표기 Seyid Mir Hamza Nigârî(튀르키예어), Сейид Хамза Нигари(카자흐어), Seyid Hamza Nigari(우즈베크어), Сейид Хәмзә Нигари(타타르어), Мир Хамза Нигари(러시아어), Seyid Hamza Nigari(투르크멘어), Seyid Nigari(아제르바이잔어)

●참고문헌(오프라인) Fəxrəddin Mirzadə Mustafa, *Humayî-ərş: Qarabağlı Mir Həmzə Nigarinin Mənaqibnaməsi*, Bakı: Nurlar, 2015.

Nigari Seyid, *Divan*, Bakı: Elm və təhsil, 2010.

Nigari Seyid, *Nigamamə*, Bakı: Elm və təhsil, 2012.

Pərvanə Bayram, *Qarabağlı Seyid Həmzə Nigarinin Həyatı, Yaradıcılığı və Türkçə Divanının Strukturu*, Yayınlanmamış fəlsəfə doktorluğu dissertasiyası, Bakı: AMEA Ədəbiyyat İnstitutu, 2008.

Şahin Fazil, “Mir Həmzə Seyid Nigari Qeyrilərinin Sözü Və Özünün Gözü ilə”, *Azərbaycan Dərgisi*, № 3, 2018, s.123~144.

Qarabağdan Amasiyaya Könül Körpüsü: Beynəlxalq Həmzə Nigari Simpoziumunun Tezisləri, Bakı: Miras nəşriyyatı, 2012.

Yıldırım İbrahim, “Məndəki Seyid Nigari”, *Ədəbiyyat qəzet*, 30 yanvar, 2015.

I D117 | 세이드 애짐 쉬르와니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시인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eyid Azim Shirv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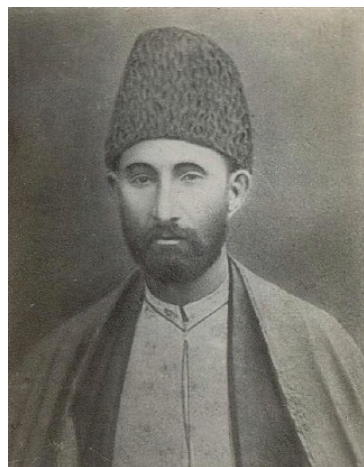
아제르바이잔 시 문학의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세이드 애짐 쉬르와니(Seyid Əzim Şirvani)는 1835년 6월 10일에 샨마흐(Şamaxı) 지역의 루하니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면서 외할아버지인 몰라 후세인(Hüseyn)이 그를 키웠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그리고 샨마크에 있는 마드라사에서 중등 루하니 교육까지 마쳤다. 그는 1856년에는 고등 루하니 교육을 받고자 이라크 나자프(Nəcəf)와 바그다드(Bağdad)으로 갔으며, 이후 시리아(Suriya)의 샨(Şam)으로 향했다. 그는 이라크 유학 당시, 세속 과학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1869년에는 샨마흐에 근대식 학교가 개교하자 그곳으로 돌아와 교사로 일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이 학교에서는 마드라사처럼 종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어와 페르시아어와 같은 언어 교육은 물론 역사, 지리, 수학도 가르쳤다. 이 학교 출신으로는 유명한 풍자시인 미르재 엘라크베르 사비르(Mirzə Ələkbər Sabir)가 있고, 작가이며 교육자인 술탄 매지드 개니자대(Sultan Məcid Qənizadə)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그는 자신의 시들과 개방적인 사고 때문에 지역 판사와 광

신적인 성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결국 그는 1888년에 샤마흐에서 사망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아제르바이잔어와 페르시아어로 쓰인 작품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작품 대부분은 가젤(qəzəl) 장르가 차지한다. 저자의 고전시는 디반 문학 양식으로 쓰여졌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다양한 동양학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들과 새디 쉬라지(Sədi Şirazi), 하피즈 쉬라지(Hafız Şirazi), 매함매드 푸줄리(Məhəmməd Füzuli)의 시를 모방한 시들도 있다. 그러나 이 시들은 시인의 업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서정시이며, 독창적인 작품으로 구성된다. 상당수는 가젤(qəzəl)인데, 그의 가젤에는 삶에 대한 사랑, 낙천주의, 종교적인 믿음이 담겨 있다.



세이드 애짐 쉬르와니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반면, 계몽적이고 비판적인 시들도 있다. 이후 리얼리즘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가 리얼리즘 시로 전향한 데는 신문 <농부(Əkinç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동양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작품과 인생에 대해 기록한 작품집 형식의 ‘태즈키래(təzkirə)’ 형식으로 『태즈키레이-세이드 애짐(Təzkireyi-Seid Əzim)』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 이란 등 이 지역 시인들의 작품과 인생을 담고 있다. 충언, 우화, 교훈을 담고 있는 시 형식의 이야기 장르인 맴준 히카예(mənzum hekayə)들이 있는데, 정직, 용맹, 우정, 충성, 근면, 억압받는 자 돕기, 타인과 좋은 관계 맺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풍자시들도 눈길을 끈다.

그의 시집은 『천상세계에 대한 지상 사람들의 불만(Yerdəkilərin göyə şikayəti)』, 『미치광이 악마(Dəli şeytan)』, 『매크리-재난(Məkri-zənən)』, 『벨흐 법관과 목공(Bəlx qazisi və xarrat)』, 『고위 성직자의 귀환(Müctəhidin təhsildən qayıtməsi)』, 『지식이 없는 학자(Elmsiz alim)』, 『식자 아들과 무식한 아버지(Alim oğul ilə avam ata)』, 『카프카스 무슬림인들에게 고함(Qafqaz müsəlmanlarına xitab)』, 『강아지를 위한 제사(Köpəyə ehsan)』 등이다. 그는 샤마흐(Şamaxı)에서 ‘베이투스-새파(Beytüs-Səfa)’라는 지역 문학 동인을 이끌었고, 새로운 문학 사조가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이드 애짐 쉬르바니
- 다국어 표기 Seyyid Azim Şirvani(튀르키예어), Сеид Азим Ширвани(러시아어), Seyid Əzim Şirvan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e/Seyid_Azim_Shirvan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li Rafail, *Seyid Əzim Şirvaninin fəlsəfi görüşləri*, Bakı: Elm nəşriyyatı, 2005.
Əsgərli Zaman, *Seyid Əzim Şirvani*, Bakı: Elm nəşriyyatı, 2005.
Məmmədzadə Bəxtiyar, *Seyid Əzim Şirvaninin anadilli poeziyasında bədii dil*, Bakı: Bakı Universiteti nəşriyyatı, 1998.
Şirvani Seyid Əzim, *Seçilmiş əsərləri*, 3 cilddə, I~III cildlər, Bakı: Avrasiya Press nəşriyyatı, 2005.
Qasımzadə Feyzulla, *XI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7.

I D118 | 세이란 새하배트

-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eyran Sakhavat



세이란 새하배트
Source:<https://www.azerbaijans.com/f>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산문가 중 한 명인 세이란 새하배트(Seyran Səxavət)는 1946년 3월 23일에 카라바흐(Qarabağ) 지역의 푸줄리 지구(Füzuli rayonu)의 마을 야글르밴드(Yağlıvənd kəndi)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까지는 이 마을에서 졸업했다. 그리고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 동양학과에서 수학했다. 1970년~1972년 군복무 기간에는 소비에트 국방부에서 통역사로 복무하기도 했다. <문학과 예술(Ədəbiyyat və incəsənət)>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한 후, 1974년~1976년에는 이란(İran)으로 가서 통역사로 일했다. 1976년~1981년에는 다시 <문학과 예술(Ədəbiyyat və incəsənət)> 신문사로 복직했다. 1981년~1991년에는 <별(Ulduz)>

잡지사의 산문 부서장으로 활동했다. 1980년부터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Azərbaycan Yazıçılar Birliyi)’의 회원이 되었다.

그의 문예 창작은 장르 면에서 다채롭다. 그는 1962년에 시, 단편소설, 기사들을 출판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그의 창작에서는 희곡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88년에는 그의 희곡 작품인 「황금대야(Qızıl test)」가 아제르바이잔 아카데미 드라마 극장(Azərbaycan Akademik Dram teatrı)에서 상연됐다. 1989년에는 희곡 「흉상(Büst)」이 렌케란(Lənkəran)에서 상연됐다. 1990년에는 희곡 「대문 앞에 남겨진 세상(Qapıların o üzündə qalan dünya)」이 푸줄리(Füzuli) 국립 드라마 극장(dövlət dram teatrı)에서 상연됐다. 그의 대표적 시 작품으로는 『섬들(Adalar, 1970)』, 『내 행성(Mənim planetim, 1977)』 등이 있고, 그의 대표적인 소설 및 단편소설 작품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Hamı elə bilirdi ki, 1982)』, 『돌집들(Daş evlər)』, 『꼭 끼는 셔츠(Dar köynək, 1987)』, 『황금대야(Qızıl test, 1999)』, 『부고담당(Nekroloq, 2003)』, 『강철의 씨앗(Polad toxumu, 2003)』, 『핑계(Bəhanə, 2009)』, 『유대인 알파벳(Yəhudi əlifbası, 2009)』 등이 있다.

그의 소설 『부고담당(Nekroloq)』은 2002년에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Azərbaycan Yazıçılar Birliyi)이 선정한 ‘유시프 새매드오굴르(Yusif Səmədoğlu) 올해 최고의 소설(İlin ən yaxşı romanı)’ 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전복된 도덕적 가치들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의 소설 『도피(Qaçacaq)』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은 다큐멘터리 문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사회심리학적인 작품을 쓴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이란 새카베트, 세이란 세카베트

●다국어 표기 Seyran Sakhavat(튀르키예어), Сейран Сахават(러시아어), Seyran Səxavət(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azerbaijans.com/uploads/seyrans-sexavet213131.gif>

●참고문헌(오프라인) Əfəndiyeva Xəyalə, *Seyran Səxavətin bədii nəsrində sosial-psixoloji və mənəvi-əxlaqi problemlər*, Filologiya üzrə fəlsəfə doktoru elmi dərəcəsi almaq üçün təqdim olunmuş dissertasiya, Bakı: 2016.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 D119 | 섹섹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라틴 문자 Sek-sek

샤머니즘의 의식 중 하나인 섹섹(Sek-Sek) 의식은 하카스어-러시아어 사전에 ‘와인 혹은 우유를 흠뿌리는 행위를 할 때 내는 소리’ 혹은 ‘신령에게 술이나 기타 음료들을 흠뿌릴 때 내는 소리’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섹섹은 Seek 또는 söök 과 같이 두 개의 모음으로 표기된다. 이 단어의 동사형 seektirge-(seekte-)은 하카스어로 ‘무속 의식 중에 술을 공중에 흠뿌리거나, 우상(석상)들에게 흠뿌리다’라고 정의되며 sööktirge- 역시 ‘술 또는 담배를 신령들에게 흠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하카스어 문장 ‘Ham pozınıñ tösterine sööktepçe’는 샤먼(Kam)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령들에게 섹섹(sek-sek)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섹섹은 또한 무속 기도의 내레이션을 장식하며, 리듬을 만들어 주술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속 송배의 한 유형으로도 일컬어진다.

하카스 샤머니즘에 있어서 이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긴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여행도중 만나게 되는 석상들 혹은 산의 신령, 정령들에게 바치기 위해 술, 우유, 차와 함께 빵, 과자 등을 챙겨야한다. 이러한 의식은 무혈제사(제물을 희생함으로써 피를 바치는 제사가 아님)로서 음식과 음료를 사방에 흠뿌리며 신령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서 기원하며, 새로 산 집, 자동차 등과 같이 물건의 상서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카스인들 사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행해지는 의식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섹섹, 세크세크

●다국어 표기 Сек-сек(러시아어), Sek-sek(영어), Seek-seek, Сеек-сеек(하카스어)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Я. *Хакасско-русский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Абакан: Изд. ХГУ, 1999.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21.

Субракова, О.В. *Хакас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Около 22 тыс. слов)*.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2006.

I D120 | 쉐누르 세제르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Sennur Se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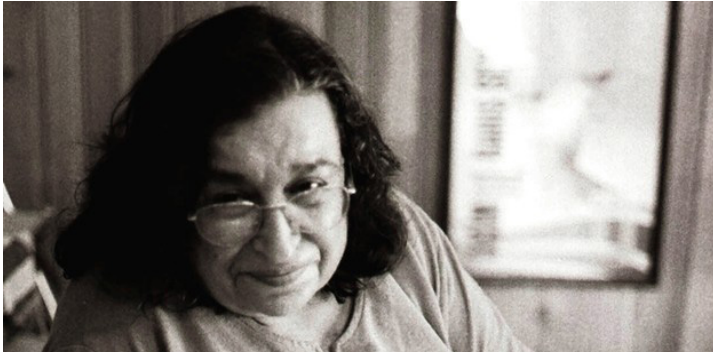
파트마 아블라(Fatma Abla), 파트마 첼리크(Fatma Çelik), 헤발 에빈다르(Heval Evindar)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쉐누르 세제르(Sennur Sezer)의 본명은 쉐누르 파트마 첼리크(Sennur Fatma Çelik)이다. 1943년 6월 12일 에스키셰히르에서 태어난 쉐누르 세제르의 아버지는 철도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시와 음악을 즐기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주부였다.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고,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어머니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다. 덕분에 쉐누르 세제르는 입학과 동시에 일 학년에서 이 학년으로 월반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쉐누르 세제르의 가족은 에스키셰히르에서 이스탄불로 이사하게 되었고, 1953년에 카슴파샤 카드 메흐메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슴파샤 중학교에 입학했다. 1956년에 이스탄불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한 세제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졸업하지 못한 채 1959년부터 1964까지 타쉬크자크 조선소(Taşkızak Tersanesi)에 다녔다. 이후 그녀의 인생 전부가 될 출판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1965년부터 1968년까지 튀르키예 문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문예지 <와르륵(Varlık)>을 발행하는 와르륵 출판사(Varlık Yayınevi)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쉐누르 세제르는 1967년 동화작가이자 소설가이며 많은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간 아드난 외즈알츠네르(Adnan Özyalçınar)와 결혼했다.

그녀의 첫 번째 시는 1958년에 <예술세계(Sanat Dünyası)>라는 잡지에 발표했으며, 1964년에 첫 번째 책 『밤에 생긴 집(Geçekondu)』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당시 튀르키예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촌향도와 도시화 문제를 사회주의 시각으로 다루었다. 『판자촌(Geçekondu)』은 시골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제한적이었던 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쉐누르 세제르는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몇 년 후 건잡을 수 없이 커질 사회 문제를 문학적 소재로 옮겼다. 부모와 자식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찌든 가난에 뒤죽박죽인 생



센누르 세제르
Source: <https://cdn.yeniakit.com.tr/>

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위 첫 번째 책에서 사회 문제를 문학적인 언어와 감수성으로 표현한 센누르 세제르는 다음 작품에서 사회주의적 관점이 더 깊어졌다. 1966년에는 먼저 타쉬크자크 조선소에서 군대 분위기를 반영한 「금지(Yasak)」를 출간했고, 1977년

에도 사회에서 폭력적인 형태로 학대받으며 일하는 여성의 세계를 다룬 작품 「저항(Direnç)」을 발표했다. 1983년에는 이 세 가지 작품을 모아 『신분증(Kimlik Kartı, 1964~1977)』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서로 내용이 이어지는 이 책을 통해 1960년대까지 튀르키예 문학에서 확립되지 않았던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시 뿐만 아니라 글, 인터뷰, 강연에서도 여성 문제를 다룬 센누르 세제르는 1980년 3월 8일 <여성의 목소리(Kadınların Sesi)>라는 잡지에서 세계 여성의 날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1982년에 출간한 네 번째 시집 『내 목소리를 찾아서(Sesimi Arıyorum)』는 여성, 어머니, 일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그녀의 견해와 축적된 지식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6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음악계의 컬트(Cult) 노래 중 하나이면서 남편인 아드난 외즈알츠네르의 소설이 1979년 영화로 각색된 「쓰라린 고통(Buruk Acı)」에 나오는 OST를 센누르 세제르가 작사했다.

센누르 세제르재단은 50여 년 동안 많은 작품을 창작한 센누르 세제르의 명성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매년 노동시와 동화 부분에서 상을 수여하고 있다. 1990년 스트크 도스트 아동 상(Sitki Doşt Çocuk Yazını Ödülüne)을 받은 센누르 세제르가 어린이를 위해 쓴 책은 다음과 같다:

시집 『진실의 이야기(Gerçeğin Masalı, 1979~2003)』을 비롯하여, 시와 동화를 담은 『달팽이의 이야기(Sümüklü Böceğin Masalı, 1989)』, 『켈오울란과 쾨세(Keloğlan ile Köse, 아드난 외즈알츠네르와 공저, 1989~2004)』, 동화집 『밀짚을 엮는 파디샤(Hasır Ören Padişah, 1991)』, 『로빈 후드(Robin Hood, 1993)』,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Pencereden Bakan Çocuk, 1995)』,

『아나톨리아의 이야기(Anadolu'dan Öyküler, 아드난 외즈알츠네르와 공저, 1995)』, 『동화집 (Masal Evi, 아드난 외즈알츠네르와 공저, 2003)』, 『쟁말놀이, 수수께끼: 바늘, 창, 렌틸콩, 방패 (İğne Mızrak Mercimek Kalkan, 2005)』 등이다.

이 외의 서사 장르는 『오스만 제국 시절 점술과 점서(Osmanlı'da Fal ve Falnâmeler, 1998)』, 『튀르크의 서정시인 미흐리 하툰(Türk Safo'su Mihri Hatu, 다큐멘터리 내러티브, 1997-2005)』, 『케렘과 아슬르(Kerem ile Ashl, 2005)』, 『천일야화(Binbir Gece Masalları, 2006)』, 『샤흐마란(Şahmaran, 민속 이야기, 2007)』 등이 있다.

문인인 남편 아드난 알츠네르와 함께 쓴 이스탄불에 대한 작품으로 『세 종교가 만나는 도시 이스탄불(Üç Dinin Buluştuğu Kent İstanbul, 2003)』, 『과거의 이스탄불: 옛 이스탄불의 생활과 민속(Bir Zamanların İSTANBULU Eski İstanbul Yaşayış ve Folkloru, 2005)』, 『유적으로 알아보는 이스탄불 이야기 상, 하(Öyküleriyle İstanbul Anıtları(2 Cilt), 2010)』 등이 있다.

시, 단편소설, 수필, 라디오 시나리오 집필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친 쉐누르 세제르는 한동안 튀르키예 작가협회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10월 7일 세상을 떠난 쉐누르 세제르의 무덤은 이스탄불 진지르리쿠유(Istanbul-Zincirlikuyu)에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쉐누르 세젤

●다국어 표기 SENNUR SEZER(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yeniakit.com.tr/images/news/625/sennur-sezer-306896.jpg>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gör Necati, “Şair Ana'nın Sesi”, *Hürriyet Gösteri*, S. 22, 1982.

Kalender Arife, “Sennur Sezer'in Şiirine Toplu Bakış”, *Şiirin ve Umudun Yorulmaz İğnesi Senur Sezer* (Haz. Cevit Nacitarhan), Evrensel Basım Yayın, İstanbul, 2010.

Sezer Sennur, *Kimlik Kartı 1964~1977*, Yazko Yayınları, İstanbul, 1983.

I D121 | 셀레우코스 왕조

-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이란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국가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eleucid Kingdom



셀레우코스 1세 은화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

셀레우코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토 가운데 헬레니즘을 계승한 왕국 중 하나이다. 셀레우코스(Σέλευκος)는 고대 그리스의 남성 이름을 지칭한다. 왕조의 명칭은 코이네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원 발음은 '셀류코스'이다. 현재는 현대 그리스어 발음표기를 따라 '셀레우코스 왕조'를 기준으로 한다. 왕국의 최대 영토는 아나톨리아 중부와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파미르, 인더스 계곡을 포함한다. 동방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여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계승국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다.

셀레우코스 왕조에는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60년까지 30명의 왕이 있었다. 이 통치기 동안 지배계층은 헬레니즘 문화와 풍습을 잘 계승하여 셀레우코스 왕조를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꽃피웠다. 하지만 관용을 베풀어서 수많은 호평을 받았던 아케메네스 왕조와는 다르게 심각할 정도로 헬레니즘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피지배 계층의 문화를 탄압하고 그리스화(化)만을 강요해서 피지배 민족과 잦은 갈등과 반란, 이에 대한 진압을 겪어야 했고 날이 갈수록 제국의 동방 지배는 약해져 갔다.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는 분할된 알렉산드로스 제국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승자 왕국 중 가장 거대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다.

제국의 6대 왕인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주 해외 원정을 벌였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및 마우리아 제국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으나, 파르티아 왕국 등 제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동방 민족들을 상대로 원정을 벌여 승리해 많은 영토를 회복했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의 재대결에서도 승리해 우위를 확립했다. 그러나 제국이 다시 살아날 무렵 안티오코스 대왕은 로마와 충돌했고, 3번의 전투 끝에 완전히 패하면서 제국의 군사력과

패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안티오코스 대왕이 동방 재원정 중 암살을 당해 제국은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후 제국은 끝없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는 제국의 재확장을 꾀했으나 로마의 견제에 계속 가로막혔고, 지나친 그리스주의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독립 전쟁을 벌여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는 등 영토는 계속 줄어들었다.

결국 동방에서 강성해지던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동방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시리아만을 가진 소왕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대다수의 왕들이 살해를 당하는 혼란기가 찾아왔고, 결국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게 합병당해 멸망한다. 왕으로는 셀레우코스 1세~7세, 안티오코스 1세~13세,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알렉산드로 2세 자비나스, 데메트리오스 2세 등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셀레우코스 제국, 셀레우코스 왕국

●다국어 표기 Αυτοκρατορία των Σελευκιδών(그리스어), Seleucid Kingdom(영어)

●연관 검색어 투르크메니스탄, 파르티아 왕국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28RJTINS6o>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an/original/DP109171.jpg>

●참고문헌(오프라인) G. G. Aperghis, *The Seleukid Royal Economy. The Finances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of the Seleukid Empire*, Cambridge, 2004.

Grainger, John D., [1st pub. 2015]. *The Seleucid Empire of Antiochus III. 223~187 BC* (Paperback ed.). Barnsley: Pen and Sword, 2020.

I D122 I 셀리미이에 모스크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모스크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elimiye Mosque

셀리미이에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2세(Sultan II Selim, 재위: 1566년~1575년)의 명령으로 미마르 시난(Mimar Sinan)이 에디르네(Edirne)에 건설한 모스크이다. 1568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575년 완성했다.

에블리야 첼레비(Evliya Çelebi, 1611년~1682년)의 기록에 의하면 건설에 27,769케세, 약 5억 5천만 악체가 들었다. 건설 당시 미마르 시난은 술탄에게 지속해서 장식 등에 관해서 질문 하기도 했으며, 건설 현장에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셀리미이에 모스크라고 불리기는 하나 실제로는 여러 부속 건물이 포함된 복합단지(Küllüye)이다. 직사각형 중정 내에 모스크가 위치해 있으며, 중정 남동쪽과 남서쪽에 각각 마드라사가 있다. 동쪽 편에는 상가(aşar)가 있으며 서쪽 편에도 상가(aşar)와 초등교육기관(Dar-ül Sübyan)이 존재한다. 모스크 동쪽의 상가는 미마르 시난이 건설했고 서쪽 편의 상가와 초등교육기관은 셀림 2세의 사망 이후 제위에 오른 무라드 3세(III Murad, 재위: 1574년~1595년) 시대에 건축가 미마르 다부드 아아(Mimar Dâvud Ağa)가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모스크는 중정을 포함하여 넓이가 130mx190m이며 중정 남쪽 편에 위치해 있다. 모스크 본 건물의 크기는 60mx44m이다. 중정에서 계단을 통해 모스크로 진입할 수 있다. 중정 북쪽 편에는 아치로 된 갤러리가 있다. 주재료는 약간 노란 빛을 띠는 석재이고 이 외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두 가지 색상의 석재가 사용되었다.

당시 가장 큰 돔이었던 모스크의 메인 돔은 지름 31.3m, 높이 42.25m로 8개의 탑으로 지지되는 드럼 위에 솟아 있다. 이 탑 모양의 지지대는 아치를 통해 돔의 부담을 벽 지지대로 옮겨주고 있다. 돔은 네 계단 형태의 벽과 드럼을 통해 솟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흐랍 벽 쪽에는 하프 돔이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 메인 돔과 8개의 지지대가 만들어낸 공간에 네 개의 하프돔이 자리하고 있다. 내부의 8개의 기둥은 아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은 모두 벽에 숨겼다. 이로 인해 내부 공간은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외부에는 다수의 창문을 첨두아치(pointed arch)와 하프돔과 함께 같은 열에 번갈아 늘어놓으며 외벽의 역동성을 확보했다. 메인 돔에서 시작하여 하단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지며 하강하여 마치 여러 층의 건물인 듯 보이게 하는 것 역시 인상적이다.

미흐랍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든 키블라 벽에 자리하고 있다. 하프 돔으로 덮여 있는 높이 솟은 미흐랍 주변 벽은 하회기법으로 만들어진 타일로 덮여 있으며 서체 장식과 자연주의 식물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대리석으로 된 미흐랍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으며 양옆은 양각 장



셀리미예 모스크(에디르네, 튀르키예)

식이 되어 있다. 미흐랍의 상단부는 풍부한 석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리석으로 된 설교단도 기하학 문양과 루미 문양을 오픈 워크 스타일로 조각되어 있으며, 설교단의 최상단의 원뿔은 칠 장식으로, 설교대 부분은 식물 문양의 하회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 동편 모서리에 있는 흰카르 마흐필리(Hükar mahfili: 술탄이 기도하는 공간)는 아치로 만들어졌으며 벽은 칠 장식과 하회 기술로 만든 타일로 장식되었고, 창문은 색이 있는 돌과 목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기도 공간 가운데에 자리한 뤼에즈진 마흐필리(Müezzin mahfili: 무에진이 사용하는 공간)는 하단부에 대리석 기둥과 첨두아치로 받혀져 있다. 하단에는 단에는 분수가 있는 수조가 있으며 계단으로 뤼에즈진 마흐필로 올라갈 수 있다.

모스크의 네 모퉁이에 존재하는 미너렛은 벽감으로 장식한 다각형의 밑받침 위에 올라서 있다. 흠이 있는 원통형 몸체에 무카르나스로 받쳐진 3개의 발코니가 있는 미너렛의 높이는

70.89m이다. 셸리미이에 모스크 이전에는 미너렛을 일반적으로 모스크와 중정이 만나는 지점에 배치하거나 중정 모서리에 배치했다. 그러나 셸리미이에 모스크에서는 모스크 돔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디자인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주게 되었다.

모스크는 주로 칠 장식, 색상이 있는 돌, 그리고 하회 기법 타일을 이용하여 장식했다. 메인 돔의 내부는 칠로 문양을 그려 장식했다.

갤러리가 있는 중정의 세 방향에는 문이 있으며 북쪽에 있는 문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이며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북쪽 문에는 비문이 있으며 장식이 되어 있으나 나머지 문은 단순하다. 돔으로 덮여 있는 갤러리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주두가 있으며 기둥에서 이어지는 첨두 아치는 두 가지 색상의 돌로 되어 있다.

중정 중앙에 위치한 대리석으로 된 분수가 있는 샤프르반은 십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상단부는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배랑은 미흐랍과 축으로 위치해 있으며 아치로 이루어져 있다. 배랑은 다섯 개의 돔으로 덮여 있으며, 이 돔은 중정 갤러리의 돔보다 약간 더 크다. 배랑의 돔은 무카르나스와 펜던티브로 밝혀져 있다. 배랑 벽의 하단 창문은 서체 문양으로 장식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하학 문양을 칠로 장식했다. 배랑 대문은 대리석으로 된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고 문 위에는 세 개의 둥근 아치와 기하학 문양으로 이루어진 창문이 자리하고 있다.

모스크의 남동 쪽에 위치한 다뤘하디스 마드라사(Dârülhadis Medresesi)와 남서 쪽에 위치한 다뤘쿠라 마드라사(Dârülkurrâ Medresesi) 모두 직사각형에 방과 교실은 돔으로 갤러리는 배럴 볼트로 덮여 있다.

모스크 서편에 위치한 초등교육기관은 상가와 붙어 있으며, 지하층이 있다. 초등교육기관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돔으로 덮여 있다.

상가는 모스크의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서 건설했다고 알려졌으며 모스크의 바깥 중정(복합 단지 중정) 서쪽 외벽에 남북 방향으로 약 255m의 길이로 늘어져 있으며 124개의 상점이 있었다.

셸리미이에 모스크는 미마르 시난의 노년기에 완성된 작품으로 그 자신이 아야소피아 성당을 넘어섰다고 자신할 만큼 그동안 발전시킨 당대의 기술의 정수가 결합된 작품이다. 단순히 지금까지 건설된 건축물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돔이 있는 건축물 중 균형감과 미감

의 정점에 다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셀리미이에 모스크는 2011년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22년 현재 일부 복원 공사 중이다.

●표제어 한국어 발음 셀리미이에 자미, 셀리미예 자미, 셀리미에 모스크, 셀리미예 모스크

●다국어 표기 Selimiye Camii(튀르키예어), Selimiyyə məscidi(아제르바이잔어), Salimiya masjid(우즈베크어), Селимие мешіті(카자흐어)

●연관검색어 미마르 시난

●멀티미디어 링크 셀리미이에 모스크_미흐랍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d/Selimiye_Mosque_Mosque_0162.jpg

셀리미이에 모스크_배랑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2/Selimiye_Mosque_054.jpg

셀리미이에 모스크_측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2/Selimiye_Mosque_025.jpg/1024px-Selimiye_Mosque_025.jpg

셀리미이에 모스크_돔

<https://zrr.kr/jm42>

●참고문헌(오프라인) Kuban, Doğan. Sinan'ın Sanatı ve Selimiye, İstanbul:Türkiye İş Bankası, 1997.

Mülâyim, Selçuk., Ahmet Vefa Çobanoğlu, "SELİMİYE CAMİİ ve KÜLLİY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 TDV, 2009. pp.430~434.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ap, 1986.

Aslanapa, Oktay. Mimar Sinan'ın Hayatı ve Eserleri, Ankara: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1988.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pevi, 1997.

I D123 | 셀림 1세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elim I

셀림 1세(I. Selim, 재위: 1512년~1520년)는 오스만 제국의 9번째 술탄이며 바이에지드 2세의 아들로, 동 아나톨리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한 군주로 유명하다. 그는 오스만 술탄 가운데서 최초로 메카와 메디나를 영유하여 ‘두 성지의 보호자(Khadim al-Haramayn al Sharifayn)’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손위 형제인 코르크우드와 아흐메드에 비해 계승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들에 비해 왕위 계승에 불리하게 이스탄불에서 아주 먼 트라브존(트레비존드)에 지방관직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입지 조건은 역으로 기회이기도 했다. 트라브존에 가까운 이란의 샤 이스마일이 사파비 왕조를 세우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침입하고, 오스만 신민들을 유인하게 되자 사파비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1507년 사파비 조가 남부의 둘가디르를 공격하면서 오스만 영토를 침범하고 오스만 신민들 가운데서 군인을 충원한 일에 대해 술탄 바이에지드 2세는 공공연한 갈등을 피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셀림 왕자는 독자적으로 보복 원정을 감행해 바이부르드(Bayburd)와 에르진잔(Erzincan)에 이르렀다. 이러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부왕 바이에지드는 항명으로 보았고, 사이가 벌어졌다.

바이에지드가 병석에 누워 총애하는 아흐메드 왕자에게 양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계승 분쟁이 일어났다. 왕자들은 유명한 형제살해법에 의해 형제 중 누군가가 술탄이 되면 그 외에는 모두 남성 직계 후손과 함께 살해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셀림은 자신의 임지를 떠나 발칸반도로 건너가 다뉴브 강 유역에 산작(군)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사를 이끌고 에디르네로 행군했다. 술탄 바이에지드와 대재상은 그를 반란자로 규정했고 에디르네에서 그에 대항하는 대군을 조직해 큰 전투가 일어날 뻔했다. 바로 이때 샤 이스마일의 추종자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코르크우드의 임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아흐메드 왕자도 이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서 평판이 떨어졌다. 술탄 위를 둘러싼 왕자들의 쟁패는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었으나 결국 1512년 예니체리의 지지에 힘입어 셀림 1세는 바이에지드 2세를 폐위시키고 등극했다. 셀림 1세는 계승 분쟁이 마무리되자 샤 이스마일의 사파비 조

를 공격했는데, 그에 선행한 작업은 오스만 영토 내에 있는 샤 이스마일 지지자들, 즉 크즐바쉬를 탄압하는 것이었으며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찰드란 전투(1514년)에서 샤 이스마일이 직접 이끌고 나온 군대를 화약 무기에 힘입어 이겼으며 이란 영토 깊숙이 쳐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예니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 돌아와야 했고, 소아시아에서 서남향으로 진군해 디야르바크르와 북이라크를 영유했다. 오스만, 사파비, 맘루크 사이의 완충 지역에 있었던 둘가디르 공국은 1514년 오스만군의 사파비 원정 당시 배후에서 식량 공급을 차단했으므로, 셀림은 권좌에서 밀려난 둘가디르 왕족을 가신으로 앞세워 둘가디르를 정복하여(1514년~1515년) 간접적으로 지배했다(직접 지배를 하게 된 것은 쉴레이만 1세 시기이다).

셀림은 또한 찰드란 전투 이전에는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맘루크 술탄국을 정복했다. 이는 맘루크 술탄국이 샤 이스마일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알레포 근교의 마르스 다비크 전투와 이집트의 알 라이다니아 전투를 통해 맘루크 술탄국에 승리를 거두고 1517년 1월 카이로에 입성했으며, 이는 아라비아반도의 영유와 '두 성지의 보호자'로서의 위치를 보장해 주었다. 또한 압바스 칼리프의 후손으로부터 칼리프 지위를 형식적으로 넘겨 받았다는 설도 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정복을 한 셀림 1세의 치세는 1520년에 갑작스런 사망으로 끝났는데, 독자인 쉴레이만 1세가 그를 무혈 계승했다. 그의 정복의 위업은 '셀림نامه'라는 제목의 책들에서 칭송되었다.



낙카슈 오스만이 그린 셀림 1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다국어 표기 I.Seli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돌가디르, 쉴레이만 1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6/Nakka%C5%9F_Selim.jpg/800px-Nakka%C5%9F_Seli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il Inalcik, "Selim I," *Encyclopedia of Islam*, 2nd editio

Gabor Agoston, "Selim 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511~513.

Feridun Emecen, "Selim 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6, 2009, pp.407~414.

I D124 | 셀림 2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Selim II



셀림 2세, 니가리 작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셀림 2세(1524년~1574년, 재위: 1566년~1574년)은 쉴레이만 1세의 3남으로, 쉴레이만의 총비(寵妃) 휘르렘의 아들이다. 1566년 부친이 사망한 후 그가 왕위를 계승할 때는 다른 경쟁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것은 이전에 다른 형제들이 죽거나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들 중 메흐메드 왕자는 천연두 혹은 독살로 1544년에 죽었고, 예니체리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장남 무스타파 왕자(1553년)와 반란을 일으켰던 바이에지드 왕자(1559년)는 처형되었으며, 등이 굽어서 왕권 경쟁에서 후보로 여겨지지 않았던 지항기르 왕자는 무스타파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같은 해 사망했다. 비록 더 이상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즉위 당시 예니체리들은 즉위 사례금을 내야 이스탄불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그를 막았다.

셀림의 시대는 이전의 쉴레이만까지 10세대에 걸쳐 대단한 팽창을 했던 오스만 국가의 역사



셀림 2세의 무덤 내부(이stanbul, 튀르키예)

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시대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재상 소콜루 메흐메드가 1565년부터 1579년에 걸쳐 강력한 장기 집권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소콜루 메흐메드는 교황, 베네치아, 에스파냐로 이루어진 신성 동맹에 대항하여 키프로스 섬을 점령했고 레판토 해전에서 크게 패하는 등 동 지중해에서 해전을 치르고, 비록 중단되었지만 돈-불가 운하를 야심적으로 착공했으며, 동남아시아에까지 군대를 보내는 등 일종의 '세계 전략'을 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셀림 2세의 역할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셀림 2세는 전쟁터보다는 궁정에 있었고 전쟁이 있어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모스크의 금요 예배가 있어도 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편이었으며, 이는 술탄의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오스만 제국의 성쇠를 술탄 개인의 역할에 의지하던 종전의 인식 속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초기 10세대 동안 유능한 군주의 지도하에 성장했는데 이후에는 점차 쇠퇴했다는 식의 단순한 인식을 초래했으나, 셀림 2세가 전사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전

투를 지휘할 능력은 있었지만 그가 ‘대외 활동’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정치적 조건이 궁정에서 내부 문제들을 세심하게 조정하는 술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대의 기록들은 셀림 2세를 유흥에 빠진 술탄으로 묘사했으며 특히 음주와 수렵이 언급되었다. 그는 예술 후원을 많이 하여 역사가 무스타파 알리, 시인 바키, 궁정사가(셰흐나메지) 록만이 모두 그에게서 후원을 얻었으며 가장 탁월한 오스만 건축가인 시난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에디르네의 셀리미에 모스크도 그의 후원으로 지어진 것이다.

●다국어 표기 II. Selim(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쉴레이만 1세, 휘르렘, 셀리미에 모스크, 미마르 시난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f/Portrait_of_Sultan_Selim_II.jpg/800px-Portrait_of_Sultan_Selim_II.jpg

●참고문헌(오프라인) Şefik Peksevgen, “Selim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513~514. Feridun Emecen “Selim 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6, pp.414~418.

I D125 | 셀림 3세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elim III

셀림 3세(1761년~1808년, 재위 1789년~1807년)는 무스타파 3세의 아들로, 1725년 이후 오래도록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던 오스만 왕실에서 1761년에 태어나 많은 기대를 받은 왕자로, 제국을 구할 수 있는 명군이 되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부왕이 1774년에 죽고 숙부 압달하미드 1세가 즉위한 후에도 한동안 행동의 자유를 주어, 셀림 왕자 주변에 개혁파 인사들이 모여 들었고 루이 16세와 서신왕래도 있었으나, 그가 대제상 할릴 하미드 파샤의 ‘역모’(1785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후에는 자유를 박탈당했다.

1789년 숙부가 사망하자 셀림은 합스부르크 및 러시아와의 전쟁 와중에 즉위했다. 전쟁은 크



콘스탄틴 카프다을르가 그린 셀림 3세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림 칸국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유럽의 군대를 상대로 한 전쟁은 확실한 전력차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결국 1792년 러시아와의 야시 조약에서 오스만 측은 러시아의 크림 칸국 합병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고, 부크 강과 드네스트르 강 사이의 영토를 상실했다. 그는 다양한 관료와 자문가로부터 개혁 제안서를 받아 그것들을 참고하여 '니잠 으 제디드(신질서)'라는 이름의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특히 군사 개혁 내지 신식 군대의 창설이 중요한 부분이

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라드 으 제디드라고 하는 별도의 재정을 운영했다. 니잠 으 제디드 군대는 이집트에서 프랑스군을 축출하는 데,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방어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인 전과를 보였다.

셀림 3세 당시 처음으로 시작된 것 중의 하나는 외국에 외교 공관을 두고 상주 외교관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에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유럽의 왕조 국가들이 전쟁을 선포한 시기에 오스만 정부는 중립을 선언하고 상주 외교관들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런던(1793년), 베를린(1795년), 빈(1795년), 파리(1795년)에 오스만 대사들이 파견되었는데, 러시아의 전쟁 준비설 때문에 러시아에는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러시아와 영국의 도움을 얻었던 오스만 제국은 1803년 영불전쟁 기간에는 중립을 취했으나, 프랑스의 유럽에서의 승전, 특히 아우스테르리츠 전투 이후 친 프랑스 노선에 기울어져서 나폴레옹을 프랑스 황제로 인정했고, 결국 1806년~1812년에 걸쳐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쟁과 와하비 및 세르비아의 반란은 셀림 3세의 입지를 극히 좁혀 놓았고, 니잠 으 제디드 병력을 발칸반도에 주둔시키려던 그의 시도는 발칸 지역의 아이안 군사세력들에 의해 저지당했다(에 디르네 사건, 1806년).

그 이듬해 보스포루스 해협 주변 성채의 군사들에게 서양식 제복을 입히려던 시도가 대규모 군사 반란(카박츠 무스타파 반란)으로 번졌는데 셀림 3세는 이에 니잠 으 제디드 병력을 내보내지 않아서 신식 군대는 해산되고 개혁파 관료들은 대거 처형되었다. 반란으로 폐위된 셀림은 1808년 그의 복위를 요구하며 루스축의 알렘다르(바이락다르) 무스타파 파샤가 이스탄불로 진격해 오자 무스타파 4세의 지시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개혁은 울레마, 예니체리, 지방 세력인 아이안 등 많은 기득권 세력을 침해했고, 개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실한 가운데 세금의 증액과 악폐의 발행은 개혁의 지지 기반을 더 깎아낼 수밖에 없었다.

●다국어 표기 III. Selim(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니잠 으 제디드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a/Konstantin_Kapidagli_002.jpg/800px-Konstantin_Kapidagli_002.jpg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Selim I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514~515.

I D126 | 쟁김아기즈 석굴 마니교 벽화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회화 ●유형 소분류2 벽화
●집필자 조성금 ●라틴 문자 Sengim-aghiz

다양한 물질과 문화가 교류했던 오아시스 도시 투르판 지역에는 불교이외에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 경교, 도교, 마니교의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의 유물들은 주로 석굴 사원에 내재되어 있는데, 석굴 사원들은 서쪽의 교하고성(交河古城)과 동쪽의 고창고성(高昌古城) 사이를 흐르는 무르투크(木頭溝)강을 중심으로 토옥(吐峪溝) 석굴, 베제클리크(柏孜克里克) 석굴, 야르호(崖爾湖) 석굴, 칩칸(七康湖) 석굴, 쟁김아기즈(勝金口) 석굴, 무르투크(木頭溝) 석굴, 타오얼(大桃兒溝·小桃兒溝) 석굴 등이 분포해 있다.

쟁김아기즈 석굴은 투르판 시에서 동쪽으로 약 38km, 고창고성에서는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화염산의 동쪽 계곡에 위치해 있다. 현재 모두 10개의 굴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위치에 따라 북사(北寺)와 남사(南寺)로 불리며, 6개의 굴에 벽화가 남아 있으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석굴의 개착 시기는 석굴 내부에서 발견된 위구르어문으로 기록된 조성기와 벽화의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베제클리크 석굴보다 늦은 서주(西州) 시기이며,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천산 위구르 왕국의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김아기즈 석굴은 베제클리크 석굴과 더불어 천산 위구르 왕국의 왕실 사원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굴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먼저 횡권정(橫卷頂) 또는 종권정(縱卷頂)의 굴로 이 굴들은 바깥벽에 흠을 덧발라 목조 건축을 모방한 승방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산 아래 지상에 평지 가람처럼 흠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도면을 통하여 볼 때 전실과 주실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전실에는 작은 측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쟁김아기즈 석굴은 개착부터 폐기까지의 시기가 비교적 길어 서주 시기와 위구르 왕국 시기

의 벽화가 남아 있다. 불교 관련 벽화뿐만 아니라 마니교 회화로 보이는 그림이 도해되어 있다.

생김아기즈 석굴 복사 3굴은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베제클리크 석굴 38굴 정벽의 마니교의 생명수와 같은 나무가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마니교 경전 중에 광명의 왕국에서 자라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서·남의 세 방향을 상징하는 세 줄기의 나무와 포도송이를 묘사하고 있다.

마니교의 ‘생명의 나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에 입각한 만다야교나 시리아의 그리스도교의 ‘생명의 나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생명의 나무가 마니에게 주어진 수많은 별명 중의 하나라는 사실로 볼 때, 이 생명의 나무는 마니 그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이 벽화는 빛의 나라(천국)의 상징이며, 또한 빛의 나라로 돌아간 마니 자신의 상징이기도 한 ‘생명의 나무’를 예배하고 찬미하고자 표현한 그림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생김아기즈 석굴 벽화

●다국어 표기 勝金口石窟(중국어)

●연관 검색어 마니교 벽화

●참고문헌(오프라인) 沙比提·阿合實提, 「吐魯番勝金口附近佛廟遺址出土的文物」, 『文物』5期, 1960.

明悟殊, 『摩尼教及其東漸』, 中華書局, 1987.

柳洪亮, 「土魯番勝金口北區寺院是摩尼寺嗎」, 『土魯番新出摩尼教文獻研究』, 文物出版社, 2000.

I D127 | 생랴흐 사전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기타 ●유형 언어 ●유형 소분류1 서적 ●유형 소분류2 사전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englâh Lügati

생랴흐 사전은 미르자 메흐디 한(Mirza Han Eštarabâdî)에 의해서 1758년에서 1760년 사이에서 집필된 차가타이 투르크어-페르시아어 사전이다. 미르자 메흐디 한은 나디르 샤의 수석 서기관이었으며, 역사 집필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서문에서 그는 젊은 시절 알리셰르 나버이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그

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생기는 많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라 루가트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장, 메바닐 루가트(Mebâniü'l-Luga)'에서는 차가타이 투르크어 문법, 특히 철자법에 대해 언급했으며, 두 번째 장에서는 차가타이 투르크어-페르시아어 사전, 마지막 장에서는 루트피(Lütfî), 네바이(Ali şir Nevai), 바부르(Babur), 휘세인 바이카라(Hüseyin Baykara)와 같은 당대 최고의 차가타이 작가들 그리고 시인들의 작품을 토대로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수록했다. 그는 작품을 집필할 당시, 다른 차가타이 투르크어 사전을 참조했으며 또한 몇몇 사전에서 발견된 집필 실수 등을 보완하고자 했다.

생라흐 사전은 차가타이 투르크어 이외에 투란, 마베라누네흐르 우즈베크 부족, 룸, 아람 투르크인들의 언어도 함께 포함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생라흐 사전은 당시 언어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손꼽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생라흐 루가티, 생라 루가트
- 다국어 표기 Senglâh Lüga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차가타이 투르크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urkdilbilim.wordpress.com/2020/06/30/cagatay-turkcesi-sozlukleri/>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 2005.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224~225.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nkara: Akçağ, 2004.

I D128 | 셔키르 솔라이먼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okir Sulaymon



셔키르 솔라이먼
Source: <https://malumot.ru/wp-content/>

셔키르 솔라이먼(Shokir Sulaymon)은 20세기 우즈베크 사회, 문학 및 문화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시인, 소설가, 사회평론가, 문학평론가로서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셔키르 솔라이먼은 1900년 봄 코칸드에서 태어났다. 19세기 전반과 후반에 수많은 유명 시인을 배출한 코칸드의 문학적 환경은 20세기 초반에도 문학적, 정신적 위상을 잃지 않았으며, 이는 셔키르 솔라이먼의 문학 및 사회적 활동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16년까지 코칸드의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오렌부르크 후세이냐 마드라사(Madrasai Husayniya)에서 학업을

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튀르키예어, 타타르어,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었다. 셔키르 솔라이먼(Shokir Sulaymon)은 10월 혁명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회평론가, 소설가, 시인, 번역가, 문학연구자, 문학비평가, 교과서 집필 저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혁신과 낡은 구식 전통과의 투쟁을 그린 단편소설 『살인자(Qotil)』, 『심판(Hukm)』, 『약사 아버지(Farmoza otasi)』, 『기생충(Parazitlar)』, 『야모와 하모(Yamo bilan Xamo)』,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과 걱정을 노래한 서사시집 『자유의 멜로디(Erk kuylari, 1926)』, 『승리의 행진(G'alaba marshi, 1928)』, 『시대의 비명(Davr hayqirig'i, 1932)』,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인도인들의 투쟁을 그린 시집 『재는 하늘로!(Kullari ko'klarga!)』 등이 있다.

또한 셔키르 솔라이먼(Shokir Sulaymon)은 다수의 중고등 및 대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며 서피저다(So'fizoda), 함자(Hamza), 미르무흐신(Mirmuhsin), 피트랏(Fitrat), 출판(Cho'lpon),

사디(A. Sa'diy), 이브로히머브(O. Ibrohimov), 허디 톡터쉬(Xodi Toqtosh), 하산 토폰(Hasan To'fon), 아이니(S. Ayniy), 로후티(A. Lohuti) 등의 문학가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작품 활동을 언급했다.

그는 1941년 8월 25일 반혁명 조직 '탈레반 연합'(1918년~1919년), '국민 연합'(1919년~1922년) 및 민족주의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1942년 8월 8일 42세의 나이로 처형당했다. 1960년대에 무죄를 선고받아 복권되었으며, 1964년 그의 단편소설집 『복수(O'ch)』가 출판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쇼키르 솔라이먼

●다국어 표기 Shokir Sulaymon(우즈베크어), Шакир Сулейман(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서피저다, 합자, 철판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alumot.ru/wp-content/uploads/2021/03/shokir-sulaymon-1900-1942_60551b421aa8c.jpeg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shokir-sulaymon/>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 *O'zbek adiblari*,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2016.

I D129 | 셰르더르 마드라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her-Dor Madrasa

셰르더르 마드라사(Sher-Dor Madrasa, 우즈베크어: Sherdor madrasasi)는 17세기 아스트라한 칸국(Astrakhan Khanate, 1466년~1556년) 시대에 알랑토쉬 바허디르(Yalangto'sh Bahodir. 1578년~1656년)가 이맘 쿨리 칸(Imomqulixon, 재위: 1611년~1642년)을 위해 건설했다. 건설 작업은 1691년 엔지니어이자 조각가인 이샤나 발리(Ishana Vali)의 책임하에 건축가 압두잡버르(Abdujabbor)에 의해 이루어졌다.



셰르도르 마드라사(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건너편에 건설된 셰르도르 마드라사는 약 57m×70m가량의 직사각형의 평면이며, 네 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인 중정과 갤러리가 존재한다. 갤러리와 이완 사이의 공간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의 양측과 모서리에는 돔이 있는 다각형 공간이 있다. 이는 강의실, 손님실(室), 기도 공간 및 이맘 자페르(Imam Cafer)의 무덤 등으로 보인다.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와 마찬가지로 정문은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양옆에 미너렛이 존재한다. 정문을 장식한 타일은 남색 바탕 위에 흰색 꽃과 구부러진 나뭇가지 문양 사이에 노란색으로 호랑이와 사람 얼굴을 한 태양이 그려져 있다. 호랑이는 사냥을 하는 중이다. 이 문양으로 인하여 ‘사자가 있는 문(Sher-dor)’이라고 불린다. 호랑이나 사자, 둘 다 당대 투르크 족이나 다른 유목민에게 의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자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태양과 사자는 지배자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 외 구조와 장식 면에서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와 큰 차이는 없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쉬르도르 마드라사

●다국어 표기 Sherdor madrasasi(우즈베크어), Шердор медресеси(카자흐어), Şirdor mədrəsəsi(아제르바이잔어), Şir-Dor Medresesi(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레기스탄,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툴라커리 마드라사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48>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Cumhuriyetleri Mimarlık Abideleri, Ankara:Türk Kültür ve Sanatları Ortak Yönetimi Yayınları, 1996.

Г.А. Пугаченкова, Л.И. Ремпель, История искусств Узбекистана, Moscow:Искусство, 1965.

Ramazanoğlu, Gözde. Orta Asya'da Türk Mimarisi, Ankara:T.C. Kültür Bakanlığı, 1998.

Çoruhlu, Yaşar. "ŞİRDÂR MEDRES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9, İstanbul: TDV, 2010, pp.191~192.

I D130 I 세르무함마드 무니스 허라즈미이

●시기 A.D. 15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ermuhammad Munis Xorazmiy

세르무함마드 무니스 허라즈미이(Shermuhammad Munis Xorazmiy) 1778년에 히바(Khiva) 키여트(Qiyot) 마을에서 태어난 우즈베크 시인, 작가, 역사가이자 번역가이다.

그의 아버지 아미르 아바즈비 미랍(Amir Avaz biy mirab)은 우즈베크 귀족이었으며, 그의 조카 어가히의 무함마드 리조(Ogahiy Muhammad Rizo) 역시 시인이자 역사가였다. 무니스(Munis)는 1800년부터 히바 칸 아바즈 이노크(Avaz Inoq), 엘투자르(Eltuzar), 무함마드 라힘 혼 I(Muhammad Rahimxon I)의 궁전에서 궁전의 연대기 기록을 담당했다.

무니스가 시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영향이 컸다. 그는 나버이이를 자신의 문학 생활의 스승이자 영적 멘토로 여겼다.

그의 작품으로는 1806년 히바 칸 엘투자르(Eltuzar, 1804년~1806년)의 요청으로 지어진 역사서 『행복의 정원(Firdavs ul-iqbol/Baxtlar bog'i)』, 1815년부터 1820년에 집필한 『연인들의 벗(Munis ul-ushshoq)』이 있다.

또한 그는 번역가로서 1812년 미르헨트 라우자트 우스 사피(Mirxond Rauzat us safo)의 『순

수의 정원(Ravzat ussafo/Soflik bog'i)』을 페르시아어에서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그가 미르헨트 라우자트 우스 사퍼(Mirxond Rauzat us safo)의 제2장의 번역 작업을 시작했을 무렵, 1829년에 51세의 나이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며 히바에 묻혔다. 무니스가 시작한 『행복의 정원(Firdavs ul-iqbol/Baxtlar bog'i)』과 『순수의 정원(Ravzat ussafo/Soflik bog'i)』의 번역은 어가히이(Ogahiy)가 마무리했다.

무니스의 작품 필사본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셰르무함마드 무니스 허라즈미이
- 다국어 표기 Shermuhammad Munis Xorazmiy(우즈베크어), Шермухаммад Мунис Хорезм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 어가히이 무함미드 리저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ilm-va-fan/tarix/manaviyat-yulduzlari/munis-xorazmiy-1778~1829>
<http://khorezmiy.uz/oz/pages/view/517>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 Vohid,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67.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Orzibekov Rahmonqul, *Ozbek adabiyoti tarixi XVII~XIX*, O'zbekiston Yozuvchilar uyushmasi Adabiyot jamg'armasi nashriyoti, Toshkent, 2006.

I D131 | 셰이흐 주흐릿딘 에션 낙쉬반디 샤흐리허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hayh Zuhridin Eshon Naqshbandi Shahrihoni

셰이흐 주흐릿딘 에션 낙쉬반디 샤흐리허니(Shayh Zuhridin Eshon Naqshbandi Shahrihoni)는 1927년 1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 샤흐리헌(Shahrixon)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낙쉬반디 종단의 수피였다.

1950년 그는 호자 나자르 데흐콘보예브(Khoja Nazar Dehqonboev)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고, 후에 그는 타지크 수피인 마블라비 쿠히스타니(Mawlavi Kuhistani)와 무함마드 샤리프 히

사리(Muhammad-Sharif Hisariy)의 밑에서 수학했다.

1995년 부하라에 설립된 ‘수피즘과 수피 문화를 위한 국립 아카데미(Tasawwuf va Sufiylik Madaniyati)’의 회원이며 2000년 카리모프 대통령(Islom Abdug‘aniyevich Karimov, 재임: 1991년~2016년)으로부터 영광(Shukhrat) 메달을 수상했다.

주흐릿딘은 낙쉬반디와 무자디디야(Mujaddidiya) 종단의 의식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수피 이론과 실천을 잘 알고 있었으나, 추종자의 수를 열 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추종자로부터 받는 기부는 거절하지 않는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셰이흐 주흐릿딘 커리 낙쉬반디 샤흐리하니

●다국어 표기 Shayh Zuhridin Eshon Naqshbandi Shahrihoni(우즈베크어), Sheikh Zuhridin qori Naqshbandi Shakhrikhani(영어)

●참고문헌(오프라인) Olcott, Martha Brill. “Sufism in Central Asia.” Carnegie Papers, Russian and Eurasian Program, No.84. May, 2007.

I D132 | 셰이흐 호벤디 앓 타후르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인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haikh Hovendi at-Tahur

셰이흐 호벤디 앓 타후르(Shaikh Hovendi at-Tahur)는 13세기 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셰이크 우마르는 우마르 이븐 카타프(Umar ibn al-Khattāb, 586년~644년)의 17대손이며 수피 수도승이었다. 그는 이슬람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타슈켄트로 도착했으며, 바기스탄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따라 셰이흐 호벤디 앓 타후르의 출생지도 바기스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초기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며, 젊은 시절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투르키스탄 지역으로 가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수피 수도자 호자 아흐메드 야사위(Ahmad Yasawi,



셰이흐 호벤디 앓 타후르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093년~1166년)이 설립한 종단인 야사위야(Yasaviyya) 교단에 합류하여 수피즘을 배웠다. 이후 수피 전통에 따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오랫동안 여행했고, 타슈켄트로 돌아오게 된다. 그곳에서 지역민들에게 ‘지혜로운 이’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셰이흐 호벤디 앓 타후르는 1355년~1360년 사이에 사망했다.

그의 영묘는 타슈켄트에 위치해 있으며 영묘 주변은 무덤과 영묘 군이 형성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셰이한타우르
- 다국어 표기 Shayx Xovandi Tohur(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야사위, 야사위야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2/Shaihantaur.JPG/1024px-Shaihantaur.JPG>

●참고문헌(오프라인) “ШАЙХ ХОВАНДИ ТОҶУР”,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Ш ҲАРФИ, Тошкент: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p.10~11.

I D133 | 센수이취안 10호 무덤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Xianshuiquan Tomb No. 10

센수이취안 10호 무덤은 중국 신장성 바이귀령몽골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 위리현(尉犁縣)에 있다. 누란고성 서북쪽 25km, 콘체강(孔雀河) 북쪽 6km에 위치한다.

무덤은 수혈토광묘이며, 동북-서남 방향으로 일렬로 축조되었다. 무덤 주변에서 목제 인물상, 양피, 펠트, 풀로 만든 바구니 등이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샤오허 유적과 유사하지만, 샤오하 유적의 무덤은 무덤관을 통나무 배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이와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상은 비슷하다.

샤오허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에 유라시아 초원의 실크로드 남쪽으로 확산된 안드로노보 문화권의 신강 지역 문화로 볼 수 있다. 일리 지역과 투루판, 하미의 바리쿤 일대를 중심으로 텐산북로 일대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 유적에서 안드로노보 문화(Andronovo 文化)의 전형적인 청동 유물은 나오지 않아서 안드로노보 문화 계통의 주민이 유입된 것인지, 이를 모방한 지역 문화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센수이취안 고성과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인도-유럽인 계통의 토하르인의 조상으로 추정한다. 토하르는 러시아 학계에서는 시베리아 및 중국 북방의 토착 인도-유럽인 계통을 중국 역사 기록에 나오는 정령(丁令) 또는 ‘붉은 머리를 한 이방인’인 적적(赤狄)으로 본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셴수이취안 10호 무덤

●다국어 표기 咸水泉 10號墓地(중국어)

●참고문헌(오프라인) 강인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프노르 출토품과 선사시대 실크로드 동서문명의 교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프노르(羅布泊)·누란(樓蘭) 출토품』, 국립중앙박물관, 2016, pp.46~55.

I D134 | 소크즈 칼라

●시기 B.C.~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성벽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Lesser Kyz Kala

소크즈 칼라는 투르크메니스탄 술탄 산자르 영묘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저택 중 하나이다. 7세기~9세기 무렵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저택은 고위층이 사용한 저택으로 보인다. 북쪽으로 140m 떨어진 대크즈 칼라와 구조면에서 거의 유사하나 규모는 훨씬 작다. 벽은 대크즈 갈라보다 더 가파르다. 진흙 벽돌로 건설되어 내구성이 취약한 이 건물은 1991년 붕괴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으며, 지금은 두 개의 방을 포함하여 일부분만 남아 있다.

내부는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나 입구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 북쪽 중앙의 아치형 구멍이 입구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 중앙과 서쪽 면에 더 작은 방이 있으며, 각 모퉁이에는 긴 형태의 방이 있다. 위층 8개의 방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형태의 이 방에는 돔으로 덮인 배럴볼트(barrel vault)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의 남동쪽에는 계단식 터널형 볼트로 덮인 공간에 계단이 있으며, 남서쪽 면에는 창문이 나 있다. 이 건물은 당대의 해당 지역 비종교 건축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치 그즈 갈라

●다국어 표기 Kiçi Gyz gala(투르크멘어), Küçük Kız kale(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대크즈 칼라, 술탄 산자르 영묘



소 크즈 칼라 잔해(메브, 투르크메니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gallery/turkmenistan/merv/lesser-kyz-kala/photos/lesser-kyz-kala04.jpg>
<https://intarch.ac.uk/journal/issue25/1/images/48.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ntarch.ac.uk/journal/issue25/1/9_2_1_lesser.html
<https://whc.unesco.org/en/list/886/>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30/turkmenistan/merv/lesser-kyz-kala>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i, Ahmad H., et al.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Paris: UNESCO, 1992.

I D135 | 소그드인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ogdian people

소그드인은 소그디아나에 거주했던 이란계 원주민을 지칭한다. 소그디아나는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 다리야(Amu derya)강과 시르 다리야(Syr derya)강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으로 대략,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일부 영토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마르간다, 트란스옥시안이라고도 불리었다. 6세기 ~ 7세기에 이 지역에는 강국(康國: Samarkand), 미국(米國: Maymurgah), 사국(史國: Kish), 조국(曹國: Kabudhan), 하국(何國: Khushaniya), 안국(安國: Bukhara) 등 이른바 소무구성국(昭武九姓國)이 번영하고 있었다.

이슬람화 된 후 이 지역은 ‘마워라앗나흐르(Mawaraadnahr, 아랍어로 하외지역(河外地域)이라는 뜻)’라고 불렸다. 이들에 관해 중국 사서에는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입 안에



고대 실크로드 소그드인 도시 펜지켄트 지역(타지키스탄)

빙사탕(氷砂糖)을 머금게 하고 손에 아교풀을 쥐게 한다. 그것은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입으로 달콤하게 말하는 것이 얼음 사탕의 달콤함처럼 돈을 쥐는 것은 아교풀처럼 달라붙게 하라는 바람 때문이다. 남자가 5세가 되면 글 읽는 것을 가르치고 이어서 장사하는 것을 가르친다. 20세가 되면 장사하러 타국으로 여행을 보내는데 이들 무리가 중국으로도 온다. 그들은 능숙한 장사꾼이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어 보이면 어디라도 간다.’라고 전한다. 바로 이것은 소그드인들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상인으로서 동서에서 활약했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들은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식민집락(植民集落)들을 건설하여 이를 상업 활동의 전진 기지로 이용하기도 했다. 소그드인들은 돌궐 제국의 서방 발전 후 이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상업 활동의 발전을 꾀했는데 이들은 돌궐 제국뿐만 아니라 위구르 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그드족

●다국어 표기 粟特(중국어), Sogdian(영어)

●연관 검색어 돌궐, 우즈베키스탄, 아무다리야, 실크로드, 트란스옥시아나

●참고문헌(오프라인) 룩 관텐 저,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나가사와 가즈도시 저, 이재성 역,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1992.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D136 | 소유르갈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이란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토지
- 집필자 이주연 ●라틴 문자 Soyurghal

소유르갈(Soyurghal)은 몽골어로 ‘호의’, 즉 ‘군주가 누군가에게 세습적으로 사여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몽골이 이슬람권에 등장하기 전에 이슬람권에 존재했던 이크타(Ikta), 즉 군사 계층에게 사여했던 토지 소유권과 유사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소유르갈은 세금이나 정치적, 사법적 의무의 면제라는 측면이 강하고, 주로 개인적인 사여와 보상을 의미한다. 몽골 제

국에서는 소유르갈이 ‘타르칸’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큰 공을 세운 개인에게 여러 의무(주로 9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세습적인 특징을 지녔다.

소유르갈은 몽골 제국 내에서 여러 세력들, 특히 군사적 역량을 지닌 이들에게 넓은 토지를 사여하고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들의 공적과 충성에 보답하고 향후의 충성을 다짐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제국 후반부에 중앙집권적 경향이 악화되고 다양한 세력이 경쟁하게 되면서, 그들은 각자 휘하 구성원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종종 정권의 지방 분권화와 중앙 권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 제도는 몽골 제국의 후속 국가들에서 널리 이어졌으며, 심지어는 스스로 몽골 제국의 후예라 생각하지 않는 국가들, 사파비 조나 카라코윤루(흑양조), 아크코윤루(백양조)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제도였다. 다만 후대로 갈수록 정부 관료 및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소유르갈을 사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사파비와 같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는 수피 종단의 수장, 영향력 있는 울라마나 사이드, 호자들에게도 소유르갈을 사여했다.

일 칸국과 티무르 조의 칙령문서 중에는 소유르갈을 사여하는 문서가 현존하는데, 그 문서 중의 ‘소유르갈’이라는 단어가 과연 ‘호의’라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혹은 칙령문서를 받는 이에게 제공하는 특정 면세 토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실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의 소유르갈 칙령은 주로 몽골-투르크 군주가 차지했던 영역 내에 있던 토착 세력 중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 이들에게 그들의 원래 토지를 사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티무르 조나 카라코윤루의 칙령 문서에는 종종 ‘소유르갈의 방식으로 사여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관료에게 토지를 사여할 때나, 지방관으로 파견할 때에도 두루 쓰이고 있다. 또한 토지의 사여인 경우 세금의 면제 여부도 때에 따라 다르다. 다만 각각의 칙령 내용을 살펴보면, 사여한 토지의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고, 커다란 사안이 아니면 그 지방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대신 군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고, 주변의 지방관이 그 소유르갈 토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친의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손이 동일하게 조약을 맺었다는 등의 정형화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소유르갈 토지에 대해 면세, 그리고 세습이 대체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파비 조나 아크코윤루의 경우 소유르갈이 건물의 사여나 세금 면제, 혹은 지방관의 간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작용했는데, 특히 종교인들에게 사여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다. 또한 아크

코윤루의 역사서를 보면 소유르갈이 두 가지 존재했는데, Kharji 소유르갈은 임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금액 사여이며, Kashwi 소유르갈은 토지의 사여에 해당한다. 후자를 이슬람권의 또 다른 토지 사여 제도인 Tuyul과 비교해 보면, Tuyul이 주로 단기간의 사여이며 국가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반해 소유르갈은 생애 동안, 혹은 세습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왕토가 그 대상이 되지만 때로는 와크프, 사토지가 제공되기도 했다. 이들 제도 간의 혼선은 적지 않았지만, 때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유르골

●다국어 표기 سيورغال(페르시아어), Suyurg'ol(우즈베크어), Soyurgical(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nn Lambton, "Soyurghal," *Encyclopaedia of Islam* 9, Leiden: Brill, 1997, pp.731~734.

R.Yu. Pochekaev, "The Evolution of Soyurghal in Chinggisid and Non-Chinggisid States during the Post-Imperial Period," *Golden Horde Review* 6-4, 2018, pp.729~740.

I D137 | 솔로몬의 인장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미술 ●유형 소분류2 문양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eal of Solomon

‘솔로몬의 인장’은 두 개의 정삼각형이 겹쳐 만든 별 문양으로 무슬림들에게는 ‘솔로몬의 문양’으로도 불리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윗의 별’로 불린다.

이 별은 우주를 상징하며 고대 인도에서 비슈누 신의 삼각형과 시바 신의 삼각형, 즉 생성과 소멸의 삼각형이 얹혀 있어서, 이슬람 이전의 동부 문화권에서는 선과 악, 미와 추, 신과 혼돈, 안과 밖, 여성과 남성과 같이 반대되는 의미를 상징한다.

여섯 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은 중동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자주 사용되었다. 이 문장은 고대의 풍요와 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고대 종교에서도 성스러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 민족과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다. 헬레니즘, 로마, 히브리, 앗시리아, 수메르,



14세기 예르잔잔에서 에레트나 이름으로 발행된 은화에 사용된 솔로몬의 인장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비잔틴과 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투르크인의 경우 12개의 동물로 대표되는 투르크 역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초기에는 기원전 6세기에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 당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중세 이후로는 카발라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의 문양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 부적 등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토라의 문장을 함께 적어 넣어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후 유대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슬람의 경우 종말 직전 지하에서 솔로몬(술레이만)의 인장과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나와 무슬림의 얼굴에 도장을 찍어 표시할 것이라는 하디스의 구절 등에서 솔로몬의 인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은 솔로몬이 불, 물, 바람,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반지를 가브리엘로부터 받았다고 믿는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문양을 금속 공예, 목공예, 직물, 건축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문양으로 사용했다. 특히 솔로몬의 인장 문양은 중심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이 문양이 존재하는 곳에 악마가 들어올 수 없다는 민중의 믿음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고 모스크나 텍케와 같은 공간의 돔이나 천장 중심에 그리거나 문에 새기기도 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아르투크 왕조와 일 칸국의 건축에서도 솔로몬의 인장은 돔의 고정석 등에서 발견된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 목욕탕 돔의 구멍이나 묘석, 모스크 장식, 아치 고정석, 타일

과 도자기에서 악마를 들이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다. 유사한 목적으로 독이 들지 않길 바라는 믿음으로 부엌 가재도구, 샘, 세숫대야, 접시와 그릇 등에 솔로몬의 인장을 그리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모자 종류와 투구 등에도 힘의 상징으로써 사용했으며 옷과 보석류에도 보호의 의미로 수백 년간 사용했다. 솔로몬의 인장은 군기(軍旗)에도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라는 개념이 확고해지던 솔로몬 시대에 왕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이 인장의 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인장은 디반 문학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실 오브 솔로몬

●다국어 표기 Mühr-i Süleyman(튀르키예어)

●멀티미디어 링크 솔로몬의 인장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31/muhr-i-suleyman-6_m.jpg

솔로몬의 인장_옷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31/muhr-i-suleyman-4.jpg>

●참고문헌(오프라인) Çam, Nusret. “Türk ve İslâm Sanatlarında Altı Kollu Yıldız (Mühr-i Süleyman)”, Prof. Dr. Yılmaz Önge Armağanı, Konya: Selçuk Üniversitesi yayınları, 1993, pp.207~230.

Pala, İskender. “MÜHR-i SÜLEYMAN”,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33, İstanbul: TDV, 2006, pp.524~526.

I D138 I 쇠엽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키르기스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Ak-beshim

현재 키르기스스탄 추강 계곡에 위치한 도시 수이아브(Suyab)의 한자 음역인 쇠엽은 소엽(素葉)이라고 쓰이기도 했다. 지금은 아크베שמ(Ak-beshim)이라고 부른다.

일리 지방과 시르강 방면을 잇는 요지이기 때문에 서방 상인의 진출로 인해 일찍이 상업 도시화가 되었고, 북방 유목 집단은 이곳을 기지화하여 서방 진출의 창구로 이용했다. 특히 이곳은 서돌궐 시절에는 수도였다. 서돌궐의 멸망 이후 중국 당나라에 흡수됐는데, 당나라는 당시 쇠엽에 안서사진(安西四鎮)을 설치하여 서부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도 했다. 당나라는 당시 당나라에 순종적이었던 서돌궐 칸인 술룩 칸(Suluk khan 또는 돌기시(突騎施) 재위: 716년



실크로드의 일부였던 쇠엽 유적지(Tokmok, 키르기스스탄)

~738년)에게 쇠엽을 넘겼다. 술룩 칸이 사망한 후 쇠엽은 다시 당나라에 넘어가지만 10세기에는 카를루크 부족에게 정복당한다. 이후 쇠엽의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18세기 청나라 시대에 중국에 귀속되었다가 1864년 타르바가타이 조약으로 러시아로 넘어간다. 이후 쇠엽은 소비에트 시절 키르기스스탄에 편입된다.

쇠엽은 서돌궐 시절에 우선 가옥이 건설된 후 그 인근을 주변을 작은 언덕을 만들어 둘러싸고 이 언덕을 벽으로 바꾼 후 도시의 형태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쇠엽은 성, 시내 그리고 라바드(rabad: 성 밖에 형성된 상업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성은 탑이 있는 두터운 벽이었다. 가옥 건설로부터 출발한 시내는 커다란 마을로 구성되었고, 도로는 돌로 되어 있었으며 인도도 따로 존재했다. 도시의 물은 흐르는 물과 우물로 해결했고, 이 흐르는 물은 구운 흙으로 만든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었다.

당시 쇠엽에는 위구르 투르크인뿐만 아니라 소그드인들도 함께 살았다. 이로 인하여 당시 불

교가 주류였던 투르크인의 불교 사원과 소그드인들이 주로 믿었던 조로아스터교 사원도 발굴되었다. 물론,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투르크인과 불교를 믿었던 소그드인 역시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유적은 공통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쇄엽에서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시리아 문자로 투르크어를 표기한 기독교식 무덤이 발굴되어 일부 투르크인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당나라 시대의 요새와 발발 등이 발굴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이아브, 아크베림

●다국어 표기 Oqbeshim(우즈베크어), Ak beşim(튀르키예어), Suyab(아제르바이잔어), Сүяб(카자흐어), Суйаб(키르기스어)

●연관 검색어 쇄엽 불교사원

●참고문헌(오프라인)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창비, 2013.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1977.

I D139 | 쇄엽 불교사원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키르기스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불교사원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Ak-beshim Buddhist Temples

투르크와 소그드인이 함께 공존했던 도시인 쇄엽에서는 두 개의 불교 사원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 불교 사원은 모두 폐허가 된 상태였으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불교 사원은 쇄엽 성벽에서 남서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건물은 22mx76m의 동-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입구는 동쪽 면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정문은 첨두아치와 유사한 형태이며 낮은 양각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의 양옆에는 각각 3개의 방이 있다. 방에는 앉거나 눕기 위하여 바닥에서 약간 높은 부분이 있으며 벽은 스투코로 덮여 있다. 입구 건너편에는 아치형 문을 통해 중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중정의 긴 면에는 목

제 기둥으로 떠받친 평천장의 갤러리가 있다. 중정은 기도와 휴식 및 재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원의 아치는 투르크인들의 초기 아치 형태로 보고 있으며 갤러리가 있는 중정은 후에 이슬람화 된 투르크인들의 건축양식에서 갤러리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중정을 지나면 홀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 홀에는 대형 벽화와 네 개의 불상이 있다. 홀에서 지면에서 5개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약간 높은 곳에 불당이 있는데 불당의 크기는 6.33mx6.38m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이 불당은 벽돌로 된 돔으로 덮여 있으며 가운데에는 불상이 놓여있다. 불당 주변은 복도로 둘러싸여 있고 이 복도에서 불당을 바라보는 방향의 벽 쪽으로 118cm 높이 쌓아 올린 부분에 조각상이 있으며, 벽과 천장에는 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림이 있다. 사원의 주재료는 어도비 벽돌이고 장식의 주재료는 프레스코, 목재, 진흙, 광물 안료이다.

두 번째 불교 사원은 첫 번째 사원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사원은 38mx38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이며 아치형의 터널과 같은 입구가 있다. 입구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복도 양옆에는 조각상을 배치하기 적당한 높은 자리가 있으며, 이곳에 조각이 있었다고 한다. 입구 복도를 지나면 10mx24.8m 크기의 천장이 있는 홀로 진입할 수 있다. 홀에는 조각을 놓을 수 있게 조금 높이 세운 자리의 흔적이 있다. 홀에서 불당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있으며, 불당은 홀보다 약 1m가량 높이가 있다. 불당 역시 정사각형에 가까운 10mx10.5m이다. 불당 각 면에는 불상을 놓을 수 있도록 아치형의 벽감이 마련되어 있다. 불당은 돔으로 덮여 있고, 조광을 위해 돔 중앙에 작은 창이 나 있다. 홀의 중앙에도 역시 불상이 있다. 이곳 불당에도 주변은 이중 복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홀에서 복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복도는 볼트형 천장으로 덮여 있다. 장식의 주재료는 프레스코, 목재, 약간의 타일, 구운 벽돌과 광물 안료이다. 두 번째 불교 사원에서는 투리기스(Türgesh/突騎施) 부족이 7세기경 무렵 사용했던 화폐가 발굴되기도 했다.

쇄엽 불교 사원은 투르크인들이 후에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며 발달시킨 건축의 뿌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베십 불교 사원, 아크베십 사찰, 수이아브 불교 사원, 수이아브 사찰

●다국어 표기 АК-БЕШИМ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러시아어), Ak-beshim Buddhist Temples(영어), Ak Beşim Buda Tapnakları(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쇄엽

●멀티미디어 링크 쇄염불교사원_제1 불교사원_

http://www.time.kg/uploads/posts/2012-02/1329232347_ab_i-plan-1.gif쇄염불교사원_제2 불교사원

<https://www.booksite.ru/fulltext/1/001/009/001/237658209.jpg>

●참고문헌(온라인) http://dla.library.upenn.edu/dla/fisher/record.html?id=FISHER_n2009111021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suyab>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1977.
Clauson, Gerard. “Ak Beshim-Suyab”,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o. 1/2, Apr. 1961, pp.1~13.

Горячева В.Д. Перегудова С.Я. Буддий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иргизии // ВДИ, 1996 № 2.

I D140 I 쇼르어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언어 ●유형 소분류1 분류 ●유형 소분류2 언어명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hor Language

쇼르어는 남부 시베리아 투르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총 18,000명의 인구 중 12,500명이 케메로보 주 쇼르 산맥 일대에 거주한다. 쇼르인들의 인구 중 4분의 3은 러시아인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한다. 2002년 기록에 따르면 그들 중 약 6,210명만이 쇼르어를 모국어로서 구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쇼르인들은 러시아어와 쇼르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그것마저도 가족의 언어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쇼르어는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절멸 위기의 언어이다. 1930년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이동이 쇼르어 소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후 1942년부터 1988년까지 쇼르어는 약 46년동안 문어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쇼르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쇼르어는 투르크학 연구에 있어서 유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쇼르어의 구어 변형은 러시아어의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구문(단어의 순서) 변화, 중복 접속 어미의 사용 그리고 기타 기능적 단어와 같은 통사론적 변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쇼르어는 하카스어와 알타이어, 출름 투르크어-출름 방언, 서부 요구르어, 푸위 키르기스어 등의

특성도 포함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1941년 완성된 한편의 문법책이 당시 언어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이외 구문과 관련되어서 자세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15년동안 진행된 쇼르어 관련 현장 답사를 통해 언어학자들은 언어 연구에 토대가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를 기반으로 현재 다양한 학술 단체, 학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지원을 통해 미흡하지만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쇼르언어
- 다국어 표기 Şorca(튀르키예어), Shor Language(영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어, 알타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Türk dili haritası üzerine keşifler* (Vol. 7), Ankara: Grafiker, 2002.
김주원 외, 『사라져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2008.

I D141 | 쇼르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Shors

과거에는 타다르-키지(тадар-кижи: 타타르 사람)로 스스로를 불렀지만 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쇼르인으로 스스로를 지칭한다. 다른 명칭으로 쿠즈네츠키 타타르(кузнецкие татары), 콘돔스키-므라스키 타타르(кондомские и мрасские татары), 아비네츠(абинцы)로 부르기도 한다. 쇼르인들은 주로 서시베리아의 남동지역인 케메롭스키 주의 톰 강(р. Томь) 지천인 콘도마 강(Кондома)과 므라스-수 강(Мрас-су) 유역에 주로 살고 있다. 또 하카스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키 변경, 알타이 변경 등에 거주하기도 한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는 12,888명의 쇼르인이 살고 있다. 쇼르인들은 6세기~9세기경 시베리아 토착 민족인 케트인과 투르크 이주민(주로 위구르와 예니세이 키르키즈)이 섞여 생겨났다. 또 쇼르인들은 북쇼르 또는 삼림초원지대 쇼르(아빈스키 абинский)와 남쇼르 또는 고르노타예지니

(горнотаежный)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북쇼르인들은 전통적으로 대장장이, 채집, 철광석 수 집 등에 종사해서 쿠즈네츠키 타타르(대장장이 타타르라는 뜻)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러시아로 편입되면서 대장장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쇼르인들은 강한 씨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행정 구역 단위는 가부장 중심의 씨족 거주지와 일치했고, 씨족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카린다시(карындаш: 한 배(腹))라고 불렀다. 20세기 초에 북쇼르인들에게서 토지 중심의 주변 관계와 재산에 따른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20년 이후 석탄 광산 개발로 인한 대도시가 등장하고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쇼르 민족 사회는 급격히 붕괴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쇼르인들의 전통 문화 상당수가 사라졌고, 현재 전통 문화로는 조상신을 기념하는 올구데크(Олькудек) 축제, 봄-여름 축제인 파이람(Пайрам) 정도만 남아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쇼르족

●다국어 표기 Шорцы(러시아어), Şorlar(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и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злов А.В., Мурзагали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D142 | 솔보타인 골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몽골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성지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SHUVUUTAIN GOL

이 유적은 오르콘 강의 계곡에 위치한 솔보타인 강의 우측 강변에 위치한다. 1954년에 페를레가 육안으로 유적의 평면도를 작성하면서 알려졌다. 성지는 토성벽으로 둘러진 것으로 긴네모꼴 형태이다. 성의 문지는 4벽(남벽 225m, 북벽 265m, 서벽 193m, 동벽 187m)에서 확인된다. 성 안에는 북동쪽 모서리 안쪽으로 내성벽이 확인되었다. 흉노의 유적은 대부분 무덤이지만 성지와 생산 유적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흉노의 성지는 몽골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바이칼

과 중국 내몽고, 산서성 등지에서 20여 개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몽골에서는 16기 성지가 발견되었다. 그중에 솔보타인 골 유적도 포함된다. 성지는 헤를렌 강변의 계절성 궁전지, 변경 지역의 방어용 성터, 마을 유적, 제사용 건물지, 생산 장인이 모여 사는 마을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생활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유적의 성격이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솔보타인 골 유적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집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흥노의 생활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솔푸타인 골
- 다국어 표기 Шувуугайн гол(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오르곤, 흥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렉젠, 양시은, 『흥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D143 | 수 아나시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근식 ●라틴 문자 Su anasy

수 아나시는 카잔 타타르와 서시베리아 타타르, 미샤리 타타르, 쿠미크, 카라차예프 신화에 등장하는 물의 정령으로 ‘물의 어머니’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타르인들에게 수 아나시는 수 이에시의 개별 분류이기도 하다. 수 아나시의 남편은 수 바바시(су бабасы)라고 부르고, 아이도 있다. 수 아나시의 자녀를 수 이에시라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수 아나시는 밤에 물 위의 다리에 가서 자기 자녀를 씻긴다. 알바스티(албасты)처럼 머리를 빗으며 강가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수 아나시는 가뭄이나 질병을 불러오고 사람을 익사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남편의 집에 물을 가지러 간 아내는 먼저 선물로 동전을 물에 던져 넣는

다. 토볼 타타르인들은 수 아나시를 사람을 다리를 잡고 물로 끌고가는 악령인 수-파레의 우두머리로 생각하는데, 산발한 긴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황금 양동이 나 황금 빛이 수 아나시의 상징물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 아나스, 물의 정령

●다국어 표기 Су анасы(러시아어), Su Ana(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수 이에시

●참고문헌(오프라인) Коблов Я.Д. Мифология казанских татар, «Известия общества архе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при имп. Каза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910, т.26, в. 5.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1, s 471.

I D144 | 수 이에시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정령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u iyesi

수 이에시는 카잔 타타르와 시베리아 타타르, 카자흐, 바시키르 신화에 나오는 의인화된 물의 정령이다. 이에의 한 종류이다. ‘수(su)’는 ‘물’이란 뜻이고 이야세는 ‘주인’이란 의미이다. 카잔 타타르와 서시베리아 타타르 신화에서는 수 이에시를 남성인 수 바바시(су бабасы)와 여성인 수 아나시(су анасы)로 구분한다. 하지만 수 바바시와 수 아나시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수 이에시가 화가 나면 독을 부수거나 물레방아를 허물어 버리고, 사람과 동물을 익사시킨다. 사람들을 물에 납치해 물 속의 집에 데려가 노예로 삼는다. 사람들은 수 이야세가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이나 연못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바시키르에서 수 이에시는 부자인데다, 물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수 이에시 가족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돌 아래에 놓인 저수지 바닥에 있다. 바시키르의 수 이에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물의 정령, 수 이야기
- 다국어 표기 Су иясе(러시아어), Su iyesi(영어)
- 연관 검색어 수 아나시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273~274.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474.

I D145 | 수건을 돌려주오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민요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Ver yaylığı

「수건을 돌려주오(Ver yaylığı)」는 아제르바이잔의 오래된 민요 중 하나이다. 이 노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여자: 어머니한테 수건을 받았는데 어디에 떨어졌나 통 알 수 없네요. 여보세요, 수건을 잃어버리면 이별이 온다는데. 멋진 남자, 수건을 돌려줘요.

남자: 당신 수건을 내가 어찌 알아요. 아가씨 수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누가 당신 수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예쁜 아가씨, 아마 발에 떨어졌겠지요. 와서 한번 찾아봐요.

이 노래에는 남녀 혼성 합창도 있다. 남녀 이중창에는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한다. 먼저 여자가 노래를 시작하고 남자가 따라 부른다. 남자는 주로 여자에게 답가를 하는 형식이다. 노래를 먼저 시작한 여자는 어머니에게서 수건을 받았지만 수건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수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풍습에 따르면 이별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진 여자는 남자에게 수건을 돌려달라고 조른다. 남자는 여자의 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수건을 아마 초원에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말한다.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욕하면서, 만약 수건을 주지 않으면 자기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준다.

여자: 이봐요, 사기꾼 총각. 당신에게 화가 나는군요. 만약 수건을 주지 않는다면, 내 오라버니에게 알려 바칠테요. 사랑 사랑 내 사랑, 멋진 남자, 제발 수건을 돌려줘요. 내 오라버니에게 알려 바칠 거예요. 멋진 남자, 수건을 돌려줘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자는 수건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오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사정한다.

남자: 두 손 두 발 다 들었소. 오라버니에게 알려바치지는 마시오. 나는 당신의 애인인데, 토라질 것 뭐 있소. 수건이 나에게 있어요, 어여쁜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여기 있소. 가져가시오. 이 수건을.

결국 남자는 여자에게 수건을 돌려준다. 노래의 가사를 통해 이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건을 돌려주오」는 오늘날에도 하넨대(xanəndə, 전통 음악인 무감을 부르는 전문가수)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이다.

● **다국어 표기** Ver desmalı(튀르키예어), дай косынка(러시아어), Ver yayliğ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erimi S., *Azərbaycan Xalq Mahnıları*, 2 cildə, Bakı: Öndər, 2005.

I D146 I 수니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종파
●집필자 박현도 ●라틴 문자 Sunni

이슬람 최대 종파인 수니파의 원래 명칭은 순나(Sunna, 전통, 傳統)와 자마아(Jama'a, 공동체)를 따르는 사람들(Ahl al-Sunna wa al-Jama'a)에서 나왔다. 편의상 뒷말 공동체 대신 앞말인 '전통'의 아랍어인 순나, 곧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따르는 사람을 수니라고 부른다.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85%~90%가 수니다. 투르크 세계는 압도적 다수가 수니파다. 수니파는 신앙을 5가지 기둥과 6가지 믿음으로 분류한다. 5가지 기둥은 샤하다(신앙 증언), 살라(나마즈, 하루 5번 예배), 자카(희사, 喜捨), 라마단월 단식, 하즈(메카 순례)다. 6가지 믿음은 유일신성(타우히드), 천사(天使), 예언자(預言者), 성서(聖書, 코란 이전에 알라가 믿는 이에게 내

려준 계시와 성서와 코란), 최후의 심판과 부활, 정명(定命, 알라가 세상 모든 것을 정해 놓음)이다. 11세기 이후 수니파의 부흥은 셀축 조의 업적이다. 시아파 무슬림이 10세기에 이슬람 문명권의 핵심부를 장악했다. 지금은 압도적인 수니 국가지만 이집트는 909년부터 1171년까지 이스마일파 시아인 파티마 조가 지배했고, 지금의 이라크 역시 12이맘파 시아인 부예 조가 945년부터 1055년까지 장악했다. 셀축 조는 이들 지역을 다시 수니파 품으로 되찾아왔다. 셀축 조는 1055년 부예 조를 바그다드에서 몰아내어 수니파 부흥의 기반을 다졌고, 파티마조 역시 셀축의 장수 살라훗딘이 1171년 무너뜨려 시아파 지배를 끝냈다. 이슬람이라는 큰 틀에서 수니와 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앙을 공유한다. 비록 소소한 의례의 차이는 있지만 수니와 시아는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이고,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두고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수니는 무함마드를 잇는 지도자를 단순히 무함마드의 칼리프, 즉 예언 능력도 영적, 종교적 능력이 없는 정치적 대리인으로 본다. 수니의 칼리프는 무함마드 이후 1924년 튀르키예가 칼리프 제도를 폐기할 때까지 이어졌다.

수니가 존경하는 진정한 의미의 칼리프는 아부 바크르(632년~634년), 우마르(634년~644년), 우스만(644년~656년), 알리(656년~661년) 등 초기 4명의 정통 칼리프다. 반면, 시아는 수니의 4대 정통 칼리프 중 알리만을 인정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니, 순니파

●다국어 표기 Sunni(아랍어), Kelime-i şehadet(튀르키예어), Kalimai shahodat(우즈베크어), Kəlmeyi-şəhadət(아제르바이잔어), Шәһадәт(카자흐어)

●연관 검색어 셀주크, 시아, 하즈

●참고문헌(오프라인) Berkey, Jonathan P. *The Formation of Islam: Religion and Society in the Near East, 6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Brown, Daniel W. *An Introduction to Islam*, 3rd ed.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7.

Hodgson, Marshall G. S. *The Venture of Islam*. Vols. 1 and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Juybol, G. H. A. and D. W. Brown. "Sunna."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9, 878~881. Leiden: Brill, 1997.

박현도, 「수니와 시아,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월간조선』, 2009년 4월호.

I D147 | 수르나메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장르 ●유형 소분류2 기록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urname

수르나메는 ‘연회, 축제’ 등의 의미를 가진 페르시아어 수르(sur)와 ‘편지, 문서’ 등의 의미를 가진 나메(name)가 결합된 말로, 오스만 시대 술탄의 자녀 결혼과 할례 의식을 담은 만쥬(Manzum: 시 형식의 일종), 멘수르(Mensur: 산문 형식의 일종) 또는 만쥬-멘수르가 섞인 양식의 작품을 일컫는다.

최초의 수르나메는 술탄 무라드 3세(III. Murad, 재위: 1574년~1595년)의 아들 메흐메드 3세(III. Mehmed, 재위: 1595년~1603년)의 할례 의식을 알리 무스타파 에펜디(Âlî Mustafa Efendi, 1541년~1600년)와 인티자미(İntizâmî)가 작성한 『수르나메이 휘머윤((Surname-i Hümayun)』이며 최후의 수르나메는 나피(Nâfî)가 집필한 술탄 압뮐메지드(Abdülmecid, 재위: 1839년~1861년)의 딸 제밀레 술탄(Cemile Sultan)과 뤼니레 술탄(Münire Sultan)의 1858년에 치러진 결혼식을 기록한 『수르나메 이 셀라틴(Sûrnâme-i Selâtîn)』이다.

현재까지 19작품의 수르나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중 9작품은 결혼식, 6작품은 할례, 2작품은 결혼식과 할례 의식을 같이 다룬 작품이며, 남은 2작품은 공주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 다만, 11작품만이 각기 다른 행사를 다루고 있다.

수르나메 중 일부는 세밀화가 첨부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1582년 인티자미가 집필한 수르나메이 휘머윤은 낙카슈 오스만(Nakkaş Osman)이 그린 427장의 세밀화가 첨부된 판본이 있다. [오스트리아 국립 도서관(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nr.1019),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To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nr.1344] 또한, 1719년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세 황자의 할례 축제를 기록한 세이드 베흐비(Seyyid Vehbî)의 수르나메에도 레브니(Levnî)의 세밀화가 첨부된 판본이 있다.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III. Ahmed, nr. 3593)]

만쥬 스타일로 쓰인 수르나메는 형식의 제한으로 인해 축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적게 묘사하나 멘수르 스타일로 쓰인 수르나메는 축제에서 벌어졌던 일을 하나씩 모두 설명한



낙카슈 오스만이 그린 수르나메이 휘마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다. 따라서 멘수르 양식의 수르나메의 경우 역사 기록물과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멘수르 양식은 역사 기록물과의 차이점을 위해서 시를 첨부하기도 하고 집필자의 의견은 넣지 않는다. 수르나메는 대체로 술탄이나 축제 책임자의 명령으로 작성하거나 상급자를 위해서 작성하게 된다.

수르나메는 보통 축제 시작 전 칙령의 선언과 축제 책임자의 결정부터 시작하여 축제 마지막 날까지 기록하게 된다. 이 기록에는 초대받은 사람의 목록, 참석자, 결혼식을 기록한 수르나메의 경우 결혼 준비 과정, 지참금, 신부 행렬 등을 포함하고 할레의 경우 할레 행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음식의 목록과 준비 과정, 선물 목록, 행사에 쓰인 물품 목록과 종류, 길드 행진, 다양한 오락, 불꽃놀이, 음악, 춤 등 축제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수르나메를 통해 특정 시대의 오스만 궁정의 사회 문화, 오락과 의식 음악 놀이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문화 역사, 사회학 및 민속학적인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다국어 표기 Surna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낙카슈 오스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4/Surname_338b-339a.jpg/220px-Surname_338b~339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ynur, Hatice. "Surnâm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7, Ankara: TDV, 2009, pp.565~567.

Atıl, Esin. Levni ve Surname, İstanbul: Koç Bankası, 1999.

Arslan, Mehmet. Türk Edebiyatında Manzum Surnameler: Osmanlı Saray Düğünleri ve Şenlikleri,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Başkanlığı, 1999.

I D148 | 수르흐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urkh mausoleum

수르흐 영묘는 마라게에 1147년 건설되었다. 이 영묘는 그 벽돌의 색으로 인해 페르시아어로 붉은색을 뜻하는 '수르흐(سرخ)'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묘의 주인과 후원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건축가는 바크르 무함마드(Bakr Muhammad)라고 한다.

정사각형 평면에 각 모서리는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다. 내부에는 무카르나스가 있는 트롬프와 돔으로 덮여 있다. 볼트로 덮인 무덤방의 경우 볼트의 위치가 상당히 낮다. 북쪽 입구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영묘로 진입할 수 있다.

돔의 윗부분에 남은 팔각형 지지대로 보아 이전에는 팔각뿔의 겹 지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팔각형의 지지대와 벽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창문이 나 있다. 이 창문과 함께 아치형 벽감 정점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채광을 해결하고 있다.

영묘의 정면을 제외한 3면은 첨두아치 형식의 벽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경우에도 첨두아치형 벽감이 있는데, 정면의 경우 상단 부분 중앙에 밝은 파란색의 작은 타일을 조합해 모

자이크 형식으로 기하학 문양을 만들어냈다. 이 모자이크 장식의 일부는 터키색 색 타일로, 일부는 경우 구운 흙으로 장식했다. 모자이크 주변부는 쿠픽 서체 장식 띠로 둘러싸여 있다. 벽돌을 교차해 만든 문양 둥근 모서리의 경우 벽돌을 교차해 만든 문양 사이사이에 밝은 파란색 타일을 끼워 넣어 장식했다. 이 타일은 모두 작은 정사각형이다. 마라게 지역은 도자기가 발달했던 도시로서, 이 지역의 영묘는 대부분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카라한조 영묘와 유사한 이 영묘는 마라게에 건설된 대 셀주크조의 영묘 중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것이며, 영묘에서 채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당대의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이다. 또한 틈새를 회반죽 대신 타일을 이용하여 문양처럼 보이는 모자이크 타일 기법을 사용한 초기 예 중 하나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군바디 수르흐, 군바드 이 수르흐

●다국어 표기 Gunbad-i Surkh(페르시아어), Kümbet-i Surh(튀르키예어)

●멀티미디어 링크 수르흐 영묘_정면

<https://zrr.kr/Gt3M>

수르흐 영묘_내부_천장

<https://zrr.kr/hJ2T>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878>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D149 | 수명연장과 관련된 민간 신앙(아이)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의례
●집필자 양민지 ●라틴 문자 Folk beliefs about life-prolonging

투르크인은 전통적으로 한 인간의 탄생은 천신이 결정한다고 믿었다. 천신이 사자(혹은 천신의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사자는 여성의 출산, 아이의 양육 등을 관장하는 우마이 여신에게 이를 전한다. 아이를 점지해주는 이 여신이 임무를 행하면 천신은 하늘에서 영혼을 찾아 아이에게 숨과 함께 불어넣는다고 믿었다. 이렇게 아이의 탄생은 신에 의해 결정이 되고 행해지며, 운명과 수명 또한 이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의 노력과 무당의 도움으로 아이의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 투르크인의 신앙은 수명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투르크인은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는 가정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의례를 했다. 특히 어린아이의 죽음은 악귀나 악령이 아이가 귀여움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 데려가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집안의 귀한 아이는 죽음의 사자가 오래 살게 놔두지 않고 먼저 데려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튀르키예 전통 사회에서는 아이의 무병·무탈을 위해 여러 행위와 의례를 행했다.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거나, 허약하거나, 발달이 늦을 경우, 호자라고 불리는 견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에게 찾아가 부적을 부탁하기도 했다. 아기가 단명하는 집에서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가 많거나 다복한 이웃에게 아이 팔기 의례를 행하거나 수양부모를 두기도 했다. 또한 아이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되도록 늦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는데 손톱은 특히, 천사들이 자른다고 믿어 태어난 지 1년 후에 잘랐다. 자른 손톱은 천에 싸서 보관해 두었으며, 자른 머리카락 또한 천에 싸서 보관했다. 이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아이의 수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 일찍 자르게 되면 아이의 수명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고 믿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투르크인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가 오래 살 것이라는 염원을 담아 그를 지속해서 부르며 주술적 힘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었으며, 이를 듣는 귀신 또한 이에 속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고대 투르크인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현대 투르크 문화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어의 주술성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

어주는 풍속은 투르크 문화권에서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건강, 무병, 장수 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 둘째로 귀신 속이기 풍속인 아이 이름 천하게 부르기, 매아속, 대리인형 죽이기 풍속이 이름에 반영된 유형. 셋째는 언어의 주술성, 애니미즘이 나타나는 형태로 샤머니즘의 매아속과 비슷한 의미에서 아이의 이름에 자연물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국어 표기 ömrü uzatmak ile ilgili hal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ıcı yay, İstanbul, 2001.

양민지, 「튀르키예 튀르크 민속 출생의례에 대한 고찰 -산전속(産前俗)과 산후속(産後俗), 작명민속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20(3), 2018, pp.51~79.

I D150 | 수멜렉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식주 ●유형 소분류2 음식
 ●집필자 집필자 황영삼,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umalak

고대 신년 축일인 나우르즈(나부르즈) 민족들은 새해가 오기 1주일 전쯤부터 싹이 튼 밀알을 이용하여 큰 솥에 1주일 정도 숙성시키면서 죽을 만드는 데 이 죽을 ‘수멜렉’이라고 한다. 수멜렉을 만드는 일은 여성들이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환담 시간을 갖는다. 이와 같이 수멜렉은 나우르즈(나부르즈)에 반드시 준비하 음식으로, 해를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새로 발아된 밀알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 새해는 춘분에 해당하며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 이 시기에 집안의 여성들은 이 음식을 만



나우르즈 축일에 만드는 수멜렉(Surkhandarya, 우즈베키스탄)

드는 일을 도맡아 했다. 이러한 관습은 이슬람 이전 사산조 시기 이란인들 사이에서 생겨났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등 인접 지역의 민족들에게 확산되었다.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 이러한 관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나우르즈(나부르즈)를 지내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 그 외 국가에 거주하는 이란계 및 투르크계 민족들이 수멜렉을 만들어서 먹는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밀알을 일정한 그릇이 모아 물에 젖은 천을 덮어 발아시킨다. 2~3일 후 발아된 밀을 적절히 나누어 물을 붓고 끓이고 나중에 밀가루를 추가하여 걸쭉하게 한다. 또 2~3일 지나면 조청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되는 모습이 된다. 옛날에 마을 공동체의 거대한 솥을 이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만들어진 수멜렉은 나우르즈 음식으로 다스타르한으로 오르게 되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멜렉, 수말락, 수말락
- 다국어 표기 сумелек(카자흐어), сумалык(러시아어), sumalak(우즈베크어), сумөлөк(키르기스어), sümelek(투르크멘어), səməni(아제르바이잔어), суманак(타지어)
- 연관 검색어 나우르즈, 나부르즈
- 멀티미디어 링크 수멜렉 만드는 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Pn_iY-V5_v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c.academic.ru/dic.nsf/ruwiki/83998>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D151 | 수목 신앙

-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자연물
- 집필자 양민지 ●라틴 문자 Tree Cult

수목 신앙은 이슬람화 이전 투르크의 민속 신앙 가운데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자연물 숭배에 해당한다. 수목 신앙은 유라시아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투르크 문화권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수목 신앙은 천신 신앙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투르크 신화에서 나무는 인간을 창조한 곳, 천신(최고의 신)의 권능이 내린 곳, 천신이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오는 곳, 부족 영웅의 탄생과 관련된 곳 등으로 묘사된다. 또한, 세상에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천신에게 이를 수 있는 에블리아아 아아츠(신목, Evliya Ağaç)가 있다고 믿었다. 성스러운 나무는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 세계수 혹은 우주의 중앙에 있어서 우주목이라고 여겼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인간의 탄생과 출생에 관여함으로 생명목으로 믿기도 했다. 특히, 성수(聖樹) 가운데 너도밤나무는 바이테렉(성스러운 나무, Bayterek), 울루 카이은(위대하신 너도밤나무, Kayın Ağacı) 등으로 불리며, 투르크 문화권에서 수목 신앙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나타난다.

라들로프(V. V. Radlov)가 채록한 알타이 투르크 창세 신화에 따르면 천지를 창조한 이후 신

카이라 한(Kayra Han)은 가지도, 줄기도 없는 하늘에 이를 만큼 큰 나무를 보고 염증을 느껴 이 나무에 잎, 줄기, 가지를 만들어 냈다. 나무에는 순식간에 9개의 가지가 생겨났고, 카이라 한은 생겨난 9개의 가지를 향해 “아홉 가지야! 아홉 명의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이들이 9개 민족의 시조가 되어라!”라고 명령했고, 이에 9명의 인간이 생겨났고 점차 무리를 이뤘다고 한다.

알타이 샤머니즘에서는 천신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출생을 관장하는 우마이(Umay) 여신과 함께 두 개의 너도밤나무를 지상에 내렸다고 전해진다(두 개의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왔다고 전해짐). 또한, 알타이 투르크는 세상에 우주목이 있어 이는 천신에게 이르며, 태어나기 전 아이의 영혼은 새의 형태로 나뭇가지에 앉아있었다고 믿었다. 만약, 아이가 죽으면 시신을 나무 아래에 묻어 영혼이 나무로 다시 돌아가기를 빌었다. 특히, 너도밤나무는 투르크 샤먼이 주관하는 제의의 중심을 이룬다. 야쿠트 샤먼은 너도밤나무로 만든 북에 나무 무늬를 그려 넣었으며, 무복에도 너도밤나무를 그리거나 혹은 나뭇가지로 장식했다. 또한, 샤먼은 너도밤나무 앞(혹은 너도밤나무 숲)에서 제의를 주관하며 제물을 바쳤다. 이처럼 투르크 샤머니즘에서 너도밤나무는 영매이며, 신단수이자 신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투르크 민속 신앙에서 나무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인간과 그 후손이 창조되는 곳이자, 천신에게 이를 수 있는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기』에는 흉노의 제천의식과 관련하여, ‘흉노는 매년 오월에는 농성(龍城)에서 모여 그들의 조상(아타, ata), 하늘(신격화된 하늘, 꺽 탄르, Gök Tanrı)과 땅(지모신인 예르-숭, Yer-sub 혹은 우마이) 그리고 귀신(수호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가을이 되어 말이 살찔 무렵에는 대림(蹕林)에서 큰 모임을 열어 백성과 가축의 숫자를 헤아렸다.’고 전한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 농성은 제천의식을 거행하는 장소, 자연상태의 나무, 목조로 만든 신단(神壇) 등을 의미한다. 또한, 대림은 제천의식을 벌이는 장소 혹은 행사를 일컫는 말로 보는데 나무로 둘러싸인 숲, 혹은 나무로 둘러싸고 행하는 제의 등으로 본다. 『주서』, 『북사』에서도 돌궐이 많은 부분에서 흉노의 습속과 같다고 전한다. 오우즈 칸(Oğuz Kağan)은 튀르키예와 투르크메니스탄 내 투르크의 직접적 조상이라고 알려진 오구즈 투르크의 시조이자 신화적 인물로 여겨진다. 외켈(Bahaeddin Ögel)의 저서 『투르크 신화』에 따르면 오구즈가 대지의 딸(둘째 부인이 됨)과 결혼한 장면을 서술하며 ‘어느 날 사냥을 떠난 오구즈 칸이 숲에서 호수 중앙에 홀로 있는 한 나무를 보았다. 그는 나무 구멍 아래에 앉아있는 소녀와 만나 결혼을 했고 세 명의 사내아이

를 얻었으니 그 이름을 곱(하늘, Gök) 다으(산, Dağ) 데니즈(바다, Deniz)라 지었다.’와 같이 전한다. 또한, 오구즈 칸 신화에는 투르크계 민족 가운데 하나인 킵차크의 출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구즈 부족들 가운데 어느 장군의 아내가 막달이 되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하중도에 있는 신성한 나무 구멍에서 해산하여 사내아이를 얻는다. 오구즈 카안은 이 아이에게 ‘나무 구멍’을 의미하는 ‘킵착’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다. 투르크 민속에서 나무는 천신이 내리는 장소 혹은 천신의 권능이 내리는 곳으로 믿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나무는 투르크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모티브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또한, 나무는 대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번영과 풍요를 의미하게 되었고,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아아츠 아나(Ağaç Ana)라는 출생(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을 믿게 되었다. 이처럼 수목 신앙은 여신의 신성이 투영되어 이후 민속에서는 기차 신앙과도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아이를 얻고자 하는 여성들이 신성한 나무 주위를 돌거나 제물을 받치며 기도하는 풍습이 그것이다. 야쿠트 투르크는 소나무 아래서 흰 말가죽을 가지에 걸고 나무 주위를 돌며 치성기자를 행했다. 투르크계 카작인은 나무나 강, 돌의 수호령에게 제물을 드리고 밤을 보내면 아이가 생길 것으로 믿었다. 투르크 민속 신앙에서 수목 신앙이 반영된 신수(神樹)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둥이자 축을 의미하며, 인간과 그 후손을 탄생시켜 번영하게 만든 바탕을 상징한다. 탄생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잇는 무수(巫樹)의 역할을 했던 신수는 이슬람화 이후에도 이어져 기복 신앙에서 치성을 드리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현대에도 투르크 문화권의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서는 크고 오래된 나무의 가지에 소원을 비는 종이나 천, 끈 등을 묶어 두거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아츠 킵착

●다국어 표기 Ağaç kültü(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샤머니즘, 우마이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TKSP>

(Kaya, Doğan, Türklerin Yaratılış Destanı ile İslami Kaynaklardaki Mülterekliklere Sentezi Bir Yaklaşım, 9. Milletlerarası Türk Halk Kültürü Kongresi)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참고문헌(오프라인) 광진석, 『흉노 제사의 신앙적 성격에 대한 연구- 사안-알타이 민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 문화연구』, 2012, vol.1, no.30, pp.219~234.

Banarlı, Nihad Sami, Resimli Türk Edebiyatı Tarihi I, Milli Eğitim Basım Evi, İstanbul 1983.

Ergun, Pervin, Türk Kültüründe Ağaç Kültü, Atatürk Kültür Merkezi Yayınları, Ankara, 2012.

F. Bayat, “Türk Mitolojisinde Dağ Kültü”, Folklor Edebiyat Dergisi, 12/46, Konya, 2006.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KabcacıYayınevi, İstanbul, 2001.

Mirzaoğlu Sivacı, Fatma Gülay, “Türklerde Mitolojik Unsurlar”, Türkbilig Türkoloji Araştırma Dergisi, S 10, 2005.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Yayınları, Ankara, 2010.

I D152 I 수바시오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ubaşı

수바시오(subaşı)는 원래 군 사령관을 의미하는 말로, 이 관직에는 군사 업무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업무가 부가되었다. 수바시오의 ‘수’는 군대를 가리키는 말로 원래는 ‘쉬(sü)’라고 발음했으며, 쉬바시오라는 말은 일찍이 오르콘 비문에서부터도 나타나는 어휘였고 오구즈 부족들 사이에서는 쉬베기(sübegi)라는 형태의 동의어가 있었다. 아랍어로는 ra’s al-askar, sahib’ül-jaysh, 페르시아어로는 sipahsalar라는 타이틀과도 같이 쓰였다.

가즈니 조에서는 셀주크에 방어하는 진영을 정비하면서 선봉에 서는 고위 관료(hajib)들을 수바시오로 임명했다고 하고, 셀주크 왕조의 조상인 셀주크도 수바시오라는 칭호를 가졌다고 한다. 아나톨리아의 룸 셀주크 왕조에서 수바시오는 상당히 고위 관직이었고, 수바시오들에게는 문무를 겸비하고 법과 관습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었다. 수바시오는 당시 중앙과 지방에 모두 있었으며, 수도의 수바시오는 가장 높은 직급의 관료로 인정받았고, 룸 셀주크의 여러 지방 도시에 있었던 수바시오 중 가장 높은 자리는 카이세리의 수바시오였다.

이 관직은 오스만 제국 초창기부터 나타나는데, 건국 군주 오스만이 최초의 수도로 삼은 도시 카라자 히사르를 점령한 직후 자기 사촌 알프 쿨뒤즈를 수바시오로 임명한 기록이 남아 있

다. 오스만 초기의 수바시으는 도시의 수비를 담당하는 자였다. 오스만 정부는 도시를 정복한 카디와 디즈다르(성채 수비대장)를 임명하면서 수바시으도 임명했고, 이들이 임명되면 정복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정복자 메흐메드 2세 시대부터 수바시으는 이전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으며 임무와 권위가 카눈나메에 규정되었고, 지방 행정에서는 산작 베이와 카디에 다음가는 직책이었다. 그는 카눈(세속법)과 니잠(규정)의 적용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 군사 계통의 관료(ehliörf) 가운데 하나였고, 범인을 수색해서 찾아내고 법의 심판에 넘기고, 필요한 경우 심문할 수도 있었다. 15세기말 부르사 근방 휘다웬디야르 산작의 카눈나메를 보면 수바시으에게 해당 산작베이 휘하의 유목민에 대한 징세와 같은 치안 유지 업무가 주어졌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수바시으는 백성들에게서 음식, 장작, 부역 등을 강제로 받아내면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었고, 독립된 티마르의 주인으로서 산작베이의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그러한 고로 중급 규모의 티마르인 제아메트(zeamet)를 가진 자임(zaim)이라 부르기도 했다. 수바시으의 특권은 그들의 소속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에디르네와 부르사의 수바시으는 권위있는 자리였으며, 그 자리를 거치면 이후 대재상에 의해 이스탄불의 수바시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방의 수바시으의 임명은 베일레르베이나 산작베이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방에서는 치안 유지 의무, 자기 휘하에서 양성한 기병(cebelü)을 동반하고 원정에 참여하는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에 더하여, 궁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상업적 역할, 유목민 집단을 성채나 교량 등의 건설에 동원하여 감독하는 역할, 데브시르메 소년 공납의 시행 및 관련 장부의 정리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중앙에서는 중앙군 기병(kapıkulu süvarileri) 가운데 7명의 수바시으가 있었고, 이들은 재산과 돈의 징발 혹은 징수 업무를 흔히 수행했다. 지방 수바시으가 티마르 같은 봉토가 있었던 것과 달리 중앙의 수바시으는 상업에서 이득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17세기 후반의 카눈나메에 의하면 이스탄불 수바시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성스러운 깃발(sancağ-ışerif)와 국고의 수호였다. 수바시으는 의전상 많은 의례에 동원되었으니, 즉위식, 외국 사신 접견, 축제, 명절 의례, 대외 원정을 시작하는 출정식 등에 참여했다. 수바시으는 이스탄불 카디의 지휘하에 있었고, 식량 공급 물량의 확보, 사기범의 추적, 복장 규제, 약품 제조 감찰, 의료 행위 감찰, 고정 가격의 점검, 거지와 부랑자의 규제, 세금청부계약으로 세금 징수를 외주화 한 술탄

의 사유지들의 관리, 세관 감찰, 각종 수공업의 관리, 시장 순찰 등 매우 다양한 일에 동원되었다. 수바시으가 여러 가지 사실상 서로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군사 계열의 관료에게 널리 적용된 칭호임이 명확하다. 이스탄불에서 이처럼 다양한 일들에 동원되었던 수바시으 직책은 20세기 초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바쉬

●다국어 표기 subaşı(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티마르

●참고문헌(오프라인) Mücteba İlgürel, “subaş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7, 2009, pp.447~448.

Mehmet Zeki Pakalın, Osmanlı Tarih Deyimleri ve Terimleri Sözlüğü.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1993, Vol. III, pp.259~262.

I D153 | 수브헌쿨리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ubhonquli

부하라 칸국의 칸이었던 압둘아지즈 칸(Abdulazizxon, 재위: 1645년~1680년)은 동생인 수브헌쿨리에게 양위를 결정한다. 수브헌쿨리가 제위를 이어받기 전에는 발흐(Balkh)의 통치자였다. 수브헌쿨리가 제위에 올랐던 당시 부하라 칸국은 히바 칸국이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 등 집권 초기에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었다.

1683년에 다시 히바 칸국이 부하라 칸국을 침략하고, 아들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지만, 바다흐산(Badakhshan)의 아미르의 도움으로 히바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와 중앙 집권화를 반대하는 세력을 비롯해 지속적인 외침으로 수브헌쿨리의 통치 시대는 혼란이 컸다. 수브헌쿨리는 1702년 부하라에서 사망했다.

수브헌쿨리는 그 자신이 의학자이기도 했기에 칸이 된 후 발흐에 병원(dar al-shifa')을 건설

하기도 했고, 『수브헌쿨리의 약에 따른 치료(Ihyo attibbi)』라는 의학 전문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또한, 천문학에도 조예가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브한쿨리, 수브한 쿨루 한, 수브한쿨리 칸
- 다국어 표기 Subhonquli(우즈베크어), Subhan Quli(영어), Subhan Kulu H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압둘아지즈 칸, 부하라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doğdu,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Mukaminova, .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Two: The Janids (Astarkh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45~52.

I D154 | 수수께끼(아제르바이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수수께끼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Puzless

수수께끼(Tapmaca)는 사람의 정신 능력과 뇌의 민첩함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 장르의 하나로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다. 수수께끼는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비유되는 것을 알아맞힐 것을 상대에게 요구한다. 이 놀이의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의 정신 능력, 시야, 사고력, 뇌의 민첩성, 상상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수수께끼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수수께끼는 매우 다양하다.

수수께끼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대인들의 전통적이고 신비롭고 비유적인 사고와 어투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신화적 세계관, 고대 종교적 사상, 의식과 사건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드러낸다. 동시에 유희이기도 했다. 고대에는 수수께끼를 정치, 군사 및 외교 관계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수수께끼의 대표적인 예들로 주로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수수께끼는 바야트(bayati, 아제르바이잔 전통 시 형태) 형태와 같다.

나무에 내장이 있다.

바람 할아버지를 부르면,

입을 열어 네이(ney, 전통 관악기)를 연주할 것이다

설레이만(Süleyman)을 부르면.

정답: 카만(Kaman, 바이올린과 유사한 아제르바이잔 전통 현악기)

그쪽이 올타리,

이쪽이 올타리.

안에서 말 타는 사람이 뛰고 있다.

정답: 눈(目)

작은 나무의 머리,

산과 돌을 태웠다

정답: 성냥

방앗간에 밀이 왔다.

일어나서 누가 왔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루에서

가공되지 않는 밀가루가 왔다.

정답: 이이대(iydə, 식물남 유럽산 보리수의 일종)

이외에도 산문 형태로 된 수수께끼들도 있다:

내가 갈수록 그도 간다.

정답: 그늘

나무에 빨간 얼굴의 여자이다.

정답: 사과

검은 닭이 마당에서 잔다.

정답: 빗자루

나무에서 밀가루 봉투이다.

정답: 이이대(iydə, 식물남 유럽산 보리수의 일종)

수수께끼가 속담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람을 장식하고(꾸미고) 본인은 알몸으로 걸어 다닌다.

정답: 바늘

키가 작지만, 집만큼 양이 있다.

정답: 전등

질문 형태로 된 수수께끼들도 있다.

그 것이 무엇인데, 입은 철로, 혀는 끈으로, 위는 열려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다.

정답: 전등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퍼즐즈, 타프마자, 불마자
- 다국어 표기 Puzless(영어), bulmacalar(튀르키예어), загадки(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də, 1 c., Bakı, 2018, s.360~369.

I D155 | 술탄 산자르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ultan Sanjar Mausoleum

1157년에 완공된 술탄 산자르 영묘는 셸주크조 호라산 지방의 지배자였던 술탄 산자르(Sultan Ahmed Sanjar, 생몰: 1085년~1157년)의 영묘로 술탄 산자르의 사망 이전에 이미 건설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 투르크메니스탄 메르브 시 6km 서쪽의 바이람 알리 근처 구 메르브 시 유적지인 중 술탄 칼레 한가운데에 자리해 있다. 건축가는 돔 내부에 존재하는 비문에 따르면 무함메드 빈 앗스즈 엘 세라흐시(Muhammed bin Atsız el Serahsi)이다.

이 영묘는 몽골의 침략으로 1221년 폐허가 되었고, 2005년 복구되었다.



술탄 산자르 영묘(메르브, 투르크메니스탄)

주재료가 벽돌인 술탄 산자르의 영묘 외부는 27.2mx27.2m, 내부는 17.2mx17.2m의 정사각형 형태이다. 벽 두께는 6m가량으로 매우 두껍다. 발굴 당시 건물의 총 높이는 38m였으나 돔 복원공사 후 전체높이는 약간 더 높아졌다. 돔의 지름은 외부에서는 21.8m 내부에서는 17.27m~30m이다. 당대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의 돔이었다.

영묘는 내부와 외부에 돔이 이중으로 존재했고, 발굴 당시 사라져있던 외부 돔은 1217년~1218년 사이에 건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 돔의 경우 트롬프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별 모양으로 쌓아 올려 장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돔 주변과 드럼은 넓은 아치와 좁은 아치로 갤러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이에 벽돌을 기하학 문양으로 쌓아 올려 돔으로 올라가는 길을 장식하고 있다. 발굴 당시 드럼과 건물 상단부에 존재하는 아치형 갤러리 내부에는 셀주크 스타일의 스투코로 된 쿠픽 서체 장식이 남아 있었



술탄 산자르 영묘 돔 장식

다. 이 쿠픽 서체 장식 주변은 식물 문양과 구부러진 가지, 루미 문양 등이 장식되었다. 볼트는 중앙에서 사방으로 향하는 기하학 문양으로 구성되어있고 벽은 단순한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1937년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연구소 발굴 현장에서 스투코 조각 등이 발견되어 겹 벽을 스투코로 바르고 그 위에 문양을 그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복원 공사는 보존에 치중되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지리학자 야쿠트 알 하마위(Yaqut al-Hamawi, 1179년~1229년)의 지리사전(Kitāb Mu'jam al-Buldān)에 의하면 이 영묘의 창문으로 대 모스크가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같은 기록에 따르면 돔에는 하늘색의 타일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 영묘가 카슈가르 지역의 모르팀 스투파, 악수, 수바쉬 스투파와 같이 이슬람 이전 시대의 불교도 위구르인의 스투파의 돔 드럼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술탄 산자르 영묘의 유사한 양식의 영묘는 투르크인들의 서쪽으로의 이동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산제르 튀르베시, 술탄 산자르 모우젤레이
- **다국어 표기** Sultan Sencer Türbesi(튀르키예어), Soltan Sanjar mowzeleýi(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산자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f/Sultan_Sanjar_mausoleum.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f/SultanSanjarMausoleum1.jpg/1024px-SultanSanjarMausoleum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Çoruhlu, Yaşar. “Sultan Sencer Türb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7, İstanbul: TDV, 2009, pp.519~521.
Ettinghausen, Richard., Oleg Grabar and Marilyn Jenkins,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650~12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D156 | 술탄 살투크 부그라 칸

●시기 B.C. ~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ultan Satuq Bughra Khan

술탄 살투크 부그라 칸은 카라한의 칸 바지르 아르슬란 칸(Bazir Arslan Khan, 재위: 893년~920년)의 아들로 900년대 또는 910년대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아버지인 바지르 아르슬란 칸이 사망하자 형사취수제를 통해 살투크 부그라 칸의 어머니는 바지르 아르슬란 칸의 동생인 오굴착 칸(Oghulchak Khan, 재위: 893년~940년(?))과 결혼하게 되었다. 즉, 살투크 부그라 칸은 오굴착 칸의 조카이자 아들인 셈이다.

살투크 부그라는 사만 조의 내전을 피해 카라한 조로 왔던 사만 조 출신의 망명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모두 무슬림이었고, 살투크 부그라 칸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으로 개종했

으며 압둘카림(AbdulKarim)이라는 이슬람식 이름도 받았다. 이후, 그는 비 무슬림인 삼촌이자 양아버지의 자리를 뺏어도 된다는 파트와를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빠르게 수도인 카쉬가르를 정복했으며 제위를 찬탈할 수 있었다. 그가 칸 위에 오르자 사만 조와의 관계가 변화한다. 기존의 적대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칸 위에 오른 살투크는 빠른 속도로 영토를 넓혀가 투르키스탄 지역의 도시를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슬림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정복 전쟁과 함께 많은 투르크인은 빠르게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다. 955년 사망한 살투크는 아투스 시(Artux)에 매장되었다. 살투크 부그라 칸은 최초의 투르크 무슬림 칸으로서 투르크의 이슬람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고, 학자들에 따라 카라한 조의 정식 건국 군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투 부으라 한

●다국어 표기 Sultan Satuq Bughra Khan(영어), سۇلتان سۇتۇق بۇغراخان(위구르어), Satuk Buğra Han(튀르키예어), Satur Bogra-khan(우즈베크어), Satıq Buğra xan(아제르바이잔어),

●연관 검색어 카라한 조, 오굴차 칸

●참고문헌(오프라인) Genç, Reşat. “Karahanlılar Tarihi”, Türkler Cilt 4, Ankara: Ankara: Yeni Türkiye, 2002, pp.804~829.

Özaydın, Abdülkerim. “Karahanlıla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404~412.

I D157 | 술탄 테키쉬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unya Urgench Sultan Tekish Mausoleum

호라즘 샤 왕조의 술탄 테키쉬(‘Alā’al-Dīn Tekish, 재위: 1172년~1200년)를 위해 건설한 영묘로 추정되고 있다. 호라즘 샤의 수도였던 쿤야우르겐츠(Kunya Urgench 또는 Gurganj)의 쿠틀루그 티무르 미나렛 근처에 있다. 술탄 테키쉬가 자신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

근 지방민들은 곡굼바즈(Gokgumbaz, 파란색 영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확한 건설 연도와 건축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재료가 벽돌인 이 영묘는 정사각형의 밑받침과 원통형 몸체와 원뿔형의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의 지붕은 돔이다. 내부 돔과 정사각형 밑받침은 팔각형의 드럼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 부분은 테라코타로 된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원뿔형 지붕의 하단부는 타일을 이용하여 헤링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원뿔 지붕의 원둘레 부분은 양각 서체로 장식되어 있다. 원뿔형 지붕은 터키석 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 기하학 문양을 구성하며 덮여 있었으나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으며, 최상단 부분 역시 파괴된 상태였다.

원통형 몸체 외부는 첨두삼엽형아치 형태와 삼각형 돌출부로 마무리된 16개의 벽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사각형 밑받침의 서쪽에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아치형의 대문이 있고, 이 대문의 양옆은 양각된 벽돌로 장식을 한 것 이외에는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면이 존재하는 몸체와 벽돌을 교차로 쌓는 영묘 형태는 카라한 칸국에서 시작하여 셀주크 조의 영묘 건축 발달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영묘의 전체적인 구조는 셀주크의 돔-정사각형 영묘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영묘는 주로 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한 형태이다. 쿤야 우르겐츠는 호라즘 샤의 수도로 문화 수준이 높았을 것을 추측되나 칭기즈 칸의 침략으로 유적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술탄 테키쉬 영묘는 쿤야 우르겐츠에 몇 남지 않은 13세기의 유적으로 당대의 영묘 건축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예시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테케슈 영묘, 술탄 테케쉬 쿼베티, 마크바라 테케쉬, 막바라 테케쉬, 테케쉬 막바라시, 테케쉬 마우졸레이,

●다국어 표기 Maqbara-i Tekesh(아랍어), Tekesh maqbarasi(우즈베크어), Tekeşiň mawzoleýi(투르크멘어), Ürgenç Sultan Tekeş kümbeti(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화레즘 샤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NF1G>

●참고문헌(오프라인) Hillenbrand, Robert. Islamic Architectur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Knobloch, Edgar. Monuments of Central Asia, New York: I.B. Tauris, 2001.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e 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I D158 | 술탄 하산 복합단지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기타 ●나라 이집트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집필자 이수정 ●라틴 문자 Sultan Hassan Complex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복합 단지로 1356년에 준공하여 1363년 완공되었다. 복합 단지는 중기 이슬람 시기(Middle Age of Islam)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모스크 건축의 형태로 모스크 내부와 주변에 교육 기관인 마드라사, 사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묘, 고아원, 시장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축을 의미한다. 술탄 하산의 복합단지는 바흐리 맘루크(Bahri Mamluk Dynasty)의 술탄이었던 안-나스르 하산(Sultan an-Nasir Hassan)의 후원으로 건설된 모스크이다. 술탄 하산은 1347년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술탄 하산은 맘루크 조의 다른 통치자에 비해서 눈에 띄는 정치적 업적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술탄 하산은 사치스러운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성향이 복합 단지 건설에도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술탄 하산은 복합 단지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암살되었다. 1361년 암살된 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술탄 하산 복합 단지 내에 현재 술탄 하산의 영묘는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술탄 하산 복합 단지는 14세기 중반 이집트 카이로에 퍼졌던 흑사병 발생 기간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 단지 초기 건설 당시 미너렛 중 두 개를 완공하고 세 번째 미너렛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 중인 미너렛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인해 미너렛 아래의 교육 기관과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300여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너렛 건축을 멈추고 현재 남아 있는 두 개의 미너렛만 건설했다. 1659년에는 영묘에 위치한 북쪽 미너렛이 붕괴되었고 현재의 형태로 재건되었다.

복합 단지 규모는 약 8,000평방미터에 달한다. 건물 자체를 보면 길이가 500m, 너비가 68m,



술탄 하산 모스크와 마드라사(카이로, 이집트)

높이가 36m이다. 카이로 남동쪽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미흐랍이 구성되어 있는데, 미흐랍 앞쪽으로 영묘가 위치한다. 복합 단지 입구는 북아프리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개 문양과 무하르나스(Muqarnas)를 활용한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복합 단지 내부 예배 공간으로 들어서면 화려하게 장식된 미흐랍과 민바르를 볼 수 있다. 미흐랍은 벽면이 안쪽으로 움푹하게 패인 니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흐랍 주변은 시리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여러가지 색을 반복하여 장식했다.

중정(Courtyard) 중심에는 분수가 위치한다. 중정의 사방은 거대한 이완(Iwan)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각 이완에서 수니파의 4대 법학파인 말리키, 하나피, 샤피이, 한발리 법학파를 각각 교육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영묘는 예배 방향인 끼블라를 알려주는 미흐랍 벽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 특성으로 인하여 무슬림이 모스크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 영묘를 향해 절을 하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



술탄 하산 복합단지 전경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는데,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후원자의 권력 표출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하산 콤플렉스
- 다국어 표기 مسجد ومدرسة السلطان حسن (아랍어), Sultan Hassan Complex(영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B20f>

●참고문헌(오프라인) Behrens-Abouseif, Doris, Cairo of the Mamluks : a history of the architecture and its culture (null ed.). London: I.B. Tauris, 2007, pp.201~213.

Williams, Caroline, Islamic Monuments in Cairo: The Practical Guide (7th ed.).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2018.

O'Kane, Bernard, The Mosques of Egypt.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2016.

I D159 | 술터나리 마쉬하디이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학자
●집필자 오은경 ●라틴 문자 Sultonali Mashhadiy

술터나리 마쉬하디이(Sultonali Mashhadiy, 1437년~1520년)는 서예가이며, 시인이고, 학자이다. 그는 나스탈리크체(페르시아어 نستعلیق) 서체가 발전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는 “서예 분야의 술탄(Sultanul - Xattotin)”이라 불릴 정도로 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대가이다. 그는 알리셰르 나버이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헤라트에서는 최고 예술가 대접을 받았다. 특히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사가 도서관에서 도서 관리를 맡았으며, 『나버이이의 시가(Navodirun - nixoya)』라는 고전시집(devon) 및 그의 여러 저서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 책들은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 소장돼 있다. 그가 만든 1465년 나버이이의 『두 개의 데번(Iki devon)』은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알리셰르 나버이이가 서예가 술터나리 마스하디이에 대해 표명한 깊은 존경심은 『마졸리순-나버이이스(Majolisun- navois)』라는 작품에 잘 드러난다. 그리고 술터나리 마스하디이 필사본들은 ‘세계적인 헤라트의 서체 예술(kitobat san’ati) 걸작’이라고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그의 서체가 담긴 50권이 넘는 저서와 작품 약 500편이 보존돼 전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 소장돼 있는 나버이이의 3개의 『데번(devon)』, 후세인 바이즈 커쉬피(Xusayn Voiz Koshify)의 『허탐전(傳)(Xotamnoma)』, 『자버히르전(傳)(Javohirnoma)』, 영국 원저성 도서관 소장본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데번(Devon)』과 『함사



술터나리 마쉬하디이가 필사한 술탄 후세인 바이카라의 디반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

『Xamsa』,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 소장된 나버이이의 『함사(Xamsa)』,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본 나버이이의 『데번(Devon)』,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정의 도서관 소장본 나버이이의 『함사(Xamsa)』와 사다이(Sa'diy)의 『데번(Devon)』, 그리고 후세이니(Xusayniy)의 『데번(Devon)』은 모두 그의 서체이다.

술터나리 마쉬하디이는 특히 나스탈리크 서체가 복인도로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악바르 궁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서예가로 유명한 무함마드 후세인 카쉬미리(Muhammad Xusayn Kashmiriy)의 나스탈리크체도 술타나리 마쉬하디이(Sultonali Mashhadiy)의 서체에서 영향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타나리 마쉬하디, 술타날리 마쉬하디의, 술토노리 마쉬하디
- 다국어 표기 СУЛТОНАЛИ МАШХАДДИЙ(카자흐어), Sultonali Mashhadiy(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알리 세르 나버이이, 우즈베키스탄, 함사(Xamsa),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is/original/DP235818.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зимджанова С., Государство Бабур в Кабуле и Индии. М., «Наука», 1977.
Ражабов К., Очиллов Э., Убайдуллахон. Т., «Abu matbuot-konsalt», 2011.
Каюмов А., Асарлар. (6-жилд). Т., «Mumtoz so'z», 2010.

I D160 | 술턴 조라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ulton Jo'ra

우즈베키스탄의 20세기 작가 술턴 조라는 1910년에 부하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들 손에 자란 술턴 조라는 초등교육을 받은 후 1930년 부하라 교육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교사로 활동했고, 안디잔 국립 교육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술턴 조라의 작품 활동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는 고전 문학과 소비에트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도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첫번째 시 「노동의 품에서(Mehnat qo'ynida)」는 1927년 잡지 <새로운 길(Yangi yo'l)>에 게재되었다. 그 후 그는 『시선집(She'rlar, 1933)』, 『희생자(Fidokor, 1939)』, 『모스크바(Moskva, 1941)』와 같은 시집을 출간했고, 「웃음(Kulgi, 1936)」, 「나의 행복(Shodligim, 1939)」, 「웃는 낮(Ochiq chehralar, 1939)」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동시대 사람들의 희노애락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했다.

시인은 「제비(Qaldirg'och)」, 「낙원(Jannat)」과 같은 서사시를 통해 젊은 독자들의 낭만주의적 이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 등장한 제비는 조국에 대한 젊은이들의 헌신을 상징한다. 운문 형식으로 쓴 동화 「블루 카펫(Zangori gilam)」에서는 민속적 모티프를 사용해서 우



술탄 조라
Source: <https://milliycha.uz/wp-content/>

즈베크인들의 숨겨진 내적 세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시 「카림과 쿤 두즈(Karim va Qunduz)」에서는 노동의 고통과 쾌락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 동화도 다수 집필했다. 「문자들의 행진(Harflar paradi)」, 「십표들의 회의(Tinish belgilarining majlisi)」, 「거짓말쟁이(Yolg'onchi)」, 「주머니(Cho'ntak)」, 「달은 몇 개지?(Oy nechta)」, 「그리움 가득한 인사(Sog'inchli salom)」와 같은 작품은 우즈베크 아동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술탄 조라는 자원해서 군에 입대한다. 입대 신청을 하고도 무려 일곱 번이나 거절 당했다. 가까스로 전쟁터로 떠난 시인은 「기관총의 소리(Pulemotchi ovozi)」, 「포병 무함마드(To'pchi Muhammad)」, 「우리들의 창(Nayzamiz)」, 「기수(Chavandoz)」와 같은 시를 통해 파시즘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전쟁을 주제로 담은 희곡 「의지(Iroda)」는 안디잔 극장에서 상연되었을 당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반전 메시지를 담은 「그리움 가득한 인사(Sog'inchli salom)」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전쟁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 술탄 조라는 1943년 11월 14일 전쟁 중 벨라루시아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전쟁에서 희생된 우즈베크 예술가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꽃 위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새들(Alanga bo'ylab uchib o'tgan qushlar)」은 시인 술탄 조라의 삶과 창작 활동을 조명하고 있다. 안디잔 시 40번 학교는 '술탄조라' 이름을 따 명명되었으며, 교내에는 오른손에는 총을 들고 왼손에는 책을 가슴에 대고 있는 술탄 조라의 동상이 세워졌다. 타슈켄트, 부하라, 안디잔에도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마할라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조라
- 다국어 표기 Sultan Jo'ra(우즈베크어), Султан Джура(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illiycha.uz/wp-content/uploads/2021/11/sulton-jura.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sulton-jo-ra-1910~1943>
<https://arboblar.uz/ru/people/sultan-dzhura>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Mo'minov G'., *Otashqalb shoir Sulton Jo'ra 60 yoshga oldi*, O'zbekiston, Toshkent, 1970.

I D161 | 쉐랄리 칸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heralixon

쉐랄리 칸은 우마르 칸(Umarxon, 재위: 1810년~1822년)과 올림 칸(Olimxon, 재위: 1801년~1810년)의 사촌으로 1792년 탄생했다. 1842년 코칸드 칸국을 점령한 부하라 토후국 나스룰라(Nasrulla, 재위: 1826년~1860년) 아미르는 그의 대리자로서 이브러힘 칸올니(Ibrohim Xayolni)를 코칸드에 남겨두고 부하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봉기로 인해 이브러힘은 후잔드(Khujand)로 추방되었고 칸으로 선언된 쉐랄리 칸은 3,000명~4,000명의 군대와 함께 코칸드를 수복했다. 그는 나스룰라가 다시 침략할 것을 대비해 도시 방비를 강화할 계획을 세운다. 같은 해 7월 나스룰라는 다시 코칸드 인근에 도착해 약 2개월 동안 머물며 코칸드 칸국의 항복을 종용했다. 그러나 코칸드인들은 나스룰라와 맞서 싸우게 된다. 또한 히바 칸국이 부하라 토후국을 침공하는 바람에 나스룰라는 곧 코칸드를 물러나게 되었다. 외국 군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쉐랄리 칸의 세금 정책에 반발한 대중 반란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1845년 오쉬(Osh)에서 발발한 봉기였다. 나스룰라의 군과 맞서 싸울 때 민중을 설득하는 공을 세웠던 킵차크 출신의 천인장(mingbashi) 무술먼쿨(Musulmonkul)은 반란을 진압한다는 핑계를 대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오쉬로 가게 된다. 군대가 없는 틈을 타 올림 칸의 아들 무라트 칸(Murodxon, 재위: 1845년)은 쉐랄리 칸을 살해하고 칸의 자리에 올랐으나 겨우 7일간만 통치할 수 있었다. 무술먼쿨은 자신의 딸을 쉐랄리 칸의 아들인 어린 후도요르 칸(Xudoyorxon, 재위: 1845년~1875년)과 결혼시키고 그를 제위에 올린 후 무술먼쿨이 섭정이 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쉬르 알리 칸, 시르 알리 한

●다국어 표기 Sheralixon(우즈베크어), Shir Ali Khan(영어), Шераалы хан(키르기스어), Şîr Ali Han(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우마르 칸, 얼림 칸, 후도요르 칸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I D162 | 쉘제레이 투르크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물
●유형 소분류2 서적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Şecere-i Türk

『쉘제레이 투르크』는 호라즘 우즈베크 통치자 에불가지 바드르한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아들 에누쉐(Enüşe)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으로서, 쉘이바느 우즈베크(Şeybanî Özbekleri)의 가문 그리고 투르크와 몽골 역사를 포함한 전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설명한 일종의 역사서이다. 『쉘제레이 투르크』는 칭기즈 칸의 생애와 함께 그의 아들들의 호라즘 정복 방법 등 몽골의 역사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투르크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작성된 이 작품은 1663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오스만 투르크어로 번역되었다.

이책의 첫 판본은 1717년 스트라헨베르그(Strahlenberg)에서 발견되었으며, 1720년~1721년 독일어로, 이후에는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되었다. 현대 튀르키예어로는 1864년 아흐메드 베피크 파샤(Ahmed Vefik Pasha)가 출간한 잡지 <타스비리 에프카르(Tasvir-i Efkâr)>에서 연재물로서 번역되었다. 이 연재물을 보완하기 위해 1925년 르자 누르(Rıza Nur)가 차가

타이 투르크어 월본과 함께 프랑스어 번역을 출발어로 삼아 튀르키예어로 재번역했다. 쉘제레이 투르크는 역사서이지만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작성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당시 언어 연구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쉘제레이 튀르크

●다국어 표기 Şecere-i Türk(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베피크 파샤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Şen, M. “Çağatay Türkçesine Bakışı ve Şemseddin Sami'nin Tesiri.” *Electronic Turkish Studies*, 9(9), 2014, 82~102.

I D163 | 쉘-쉘

-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식주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hek-Shek

쉘-쉘(혹은 착-착)은 카자흐인들이 즐겨먹는 과자인데 달고 바삭한 음식이다. 쉘-쉘은 카자흐인, 타타르인, 키르기스인 등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만들어 먹는 간식이다. 단맛을 내는 감자 튀김과 유사하다. 단지 튀김 형태의 내용물이 옛과 같은 것으로 서로 붙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감자 튀김과도 다르다. 카자흐어식 발음 ‘쉘-쉘’보다는 일반



‘착-착’으로 널리 알려진 쉘-쉘

적으로 다른 투르크 민족어 발음인 ‘착-착’이 더 알려져 있고 러시아에서도 ‘착-착’으로 알려졌다. 이 과자는 꿀과 설탕이 듬뿍 발려져 있어서 맛이 매우 달다. 쉘-쉘의 재료는 밀가루, 달걀,

꿀, 식용류, 설탕 그리고 소량의 보드카 혹은 코냑 등이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모든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고 특히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과자에 알코올기가 있는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쉼-쉼은 카자흐스탄에서 결혼식과 같은 잔치와 공식 행사 등에 손님들에게 간단한 간식용으로 제공되며 단맛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만 먹는 과정에서 손이 더럽혀지기도 한다. 쉼-쉼은 역시 같은 간식거리인 바우르삭과 함께 짧은 시간에 간단히 먹는 음식이므로 디저트용으로 적합하다. 이 음식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인접한 국가와 지역에서 자주 애용되며 러시아의 도시인 카잔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구성 민족인 타타르인은 카자흐인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대개 발음상 인접 지역에서는 착-착, 러시아에서도 착-착으로 알려져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만 쉼-쉼으로 불린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착-착

●다국어 표기 шәк-шәк(카자흐어), чәк-чәк(타타르어), chak-chak(우즈베크어), чак-чак(키르기스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spazdik.files.wordpress.com/2009/08/final1.jpg>

[How to make Chak-chak / Çäkçäk / чак чак \(English versio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QpXdo0SHNo>

●참고문헌(온라인) <https://petersfoodadventures.com/2018/02/16/chak-chak-fried-honey-cake/>

●참고문헌(오프라인) Dana Jeteyeva and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 House, 2014.

I D164 | 쉬나시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ŞİNASİ

쉬나시는 튀르키예 근대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서 탄지마트 문학의 중심을 이루는 작가이자 사상가이다. 본명은 ‘이브라힘 쉬나시’이며 1826년 8월 5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메흐메드는 포병 소령이었는데, 그는 마할레 스브얀 멕테비(Mahalle Sibyan Mektebi)와 페이지에 학교(Feyziye Okulu)를 거치며 초등교육을 받았다. 그때부터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1849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서 문학과 언어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 지식인들과 가까이 교류했다.

그와 가까이 지냈던 이들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동양학자인 드 사시의 가족, 철학자 에르네스트 루낭, 언어학자 리트레, 또 다른 동양학자인 파베트 드 쿠르테이유가 있었으며 연구를 도와주거나 시인이자 정치가인 라마르틴의 학회에 참관하기도 했다. 그 밖에 1851년에는 아시아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854년에 이스탄불로 돌아와 한동안 톱하네 칼레미(Tophane Kalemî)에서 근무한 후 교육부(Meclis-i Maarif)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쉬나시는 ‘탄지마트’로 시작한 서구화 운동에 앞장서 언어, 문학, 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했으며 시를 통해 옛날 운율 형식으로 새로운 생각을 표현해냈기에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60년에 쓴 코미디 단막극 「시인의 결혼(Şair Evlenmesi)」은 튀르키예어로 된 서양식 첫 희곡이었는데, 주제 면에서도 튀르키예 연극 문학의 선구자적 작품임을 인정받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그 외에도 그리스어로 쓰여진 코스타키의 「코스타니예 법률 위원단(Heyet-i Sabıka -i Kostaniye)」 작품을 번역해 신문에 연재했는데 당시 ‘연재(Tefrika)’, ‘구독(abone)’ 같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도 쉬나시였다. 그의 주된 일은 신문기자였기에 서구화를 옹호한 신문 <타스비리 에프카르(Tasvir-i Efkâr)>는 그때부터 튀르키예 언론 역사를 바꿀만한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수용한 ‘법률’, ‘민주주의’, ‘시민’과 같은 개념들을 튀르키예 국민에게 전파하는데 앞장섰으며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아가 에펜디(Ağah Efendi)와 함께 1860년에 신문 <테르쥐마느 아흐발(Tercüman-ı Ahvâl)>을, 1862년에는 신문 <타스비리 에프카르(Tasvir-i Efkâr)>를 창간했다. 특히 신문 <테르쥐마느 아흐발>은 튀르키예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는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1863년, 쉬나시는 국정을 비판하고 술탄 압뉘 아지즈(Abdülaziz)에 맞서는 움직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해임 직후 신문 <타스비리 에프카르>를 나르크 케말에게 넘기고 프랑스로 넘어갔으며 이후 약 5년 동안 국립도서관에서 사전을 만드는 작



쉬나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업을 이어갔다. 그때 만든 책 중 하나는 속담 책 『두루브 엠살리 오스마니예(Durub-ı Emsal-i Osmaniye, 1863)』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때부터 그가 만들고자 한 책은 천여 장에 이르는 총 14권짜리 튀르키예어 사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1867년 이스탄불로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파리로 이동해야 했고, 또다시 1869년 이스탄불에 돌아와야 했던 복잡한 여정 탓에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곧 이스탄불에 인쇄소를 열었고, 많은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수프 카밀 파샤의 『텔라마코스(Télémaque)』 번역본과 아흐메트 베피크 파샤의 『지혜의 역사(Hikmet-i Tarih)』 그리고 『투르크의 계보(Şecere-i Türki)』가 출판되었다. 당시 미완성으로 중단된 튀르키예어 사전 작업물

은 헝가리 학술 도서관에 튀르키예어 사본으로 보관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쉬나시가 튀르키예 문학에 가져온 첫 번째 혁신은 그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쉬나시 시의 내용과 형식은 고전 튀르키예 시와 사뭇 다르다. 특히 옛 시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의 수식어와 개념어(mazmunları)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했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중요한 ‘주제’를 돋보이게 했다. 그는 전형적인 시의 형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며, ‘법’, ‘민주주의’, ‘이성’과 같은 튀르키예에 확산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 사회 및 정치적 견해를 녹여내고자 했다. 또한 튀르키예어만의 새로운 시어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옛 시에서 사용한 ‘가젤(gazel)’, ‘카시데(kaside)’와 같은 용어 대신에 서양 시처럼 주제를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것은 중대한 변화였다. 쉬나시는 시를 쓰기 전에 먼저 서구 시를 번역했다. 1859년에는 프랑스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던 시 몇 작품을 『에샤르(eş'ar)』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같은 작품을 1870년 두 번째 출판할 때는 『테르쥐메이 만주메(Tercüme-i Manzume)』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쉬나시는 이 책에서 라신, 페늘롱, 길버트, 라 폰텐, 라마르틴 등의 작품을 번역했으며 그 작품들은 튀르키예 독자들이 처음 접한 서구의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더불어 자신의 시를 모아 『뮌테하바트 에샤르(Müntehabat-ı Eş'ar)』로 출판했는데 여기에서 그 어떤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내용 면에서 시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면 형식 면에서도 개념어나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공적을 남긴 쉬나시는 1871년 9월 12일 이스탄불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묘지는 아야스파샤 공원에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나씨, 시나시

●다국어 표기 ŞINASI(튀르키예어), Sinasi(영어)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c/Sinasi.jpg>

●참고문헌(오프라인) Akıncı Gündüz, *Batıya Yönelirken Şinasi*, Ankara Üniversitesi Yayınları, Ankara, 1966.

Akyüz Kenan, *Modern Türk Edebiyatının Ana Çizgileri (1860-1923)*, 5 Baskı, İnkılâp Kitabevi, İstanbul, 1995.

Kaplan Mehmet, “Şinasi’nin Türk Şiirinde Yaptığı Yenilik”, *Türk Edebiyatı Üzerinde Araştırmalar I*, Dergâh Yayınları, İstanbul, 1999.

Parlatır İsmail, “Şinasi”, *Tanzimat Edebiyatı*,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6.

Tanpınar Ahmet Hamdi, *On Dokuzuncu Asır Türk Edebiyatı Tarihi* (Haz. Abdullah Uçman), Dergah Yayınları, İstanbul, 2012.

I D165 | 쉬르반샤 궁전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궁전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Şirvanşahlar sarayı

쉬르반샤 궁전은 바쿠의 ‘도심’이라는 의미의 ‘이채리시애해르(İçərişəhər)’에 건설된 복합 단지에 위치한 궁전이다. 이 복합단지는 궁전, 국정을 운영하던 디반하네(Divanhane), 묘, 영묘, 모스크, 목욕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 대부분은 15세기에 건설되었다.

쉬르반샤 궁전은 대문 2개와 소문 2개가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에 기

존의 성벽을 수리 및 증축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14세기 말~15세기 쉬르반샤 왕조의 이브라힘 1세(I İbrahim, 재위: 1382년~1418년) 시기에 수도였던 샤마흐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지진으로 쉬르반샤 왕조는 바쿠로 천도했고, 새로 궁전을 건설했다. 16세기 말 쉬르반샤 왕조가 멸망하며 궁전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19세기 중반 러시아인들이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1920년 이후부터 궁전은 꾸준히 복원 및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1992년부터 대대적인 복원을 시행했고, 2006년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0년 이체리 시에해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궁전 역시 함께 보호되고 있다.

궁전의 건축가는 불명확하다. 다만, 궁전 내 영묘 대문에 건축가 ‘알리(Ali)’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가 궁전을 건축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궁전은 바다에 가까운 쪽의 조금 높은 테라스 위에 건설되었다. 궁전 본 건물은 리악으로 둘러싼 사각형의 내원 내에 있으며 건물 중심은 팔각형 평면으로 14세기 말에 건설되었다. 이후에 시대에 따라 사각형 평면의 서쪽과 북쪽, 동쪽 건물이 증축되었다. 궁전 중심에는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돔이 있으며, 돔이 있는 방에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과 내원이 연결되어 있다. 1층과 2층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팔각형 중앙 홀은 각기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1층에는 27개의 방이, 2층에는 25개(현재는 16개)의 방이 있다. 궁전의 2층 동쪽은 하렘과 샤의 개인 공간으로 헬릴룰라흐 1세(I Xəlilullah, 재위: 1418년~1465년)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칭적인 구조이며, 각 방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이다. 팔각형 홀에서 이곳으로 갈 수 있는 입구 양옆은 벽감이 있는 볼트로 되어 있다. 입구를 통해 계단과 중앙부가 막히지 않은 목제 천장으로 된 팔각형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외 작은 홀과 방이 팔각홀의 주변에 있다.

궁전의 대문은 무카르나스와 조개 껍데기 모양이 결합된 형태의 벽감과 연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낮은 문 주변은 쿠란 구절이 적힌 석문과 식물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디반하네(Divanhane)는 궁전 북쪽에 15세기경에 건설되었으며, 궁전과 연결되어 있다. 디반하네 역시 팔각형 건물로 12면으로 구성된 돔으로 덮여 있다. 디반하네의 현관은 아케이드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정 역시 아케이드가 있다. 이 건물에는 2개의 입구가 있으며, 대문은 골이 파인 세미 돔과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문 주변은 식물 문양이 있다. 또한, 대문 프레임에는 두 개의 메달이 있고, 이 메달 안에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



쉬르반사 궁전(바쿠, 아제르바이잔)

다.’, ‘알리는 알라와 가깝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복합단지 내 서쪽에는 궁전 모스크(Saray məscidi)가 있다. 미너렛의 석문에 따르면 할틀룰라흐 1세(I Xəlilullah, 재위: 1418년~1465년)에 의해 1441년~1442년에 건설되었다. 모스크는 직사각형으로 남성용 기도 공간과 여성용 기도 공간과 부속 공간이 있다. 북쪽과 동쪽에 입구가 있다. 남쪽 벽에 미흐랍이 있으며, 기도 공간은 큐플라로 덮여있다. 미너렛은 모스크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궁전 모스크 옆에 있는 영묘는 1435년이 건설되었다. 전면부를 장식한 대문은 화려하게 장식된 피슈타크 형태이며, 이곳을 장식한 메달 안에 알리와 무함마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입구 석문에는 건축가 알리의 이름, 쿠란 구절과 하디스 구절이 적혀 있으며 할틀룰라흐 1세가 1435년-1436년에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건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입구 양옆에는 작은 방이 있다. 본당은 십자형이고, 돔으로 덮여있다. 입구 반대편에는 복도를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궁전의 동쪽 문은 오스만 제국이 바쿠를 정복한 무라드 3세(III. Murad, 재위: 1574년 ~ 1595년)의 명으로 건설되었다. 이 문은 궁전 내의 어떤 건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단지 내의 유일한 16세기 건물이다.

이외에도 궁전 내에는 흔적 일부가 남은 목욕탕 터와 주인을 알 수 없는 팔각뿔 형태의 영묘, 작은 모스크 등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쉬르반샤 사라이, 쉬르반샤흐 궁전, 쉬르반샤흐 사라이

●다국어 표기 Şirvanşahlar sarayı(아제르바이잔어), Şirvanşahlar Sarayı(튀르키예어), Ширваншаһтар сарайы(카자흐어), Shirvonshohlar saroyi(우즈베크어), Palace of the Shirvanshahs(영어)

●연관 검색어 쉬르반샤

●멀티미디어 링크 쉬르반샤 궁전 <https://zrr.kr/NaEM>

쉬르반샤 궁전_디반하네 <https://zrr.kr/mkl>

●참고문헌(오프라인) Çoruhlu, Yaşar. “ŞİRVAŖŞAHLAR SARAY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9, İstanbul: TDV, 2010, pp.213~214.

Musa Mərjanlı(ed), Qədim Qalanın Yuxuları, Dubai: IRS Publishing House. 2013.

Oktay Aslanapa, Türk Cumhuriyetleri Mimarlık Abideleri, Ankara 1996.

I D166 | 쉰네트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전통
●집필자 박현도 ●라틴 문자 Sünnet

‘쉰네트’는 아랍어 순나(Sunnah)의 튀르키예어 발음으로 이슬람 이전 아랍 사회에서 조상들이 축적한 전통이나 관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코란에 총 18번 언급되었으며 이슬람 문화권이 자리 잡은 이후부터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일군 전통이나 관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예로부터 ‘하디스’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함께 자주 쓰였는데 현재는 두 용어의 차이가 사라져 모두 ‘예언자의 말과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엄밀히 구분 지으면 ‘하디

스'는 예언자의 말, '순나'는 예언자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차이가 있다.

'순나'는 '하디스'에 있는 이슬람법(法)이나 가치를 가리킨다. '하디스'는 반드시 '순나'를 내포하지 않으며 '순나'의 범위는 '하디스'보다 더 넓다. '순나'라는 개념 안에는 예언자의 전통이나 관습뿐만 아니라 초창기 무슬림 공동체가 따르고 보존한 전통이나 관습까지 포함된다. 8세기 초반 '샤피이'는 '순나'를 이슬람법의 원천이라고 보고 코란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삼았다. 그 결과 '순나'는 정통사상이나 행위를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정통(수니)과 이단(시아)이라는 이분법적 사유가 발전한 것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순넷

●대국어 표기 Sunn (아랍어), Sünnet(튀르키예어), Sunnat(우즈베크어), Sünna(아제르바이잔어), Сүннет(카자흐어)

●연관 검색어 코란, 하디스, 무함마드, 수니

●참고문헌(오프라인) Juynbol, G. H. A. "Sunna."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163~166. Vol. 5.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6.

Juynbol, G. H. A. and D. W. Brown. "Sunna."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878~881. Vol. 9. Leiden: Brill, 1997.

I D167 I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모스크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üleymaniye mosque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는 쉴레이마니이에 쿨리이에시(Süleymaniye külliyesi: 쉴레이마니이에 콤플렉스 또는 쉴레이마니이에 복합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쉴레이마니이에 쿨리이에시는 술탄 쉴레이만 1세(I.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의 명으로 건축가 미마르 시난(Mimar Sinan, 1488년~1588년)이 건설했다. 미마르 시난은 자신의 작품 발전 단계를 습작기(초창기), 원숙기, 절정기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중 '쉴레이마니이에 쿨리이에시'는 원숙기의 작품이었다.



셀레이마니이에 모스크

셀레이마니이에 킬리이에서는 이스탄불 ‘골든 혼’ 인근의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1550년에 건설을 시작한 이 복합단지 내에는 셀레이마니이에 모스크를 비롯하여 마드라사, 하디스 학교, 의학 학교, 병원, 코란 학교, 초급학교, 빈자를 위한 급식소, 대상 숙소, 목욕탕이 건설되었다. 또한 셀레이만 1세와 그의 아내 휘르렘 술탄(Hürrem Sultan, 1502년 또는 1504년~1558년)의 영묘 및 미마르 시난의 영묘 역시 자리하고 있다.

모스크는 69mx62.3m 크기의 평면 위에 건설되었으며, 전면은 중정(courtyard)과 인접해 있으며 중정은 서쪽으로 9개, 좌우로 8개의 돔으로 덮여 있는 갤러리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중정 가운데에 샤흐르반이 있다.

모스크 내부에는 중앙 부근에 네 개의 거대한 지지대 위로 아치가 서 있으며 이 아치는 서로 연결되어 중앙 돔을 떠받친다. 돔의 지름은 27.40m, 높이는 50m가 조금 넘고 돔을 받치고 있는 드럼에는 창문이 나 있다. 돔과 같은 지름의 세미 돔이 돔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 세미 돔이



셀레이마니에 모스크 내부

받는 하중을 세미 돔과 연결된 쿼터 돔이 받아낸다. 또한 세미 돔 내부의 아치가 하중을 떠받치고 있다. 이처럼 모스크의 거대한 돔의 하중을 옮기는 방식은 당대 기술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모스크에는 ‘미흐랍’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주변부와 글자 장식만 이즈니크(iznik)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미흐랍의 벽감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으며 민바르 역시 대리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외에 내부 장식도 화려함보다는 깔끔한 처리와 색을 교대로 배치한 아치, 서체 장식의 로제트를 단 펜던티브와 기둥 등이 주를 이룬다.

미너렛은 중정의 네 모서리에서 위치하며 중정의 서북쪽 모서리에 솟은 미너렛에는 두 개의 발코니가 중정 벽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금 낮게 설계되어 있다. 반면 모스크와 인접한 미너렛은 약 76m로 조금 더 높다. 이 네 개의 미너렛은 모두 상단부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발코니와 일뿔형 지붕이 있다.

복합단지 내에 위치한 영묘와 무덤 자리는 키블라 벽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초기에는 술탄 쉴레이만과 휘르렘 술탄 및 미마르 시난의 영묘 정도만 있었으나 18세기 말 여러 인물의 무덤이 추가되었다. 그중 쉴레이만 1세의 영묘는 미마르 시난이 설계했으며 팔각형 몸체와 외부로 툇 튀어나온 갤러리가 특이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갤러리의 지붕이 기울어져 있으며 기둥과 아치를 연속으로 세워 색상이 있는 석재로 장식했다. 또한 내부에는 팔각형 면 앞에는 여덟 개의 기둥과 아치가 있으며 타일과 칼렘이쉬(페인트 장식)로 풍부하게 장식한 점과 산호와 상아 입사로 장식한 문 역시 당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휘르렘 술탄의 영묘 역시 미마르 시난이 건설했으며 쉴레이만 1세 영묘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형태는 쉴레이만 1세의 영묘와 동일한 팔각형 형태로 차이점은 입구 앞에 작은 갤러리가 있다는 점이다. 내부에는 무카르나스가 있는 벽감과 글 및 식물 문양으로 장식한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미마르 시난의 영묘는 모스크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영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긴 양면은 장식적인 구멍이 난 형태이고, 기울어진 지붕이 있다. 또한, 영묘 바로 앞에는 돔으로 덮인 세빌(sebil: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인조 공공 샘)이 있다. 특이한 점은 세빌의 건설 연도가 영묘보다 앞서는 데다 일반적으로 복합단지에 위치한 영묘가 복합단지 건설 후원자인 것과 달리 미마르 시난은 건축가임에도 영묘에 자리를 잡은 매우 드문 예이다.

모스크와 영묘 이외에 복합단지 남서쪽에는 석재로 만든 초급학교, 서쪽과 동쪽에는 마드라사, 서쪽에는 의학 학교, 복합단지, 북서쪽에는 빈자를 위한 급식소인 이마레트(imaret), 이마레트 아래층에는 대상 숙소와 걸식 수도승을 위한 숙소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속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쉴레이마니예 모스크와 복합단지' 전체가 미마르 시난의 원숙기 대표작이자 당대 기술력의 집약체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 당시 관련 장부와 기록물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 경제 체제와 건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쉴레이마니예 모스크, 슬레이마니예 자미, 쉴레이마니예 자미, 쉴레이마니예 켈리예시, 슬레이마니예 켈리예시, 쉴레이마니예 모스크

●다국어 표기 Süleymaniye camii(튀르키예어), Süleymaniyyə məscidi(아제르바이잔어), Сүлеймение мешіті(카자흐

어), Sulaymoniya masjidi(우즈베크어)

●연관 검색어 술탄 쉴레이만 1세, 미마르 시난

●멀티미디어 링크 쉴레이마니아에 모스크 <https://zrr.kr/yTXv>

쉴레이마니아에 모스크_중정 <https://zrr.kr/rHQ>

쉴레이마니아에 모스크_쉴레이만 1세 영묘 <https://zrr.kr/S35H>

●참고문헌(오프라인) Kuban, Doğan. Sinan'ın Sanatı ve Selimiye, İstanbul:Türkiye İş Bankası, 1997.

Mülâyim, Selçuk. "SÜLEYMANİYE CAMİİ ve KÜLLİY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8. İstanbul: TDV, 2010. pp.114~119.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ap, 1986.

Aslanapa, Oktay. Mimar Sinan'ın Hayatı ve Eserleri,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1988.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pevi, 1997.

I D168 I 쉴레이만 1세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군주
●집필자 이은정 ●라틴 문자 Süleyman I the Magnificent

쉴레이만 1세(I. Süleyman)는 16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을 통치한 군주이다. 오랜 시간 그의 치세는 안팎으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관련해 쉴레이만 시대를 전성기로 보고 그 이후를 쇠퇴기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인식이며 신화가 반영되었기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학계에서는 수정된 평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대 튀르키예의 드라마 시리즈 ‘무흐테셈 위즈이ыл(Muhteşem Yüzyıl: 영광의 세기)’의 세계적 흥행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그의 시대는 가장 번영했던 오스만 제국의 상징처럼 존재하고 있다.

쉴레이만 1세는 1494년 아버지 셸림 1세가 왕자 시절 지방관으로서 복무했던 트라브존에서 태어났고, 1520년 셸림 1세가 사망한 후 드물게 독자로서 계승분쟁 없이 술탄으로 즉위했다. 즉위 후 그는 동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이집트 등에 집중했던 선왕과는 반대로 유럽 전선에 집중했다. 1521년 헝가리 원정에서 베오그라드 점령, 1522년 성 요한 기사단으로부터 로도스 섬

정복, 1526년 헝가리 군을 대파하고 헝가리 왕을 죽인 모하치 전투, 비록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1529년과 1532년 합스부르크의 수도 빈 포위에 성공하는 등 여러 해 동안 연속적으로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

한때 헝가리의 분할 이후 쉴레이만 1세는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드와 헝가리 귀족 서포여이가 나눠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심 서포여이를 지지했기에 서포여이가 죽고 페르디난드가 헝가리의 수도 부더를 포위하자 바로 개입하여 부더를 점령했다. 그리고 이내 헝가리 일부 지역을 오스만 국가의 정규 행정구역인 ‘일라예트’로 만들어 직접 통치했다.

한편으로는 1530년대에 들어서 하이렛딘 바르바로사 등 해적 출신의 해군 인력을 동원하여 북 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합스부르크에스파니아베네치아 연합 함대들을 상대로 승전하며 동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인도양의 홍해와 페르시아만 등지에서 포르투갈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기도 했다. 합스부르크와의 북부 전선에 전쟁이 없을 때는 ‘사파비 원정’을 감행하여, 1534년-1535년 사이 비틀리스, 타브리즈,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1548년에는 완(Van), 1554년에는 나흐치반과 예레반 점령에 성공하지만 1555년 ‘아마시아 평화조약’에 따라 사파비에게 타브리즈, 나흐치반, 예레반을 돌려주었다. 이때의 국경이 17세기에 잠시 바그다드가 사파비에 넘어갔던 시기를 제외하면 제1차 세계 대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쉴레이만 1세의 영토확장은 그의 아버지 셀림 1세가 넓은 영토에 50%가량 추가로 더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의 시대에 번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궁정을 방문한 유럽인들이 ‘장엄(magnificent)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내치 면에서도 수많은 오스만 제국 고전 시대의 제도들이 그의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정비되었다. 일레로 메흐메드 2세 시대 이래 편찬해온 오스만 세속법(카눈)을 완성된 형태로 정비하는 데 성공했고, ‘카눈’과 ‘샤리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그는 입법자(kanuni)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런 성공적인 치세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쉴레이만 1세 본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뒷받침해줄 유능한 대재상의 존재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파르갈르 이브라힘 파샤(재임: 1522년-1536년), 뤼스탐 파샤(재임: 1544년-1553년, 1556년-1561년),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재임: 1565년-1579년), ‘샤리아’와 ‘카눈’의 상호관계를 정리하고 정책과 정치적 결정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셰이힐이슬람에

부수우드 에펜디, 하이렛딘 바르바로사를 비롯한 많은 유능한 해군 제독들의 역할이 컸다.

반면 다소 의외성을 가진 행보도 있었는데 쉴레이만 1세는 총애하는 관료와 후궁에 대한 특별 우대로 이전의 전통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이전까지 오스만 술탄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후궁만 취하며, 후궁 1명에게서 아들 1명씩만 낳던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총애하던 휘르렘(Hürrem, 유럽에는 Roxelana라고 알려져 있다)과 결혼했고, 후궁들의 별궁 하렘을 통치의 중심이었던 톱카프 궁 안으로 이사시켜 밀접하게 지냈으며, 관료 등용의 단계와 순서를 무시하고 측근을 갑자기 높은 자리에 등용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쉴레이만 1세 시대의 번영과정의로움은 객관적 사실보다 다소 과장되어 평가된 측면이 있다. 1591년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는 종말론이 유행했는데 그는 종말에 앞서 세상에 최종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마흐디(구세주)’, 또한 중앙아시아의 유목군주 티무르의 예에 따라 점성술에서 나온 칭호인 사힉 키란(‘합’의 주인)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낙카슈 오스만이 그린 쉴레이만 1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말년의 쉴레이만은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와의 경쟁 및 유럽에서의 신-구교 사이의 갈등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권을 제압하고 이슬람의 궁극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 기대되었지만 건강 악화와 궁중 암투, 모함을 믿고 큰아들 무스타파를 처형시킨 사건, 남은 두 왕자들 사이에 불거진 계승분쟁 등 여러 불행한 사건을 겪어야만 했으며, 말년에는 주로 은둔 속에서 여생을 보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쉴레이만 1세, 술레이만 1세, 카누니 술탄 쉴레이만, 카누니 술탄 술레이만, 카누니 술탄 쉴레

이만

● **다국어 표기** Kanuni Süley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흐테셈 위즈이을, 파르갈르 이브라힘 파샤, 루스툼 파샤, 하이렛딘 바르바로사, 휘르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2/Semailname_47b.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Kanuni Süleyman,”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541~547.

Fleischer, Cornell H. “Mahdi and Millennium: Messianic Dimensions in the Development of Ottoman Imperial Ideology.” The Great Ottoman-Turkish Civilization 3, 2000: pp.42~54.

I D169 | 쉴레이만 2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Süleyman II

제20대 오스만 술탄 쉴레이만 2세(1642년~1691년, 재위: 1687년~1691년)는 이브라힘 1세의 아들이자 메흐메드 4세의 동생으로, 사냥과 유희에 탐닉해 평판을 잃은 메흐메드 4세가 1687년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헝가리 지역을 거의 다 잃었을 때 북방 전선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으로 폐위되며 서열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즉위 직후 1688년 9월 군사 반란을 잠재우고 군대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때마침 새로 북방 전선의 오스만군 사령관을 맡은 예엔 오스만 파샤가 신성동맹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베오그라드를 빼앗기고 말았기에 결국 사태의 책임을 물어 그를 사형에 처했다. 또한 이듬해 10월 신성동맹이 불가리아의 비딘까지 점령하면서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그는 술탄으로서 키프릴뤼 가문의 파즐 무스타파 파샤를 대재상으로 임명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재상이 된 파즐 무스타파 파샤는 부패한 관료들과 무능한 장교들을 숙청했으며, 철저한 군대 인원 점검 이후 무슬림 신민들을 향해 총동원령을 선포했으며 투르크멘과 쿠르드 유목 부족민까지 징집했다. 또한 원래 샤리아에서 인두세로 되어 있던 지즈예라 불리는 비무슬림 대상의 세

금 제도를 개편했는데 고전 시대 이래 이어져 온 가구별 징수의 관습을 타파하고 성인남자개인을 징수 단위로 바꾸어 세금 징수액을 현실화했다. 그밖에 인구의 정착과 증가를 권장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혜택으로 유도하는가 하면 기독교인 지역에서는 교회 신설과 수리를 쉽게 해 주는 등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90년의 원정 결과 니쉬, 비딘, 스메데레보, 골루바츠 그리고 마침내 베오그라드까지 수복하는 대단한 업적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합스부르크가 당시에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오스만 제국과의 전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후 1691년 6월, 노쇠해지고 병약했던 술탄은 사망했고, 두 달 후 베오그라드 북방의 슬란카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2만명의 사망자를 내며 대패했으며 파즐 무스타파마저 사망하고 말았다.



콘스탄틴 카프다올르가 그린 쉴레이만2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쉴레이만 2세, 쉴레이만 1세
- 다국어 표기 II. Süley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브라힘 1세, 쿠피릴뤼 가문, 지즈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8/S%C3%BCleyman_I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Süleyman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547~548.
Abdülkadir Özcan, "Süleyman 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8, pp.75~80.

I D170 | 쉴레이만 나지프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SÜLEYMAN NAZİF



쉴레이만 나지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쉴레이만 나지프(Süleyman Nazif)는 19세기에 활동한 튀르키예의 작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1870년 디야르바크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책 『Mizanü'l-Edeb, Divânçe-i Eş'âr Hulâsa-i Mantık』과 10권짜리 역사서를 집필한 사이트 파샤이고, 할아버지는 시인 이브라힘 제흐티이다. 이처럼 공직자, 시인, 학자를 배출한 집안의 분위기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익숙했고 아버지와 개인 과외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학했기에 자연스럽게 가치관과 사고 체계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아랍어와 페르시아를 가족으로부터 일찍 배울 수 있었고, 이후 유럽에 잠시 머물며 프랑스어를 배워 언어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다.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을 목격한 쉴레이만 나지프는 당대 지성인 나므크 케말, 지야 파샤, 미하트 파샤가 제국 수뇌부를 향해 쓴 소리를 던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동참하고자 노력했다. 그 배경에는 무타사르프(오스만 제국 시절 도보다 작은 행정구역의 장)로 아나톨리아 도시에서 재임했던 아버지 곁에서 빈곤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을 지켜보며 꾸준히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지프는 오스만 공공부채관리국 무쉬지사, 마르딘, 디야르바크르 시 의회에서 서기로 근무했으며, 도 출판국에서 편집장 역할도 담당했다.

1896년 그는 이라크 모술지역의 발리(오늘날 도지사과 유사)겸 지휘관으로 있었던 압둘라 파샤의 개인 비서로 활동하며 이라크 도시 모술과 술라이마니아에 거주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897년부터 8개월간 파리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시인 카뮈 망데스(Catulle Mendès)와 시인

겸 신문기자인 헨리 바뷔스(Henri Barbüs)를 만났다. 그리고 아흐메트 르자(Ahmet Rıza)의 신문 <메쉬베레트(Meşveret)>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썼다.

하지만 나지프의 유럽행과 오스만 왕조를 비판하며 썼던 글이 술탄 하미드의 의심을 사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이스탄불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술탄의 명에 따라 강제로 부르사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궁정에서 주시하고 있음을 감지한 후부터는 잡지 <세르베티 뤼논>에 글을 게재할 때 할아버지인 ‘이브라힘 제히티’의 이름을 차명했고, 이집트에서 쓴 『숨겨진 비명(Gizli Figanlar)』이라는 시집은 무명으로,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출간한 『알려진 메시지(Malumu İlam)』도 서점 주인인 압둘라흐라르 타히르의 이름으로 펴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쉬루티예티 칙령이 공포된 이후 이라크 바스라, 모술, 바그다드, 카스타모누, 트라브존 같은 중요한 거점도시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직업은 바브알리 골목에서 노트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한가롭게 거니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1915년 공무원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모든 시간을 글을 쓰는 데 집중했다.

나지프는 이스탄불을 연합국이 점령(1918년 11월 23일)한 다음 날 신문 <하디사트(Hadisat)>에 「불행한 날(Kara Bir Gün)」이라는 항의의 글로 신문 한 면을 채운 겁 없는 첫 번째 지식인이었다. 점령군을 향해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고, 유럽 사람들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의 언행을 가만히 두고 볼 일 없었던 영국 점령군 지휘관들에 의해 결국 ‘몰타섬’으로 유배를 당해 그곳에 20개월간 머물렀다. 그는 돌아와서도 한동안 잡지 <페야므 사바(Peyâm-ı Sabah: 조간신문)>, <손 텔그라프(Son Telgraf: 마지막 전보)>, <예니 세스 가제테레리(Yeni Ses gazeteleri: 새로운 목소리)>, <레심리 가제테(Resimli Gazet:그림이 있는 신문)>, <야른(Yarın: 내일)>, <마흐필(Mahfil: 회합장)>, <아스리 튀르키예(Asri Türkiye: 현대 튀르키예)>, <세르베티 뤼논(Servet-i Fünûn: 예술의 풍요로움)>등에 글을 기고했다.

문학연구자 에르질라순(Ercilasun B.)은 이런 나지프의 기질을 두고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과 연결 지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설레이만 나지프는 매우 똑똑하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며 민족적 감정이 강한 사람이다. 또한 ‘세르베티 뤼논’ 파나 ‘튀르크주의자’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학교 출신’ 같은 범주에 있지 않았고 오로지 강한 개성과 넘치는 에너지를 내뿜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자유분방한 모습

이 그만의 타고난 기질이 독립성임과 동시에 튀르크주의자에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였다.”

실제로도 나지프는 평생을 홀로 명확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관철시키며 살아갔다. 어린 시절에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으며,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났다. 그렇기에 그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생소한 환경 때문에 문득문득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고 낯선 감정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런 환경은 그가 독립적인 인간 형으로 성숙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실레이만 나지프의 『숨겨진 비명(Gizli Fıganlar; 카이로, 1906)』은 이집트 판례 인쇄소에서 찍은 30쪽 분량의 시집이다.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되는 이 시집에는 운율시 14편이 수록되었으며, 각각의 시는 무제이다. 당시 같은 인쇄소에서 출판한 42쪽 분량의 『알자지라 편지(Elcezire Mektupları, 1906)』에는 저자인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1908년에는 ‘압둘라하라르 타히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메시지(Malumu İlam)』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가 이스탄불에서 출판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해군에게 보내는 편지(Bahriyelilere Mektup, 제네바 1897; 카이로 1908)』, 『그리고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의 편지(Bir Mektubu, 부르사 1908)』, 『얼빠진 놈(Boş Herif, 1910)』, 『두 연맹체의 역사(İki İttifakın Tarihçesi, 1914)』, 『편지(Mektuplar, 1916)』, 『이라크의 이별(운문과 산문 혼합)(Firâk-ı Irâk, 1918)』, 『연설(Hitâbe, 1920)』, 『역사 속 뱀 이야기(Tarihin Yılan Hikâyesi, 1922)』, 『정치인 루트피 피크리에게 답변(Lutfî Fikri Bey'e Cevap, 1922)』, 『나뭇크 케말(Nâmık Kemal, 1922)』, 『불러라 목동이여 불러라(Çal Çoban Çal, 1923)』, 『나스렛딘 샤와 바브교(Nâsırüddin Şah ve Bâbiler, 1923)』, 『지야 파샤의 전집(Külliyyât-ı Ziyâ Paşa, 1924)』, 『몰타의 밤(Malta Geceleri, 시, 1924)』,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는 공개편지(Hazret-i İsa'ya Açık Mektup, 1924)』, 『도둑맞은 국가(Çalınmış Ülke, 1924)』, 『순교자의 기념비(Âbide-i Şühedâ, 1925)』, 『두 명의 벗(İki Doşt, 1925)』, 『퓌줄리(Fuzûlî, 1926)』, 『믿음에 대한 공격-모자(İmana Tasallut-Şapka Meselesi, 1926)』, 『레바논의 여인(Lübnan Kasrının Sahibesini, 이스탄불 1926, 피에르 베노이트의 작품을 번역)』, 『무신론자의 진실(Kâfir Hakikat, 1926)』, 『무너진 조직(Yıkılan Müessesesi, 1927)』, 『메흐메드 아키프(Mehmed Âkif, 이스탄불 1919, 1924(새 활자), 1971)』, 『수도의 역사: 갈리치아(Âsitâne-i Târîhte: Galiçya, 이스탄불, 1919(새 활자), 1971)』, 『포와 불씨(Batarya ile Ateş, 1917(새 활자), 1969, 1978)』, 등이다.

1927년 1월 4일 그는 이스탄불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 20쿠루쉬가 있었기에 장례식은 튀르키예 공군에서 비용을 지원해 치러질 수 있었다. 그의 묘지는 에디르네카프 공원에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레이만 나지프

●다국어 표기 SÜLEYMAN NAZİF(튀르키예어), SULEYMAN NAZIF(영어)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f/S%C3%BCleyman_Nazif-1.2.1.jpg

●참고문헌(오프라인) Alaettin İbrahim, *Süleyman Nazif*, Suhulet Kütüphanesi, İstanbul, 1933.

Beysanoğlu Şevket, *Doğumunun 100. Yılında Süleyman Nazif*, Diyarbakır Tanıtma ve Turizm Derneği Yayınları, Ankara, 1970.

Ercilasun Bilge, Süleyman Nazif, *Büyük Türk Klasikleri*, Cilt: 10, Ötüken Yayınları, İstanbul, 1990.

I D171 I 술레이만 데미렐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정치인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üleyman Demirel

술레이만 데미렐(1924년~2015년)은 튀르키예의 정치인이며 제9대 대통령(1923년~2000년)이다. 그는 당시 내각책임제 정치체제 하에서 1965년부터 1993년까지 7회에 걸쳐 수상을 역임했다. 총 기간으로 따지면 10년 5개월에 걸쳐 수상을 했는데 이는 이스메트 이뇌뉘(İsmet İnönü)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역임 기간이다.



술레이만 데미렐
<https://cdnuploads.aa.com.tr/>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가게 된 시기는 1964년 정의당의 당수로 선출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좌우익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던 1970년대에 제1차 민족연대와 제2차 민족연대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1980년에 들어선 군부쿠데타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여 True Path Party(정도당)의 당수가 되었다. 이후 1993년 대통령 투르구트 외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같은 해 의회에서 치러진 간접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레이만 데미렐
- 다국어 표기 Süleyman Demirel(튀르키예어), Suleyman Demirel(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메트 이뇌뉘, 투르구트 외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uploads.aa.com.tr/uploads/Contents/2023/06/16/thumbs_b_c_7af59a38840d906ef30f38d4301aa09e.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tccb.gov.tr/cumhurbaskanlarimiz/suleyman_demirel/
- 참고문헌(오프라인) “Turkey’s ninth president Suleyman Demirel passes away”. Anadolu Agency. 17 June 2014. Retrieved 20 June 2015.

I D172 | 쉴레이만 래히모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작품 ●유형 소분류2 소설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라틴 문자 Suleyman Rahimov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쉴레이만 래히모브(Süleyman Rəhimov)는 1900년 3월 22일 잔개주르(Zəngəzur) 지역(현재 구باط르(Qubadlı)에 속한 소도시) 시골 마을인 애으인(Əyin)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후 전문학교를 다녔고, 1921년부터는 도시 한릭(Xanlıq)으로 이주해 교사로 일을 시작했다. 슈샤(Şuşa)에서 교육학을 공부한 이후 잔개주르(Zəngəzur) 지역 여러 도시에서 교사로 재직한 후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

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역사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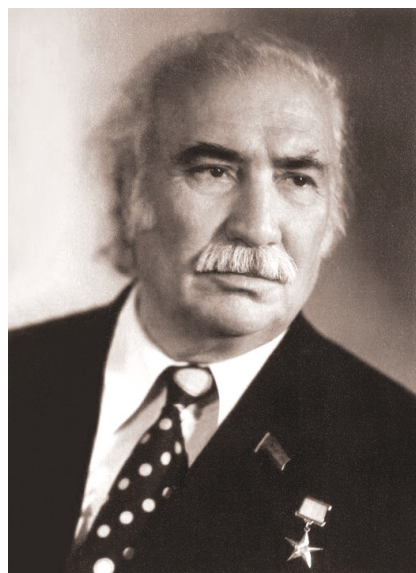
쉴레이만 래히모브는 정치인이기도 했다. 1934년~1937년에 도시 라츄(Laçın), 사무흐(Samux), 샤흐부즈(Şahbuz), 노라셴(Noraşen)에서 지역 정치인으로 활약했다. 이후 총 3차례(1939년~1940년, 1944년~1946년, 1954년~1958년)에 걸쳐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바쿠시 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일했다. 그리고 1941년~1944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국장을 역임한 후 1945년~1958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장관회의 문화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1930년대 문단에 데뷔했으며 첫 작품은 『샤모(Şamo)』이다. 이 책은 초판 이후에도 무려 50년에 걸쳐 계속 수정하고 보완 작업을 해 나갔다. 총 3부작으로 아제르바이잔 볼셰비키 운동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에트 강국을 위해 투쟁하는 등 역사적 사실보다 허구적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주요 작품으로 『털이 많은 사람(Saçlı)』, 『메달(Medalyon)』, 『매흐태반(Məhtəban)』, 『손님(Mehman)』, 『아그불라그 산들에서(Ağbulaq dağlarında)』, 『캅카스의 독수리(Qafqaz qartalı)』, 『어머니의 기념비(Ana abidəsi)』, 『멈추지 않은 말울음 소리(Kəsilməyən kişnərti)』 등이 있다. 『손님(Mehman)』은 영화 「법이라는 미명 하에(Qanun naminə)」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는 명예훈장(Şərəf nişanı, 1946), 붉은 노동 깃발(Qırmızı Əmək Bayrağı, 1959), 사회주의 영웅(Socialist məyi Qəhrəmanı, 1975), 국제친선(Xalqlar dostluğu, 1980)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레닌 훈장(Lenin ordeni)을 세번이나 받았다.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0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작가' 칭호를 받았다.

1983년 10월 11일 바쿠에서 생을 마감한 그는 바쿠 현충원 명예의 묘지(Fəxri Xiyaban)에 묻혀 있다.



쉴레이만 래히모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쉴레이만 래히모프
- 다국어 표기 Suleyman Rahimov(영어), Сулейман Рагимов(러시아어), Süleyman Rəhimov(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b/bb/S%C3%BCleyman_R%C9%99himov.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Rəhimov Süleyman, *Ədəbi Tənqiddə (Məqalələr)*, Bakı: Maarif, 2002.
Seyidov Yəhya, *Süleyman Rəhimov*, Bakı: Azərneşr, 1971.
Guliyev Hasan, *Rahimov Suleyman: the scope of works*, Bakı: Maarif, 2002.

I D173 | 쉴레이만나메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세밀화 ●유형 소분류2 서책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üleymanname

쉴레이만나메(Süleymanname)는 오스만 제국의 쉴레이만 1세(I. Süleyman, 재위: 1494년~1566년)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 버전의 판본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병기하여 다른 버전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세밀화 분야에서 쉴레이만나메는 페툴라 아리피 켈레비(Fethullah Arifi Çelebi, ?~1561/62년)가 페르시아어로 글을 쓰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명의 세밀화가가 작업에 참여한 버전의 쉴레이만나메를 일컫는 것이다.

아리피의 쉴레이만나메는 총 5권으로 된 『오스만 조의 왕의 책(Şâhnâme-i Âl-i ‘Osmân)』중 다섯 번째 책으로 1558년 완성되었다. 첫 번째 책에는 무함마드를 비롯한 이슬람교 예언자의 역사, 두 번째 책에는 이슬람의 탄생, 세 번째 책에는 셀주크 시대까지의 튀르크 국가의 역사, 다섯 번째 책인 쉴레이만나메에는 쉴레이만 1세 시대(1520년~1555년)의 주요 사건과 역사를 기록했다. 주된 내용은 술탄의 등극, 전쟁, 사냥, 원정 간 군대, 헝가리 군대와 병영, 쉴레이만 1세가 보냈던 사신을 응접하는 사파비 조 타흐마스프 1세(I. Tahmāsp, 재위: 1514년~1576년), 여흥을 즐기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1539 황자 베이아지드와 지한기르의 할레식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쉴레이만나메는 전체 총 6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밀화는 그중 69장이다. 한 장의 크기는 25.4cm x 37cm이고 연대기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세밀화는 사파피 타브리즈-카즈빈 스타일과 호라산 스타일로 그려져 있다. 현재 완결까지 모두 보존된 판본은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nr. 1517]에 보관 중이다. 이 판본은 1987년 미국에서 출간되기도 했다. 처음 제작된 후 후대에 장면을 추가한 판본이나 일부 누락 본, 낱장으로 보관하는 판본 등이 있고, 현재는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도서관에서 보관 중이다.

아리피의 쉴레이만나메 이외의 다른 버전은 보스탄 쉐레비(Boştan Çelebi)의 쉴레이만나메, 마트락츠 나수흐(Matrakçı Nasuh)의 쉴레이만나메, 구바리 키레츠치자데 마흐무드 쉐레비 이븐 아흐메드 쉐레비(Gubârî Kireççizâde Mahmud Çelebi b. Ahmed Çelebi) 쉴레이만나메 등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쉐레이만나메

●다국어 표기 Süleymanname(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쉐레이만 1세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9/Suleymanname_360a.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9/Suleymanname_360a.jpg

●참고문헌(오프라인)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alcıYayınevi, 2005.

Sağırılı, Aburrahman. "Süleymannam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8, İstanbul: TDV, 2010, pp.124~127.

Bağcı, Serpil., Filiz Çağman, Günsel Renda & Zeren Tanındı, Osmanlı Resim Sanatı, İstanbul, 2006.

Atıl, Esin. Süleymanname : the illustrated history of Süleyman the Magnificent, Washington : National Gallery of Art ; NewYork : H.N. Abrams, 1986.

I D174 | 슈랄레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라틴 문자 Shurale

슈랄레(Shurale)는 카잔 타타르와 바시키르인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 형상을 한 숲 귀신이다. 보통 길고 가는 손가락을 가졌으며 이마에 작은 뿔이 있고, 수염이 있는 등이 굽은 작은 키의 존재로 묘사된다.

슈랄레의 어원은 슬라브 신화에 나오는 ‘슈르’나 ‘추르’(шур, чур)같은 명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타르 신화에서 슈랄레는 남성의 형상 뿐 아니라 ‘알바스티’처럼 여성의 형상을 하기도 하는데 길고 축 늘어진 가슴을 등 뒤로 넘겨서 다니며 손가락이 긴 손을 가지고 있다. 바시키르 신화에서는 이마에 눈이 달린, 한 개의 발에 한 발로 다니며 때때로 통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인간 형상의 귀신으로 묘사된다.

슈랄레는 사냥을 하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와 아이도 있다. 바시키르 신화에서는 슈랄레의 아내, 딸과 인간이 결혼해서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전설이 여럿 있다. 하나의 숲에는 여러 슈랄레가 살고 있으며 인간에게 길을 잃게 만들어 숲 깊은 곳으로 유인해 간지럽혀 죽인다고 한다. 슈랄레는 물을 무서워해서 슈랄레를 피하려면 개울을 건너면 된다. 간혹 목장에서 말을 훔쳐 타고 다니는데, 말이 죽을 때까지 내몰기 때문에 말 등에 역청을 발라 슈랄레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 슈랄레를 잡는 방법은 다양한 데 그중 하나는 슈랄레에게 손가락을 나무 구멍에 넣어보라고 부추긴 다음 쇠기를 박는 방법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쉬렐레

●다국어 표기 Şürele(아제르바이잔어), Шурале(러시아어), Şürele(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인, 알바스티

●참고문헌(온라인) 바시키르 백과사전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467>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654.

I D175 | 슈르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정신 속성
- 집필자 김근식 ●라틴 문자 Syur

‘슈르’는 ‘틴’, ‘쿠트’와 함께 ‘텡그리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정신 속성 중 하나이다. ‘슈르’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함께 자라난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 심리적 세계와 관련된다. ‘슈르’를 모습, 외모 등으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의미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슈르’는 주체가 되는 인간 외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만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서 너를 보았다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아마 너는 내 ‘슈르’를 본 것 같아’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슈르’는 쌍둥이 혹은 모습이 같은 유령, 즉 분신을 의미한다.

베르비츠키의 알타이 민족 신앙 연구에 따르면 ‘슈르’는 모습, 묘사,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가축에게도 ‘슈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슈르’는 ‘쫓는다’, ‘쫓아낸다’라는 의미의 동사 ‘슈류프’에서 유래했다. 이 동사는 죽음으로 인해 영혼이 인간에게서 쫓겨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르트’에서 사람이 죽고 난 후 40일째 되는 날 곳을 하며 망자를 내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르틴, 슈르틴

●다국어 표기 сюр(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텡그리, 유르트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 672 с.

Вербицкий, В.И. «Алтайские инородцы: сборник», Рипол Классик, 1881, 78.

Безертинов, Р. Н. “Встреча с Душой,” Тенгрианство и эп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народов Евразии: исто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17, 109.

Гусейнова Ульявия Гусейн Гызы, Концепт «Смерть» в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Вестник ВятГУ. 2015. №5.

<https://cyberleninka.ru/article/n/kontsept-smert-v-drevnetyurkskoy-yazykovoy-kartine-mir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08.2021).

I D176 | 슈메산의 불교 사원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사원
-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Budha of the Syume Mountain

슈메산의 불교사원은 19세기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투바 영토의 차아아 켈(Çaa Khöl) 강이 울루그 켄 강(예니세이)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역인 슈메산에서 발견되었다. 초루말-부르하늑(Çorumal-Burhannıg)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땅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그림은 벽에 부조기법으로 만들어진 다음 칠해졌다.

19세기에 중앙아시아의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이 처음 방문했다고 전해지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881년 우르얀하이(투바 영토)를 최초로 탐험한 ‘아드리아노프’(A. V. Adrianov)에 의



슈메산의 불교 사원(엘리스타, 러시아)

해 학술지에 자세히 게재되었다.

이 사원은 투바 영토 내에 위치한 최초의 불교 사원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 일체의 종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원이 1963년 러시아 최대 규모 발전 시설 중 하나인 사야노 수센스카야 수력 발전소 강 하구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메산의 불교 사원
- 다국어 표기 Budha of the Syume Mountain(영어), Buddha gory syume / Будда горы Сюмэ(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менов, В. “Будда гори сюмэ”.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ы Тувы içinde (с. 95). Москва: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зд. центр, 2006.

I D177 | 슈밧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Shubat



슈밧

‘슈밧’은 낙타 젖을 발효시킨 전통음료로써 말 젖을 발효시킨 음료인 ‘크므스(쿠미스)’와 함께 카자흐인들이 옛날부터 즐겨 마셨다. 투르크멘인들도 많이 마시는데 그들은 ‘슈밧’이 아닌 ‘찰(chal)’이라고 부른다.

강한 신맛을 가지고 있는 슈밧은 제조과정과 보존여건이 매우 까다롭다. 알려진 슈밧 제조법에 의하면 첫 번째 순서는 낙타 젖을 가죽 가방이나 도자기 단지에 붓고 섭씨 25도를 유지한 채 8시간 동안 발효시킨다. 그리고 난 다음 20도로 낮추어 16시간을 담가둔다.

슈밧은 만들어진 후에도 적당한 온도에 보관해야만 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이 힘들어 외국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이었다. 그렇지만 ‘크므스’와 함께

유산균과 비타민 A, B1, B2,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채소를 잘 섭취하지 않는 카자흐 유목민들이 이를 통해 영양을 보충해왔다. 현대에도 1리터 정도면 하루 필수 비타민 C를 거의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카자흐인들이 즐겨 마시는 만큼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명절에는 슈밭이 ‘크므스’와 함께 늘 등장하는데 색깔과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려면 자세히 관찰해야만 한다. 슈밭은 크므스에 비해 지방 성분이 높고(대개 유지방 8%로 표기됨), 마실 때는 흔들지 않고 골고루 잘 저어서 먹는다. 슈밭의 제조 기술은 현재 카자흐스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슈바트

●다국어 표기 шубат(카자흐어), çal(투르크멘어), chal(우즈베크어), шубат(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찰(chal), 크므스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qOxyF-j5u8>

●참고문헌(온라인) <https://silkadv.com/en/content/shubat-v-kazahstane>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Ⅰ D178 | 슈쿠르 헐미르자예브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ukur Xolmirzayev

우즈베크 현대 문학가 슈쿠르 헐미르자예브(Shukur Xolmirzayev)는 1940년에 수르한다리야 주(Surkhandarya)의 보이순(Boysun)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타슈켄트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25세가 되던 해에 『열여덟살이 되지 않은 이가 누가 있는가?(O'n sakkizga kirmagan kim bor?, 1965)』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세대마다 다르게 겪는 운명을 묘사했는데, 이 작품은 당시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비평가들의 토론 주제로 회



슈쿠르 험미르자예브 선집 표지
 Source: <https://assets.asaxiy.uz/product/items/>

자되었다.

슈쿠르 험미르자예브의 대표작은 『인생은 영원하다(Hayot abadiy)』, 『무거운 돌이 움직이면(O'gir tosh ko'chsa)』, 『마지막 정류장(So'nggi bekat)』, 『절벽 위에(Qil ko'prik)』, 『여객(Yo'lovchi)』, 『괴물(Olabo'ji)』, 『공룡(Dinozavr)』 등의 소설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그의 소설 및 수필 속에 등장하는 인물 대다수는 전통적, 영적,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진보된 사고를 가진 이들인데,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구속되지 않은 독특하고 풍부한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슈쿠르 험미르자예브(Shukur Xolmirzayev)는 극작가로도 활동하며 독립을 위해 투쟁한 우즈베크인의 민족애를 사실 그

대로 예술에 반영했다. 대표작으로는 『검은 벨트(Qora kamar)』, 『겨울에 아몬드 꽃이 피었다(Bodom qishda gulladi, 1986)』, 『꺼지지 않는 불(So'nmas olov, 1985)』, 『산에 눈이 떨어졌다(Toglarga qor tushdi, 1987)』이 있다.

그는 1989년에 ‘함자 국가상’을 수상했으며 1991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1999년에는 ‘노동훈장’(Mehnat shuhrati)을 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2005년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슈쿠르 험미르자예프
- 다국어 표기 Shukur Xolmirzayev(우즈베크어), Шукур Холмирза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ssets.asaxiy.uz/product/items/desktop/0231abb15bedbf94daef5b64527880e62021012013231855901quFP6PSg5S.jpg.webp>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XX asr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99.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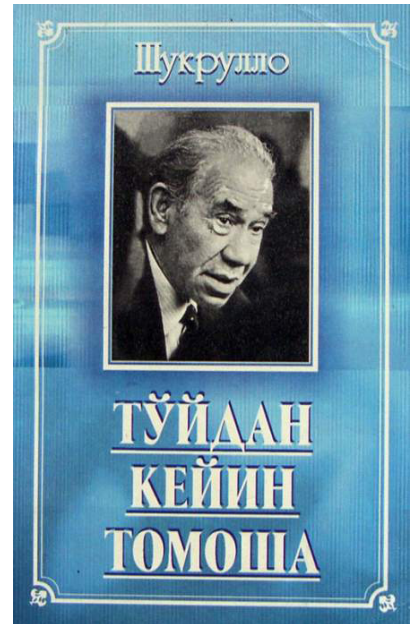
I D179 | 슈크롤러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ukrullo

우즈베크 현대 시인인 슈크롤러 유수퍼브(Shukrullo Yusupov)는 1921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4년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에서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과 예술문학 출판사의 편집인으로 근무했다.

슈크롤러(Shukrullo)의 첫 번째 시 『행복의 법칙(Baxt qonuni)』이 1939년에 출판된 후 1949년에 『첫 번째 공책(Birinchi daftar)』, 『마음의 노래(Qalb qo'shiqlari)』, 『러시아(Rossiya)』, 『두 바위(Ikki qoya)』, 『26일의 새벽(26 tong otari)』을 발표했다. 이어 『더스톤(Dostonlar, 1970)』, 『모래알(Zarralar, 1973)』, 『버팀목(Suyanchiq, 1977)』, 『살고싶다(Yashagim keladi, 1978)』, 『너의 행복(Sening baxting, 1986)』 『수의(獸醫)없이 매장된 자들(Kafansiz ko'milganlar)』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그는 『삶이 주는 영감(Hayot ilhomlari)』, 『내가 사는 한(Umrim boricha)』, 『인간과 은혜(Inson va yaxshilik, 1961)』, 『인간이 인간을 위해(Inson - inson uchun, 1964)』 같은 작품에서는 인간의 영적 성숙을 주제로 다뤘다.

또한 우정이나 애국심 그리고 고향의 자연에 대한 마음을 그린 아동문학 작품도 있다. 한편 『봄의 선물(Bahor sovg'asi, 1962)』, 『별들(Yulduzlar, 1964)』, 공화국 극장에서 상영된 희곡 『위험한 길(Xatarli yo'l)』, 『미소의 도둑들(Tabassum o'g'rilari, 1977)』, 『결혼식 이후(To'ydan keyin tomosha, 1974)』, 『소리 없는 울음(Unsiz faryod, 1990)』, 『강도는 도둑을 강탈했다(O'g'rini qaroqchi urdi, 1984)』 등은 그의 대표적 희곡으로 손꼽힌다.



『결혼식 이후(To'ydan keyin tomosha)』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그는 카를로 거지(Carlo Gozzi)의 드라마 『I Pitocchi fortunati』와 알렉산드르 블로크(A. Blok), 호브한네스 투마냘(Hovhannes Tumanyan), 알렉산드르 트바르도브스키(Aleksandr Tvardovskiy), 데이비드 쿠굴티노프(David Kugultinov)의 시를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서사시 『타슈켄트 26일이 새벽(Toshkent, 26 tongotari)』으로 공화국의 국가상을 받았다.

그는 청년기였던 1951년 민족주의자 및 반(反)소련 선동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1955년 석방되었다.

그는 2020년 7월 19일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슈쿨롤로, 슈쿨롤라
- 다국어 표기 Shukrullo(우즈베크어), Шукрулл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437.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uzbek-nasri/shukrullo/>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XX asr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99.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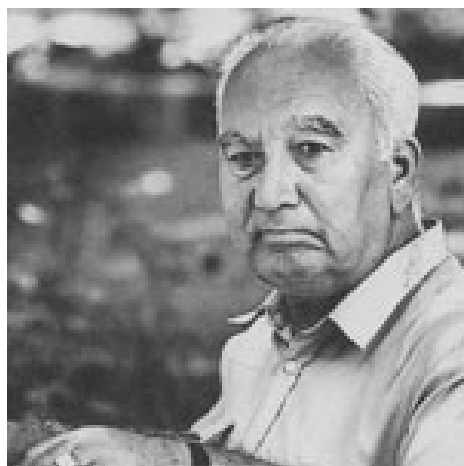
I D180 | 슈흐랏

-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Shuhrat

우즈베크의 시인, 산문작가이자 극작가인 슈흐랏은 1918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1936년-1940년)에서 수학했다. 본명은 굴림 알리머브 알림전 어너비츠(G'ulom Alimov Aminjonovic)이다.

그는 1940년 시집 『욕망과 복수(Istak va o'ch, 1940)』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나 그해 제2차

세계 대전에 장교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갔다. 전쟁 후 공화당의 신문과 잡지에서 문학관련 업무를 하며 조국과 인간, 사랑과 애정, 존엄성과 가치, 노동과 근면함을 노래하는 작품 『생명의 숨결(Hayot nafasi, 1947)』, 『형제(Qardoshlar, 1950)』를 비롯해 『우리의 거리(Bizning ko'cha)』, 『청소년기(Balog'at, 1957-1958)』, 『우물(Quduq, 1973)』, 『당신의 사랑(Sening sevging, 1961)』, 『너의 사랑으로 불타며(Ishqingda yonib, 1964)』, 『캅카스의 수첩(Kavkaz daftari)』, 『소녀의 미소(Qiz tabassumi)』, 『위대한 사랑(Buyuk muhabbat)』 등을 발표했다.



슈흐랏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마크수드 샤이흐저다(Maqsud Shayxzoda), 사이드 아흐마드(Said Ahmad), 슈크룰러(Shukrullo)와 함께 압둘라 커드리이(Abdulla Qodiriy)와 출판(Cho'lpon)의 작품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사상을 의심받게 되면서 결국 카자흐스탄 북부 감옥에 5년간 투옥되었다.

출소 후 그는 독재정권이 무고한 이들을 모함하여 투옥하고 처벌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소설 『황금은 녹슬지 않았다(Oltin zanglamas, 1967)』 『낙원을 찾는 사람들(Jannat qidirganlar, 1968)』을 발표한다. 그 밖에도 삶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표현한 시집 『서정시(Lirika, 1973)』, 희곡 『닷새짜리 신랑(Besh kunlik kuyov)』,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Qo'sha qaringlar)』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여 우즈베크 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 외에도 번역가로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일본, 베트남 시인들의 시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슈흐랏(Shuhrat)은 1978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명예로운 문화 노동자', 1986년에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작가' 칭호를 받았으며, 사망 이후 2003년 '국가 공로 훈장'(Buyuk xizmatlari uchun)을 수상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 문학가는 사이드 아흐마드(Said Ahmad), 하미드 굴롬(Hamid Gulom), 투롭 톨라(Turob To'la), 아스카트 무흐터르(Asqad Muxtor), 미르무흐신(Mirmuhsin), 슈크룰러(Shukrullo) 등이었다. 1993년에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슈라트, 슈흐라트
- 다국어 표기 Shuhrat(우즈베크어), Шухра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하미트 굴럼, 미르무흐신, 슈크롤러,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어,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ru/3/34/Shuhrat1918-1993.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uzbek-nasri/shuhrat/>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mov Gulom, *Ozod qalb kuychisi Shuhrat*, Alisher Navoiy nomidagi O'zbekiston Milliy kutubxonasi, Toshkent, 2008.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I D181 | 스가낙

-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ygnak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키스탄 주에 위치한 스가낙은 현재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카자흐 칸국 초기(1469년-1511년, 1521년-1599년)만 해도 국가 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도시다. 그래서 인근의 사우란, 사이람, 투르키스탄 등 역사적 고도들과 함께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가낙에 거주지가 형성된 것은 5세기-6세기로 추정되지만 10세기에 이르러서야 아랍 문헌에 등장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1세기 마흐무드 알-카쉬가리의 저서에는 ‘오구즈 족의 도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12세기에 킵차크 종족의 수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3세기 초, 몽골 칭기즈 칸 부대의 공격을 받아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14세기에 또다시 복구된 후 동전 제조공장이 있을 만큼 킵차크 칸국(the Golden Horde)의 중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발전해 나간 끝에 악오르다(the White Horde)의 수도가 되었다. 사실상 킵차크 한국 분열 시에 또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티무르 제국의 발전으로 티무르 군대와 스가낙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분쟁이 일어

나면서 스가낙은 다시 전란의 피해를 겪게 되었다. 특히 북쪽에서 남하한 우즈베크족 아불-하이르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훗날 카자흐인과의 지역 쟁탈전의 중심이 되었는데 다행히 15세기 중엽, 카자흐 칸국이 등장하면서 수도로서의 입지와 카자흐인의 역사적 연고지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16세기에 들어서 남쪽 우즈베크인과의 분쟁, 17세기 동쪽의 준가르족이 침입하면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실크로드의 경제적 의미는 축소되어 있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 회복하기엔 힘든 상태였고 존재 자체도 잘 알려지지 못했다. 그 결과 19세기 무렵에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간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의 사정에 의해 잊혀진 도시로 전락하여 1924년 소련 당국의 행정구역 재설정 당시 과거 카자흐 칸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반영되어 카자흐 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스그낙

●다국어 표기 Сығанақ(카자흐어), Сыгнак(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사우란, 사이람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XKMZt1KLiY>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KUZU>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D182 | 스벤 헤딘

●시기 A.D. 1800년 ~ 현대 ●지역 기타 ●나라 스웨덴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탐험가
●집필자 장주영 ●라틴 문자 Sven Anders Hedin

스벤 헤딘은 중앙아시아를 탐험한 스웨덴 출신 탐험가이다. 21세에 러시아령 중앙아시아 탐험 이후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 스톡홀름 대학에서 지질학, 동물학, 물리학을 수학했고, 베를린에서는 아시아 대륙 탐험가이자 '실크로드'라는 명칭을 만든 리히트호펜으로부터 자연지리학, 역사지리학, 고생물학을 공부했다. 그는 1890년 중국령 중앙아시아 카쉬가르로 떠나 그곳에서 영



스벤 헤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허즈번드 대위를 만났는데, 이후 총 3번에 걸쳐 중국령 중앙아시아를 탐험했다.

1895년 2월 17일 38번째 생일날 떠난 제1차 탐험에서 스벤 헤딘은 타클라마칸을 횡단하여 야르칸트 강과 호탄 사이의 사막 서남쪽을 측량한 이후 티베트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함께 떠난 대원들이 물을 챙겨오지 않는 실수를 범해, 결국 동행했던 대원 중 카심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으며, 낙타8마리, 경비견2마

리, 양3마리, 암탉10마리, 수탉 1마리 중 낙타 1마리만을 남긴 채 모두 죽었다. 헤딘은 이 1차 탐험에서 측량기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잃어 버렸으며, 일기, 지도, 돈만 가진 채 돌아왔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이루어진 제2차 탐험에서 그는 이슬람 바이 이외에 3명의 대원을 더 고용했으며, 방향을 바꿔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 가장자리를 돌아 호탄에 도착했다. 호탄은 매년 여름 산에서 녹은 물이 흘러 강이 범람하면 황토가 씻겨 내려가며 모래 속에 묻혀 있던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이곳에서 작은 유물 몇 점을 수집했고, 지역 유물 도굴꾼들에게 약 500여점의 유물을 구입했다.

제2차 탐험 이후 스웨덴으로 돌아온 헤딘은 이미 일약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가 탐험 도중 수집한 유물은 스웨덴 스톡홀름 스벤 헤딘 재단이 소유한 방대한 중앙아시아 유물 수집품의 기초가 되었다.

1905년부터 1908년 3년간은 제3차 타클라마칸 탐험에 나섰다. 중앙아시아 탐험 도중 타클라마칸과 누란 왕국의 흔적을 최초로 발견한 헤딘은 영국인이 아님에도 영국에서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으며,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왕립지리학회에서 금 훈장 2개를 받았다.

이처럼 한때 초창기 탐험 공로를 인정받아 칭송받았던 그였지만, 1952년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무렵 유대인 출신임에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스웬 헤딘, 스벤 앤더스 헤딘
- 다국어 표기 Sven Anders Hedin(스웨덴어), Gedin Sven Anders(우즈베크어), 斯文·赫定(중국어), Гедин, Све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실크로드, 타클라마칸 사막, 누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c/Sven_Hedin_by_Carl_Emil_%C3%96sterman_192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opkirk, P., Case, D.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Books on Tape, 1990.

I D183 | 스브즈그

- 시기 기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음악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근식, 김홍중 ●라틴 문자 Sybyzgy

흔히 ‘시비즈기’라고도 불리는 ‘스브즈그(сыбызгы, sybyzgy)’는 카자흐를 비롯하여, 바시키르, 노가이, 카라칼팍과 같은 투르크 민족들이 사용하던 세로로 된 민속 관악기이다. 스브즈가(сыбызга)라고도 한다.

길이는 60cm~65cm이며, 음계는 4개~6개의 구멍으로 제한된다. 특히 목제 스브즈그는 세로로 흡을 파서 만드는데, 기둥 바깥쪽에 덮는 동물의 내장이 두 조각을 팽팽히 잡아주며 동시에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연주하지 않을 때는 관에 나무 심을 넣어 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간혹 상단 끝부분에서 소리를 더 쉽게 내기 위해 뿔이나 구리로 만든 얇은 뚜껑을 엮기도 한다. 이 스브즈그는 주로 양치기나 말 관리인들이 연주했는데, 살구 나무나 산관불 나무로 만들었다. 요즈음 흔하게 연주하는 악기는 아니다. 이 악기는 특히 카자흐 민족에게 중요한 악기로 ‘큐이’라는 서정적인 내용이 두드러진 독주 작품 목록을 갖고 있다.



스브즈그 연주 모습

4개 구멍의 스브즈그의 음역대는 d1 - e1 - fis1 - g1 - a1이며, 6개 구멍의 스브즈그의 음역대는 c1 - d1 - e1 - f1 - g1 - a1 - h1이다. 6개 구멍의 스브즈그는 오늘날 더더욱 드물다.

카자흐스탄에는 두 종류의 스브즈그가 있는데 서로 다른 연주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동부의 스브즈그는 원추형으로 비교적 짧고 직경이 더 작은 형태이다. 반면 서부의 스브즈그는 더 크고 긴 형태를 갖고 있다.

유라시아의 여러 민족이 스브즈그와 유사한 악기를 연주하는데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카발(kaval), 바시키르의 쿠라이(курай/Quray), 투르크멘의 가르기 튜이두크(Гаргы-тюдук/Gargy-Tyuyduk), 몽골의 초오르(Tsuur/Цоор), 알타이의 쇼오르(шоор/shor) 등이 그것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비지그, 시비직, 스브즈, 시비스크, 시비스기, 시비지기

●다국어 표기 сыбызгы(카자흐어), һыбызгы(바시키르어), сыбызгы(카라차이발카르어), сыбызгы(노가이어), сыбызгы(타타르어), сыбызгы(키르기스어), Сыбызгы(러시아어), Sibizg'a(우즈베크어)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큐이, 쿠라이, 노가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k/4/42/Sibizgi.jpg>

시비즈기 큐이 이르티시 리듬

<https://www.youtube.com/watch?v=DR8kj-YnqYc>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зык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1. - Т. 5. - С. 357. - 1056 с. Вертков, К. А., and Георгий Иванович Благодатов. Атлас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Гос. музыкальное изд-во, 1963, 131.

I D184 I 스키타이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chthians

고대 그리스인은 흑해 북쪽 돈강에서 프루트강에 이르는 초원지대를 ‘스퀴티아’(Skythia)라고 부르고 그 초원에 살았던 페르시아계 민족을 ‘스퀴트인’ 혹은 ‘스키타이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키타이’라는 민족명이 유래되었다.

그들은 BC 6세기~BC 3세기경 가장 활발히 활동했는데 학자에 따라 BC 8세기~BC 2세기로 넓게 보기도 한다. 외관상으로는 항아리의 부조(浮彫)나 무덤에서 발견된 인골에 의하면 페르시아계 유럽인종에 속하고 장신에 강건한 체구를 가졌으며, 광대뼈가 나옉고 털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외모적 특성을 근거로 학자들은 스키타이족이 BC 11세기경 볼가강 중류 지역에서 침투한 민족과 원주민의 혼혈에 의해 형성된 민족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스키타이를 4개의 집단, 즉 왕후(王侯)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농민 스키타이, 농경 스키타이로 구분했다. 이 중 왕후 스키타이가 지배자로서 군림하며 아조프해(海) 북쪽 연안에 궁전을 건립하고 돈강과 드네프르강 사이의 초원과 크림반도를 영토로 정했다. 이후 스키타이 왕국은 왕후 스키타이가 다른 스키타이를 종속국처럼 통솔하는 연맹적(聯盟的) 성격이 강한 국가였으며, 시기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BC 7세기 말부터 BC 5세기 말까지 흑해 연안과 근동을 중심으로 존속했던 유목민 성격이 강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BC 4세기경부터로 전성기를 누리며 주로 카스피해 연안과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농경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세워 주변국들과 활발한 무역 관계를 유지했던 때이다. 세 번째 시기는 BC 5세기 이후로, 주로 정착 생활을 하며 농사를 국가의 기반으로 삼은 시기를 말한다.

스키타이족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키메르인(人)과 함께 BC 9세기경 가장 일찍 유목민화했다. 민첩하고 강력한 기마민족이 된 이후 BC 7세기경 소아시아 및 시리아 방면을 침범했으며 BC 6세기에는 키메라인을 캅카스의 쿠반강 유역으로 쫓아내고 근거지를 아조프해 북부로 옮

기고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서 도나우강 중류 지대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런 확장을 경계한 페르시아의 다리이오스 대왕은 스키타이 원정을 감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BC 4세기 서방 초원에서 사르마트인이 침입하면서 왕후 스키타이는 주 영토에서 쫓겨나고, BC 3세기에는 켈트인에게 압박당하여 서방의 지배권을 상실하고 드네프르강 하류와 크림반도에서만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BC 2세기 약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사르마트인과 보스포루스 왕국의 공격받아 멸망했다.

처음 스키타이의 실체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헤로도토스의 명저 『역사』(제4권 13장과 16~36장)였다. ‘헤로도토스’는 말모라도 출신의 이리스데아스가 동행(東行)하여 잇세트네스인이 사는 곳까지 왕복한 사실을 전하면서, 스키타이인들의 동방 교역로를 소개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리스데아스는 흑해 동북방에 있는 아조프해에서 출발하여 돈강을 건넌 후 불가강을 따라 북상하다가 우랄산맥을 넘어서 줄곧 동진한 끝에 드디어 잇세트네스인이 사는 말타아 산맥 지대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7명의 통역원이 필요할 정도로 연도(沿道)마다 각기 다른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돈강 유역에는 사우로마다이인이, 돈강으로부터 불가강 중류까지의 지역에는 브테노이인과 케로스인이 살았으며, 그 동북 편에는 인구가 많은 뤼사케다이인에 이어 유르가이인과 스키타이 분파, 알켓바이오이인이 각각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잇세트네스인의 거주지가 있다.

하지만 스키타이가 동방 원거리 교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교역했는지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언급이 없다. 단지 당시 스키타이가 그리스의 식민지를 통해 그리스인들과 주고받은 물품들을 통해 스키타이의 동방 교역품 내역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아마 스키타이는 그리스에 말·기장·콩류·아마·모피·황금 등을 수출하고 금은 장식품과 상아 세공품·청동기 등을 수입했을 것이다. 반대로 동방에서는 동방 특산의 모피·견직물·세공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스키타이의 동방 교역은 동물 문양 등 특유의 스키타이 문화와 그에 수반된 그리스 문화가 동전(東傳) 되는 계기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스키타인
- 다국어 표기 Σκύθης(그리스어) Iskit(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스키타이족의 황금제 장식품

<https://zrr.kr/2aSp>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D185 I 스타인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기타 ●나라 영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인물 ●유형 소분류2 학자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tein

스타인(Sir Mark Aurel Stein:1862~1943)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이다. 그는 빈과 라이프치히 등에서 고고학과 측량학 및 언어학을 전공했으며 산스크리트어와 페르시아어, 투르크어를 습득했다. 188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대영박물관에서 연구를 심화했으며 1888년에는 인도로 건너가 라호르 동방 대학 학장과 이어 캘리컷 이슬람 사원 부속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후 인도 서부 지역을 답사했다. 1904년부터는 인도 고적답사국(Archeological Survey of India)에 취직하면서 정부에 중앙아시아 탐험 계획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 계획에 근거해 1905년부터 19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탐험을 단행했다.



스타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제1차(1900년~1901년) 탐험은 타림 분지 남도의 호탄, 니야 지역의 주거지(址)와 불교 유구를 발굴 조사하여 벽화, 판화, 소조, 목간 등을 발견했다. 그 후 1907년 제1차 중앙아시아 탐험에 관한 보고서인 『고대 호탄, 중국 투르키스탄 고고학 탐사 상세 보고서, Ancient Kkotan, Detailed Report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s in Chinese Turkestan(2 vols)』를 옥스퍼드에서 출간했다.

제2차(1906년~1908년) 탐험은 호탄에서 동쪽으로 향해 미란을 조사한 다음 둔황 천불동(막

고굴: 莫高窟)에서 고문서, 회화, 한 대의 목간 등을 발견해 타림 분지를 거쳐 돌아왔다. 이 탐험에 관한 기록인 『세린디아, Serindia(5 vols)』역시 옥스퍼드에서 1921년 출간되었다. 스타인은 이 두 번의 탐험에서 쌓은 공적이 인정되어 1910년에 ‘CIE’(인도 최하위 작위)를 수여받았고, 2년 후에는 ‘KCIE’(인도의 최상위 작위)를 수여받아 경’(Sir)의 칭호를 얻게 된다.

제3차(1913년~1916년) 탐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타림분지 남도의 여러 유적과 돈황을 재조사하고, 서하의 고도 카라코트와 투르판 지역의 고분을 발굴, 북쪽 길에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세이스란 지방까지 이르렀다. 이 탐험에 관한 보고서도 『가장 깊은 아시아, Innermost Asia(4 vols)』라는 제목으로 1928년 옥스퍼드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1925년 보스턴에서 그가 중앙아시아 탐험에 관해 발표한 개략적인 보고를 묶어 1933년에 출간한 책이 『고대 중앙아시아 길에서, On Ancient Central-Asian Tracks』이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인도, 아프가니스탄, 서아시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렐스타인, 아우렐 스타인, 오렐 스테인

●다국어 표기 斯坦因(중국어), Aurel Stein(영어)

●연관 검색어 호탄, 돈황, 투르판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3/Aurel_Stein_1909.jpg/800px-Aurel_Stein_1909.jpg

●참고문헌(온라인) 미술사 대사전, 오렐 스타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7269&cid=42636&categoryId=42636>

실크로드 사전, 스타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124&cid=62093&categoryId=62093>

중국역대인물 초상화, 사탄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73575&cid=62064&categoryId=62064>

●참고문헌(오프라인) Hopkirk, Peter,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The Search for the Lost Cities and Treasures of Chinese Central Asia.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I D186 | 스테푸슈카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강인욱 ●라틴 문자 Stepushka

스테푸슈카(Stepushka)는 러시아 알타이 고원지대에서 발견된 초기 투르크 시대의 유적이다. 흉노가 멸망하고 난 이후 투르크가 등장하기 이전 알타이 지역의 역사는 유적이 발견된 예가 매우 적어 증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유적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을 근거로 정리한 시대적 구분은 불란-코바 문화로 대표되는 ‘흉노기’(B.C. 1세기~A.D. 3세기), 흉노가 사라진 후에 대형고분이 부재하며 흉노의 철기와 화살 부속 등을 사용했던 ‘코크파쉬 단계’(A.D. 3세기~5세기 중반), 개마가 등장하며 금속제 등자가 발견된 ‘꾸드이르게 단계’(A.D. 5세기 중후반~7세기), 투르크 카간이 성립되어 제국의 단계로 진입했던 ‘투르크 단계’(7세기 이후) 등으로 편년할 수 있다. 스테푸슈카 유적은 그중 A.D. 3~5세기 지배층이 흉노에서 ‘고(古) 투르크 카간’으로 본격적으로 바뀌기 전 선비-유연 시기의 과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11호분의 여성묘에서 내몽골 중부 지역 선비묘 장에서 많이 발견된 청동 장식들이 출토된 것으로 이는 선비문화가 유연 제국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남부 알타이로 확산되었음을 방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구조는 얇은 적석(또는 죽석)과 밑에 직사각형의 묘광을 설치한 무덤과 장방형의 제사 유구로 나뉘며 장법은 단인장(單人葬)이며 묘광 내에 괴석을 돌려서 석곽을 만들기도 했지만, 목곽의 흔적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 또한 주요 유물로는 삼익식 철촉, 철검, 각종 교구, 동북, 궁이 등이 있다. 그중 특이하게 철사를 꼬아 만든 재갈도 발견되었다.

이와 흡사한 스테푸슈카-1 유적의 제19호 고분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A.D. 4세기말~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이 고분은 5.2mx.3.4m크기의 죽석을 하여 봉분을 얇게(0.3cm) 하고 묘광에는 호석을 둘러쳤다. 묘광은 토동묘로 시신은 옆으로 판 안쪽에 넣었고, 그보다 약간 높은 레벨에 말뼉을 부장했다. 부장 유물로는 마구, 활촉, 철검, 요대 장식 등이 다양하게 나왔다. 이 유적에는 비교적 유물이 풍부해서 그간 애매했던 시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다.

북아시아 역사에서 같은 시기를 살펴보면 요령 지역에서 삼연 문화가 등장했으며 자바이칼 지역에서는 두로이 문화가 번성하고 있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스텝우슈카

●다국어 표기 Степушка(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흉노, 선비, 유연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регин Н.Н. Матренин С.С.,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2016.

강인욱,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7.

I D187 | 스텝 문명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나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분류 ●유형 소분류2 시대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Steppe Civilization

‘스텝 문명’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번성했던 고대 문명이다. 이 문명권의 초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기마병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馬)은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이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보스포루스 킴메르족의 화병에 그려진 스키타이 기마병의 모습과 B.C. 3세기에 중국인들이 만들었던 기마병단(중국인들은 치마 대신 바지를 입는 훈족의 기마병을 보고 배워서 기마병단을 만들었음) 등이 있다. 즉, 스텝 문명의 중심은 기마 문화였다. 예로부터 서구에서는 이러한 초원인을 ‘페르시아인’이라고 간주했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투르크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텝 문명’에서 말(馬)은 여타 기마 유목 문화의 말과 그 지위가 달랐다.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선 종교, 사상, 윤리와 같은 정신적 가치에 이르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문화 덕분에 사회가 안정화되고 더 다양한 조직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들은 말을 길들여 짐을 싣고 수레를 끌게 했다. 말을 승용마로 사용했다는 점은 기존의 유

목 문화와 판이한 다른 점 중 하나이다. 초원인은 한곳에 머물지 않았고, 늘 넓은 초원과 물가를 찾아다녀야 했기에 이동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동 시에 언제나 가축들도 함께 이동해야 했으므로 가축들을 평상시에는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생산 도구로 쓰다가 이동할 때는 승용마로 사용했다. 이런 생활방식은 승마 기술의 발전을 초래했고, 자연스럽게 말을 사용하는 발달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어주었다. 따라서 ‘스텝 문명’은 경제·군사적으로 다른 사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다. 반면 유목 문화에서 말(馬)은 물질적인 도움 이상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말은 초원의 정치, 종교,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스텝 문명’을 대표하는 훈족은 기수, 궁수 교육을 매우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은 양 등에 타고 균형감을 익힌 후, 다람쥐, 족제비, 새를 쫓으면서 조준하는 기술을 익혔다. 훈족은 자신들이 말 위에서 먹고 마시고 물건을 거래하며 담소를 나누고 잠도 잔다고 말하며 ‘말을 탄다’고 표현하지 않고 ‘말 위에서 생활한다’고 할 정도였다. 서구 비잔티움의 사료에는 ‘투르크족’은 말 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땅에서는 걷는 방법도 모른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그들에게 말은 먹는 고기이기도 했고, 제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말에게 이름과 직위를 부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말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묻기도 할 정도로 모든 삶을 함께 했다.

그들은 대륙성 기후와 초원 생활에 적응하며 지역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갔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텝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철 가공술, 말의 가축화, 천신 사상의 전파였다. 철 가공술은 거래와 사회조직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말의 가축화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천신 숭배 사상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법과 도덕적 규칙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바로 그렇게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초원인의 모험심이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초원인이 누렸던 광활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은 곧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와 동시에 정착민들과 가장 큰 차이기도 했다. 고대 유라시아에서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활동적이었다는 점에서는 정착민과 공통점이 있지만, 정착민들은 국가를 세울 능력이 없었던 반면 유목민의 정신을 가진 기마민족은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했던 것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초원문명

●다국어 표기 Bozkır Medeniyeti(튀르키예어), Steppe Civilization(영어)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훈족

●참고문헌(오프라인) Grousset Rene, *Bozkır İmparatorluğu Attila-Cengiz Han-Timur*, Çev. Dr. M. Reşat Uzmen, Ötüken Yayınları, İstanbul, 1980.

Hassan Ümit, *Eski Türk Toplumuna Üzerine İncelemeler*, Kaynak Yayınları, İstanbul, 1985.

Jean-Paul Roux, *Orta Asya Tarih ve Uygarlık*, Çev: Lale Arslan, Kabalcı Yayınları, İstanbul, 2000.

Kafesoğlu İbrahim, *Türk Millî Kültürü*, Boğaziçi Yayınları, İstanbul, 1989.

Ögel Bahaeddin, *Dünden Bugüne Türk Kültürünün Gelişme Çağları*, Türk Dünyası Araştırmaları Vakfı, İstanbul, 2001.

I D188 | 시거우 1호 무덤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Tomb No. 1 of Xigou

시거우 1호 유적은 신장성 하미지구(哈密地區) 바리쿤카자흐자치현(巴里坤哈薩克自治縣)에 위치한 바리쿤산(巴里坤山) 북록(北麓) 경사면에 있는 유적군의 중앙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혈무덤과 배장유구, 순마갱 K1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덤은 지름 15m로 봉토를 상하 2단으로 퇴적해 조성했다. 봉토의 중앙에는 무덤 구덩이(지름 5m, 깊이 1.2m)가 있었으며 구덩이 안에 시베리아 낙엽송으로 만든 목곽을 넣고 둘 사이의 빈 공간은 돌로 채워 무리했다. 무덤 구덩이의 북쪽은 목곽을 설치한 바닥보다 높고 말 1마리를 매장했는데 말의 뒷다리가 뒤로 쭉 뻗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금, 은제 장신구 133점인데, 황금으로 누금한 귀걸이, 호형과 산양머리형 패식, 관식, 금환, 투조 금판 등이 있다. 그 외에 토기도 출토되었는데 4점으로 파수가 달린 평저의 관형 토기 3점과 채색토기 1점이다.

시거우 1호 무덤 형태는 B.C. 4세기~B.C. 2세기 스톤쯔거우(石人子溝) 유적의 대형무덤과 구조와 특징이 거의 유사하다. 말과 함께 인간을 매장하는 습속, 매장주체부 내부에 북측에 말

한 필을 부장하는 양상은 스란쓰거우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으로 토기의 형태 역시 매우 흡사하다.

유적에서 출토된 호형, 산양 머리형 금, 은 패식을 포함한 금제 장신구는 카자흐스탄의 실릭티 유적, 아르잔 2호 등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물문양 장식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무덤 구조는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의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에서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거우 1호 사카 유적

●다국어 표기 西溝1號墓地(중국어)

●참고문헌(오프라인) 西北大學文化遺產學院·哈密地區文物局·巴里坤縣文物局, 『新疆哈密巴里坤西溝遺址1號墓發掘簡報』, 『文物』5期, 文物出版社, 2016.

I D189 | 시거우 유적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Xigou Cemetery

시거우 유적은 중국 신강성 창지회족자치주(昌吉回族自治州) 푸강시(阜康市) 상후거우카자흐족향(上戶溝哈薩克族鄉)의 서구 석탄 광산 북부에 위치하는데, 천산의 북쪽 산기슭 앞으로 펼쳐진 넓은 대지 위에 있다.

2010년 9월~10월 신장 문물 고고 연구소 주체로 조사가 시작되어 1지점에서는 무덤 3기, 건물지 1기가 발굴되었고, 2지점에서는 무덤 20기, 건물지 1기가 발굴되었다. 무덤은 토광묘와 편실묘라는 철기시대와 투르크 시대의 무덤 양식이다. B.C. 7세기~B.C. 4세기경 철기시대의 무덤인 토광묘는 앙신직지(仰身直肢)였으며, 협사홍도(夾砂紅陶)로 뿔 모양의 파수가 붙은 관형 토기와 채색된 토기 중에는 ‘관’과 ‘호’, ‘분’ 등의 기형이 있었다. 토기는 1점~2점 정도로 적은 수를 부장했다.

편실묘(偏室墓)는 A.D. 7세기~A.D. 8세기 ‘투르크 시대’의 무덤이었다. 땅을 파고 동굴처럼

들어가는 형태로 수직으로 판 무덤 구덩이에는 말을 준장하고, 옆으로 파고 들어간 측실에는 피장자를 앙신직지(仰身直肢)의 자세로 안치했다. 그 외에도 허리띠, 머리 장식, 마구를 매납했고, 청동 귀걸이, 반지 등이 부장되었다. 이때 말은 마구를 갖추고 부장 되었는데, 8자형 철제등자와 포도문(葡萄文), 양문(羊文) 등은 돌궐문화의 마구에서만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겨우 1호 유적

●다국어 표기 西溝墓地(중국어)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新疆昌吉州阜康市西溝墓地遺址發掘簡報」, 『考古與文物』5期, 陝西省考古研究院, 2016.

I D190 | 시게데크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식주 ●유형 소분류2 의복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라틴 문자 Sigedek

하카스와 관련된 투르크학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하카스 민족의 복장과 관련된 기록은 학술 문헌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에 관해 율리아 시바예바(Yuliya Shibayeva)는 민족 의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해당 사회의 역사 및 그 시대적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세기의 쿠즈네트소바(A.A.Kuznetsova)의 저술과 하카스 민족의상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1950년대까지도 특별히 의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율리아 시바예바는 매우 풍부한 의복 문화를 가진 하카스인들의 민족의상 중 하나인 ‘시게데크’를 소개했다.

남부 알타이인들에게 ‘체게데크’라고 불리는 시게데크는 길이가 긴 여성용 조끼로서 기혼 여성들이 입는 의복의 한 종류이다. 많은 하카스 여성들이 여우의 털로 만든 모자와 포고라 알려진 장신구와 함께 시게데크를 입는다.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실을 엮는 장인의 의미를 가지는 색실을 짠 여성(çeeek salcañ kızı)에 의해 상당히 까다로운 제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복잡

한 문양과 다양한 모티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족마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 부족인 부리아트 여성들이 입는 장 조끼인 우자(Udzha)는 하카스인의 시게데크와 더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시게테크 문화는 1950년까지만 해도 하카스인에게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게텍

●다국어 표기 Sigedek / Сигедек & Segedek / Сегедек(하카스어), Çegedek / Чегедек(알타이어), Tsegedek / Цегедек(몽골어)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менов, В. “Будда гори сямэ”.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ы Тувы içinde (с. 95). Москва: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зд. центр, 2006.

I D191 | 시르반샤흐

●시기 B.C. ~ 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국가 ●유형 소분류2 왕조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라틴 문자 Şirvanşahlar dövlət

시르반샤흐 국(Şirvanşahlar dövləti)은 861년부터 1538년까지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다게스탄 공화국의 일부에 위치했던 국가이다. A.D. 861년, 아랍 세력의 침략으로 형성되었으며 당시 국경은 동쪽의 카스피해, 북쪽의 대캅카스 산맥, 남쪽은 퀴르 강((Kür çayı), 서쪽으로는 가느흐 강(Qanıx çayı)까지가 경계였다. 이후 간혹 시대에 따라 카라바흐(Qarabağ)와 베일래간(Beyləqan), 시에키(Şəki)를 포함하기도 했다. 수도는 ‘샤마흐’(Şamaxı)와 ‘바쿠’(Bakı)였다.

압바스의 칼리프 알 무타와킬(Al-Mutawakkil, 재위: 821년~861년) 사망후 발생한 혼란을 이용하여 헤이삼 이븐 할리드 이븐 이애지드(Heysəm ibn Xalid ibn Yəzid)가 시르반샤흐를 독립 국가로 선언했다. 이후 매즈이애디(Məzyədilər), 캐스라니(Kəsranilər), 대르밴디(Dərbəndilər) 부족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이들 부족들 중 다수가 투르크인과 결혼으로 아



시르반샤흐 궁전(바쿠, 아제르바이잔)

랍성을 잃고 투르크화되었다. 그 외에도 훈족(hunlar), 하자르(xəzərlər), 래크(ləklər), 제켄(zekenlər, tsekanlar), 헤누크(xenuklar, xenavilər), 이즈마크(ijmaxlar), 바칸(bakanlar), 피코나크(pikonaklar, peçeneqlər)인이 혼재되어 있었다.

과거 사산 조의 통치자들은 북쪽 국경에서 페르시아어 사용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라히잔(Lahican), 길란(Gilan), 태베리스탄(Təbəriştan) 지방에서 이주시켰으며, 사산 조의 호스로 1세(Khosrow I, 재위: 531년~579년)는 캅카스 산맥 북쪽에서 인질로 잡았던 50,000명의 투르크인을 시르반(Şirvan)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아랍 장군 마르완 이븐 무함마드(Marwan ibn Muhammad)이 인질로 잡았던 40,000명의 투르크 가족도 시르반으로 이주시켜 시르반의 원주민들과 섞여 살도록 했다. 그리고 셀주크 원정 이후, 오구즈(oğuzlar)족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훈족, 사비르족(sabirlər), 하자르족(xəzərlər)과 합류하며 주도 민족이 되었다.

908년~909년에 시르반샤흐는 아제르바이잔의 남쪽에 있는 사질래르 국(Sacilər dövləti)에

예속되기도 했고, 인접한 시에드다디 국(Şəddadilər dövləti)의 반복적인 침략으로 영토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1064년, 시르반샤흐 패리뷔르즈 1세(Şirvanşah Fəribürz, 재위: 1063년-1096년)는 시에드다디와 협정을 맺고 40,000디나르(dinar)를 받는 대가로 점령된 구일아미얀(Quylamiyan qalası) 요새를 되찾았다. 그러나 시르반샤흐 국은 1066년에 셀주크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패리뷔르즈 1세는 셀주크에 많은 공물을 바치면서 반(半)예속 상태로 통치를 이어 나갔다.

12세기에 들어와 조지아 역시 여러 차례 시르반샤흐를 공격하고 약탈했는데, 셀주크의 세력이 약화되자 시르반샤흐 매누죄흐르(Şirvanşah Mənuçöhr, 재위: 1197년-1200년)가 나서 조지아와 동맹을 맺게 된다. 이후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받아 결국 속국이 되었고, 일 칸국의 속주가 된다. 시르반샤흐의 마지막 통치자는 사흐루흐 이븐 패루즈 야사르(Şahrux ibn Fərruz Yasar, 재위: 1533년~1438년)로, 사파비의 시르반 원정(遠征)에서 패배하면서 사파비 조의 일부가 되었다.

시르반샤흐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이며, 이슬람의 영향으로 종교의식은 아랍어로 행해졌고, 법적인 공문과 철학 작품은 아랍어로 쓰여졌다. 하지만 실제 시르반샤흐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공통 언어로 투르크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했다.

시르반샤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11세기~12세기경에 활약한 유명한 시인 니자매드딘 애빌라 갠재비(Nizaməddin Əbülülə Gəncəvi), 이즈재드딘 시르바니(İzzəddin Şirvani), 팰라키 시르바니(Fələki Şirvani), 하가니 시르바니(Xaqani Şirvani)들 역시 시르반샤흐 출신이었다. 또한, 다뤘 시에파(Darül Şəfa)라고 불리는 병원과 의학 학교가 존재했고, 세계 각지의 식물을 수집하여 많은 약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수피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칸카(Khanqah, 아제르바이잔어 표기: xənaqah)가 기록에 의하면 약 50개소~200개소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곳에 모인 데르비쉬들이 이후 시르반샤흐의 경제, 과학, 문화, 의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그림, 세밀화, 조각, 건축, 도자기, 비단 짜기, 카펫 짜기 등이 시르반을 중심으로 널리 발전했다. 그중 바쿠에 지어진 메이든 타워(Qız qalası), 바쿠 요새의 성벽, 시르반샤흐 궁전 단지(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를 비롯하여 동전과 그 외 유물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쉬르반샤 왕조, 쉬르반샤 국

●다국어 표기 Şirvanşahlar dövləti (아제르바이잔어), Şirvanşahlar Devleti (튀르키예어), Государство Ширваншахов (러시아어)

●참고문헌(오프라인) Ашурбейли Сара. Государство Ширваншахов (VI – XVI Вв.). – Баку, 1983.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2–Ci Cild (3–13–Cü Əsrin 1–Cürübü). Bakı. “ Elm”. 2007. 608 Səh.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Bünyadov Ziya. Azərbaycan 7–9–Cu Əsirlərdə, Bakı, 2008.

Məmmədova F. “Qafqaz Albaniyası Və Albanlar, İkinci Nəşr, Bakı, 2021, Səh 512.

Ciddi H. Gülüstan Qalası. – Bakı, 1966.

Ciddi H.. Buğurt Qalası. – Bakı, 1972.

Qədirov F.V. Azərbaycanın Çimal Müdafiə İstehkamları. – Bakı, 1984.

Məmmədov Zakir. Azərbaycan Fəlsəfəsi Tarixi. – Bakı, 1994.

Nemətova M.S. Əsrlərin Dağ Yaddağı. – Bakı, 1987.

Salamzadə Ə.V., Ciddi H.Ə. Gəmaxının Orta Əsr Çəhərsalma Quruluşu Və Qala Divarı Haqqında./Azərb. CCP EA Xəbərləri, TFHS. – Bakı, 1973, № 3.

Şərifli M.X. IX Əsrin İkinci Yansı – Xı Əsrlərdə Azərbaycan Feodal Dövlətləri. – B., 1978.

Hüseynoğlu Ali Şamil. Efzeleddin Hakaninin Eserlerinde Kafeddin Ömer ibn Osmanın Darüşşefası Ve Oradaki Müaliceler. (Hospital Of Kafed–Din Ömer ibn Osman in Efzeleddin Hakanis Manuscripts And Drugs), 1. Uluslararası Türk Tıp Tarihi Kongresi, 10. Ulusal Türk Tıp Tarihi Kongresi Bildiri Kitabı (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Turkish History Of Medicine, 10th National Congress On The Turkish History Of Medicine Proceedings Book), 2008, 20–24 Mayıs, Konya, Cilt 1 (Vol.1) Seh. 296~301.

Vəlixanlı Nailə. VII – IX Əsrlər Azərbaycan Tarixi Və Onun Vətən Tarixgünaşlığında Əksi Məsələsinə Dair. (“Azərbaycan Tarixinin Problemləri, Müasir Tədris Və Elmi Nəğrlərdə Onların Əksi” Konfransı (Materiallar)– Bakı, “Elm”, 1995, ss.52~58.

I D192 | 시무르그

-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이란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신앙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근식, 황영삼 ●라틴 문자 Simurgh

‘시무르그’는 페르시아 신화나 문학에 나오는 미래를 말해주는 새이다. 페르시아어로는 simorgh, simorg, simurg, simoorg, simorq 또는 simourv로 표기한다. 시무르그란 명칭은 『아베스타 경전』에 나오는 독수리를 닮은 새 ‘므드르디오 사에노(mdrdyo saeno)’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 외에도 『샤흐나메』에서 운명의 무기로 등장하는 등 자료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시무르그의 선한 측면은 사막에서 후일 루스탐의 아버지가 되는 갓난아기 자알을 발견하고 그를 자기 동지에서 기른 것이다. 하지만 루스탐의 조로아스터교 적대자를 치료하고 조로아스



타일에 그려진 시무르그, 13세기 이란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

터 신앙을 위해 싸우는 불패의 무사 이스판디야르를 마법의 화살로 쓰러뜨려 결과적으로 적대자를 도왔다는 점이 악한 측면으로 묘사되어 초기 서사시에서 이스판디야르가 적으로서 악한 시무르그를 죽이게 된다. .

시무르그의 치유 능력은 신성한 산이나 하늘에서 ‘생명수(生命樹)의 떡잎’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유라시아의 독수리 신화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시무르그의 부정적인 모습은 유라시아적 기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무르그의 깃털은 점이나 마법을 행할 때 사용되었으며 조형예술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형상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파지리크 고분(B.C. 5세기~B.C. 3세기)에서 출토된 펠트 양탄자에는 스팅크스를 닮은 존재가 시무르그를 잡는 형상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코펜스키 차아타스(Копённский Чаратас, A.D. 8세기)에서 발굴된 황금 식기에 묘사된 시무르그의 형상도 전통적인 모습이다.



색채 타일화로 표현된 시무르그 (Nadir Divanbegi Madrasah, 부하라)

13세기~14세기에 이르러서도 세밀화나 색채 타일화에서 다수의 시무르그 형상이 발견되었으며 칼의 손잡이에 용과 시무르그가 싸우는 형상도 자주 새겨졌다. A.D. 3세기~7세기에 사산 조의 국장에 시무르그가 등장한 이래, 1493년 세밀화에는 이슬람 신비주의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란의 사파비 왕조 통치 이후에는 이란의 국가 문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가 문장에도 시무르그와 유사한 후마이란 새를 닮은 신화적 존재가 담겨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무룩, 시무루그, 시무룩
- 다국어 표기 Симург(러시아어), سيمرغ(페르시아어), سيمرغ(아랍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is/original/DP21253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 672 с

I D193 | 시바스

●시기 A.D. 1000년 ~ 현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도시
●집필자 이주연 ●라틴 문자 Sivas

시바스는 중앙 아나톨리아의 북동부, 크즐 이르마크 계곡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의 첫 역사는 히타이트 시대의 거주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재위: 284년~305년) 휘하에 있던 소 아르메니아의 수도로 등장한 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도시의 이름은 세바스티야(Sebastia)라는 아우구스투스의 그리스식 이름을 여성명으로 바꾼 것이라 한다.

이곳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몇몇 그리스도교 성인들이 이곳 출신이었다. 이후 11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의 도시로, 11세기 중반부터는 투르크 부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아나톨리아 내에서도 투르크 세력에게 약탈된 최초의 주요 도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아나톨리아 카라반 무역의 중심이며, 북쪽의 시노프나 삼순, 크림리아 같은 도시의 상인 및 동서쪽의 타브리즈와 콘스탄티노플을 오가는 상인, 제노바 상인까지 방문할 만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조가 승리한 후, 그 여파로 아나톨리아에 유입된 투르크멘 계통의 다니슈멘드 가지가 도시를 차지하며 다니슈멘드 조(Danishmendids)의 수도로 삼았다. 하지만 1174년에 다시 룸 셀주크 조의 킬리치 아르슬란 2세가 도시를 차지했으며 시바스와 콘야는 룸 셀주크 조의 수도가 되었다.

한때 룸 셀주크 세력을 약화시킨 일 칸국도 이곳에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일 칸국이 쇠퇴한 후 토착 세력이었던 투르크멘 세력이 시바스를 차지했다. 최초의 정복자는 에레트나 벅이었으며 그 다음이 카디 부르한 앓 딘이었다. 하지만 1398년 오스만의 술탄 바야지드 1세가 그를 살해하고 시바스를 차지했고 또다시 2년 후인 1400년에 티무르가 시바스로 들어와 많은 주민과 바야지드 1세의 주둔군을 학살했다. 티무르는 2년 후인 1402년 앙카라 전투에서 바야지드 1세의 군대를 대파한 후 아나톨리아의 각지에 자신이 신뢰할 만한 투르크-투르크멘 세력을 다시 부흥시켜 바야지드 1세를 견제하고자 했으나 1408년에 오스만 세력이 다시 시바스를 차지했다.



시바스 도심 전경

그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시바스는 수 차례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오스만의 행정구역인 에이알렛(Eyalet) 중 하나인 룸의 에이알렛(Eyalet of Rum)에 복속되어 버린다. 이 지역에 관한 15세기 중반의 조세 기록을 살펴보면, 징세 대상이 560명인데 그중 비 무슬림의 비중이 더 높았다. 실제로 수많은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스 정교회들이 건설되어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16세기에 사파비 조와 오스만 조의 전쟁의 여파를 크게 겪었다. 사파비 조의 초대 군주인 샤 이스마일과 셀림 1세의 전쟁 도중 셀림 1세가 시아파로 의심되는 이들을 다수 살해하면서 12대 이맘파이자 시아파인 사파비 조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 전쟁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17세기에 이 도시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기록은 카팁 첼레비와 에블리이아 첼레비의 기록이 있다. 당시 에블리이아 첼레비는 시바스의 성채 및 그 안에 머무는 총독이 일주일에 네 차례씩 개최한 업무회의(Diwan), 그리고 성채 내의 4,600개에 달하는 가호(家戶)와 동네(Mahalle)에 관해 기록했다. 그런데 이 시기 시바스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교인과 아르메니아인이 별도의 구

역에서 거주하며 주요 언어로 투르크어와 쿠르드어를 사용했다. 이후 18세기~19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여러 유럽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시바스는 계속 근방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다만 1915년경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추방 등을 이유로 사라졌다. 이후 1919년경 튀르키예가 독립 전쟁을 시작했을 때, 시바스는 의회(Heyet-i Temiliye)를 가진 주요 도시로서 여러 주요 군민 인사들과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무력으로 투르크 영토를 수호하기로 결정하고 훗날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국가 저항운동의 행정부 수장으로 선발하는 선거를 확정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와스

●다국어 표기 Sebastia, Sebastea, Sebasteia, Sebaste(라틴어), Σεβάστεια, Σεβαστή(그리스어), سيواس(페르시아어), Սեբաստիա(아르메니아), Sivas(튀르키예어)

●참고문헌(오프라인) Suraiya Farooqhi, "Sivas," Encyclopaedia of Islam 9 (Leiden: Brill, 1997, pp.689~691).
Cl. Cahen, Pre-Ottoman Turkey: a General Survey of the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e and History c.1071-1330, tr., J. Jones-Williams, New York: Taplinger Pub. Co., 1968.

I D194 | 시바스 곱 마드라사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작성자 최선아 ●라틴 문자 Sivas Gök Madrasa

사히비이에 마드라사(Sâhibiye Medresesi)라고도 알려져 있는 시바스 곱 마드라사는 터키석 색의 타일 장식으로 곱(Gök: ‘하늘’이라는 의미)마드라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케이 후스레브 3세(III. Giyaseddin Keyhusrev, 재위: 1265년~1284년) 시대에 재상이었던 사힉 아타(Fahreddin Ali b. Hüseyin Sahip Ata, 재직: 1250년~1288년)의 명으로 1271년 시바스에 건설되었다. 당시 이 마드라사의 건축가는 코니아의 칼루안(Kaluyanü'l-Konevi)이다. 원래는 2층으로 지어졌으나 현재 2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934년부터 1967년까지는 박물관으로



시바스 픽 마드라사 정문

사용되었으며 1997년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4월 박물관으로써 일반에 공개됐다.

마드라사는 복합단지의 일부로 추정되며 건축에는 석재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2층 건물에 중정과, 중정을 둘러싼 4개의 이완 형식이였다. 이후 입구 맞은편의 큰 이완과 훼손되었던 2층을 복원 공사로 일부 복구했다. 북쪽과 남쪽으로 긴 직사각형의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는 1층에는 이완을 포함하여 6개의 방이, 2층에는 24개의 방이 있었다. 대문은 서쪽 편에 있고 전면부 양 모서리에는 탑이 있다. 이 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상단부는 기하학 문양 하단부는 식물 문양이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문의 아치 모서리에 있는 작은 기둥 위에 자리한 두 개의 판에 건축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마드라사의 가장 화려한 부분은 대문이다. 전면부 대문을 장식으로 강조하는 셀주크 시대의 건축물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대문에는 서체로 장식한 첨두아치와 주변을 섬세하게 장식된 직사각형 석재가 감싸고 있다. 아치 양옆에도 각각 하나씩 유사한 작은 첨두아치를 배치했



시바스 꺾 마드라사 정문

다. 대문 장식은 팔메트(palmette)와 연꽃 문양, 서로 교차하며 끊어가는 기하학 문양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생명의 나무, 석류, 매, 새, 동물의 머리와 같은 문양 역시 눈에 띈다. 대문의 삼면을 둘러싼 직사각형의 5개의 돌레에는 기하학 문양과 식물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전면부 대문 위에 건설된 두 개의 미너렛(minaret)의 지지대는 대문 벽과 연결되어있으며 많은 장식이 되어 있다. 두 개의 미너렛은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기다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에는 작은 반원형의 터키석 색 유약을 바른 벽돌을 채워 넣어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선 사이의 공간은 붉은색 벽돌 위에 터키석 색 유약을 바른 벽돌과 검은색 벽돌을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하여 장식성을 강조했다. 미너렛의 받침대에는 역시 벽돌로 만든 둥근 문양과 그 밑에 식물 문양, 식물 문양 밑에 현판, 현판 밑에 기하학적인 별 문양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생명의 나무 문양과 육각형으로 둘러싼 현판이 자리한다. 생명의 나무 위에는 독수리 또는 매처럼 보이는 머리가 두 개인 새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새와 석류가 그려져 있다. 대문 모서리에 있는 잎사귀 주변에는 다양한 동물 머리로 구성된 장식이 있고, 이 동물은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는 입구 이완은 궁륭으로 되어 있다. 이 이완의 오른쪽은 기도 공간, 왼쪽은 코란 교실과 연결되어 있다. 두 공간 모두 돔이 있으며 기도 공간이 코란 교실보다 약간 높다. 미너렛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 두 공간에 존재하며 이 방들과 연결된 양 모서리에도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다.

내원(內園)의 크기는 14.50m× 24.25m 정도이고 중앙에 분수대가 있으며 양 옆으로 기둥으로 이루어진 갤러리가 있다. 다른 이완까지 포함하면 양 측에 각각 6개의 방이 있다. 입구를 마주 보는 면 쪽에, 가장 큰 이완의 양옆 공간에는 가장 큰 방이 있었다.

이 건물은 당시의 전형적인 4개의 이완이 있는 마드라사 건물이자 당대의 섬세한 석조 공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표제어 한국어 발음 시바스 곱 메드레세, 시바스 곱 메드레세시, 시바스 곱 메드레세, 곱 메드레세, 곱 메드레세시
- 다국어 표기 Sivas Gök medrese(튀르키예어),
- 연관검색어 사힉 아타 영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9/G%C3%B6k_Medrese.jpg

●참고문헌 (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084>

https://www.iletisim.gov.tr/turkce/yerel_basin/detay/gok-medrese-muzeye-donusturulecek

●참고문헌 (오프라인) Ertuğrul, Özkan. “Gökmedrese”,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14, İstanbul: TDV, 1996, pp.138-139.

Kuran, Aptullah. Anadolu Medreseleri, Ankara : Orta Doğu Teknik Üniversitesi, 1969.

Öney, Gönül. Anadolu Selçuklu Mimarisinde Süsleme ve El Sanatları,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Yayınları, 1992.

I D195 I 시베리아 타타르인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민족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Siberian Tatars

시베리아 타타르인은 시베리아 라빈스키타 타르아 지역의 타타르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시베리아 타타르’라고 부르지만, 그들 중 일부는 타르 타타르(тарские татары), 칼마크(калмаки), 에디니치(единицы), 보하를리(бахарлы), 바라빈치(барабинцы), 부하르치(бухарцы), 차티(чаты), 투라민니(тураминцы), 바라바 혹은 파라바(бараба или параба), 에우시친치(эуштинцы), 야스콥스키 타타르(татары яacobинские), 타타르 테브리즈(татары теvризские) 등으로 불린다.

기록상 시베리아 타타르인은 1989년 자료에 따르면 대략 21만명이 있으며, 이 중 19만명이 케메롭스키, 노보시비르스키, 옴스키, 톰스키, 튜멘스키 주(州)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다. 민족 구성은 칩차크, 노가이-킵차크 출신과 이들에게 동화된 우그르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부하르 칸국(Бухарское ханство) 출신의 우즈베크인, 사르트인, 위구르인, 카자흐인, 타지크인이 추후 합류했으며 18세기~ 20세기 초 무렵 시베리아 타타르 민족과 불가-우랄 타타르 민족의 접촉이 강화된 시기도 있었다. 이런 복잡한 교류로 인해 몽골로이드계와 캅카스계의 인종적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인종 간 전이 현상을 보여주었다.

오랜 기간 동안 흩어져 있던 시베리아 타타르인은 여러 정치 연합의 구성원에 합류해왔다. 그중 가장 오래된 국가는 15세기 말 튜멘 칸국(Тюменское ханство)이었다. 1495년 베크 무하

메드의 통치시기에 그들은 시베리아 칸국의 수도인 이스케르(Искер, 지금의 카슬릭 Кашлык)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리고 1582년 시베리아 칸국의 붕괴 후 시베리아 타타르 사회의 통일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그도 잠시였을 뿐, 결국 모든 역사가 러시아사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16세기~17세기가 되면서 토볼로-이르티시스키 타타르와 라빈스키타 타르 그룹이 생겨났고 19세기에 톰스키 타타르가 비로소 단일 집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시베리아 타타르 공동체가 이들을 대표하기 시작했으며, 소련 시기에 다양한 타타르 소수 민족까지 비로소 시베리아 타타르 정체성에 동화되었다.

시베리아 타타르 민족의 주요 신앙은 이슬람교이다. 여러 분류에 따르면 이들의 언어는 타타르어의 동부 사투리로 추정되는데, 여러 지역의 소방언(小方言)이 시베리아 타타르어에 속한다. 이들의 전통 생업은 농사와 목축이며, 사냥과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도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베리아 타타르족

●다국어 표기 Сибирские татары(러시아어), Sibirler(튀르키예어), 西伯利亞韃靼人(중국어)

●연관 검색어 타타르어, 킵차크, 캅카스

●참고문헌(온라인) 시베리아 타타르

<https://web.archive.org/web/20150924020837/https://www.ethnomuseum.ru/tatary-sibirskie>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D196 | 시베트 아이한 유적

●시기 B.C.~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몽골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운 ●라틴 문자 Shiveet khairkhan

시베트 아이한 유적은 몽골의 바양 울기 아이막 가운데에 위치한 알타이 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 몽골, 중국, 몽골의 국경지대와 가까운 곳인데, 이 유적에서 4개의 무덤군이 발견되었으며 각 무덤군은 초기 철기시대 무덤과 선비시기의 무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초기 철기시대 무덤은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 가운데 알타이 지역의 문화인 파지리크 문화에 해당된다. 1군은 초기 철기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 3기, 선비시기 무덤 7기 등 총 10기의 무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1군 1호분은 직경 8.8m로 높이 0.5m의 원형으로 돌로 덮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덤 구덩이는 장방형으로 매장 주체부는 무덤구덩이(340cm×220cm×210cm)를 판 후 목곽과 통나무 목관을 사용했다. 목곽의 높이는 50cm~60cm로 무덤구덩이의 중간 지점까지 축조되었다. 그리고 덮개는 판재를 사용하여 장축과 동일한 동-서 방향으로 설치했다.

1호분과 다른 무덤의 차이점은 피장자를 반듯이 놓인 양와신전장(仰臥伸展葬)으로 안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초기 철기시대 무덤에 마구를 장착한 말이 안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대 5마리까지도 매장되었지만 1호분에는 말이 안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3군에 속한 초기 철기시대 9호분은 매장 주체부에 목관을 석판과 목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시베트 아이한 유적의 선비시기 무덤은 3기~4기가 2개씩 군집을 이루며 초기 철기시대 파지리크 문화 무덤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특이하게 1군에서만 7기가 밀집해 발견되었는데, 초기 철기시대 무덤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1호분은 상면에 나타난 장타원형의 무덤 형태로 규모는 6m×4m, 높이는 0.2m이다. 무덤의 깊이는 2.5m가량으로 돌로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를 만들어 납작한 돌판을 덮개돌로 사용했으며, 무덤 벽은 납작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발굴 결과 각 무덤마다 인골이 1구씩 발견되었는데, 의복으로 사용된 직물과 청동 장신구가 부착된 채였다. 의복과 매장방식 모두 보르가스틴 골 유적과 유사한데 방사성 탄소연

대 측정 결과 A.D. 1세기~3세기 유적으로 판명되었다.

철기시대의 파지리크 문화는 러시아 알타이 파지리크 유적과 비교할 때 B.C.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선비시기의 무덤과 초기 철기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을 조사한 최초의 사례였다.

시베트 아이한 유적에서 철기시대 파지리크 문화와 선비시기 무덤이 함께 발견되면서 러시아 알타이 지역처럼 철기시대 무덤으로 사용한 지역을 후대에 선비 혹은 흉노가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선비족이나 흉노족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베에트 카이르한
- 다국어 표기 Shiveet khairkhan(몽골어)
- 연관 검색어 선비, 흉노, 파지리크 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인욱,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권, 2017.

I D197 | 시비르 칸국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김홍중 ●라틴 문자 Khanate of Siber

시비르 칸국은 15세기말에 형성되어 100여년 정도 지속된 봉건 국가이다. 13, 14세기에 시비르 칸국의 영토는 '이비르'란 명칭으로 칭기즈 칸의 아들 주치 울루스에 포함되었고, 그 후 세이반 울루스와 튜멘 칸국에 포함되었다. 1495년 튜멘의 칸인 이바크가 살해당한 뒤 타이부가의 후손인 마흐메트(무함메드 타이부가) 칸이 시비르 칸국을 세웠다.

시비르 칸국의 첫 번째 수도는 친기-투라(Чинги-Тура, 지금의 튜멘Тюмень)이었고, 후기

에는 오비(Обь)강 지류인 이르티시(Иртыш)강 오른쪽에 자리잡은 이스케르(Искер, 시베르, 시비르, 시비리 등으로 불리기도 했음)로 수도를 옮겼다. 시비르 칸국은 페름 공국(Пермская земля), 노가이 칸국(Ногайская орда), 카자흐 칸국(Казахское ханство)과 국경을 접했고, 북쪽으로는 오비(Обь)강 지류까지 닿았고, 동쪽으로는 페가이 칸국(Пегай Орда)과 이웃했다. 시비르 칸국은 이슬람 국가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다.

시비르 칸국은 킵차크, 아르긴, 카를루크, 캉글리, 나이만 등 여러 부족이 포함된 다민족 정치 연합이었으며 그 구성원들을 시비르 타타르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목축, 사냥, 농업, 수공업 등에 종사했다. 시비르 칸국의 수장은 타타르 봉건 귀족들이 선출했으며 국가 구조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요소가 강했다. 시비르 칸국은 1598년에 러시아 왕국(Русское царство)에 최종적으로 복속되었다.

우랄산맥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의 동쪽 영토를 지칭하는 ‘시베리아’라는 단어도 ‘시비르 칸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비르 한국

●다국어 표기 خانیه سیبیر (아랍어), Сибирское ханство (러시아어), Sibir Hanlığı (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노가이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23, гл. ред. А.М.Прохоров,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73, 337.

I D198 | 시아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종파
●집필자 박현도 ●라틴 문자 Shiah

시아는 당파(黨派)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 ‘시아’에서 나온 말로써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인 알리를 따르는 당파라는 뜻을 지닌 시아투 알리(Shiat Ali)에서 유래한 용어다.



파티마 마수메(Fatima Masumeh) 성지의 시아 무슬림들(쿰, 이란)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 약 10%~15% 정도가 시아파에 속하는 시이(Shi'i)라고 불린다. 그들은 중동 전역, 특히 이라크, 레바논, 바레인, 시리아 등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세속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전 국민의 약 97%가 무슬림인데, 이중 약 65%~75%가 시아 무슬림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시아파에서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를 일컫는 이맘(Imam) 자리를 이어가는 후계자에 대한 이견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이디(5이맘파), 이스마일리(7이맘파), 이마미(12이맘파) 등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그들 중 주류는 이마미라 불리는 사람들로 시아 이슬람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유일하게 헌정예까지 반영한 나라 이란이 이마미에 속한다. 다만 이란이 페르시아어를 쓰는 시아파 국가라고 해서 '시아 이슬람'을 이슬람에 저항한 페르시아인 민족운동의 산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알리를 비롯해서 시아가 존경하는 종교적 인물은 아랍어를 쓰는 아랍인이었고, 시아 운동은 아랍인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란 지역에서 시아가 국교가 된 것은 16세기 사파비 제국 시대부터이다. 수니와 시아는 기본

적으로 이슬람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두고 서로 생각이 달라 갈라졌다.

수니는 무함마드를 잇는 지도자를 단순히 무함마드의 칼리프일 뿐, 예언 능력도, 영적 능력도 없는 정치적 대리인으로 본다. 반면, 시아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기 직전 마지막 메카 순례를 마치고 메디나로 돌아오던 중 가디르쿰(Ghadir Khumm)이라는 곳에서 한 “나를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지도자다.”라는 말을 근거로 수니가 인정하는 4대 정통 칼리프(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중 알리만을 적법한 후계자로 받든다. 따라서 무함마드 사후 알리보다 앞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3명의 칼리프(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를 알리의 후계권 찬탈자로 본다.

이처럼 시아는 알리를 수니의 칼리프처럼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지도자로 본다. 칼리프 대신 ‘이맘’이라는 호칭을 쓰며 무함마드 이후 예언자는 없기에 이맘이 예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함마드의 후손 중 ‘예언자의 빛’을 내적으로 지닌 흠 없이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코란)의 내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닌 존재다. 시아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함마드의 빛(Nur al-Muhammadi, the Light of Muhammad)’을 만들었고, 이 빛으로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무함마드의 빛은 아담 이후 모든 예언자에게 내재된 예언자적 지식의 원천이다. 아담부터 시작된 예언자 시대는 비록 무함마드로 끝이 났지만, 무함마드의 빛은 이맘에게로 전해져 모든 오류로부터 이맘을 보호하며 알리와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에게 이어지는데, 동시대에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전해진다. 이런 주장은 이맘이 무함마드 가계 혈통의 계승자를 넘어서 영적인 계승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함마드의 빛을 받은 12명의 이맘을 인정하는 시아파를 12이맘 시아파라고 부르는데 1대 이맘은 알리, 2대 이맘은 알리의 큰 아들 하산, 3대는 알리의 둘째 아들 후세인, 4대부터 12대까지는 후세인의 직계 후손이다. 시아파 사람들은 이 12명의 시아 이맘이야말로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의 내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고, 12대 이맘이 어딘가에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680년 시아파 3번째 이맘 후세인을 우마야(Umayyah) 조의 칼리프 야지드가 보낸 군인들이 카르발라에서 처참하게 살해하면서 수니와 시아가 결정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아파, 쉬아
- 다국어 표기 Shia(아랍어)
- 연관 검색어 아르바인, 수니, 아슈라, 이맘 알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pewforum.org/2013/11/07/many-sunnis-and-shias-worry-about-religious-conflict/>
- 참고문헌(오프라인) Berkey, Jonathan P. The Formation of Islam: Religion and Society in the Near East, 6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rown, Daniel W. An Introduction to Islam, 3rd. ed.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7.
- Hodgson, Marshall G. S. The Venture of Islam. Vols. 1 &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Madelung, Wilferd. The Succession to Muhammad: A Study of the Early Caliph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Madelung, Wilferd. "Shī'a."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9, 420~424. Leiden: E. J. Brill, 1997.
- Pew Research Center. Many Sunnis and Shias Worry About Religious Conflict. November 7, 2013.
- 박현도, 「수니와 시아,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월간조선』, 2009년 4월호.

I D199 | 시아키 카라반사라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대상 숙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Şəki Caravanserai

아제르바이잔의 시아키(Şəki)는 실크로드에 있는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다. 18세기~19세기에 시아키에는 5개의 카라반사라이, 즉 대상 숙소가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2개만 남아 있다. 그 중 하나인 유하르 카라반사라이(Yuxarı Karvansara: 위에 있는 대상 숙소라는 의미)는 구르잔 강(Gurjan) 인근에 건설한 사다리꼴 형의 건물이다. 총 면적은 6000제곱미터, 높이는 내부는 8m, 외부는 14m이다. 건물은 대상들이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층까지 포함하여 총 3층이다. 1층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2층에서는 숙박을 해결했다. 방은 총 300개 이상이다. 1층의 거래소는 2층 숙박 시설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1층 방과 2층 방에는 두 층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어 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1층과 2층은 아치가 있는 갤러리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객실에는 아치형 창문이 있다. 내원의 조경은 단순하다. 건물 입구



시야키 카라반사라이

는 건물의 모서리에 위치했으며, 불균형한 지면 사정으로 인하여 입구는 3층 높이에 있고, 파사드는 여러 개의 벨트로 구성되었다. 입구 홀은 벽돌을 쌓아 만든 돔으로 덮여 있다.

남아 있는 또 다른 것은 아샤그 카라반사라이(Aşağı Karvansara)로 ‘아래에 있는 대상 숙소’라는 의미이다. 총 면적은 8000제곱미터 가량으로 약 242개의 객실이 있다. 건물 네 모퉁이에 입구가 있으며, 입구는 내원으로 이어진다. 이 건물 역시 유히르 카라반사라이와 마찬가지로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층까지 포함하여 3층 건물이며, 1층은 거래를 위한 장소, 2층은 숙박 시설로 사용되었다.

두 카라반사라이 모두 지역 유지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이 카라반사라이는 문을 닫으면 보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상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불안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시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설로도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셰키 카라반사라이, 셰키 카라반사라이
- 다국어 표기 Şeki Caravanserai(아제르바이잔어), Şeki Kervansarayı(튀르키예어), Sheki karvonsaroyi(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0/Sheki_-_Kish%2C_Karavanserei%2C_Strassenseite.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zerbaijans.com/content_1773_az.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a Mərjanlı(ed), Məftun edən şəhər, Dubai: IRS Publishing House, 2015.

I D200 | 시애키 칸국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역사 ●유형소분류1 국가 ●유형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라틴 문자 Şəki xanlığı

시애키 칸국(Şəki xanlığı, 1743~1826)은 나디르 샤 사망 후 아제르바이잔 북부에 건국된 칸국 중 하나이다. 창건 군주는 하즈 쉐라비(Hacı Çələbi)였으나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전 영토를 통치하는 데 실패하고, 오직 애래시(Ərəş) 술탄국과 개벨레(Qəbələ) 술탄국 만을 통일한다. 하즈 쉐라비의 정복 정책은 이웃한 다른 아제르바이잔 칸국과 카르틀리 카헤이타 차르국의 견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조지아는 이간 정책을 이용하여 갠재 칸국(Gəncə xanlığı),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의 자르-발라칸 공동체(Car-Balakən camaatlığı)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1751년 조지아 군대의 자르-발라칸 공동체 공격이 패배로 돌아간 후 그 설욕을 위하여 갠재(Gəncə)를 점령에 나서게 된다. 이후 조지아는 갠재 칸국(Gəncə xanlığı), 가라다그 칸국(Qaradağ xanlığı), 이레반 칸국(İrəvan xanlığı),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 및 나흐츠반 칸국(Naxçıvan xanlığı)으로 구성된 동맹을 만든 다음 1752년 3월 21일 협상을 구실로 모인 자리에서 동맹 칸국의 칸을 인질로 잡았다. 이 사건을 ‘그즐가야 배신(Qızılqaya xəyanəti)’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에 하즈 쉐라비가 조지아에 맞서 승리하며 인질이 된 칸을 해방시킨다. 하즈 쉐라비는 이 과정에서 가작(Qazax) 술탄국과 보르찰리(Borçalı) 술탄국도 점령했으며

1755년에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시르반(Şirvan)까지 진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마흐 칸국(Şamaxı xanlığı)과 구바 칸국(Quba xanlığı) 연합군과의 충돌에서 패배하고 후퇴한 후 같은 해 사망했다.

하즈 챠래비(Hacı Çələbi)의 사망 후, 시애키 칸국에는 후계 다툼이 일어난다. 후계자로 간주되었던 아가퀴시 베이(Ağakişi bəy)가 1759년까지 칸국을 통치하다가 살해를 당한 후 칸이 된 매함매트 칸(Məhəmməd xan)은 겨우 30일~40일간 칸국을 통치했다. 그 다음 칸에 등극한 매함매트 휘세인 칸(Məhəmməd Hüseyn xan)은 1759년부터 1780년까지 통치했으며 1768년에 시애키 칸국과 구바 칸국 사이에서 협정을 통해 사마그 칸국(Şamaxı xanlığı)의 영토를 나누어 가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시애키 칸국은 점차 몰락했고, 결국 패탈리 칸(Fətəli xan)이 1785년에 시애키 칸국을 복속시킨다. 그 후 1795년 12월에 권력을 잡은 샬림 칸(Səlim xan)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자신의 반대 세력에 저항하는 의미로 러시아에 복종하겠다고 동의했다가 1797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샬림 칸은 1805년에 복권한다.

하지만 1805년 5월 21일 시애키 칸국은 러시아와 카라바흐의 칸 사이에 체결된 퀴랙차이 조약(Kürəkçay müqaviləsi)에 의해 시애키 칸국은 외교권을 상실했다. 당시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러시아는 1806년에 카라바흐의 이브라힘헬릴 칸(İbrahimxəlil xan)과 그의 가족을 살해했다. 당시 이브라힘헬릴 칸의 아내는 샬림 칸의 여동생이었기에 샬림 칸은 복수를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지만 패배하고 테헤란으로 후퇴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호이 칸국(Xoy xanı)의 재패르 굴루 칸(Cəfərqulu xan, 재위: 1806년-1814년)을 시애키 칸으로 즉위시켜 버린다. 그러나 재패르 굴루 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곧이어 이스마일 칸(İsmayıl xan)이 즉위했다.

그 후 1817년, 시애키 칸이었던 이스마이일 칸(İsmayıl xan)은 러시아에 복무하던 아르메니아의 장군 매대토프(Mədətov)의 명령에 의해 독살된다. 이후 예르말로브(Алексей Петрович Ермóлов)는 같은 해에 시애키 칸국(Şəki xanlığı)를 폐지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셰키 칸국, 새키 칸국, 세에키 칸국

●다국어 표기 Şəki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Şeki Hanlığı(튀르키예어), Sheki xonlığı(우즈베크어), Шекин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Shaki Khanate(영어)

●연관 검색어 카라바흐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de, 4-Cü Cild, Bakı, 2000, S.14~53.
- Azərbaycan Tarixi: Dərslik / Z. Bünyadovun Redaktorluğu ilə. Bakı: Azərənşr, 1994, 680 Səh.
- Azərbaycan Tarixinə Dair Qaynaqlar. Bakı, 1989, s.271.
-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 Əliyev F. XVIII Əsrin Birinci Yarsında Azərbaycanda Ticarət. Bakı, 1964.
- İsmayıl Mahmud, Bağirova Maya. Şəki Xanlığı — B., Azərənşr. 1997, 76 Səh Məmmədov Kərəm. 1000 il İrənı İdarə Edən Türklərin, Qacarları, “Ədalət” Qəzeti, 28 Fevral, 2021-Ci il.
- Mustafayev T. XVIII Yüzdillik-XIXYüzd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də).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tərcim, 2015. – 336 Səh.
- Qəzənfəroğlu Faiq. Azərbaycan Türklərinin Son İmperiyası: Qacarlər Dövləti(II Yazı). “Türküstan” Qəzeti, 2016-Cı il, 23~29 Avqust.
- Qəzənfəroğlu Faiq. Azərbaycan Türklərinin Son İmperiyası: Qacarlər Dövləti(VI Yazı). “Türküstan” Qəzeti, 2016-Cı il, 20~26 Sentyabr.
- Süleymanov. Mehman Güllüstan Müqaviləsi – II Hissə. “Elm Və Təhsil”, Bakı, 2014, 608 Səh.
- Şükürov Kərim. Cənubi Azərbaycanın İrənın Tərkibində Olmasının Tarixi-Hüquqi Əsası Yoxdur. Science.Gov.Az.
-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 Tahirzadə Ədalət. Şəkinin Tarixi Qaynaqlarda. Bakı, «Master» Nəşriyyatı, 2005.

I D201 I 시애키 칸 궁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역사 ●유형 소분류2 건축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Şəki xanlarının sarayı

시애키 칸 궁전은 아제르바이잔 시애키(Şəki)에 건설된 여름 궁전으로 18세기에 건설되었으나 정확한 건설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시애키 칸국의 3대 칸인 매함매드히세인 칸 무시탁(Məhəmmədhişeyn xan Müştəq, 재위: 1759년~1780년)의 명으로 건설됐다고 알려져 있다. 건축가는 하달리 제이날압딘 쉬라지(Hadali Zeynalabdin Şirazi)이다.

시애키 요새 안에 건설된 이 궁전은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돌담의 높이가 낮은 것을 비롯하여 궁전의 구조 자체도 전통적인 저택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시야키 칸 궁전

2층으로 된 건물의 넓이는 31.7m x 8.5m이고, 높이는 10m인 2층 건물이다. 주재료는 벽돌과 석재이며, 건물 서쪽 면과 동쪽 면은 목재로 되어 있다. 벽면은 모두 황토로 칠해져 있고, 건물의 일부분은 황토가 발린 외벽을 음각하여 일종의 채색 효과로 장식적 요소를 강화했다.

건물 중앙부에는 7개의 창문이 있으며, 2층 중앙 창문 양옆에는 거울로 된 무카르나스 장식 벽감이 있으며, 1층 중앙 창문 양옆은 황토색의 무카르나스 장식이 있는 벽감 내에 출입문이 있다. 중앙 부의 창문과 이 벽감을 둘러싼 프리즈는 붉은색과 청록색, 라일라색의 모자이크로 마름모꼴을 만들어내 장식했다. 중앙 창문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이 대칭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1층 패널 상단 부분은 분홍색, 녹색, 남색을 사용하여 사이프러스 나무와 식물 문양으로 장식했고 하단 부분은 공작새를 비롯한 새들과 식물 문양과 화병 문양으로 사용했다.

모든 창문은 목재로 창살을 만들었으며, 이 창살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기하학 문양을 구성한다. 창외 안쪽, 즉, 건물 내부에서 창문은 색유리로 장식되어 있다. 이 색유리는 창살이 만들어낸 선에 의해 다시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낸다.

지붕은 건설 당시에는 기와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금속 재질로 교체되었다. 지붕은 수직으



시예키 칸 궁전 내부

로 되어 있으며, 처마 부분은 곡선이다. 1층과 2층 모두 긴 축을 따라 3개의 방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중앙에는 홀로 사용되는 방이 있으며, 홀의 측면에 작은 방이 있다. 이 홀은 알현실과 회의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장식의 경우, 각 방이 모두 채색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바탕은 밝은 색 톤의 석회 칠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그림과 문양이 그려져 있다. 규칙적이고 수직적으로 배열된 그림과 장식은 천장, 벽, 보드, 벽감, 프레임, 연결부, 무카르나스의 각 면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다. 문양의 주요 모티프는, 화병, 편백나무, 석류나무, 데이지, 담쟁이덩굴을 비롯한 다양한 꽃이다. 문양이 표현하고 있는 식물과 꽃 대부분은 실제로 시예키 칸국 영토에서 자랐던 것들이다. 또한, 사냥 당하는 용, 코끼리, 사자, 표범과 같이 상징적인 동물들도 벽에 그려졌다. 색상은 주로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이 주류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아제르바이잔 세밀화 예술의 영향을 받은 프레스코화나 전쟁 장면, 전투 장면들이 그려졌다. 특히 2층 홀의 15m와 6m 길이의 프리즈에는 전투 장면과 사냥 장면

이 그려져 있다.

벽화 일부분에서는 화가의 이름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는데, 쉬라즈 출신의 미르자자파르(Mirzajafar), 슈샤 출신의 감바르(Gambar), 샤마흐 출신의 알리 굴루(Ali Gulu)와 구르반 알리(Gurban Ali) 등이다.

아제르바이잔 시애키 지역의 전통 저택 건축의 영향을 받은 구조와 그 단순한 구조를 특유의 화려한 장식으로 마감한 이 궁전은 당대 시애키 지역의 예술성을 보여준다.

1998년 칸 궁전을 포함한 시애키 역사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키 여름 궁전, 셰키 칸 궁전, 세키 칸 궁전

● **다국어 표기** Şəki xanlarının sarayı(아제르바이잔어), Palace of Shaki Khans(영어), Sheki xon saroyi(우즈베크어), Şeki Hanları Saray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시애키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시애키 칸 궁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9/%C5%9E%C9%99ki_xan_saray%C4%B1.jpg

시애키 칸 궁전_내부

<https://zrr.kr/Wff1>

● **참고문헌(오프라인)** Bingöl, Pınar. “XVIII. Yüzyıl Azerbaycan Şeki Han Sarayı Tanıtımı.”, Vakıf Haftası Dergisi, 10, 1993: 171.

Musa Mərjanlı(ed), Məftun edən şəhər, Dubai: IRS Publishing House, 2015.

I D202 | 시음불락

-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카자흐스탄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공원
- 집필자 황영삼 ●라틴 문자 Shymbulak

시음불락(또는 침불락)은 알마티 메데우에 있는 스키장으로 해발 2,260m~3,200m 높이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다. 산의 전체적 지형이 자연적인 스키 슬로프를 만들어내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어 사시사철 끊임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최근 교통이 편리한 메데우 지역에서 곤돌라를 타고(4.5km 이동) 스키장 입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면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 다만 1년 중 곤돌라 운행이 안 되는 시기가 있으니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럴 경우 성능 좋은 차량이나 그곳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베이스로 이동할 수 있다.



시음불락 스키 리조트(알마티, 카자흐스탄)

1940년대에 스키어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1950년대~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스키장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알마티와 카자흐스탄 국가 내에서만 유명한 스키장이 아니라 아시안 동계올림픽 개최(2011년), 세계 동계올림픽 개최지 후보(2014년, 2018년, 2022년)로 지정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스키 시즌이 아닐 때도 화려한 풍경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여름철에도 산 정상에는 눈이 녹지 않고 추위가 느껴질 정도의 기온을 유지한다. 해발고도 2,260m 위의 스키장 베이스에는 카페와 휴게시설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두 번째 리프트에 탑승하고, 다시 세 번째 리프트를 탑승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쉼불락
- 다국어 표기 Шымбұлақ, Şymbūlaq(카자흐어), Чимбула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알마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MMbo9fOx-k>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hymbulak.com/>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D203 | 시이르트 대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iirt Great Mosque

시이르트 대 모스크는 아나톨리아에 건설된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이다. 정확한 건설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라크 셀주크 조의 무이주딘 마흐무드(Muğizüddin Mahmud)의 이름으로 1128년 모스크에 기부되었다는 기록과, 1260년 지즈레의 법원 판사였던 셀주크 아타베이 엘 뤼자히트 이스학(El-Mücahit İshak)의 지원으로 수리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이르트 대 모스크 미너렛

12세기 초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석재와 벽돌을 주로 사용한 시이르트 대 모스크는 시대에 따라 건물이 추가되거나 확장된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대략적인 구조는 모스크의 중정을 앞에 두고 바라봤을 때 남쪽으로 돔 세 개가 나란히 솟아있다. 그중 가운데 돔이 가장 크고 높운데, 가장 초기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 돔 아래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전면에 미흐랍의 흔적이 있는 두 개의 벽돌 받침대 위에 트롬프가 올라가 있다. 1260년 수리 당시 동편과 서편에 작은 돔과 이완, 그리고 이와 수직이 되는 곳에 볼트를 추가하여 모스크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옛 벽돌 받침대 위에 둥근 아치와 미흐랍 벽감에는 술루스 서체로 쓰여진 코란 구절과 터키적 색 타일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란과 투르키스탄 등지에서 자주 사용된 방식으로 건설된 미너렛은 정사각형 밑받침 위에 원통형으로 건설되었다. 벽돌로 된 미너렛은 약간 휘어져 있으며 다소 단순하고 고전적인 형태로 수리 연도와 관련된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너렛의 받침대는 쿠픽 서체와 기하학 문양 및 별 문양이 터키적 색의 유약이 발린 벽돌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의 동편에 인접한 건물은 오스만 시대에 추가된 마드라사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건축학적으로는 아나톨리아에 건설된 초창기 모스크라는 점과 당시 셀주크인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으로 추정해 셀주크 조가 관심을 보인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르트 울루 자미

●다국어 표기 Siirt ulu camii(튀르키예어)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siirt.gov.tr/kurumlar/siirt.gov.tr/haberler/2020/Ekim/ulu-camii/Kapak.jpg?mode=resize&width=1200>

시이르트 대 모스크 전경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e/Siirt_Ulu_Camii_1543.jpg/800px-Siirt_Ulu_Camii_1543.jpg

●참고문헌(오프라인) Ülgen, Ali Saim. “Siirt Ulu Cami”, Vakıflar Dergisi, V, Ankara, 2006, pp.153~156.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D204 | 시크펜

- 시기 기타 ●지역 북아시아 ●나라 러시아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식주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라틴 문자 Sikpen

하카스인이 시크펜이라고 부르는 이 의복은 여름에 착용하는 재킷이다. 특수 작물의 이름이기도 한 시크펜은 젊은 여성들이 명절에 입는 옷으로 소매가 넓고 앞부분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넓고 헐렁한 긴 원피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 얇은 검은색 천으로 꿰매어 놓은 시크펜의 앞면에는 보통 식물의 줄기와 꽃 등의 모티프들로 장식이 되었고, 뒷면에는 식물 문양의 자수가 놓여 있다. 이 시크펜은 샤먼(무당)이 ‘텅그리(하늘) 의식’을 위해 착용했다.

하카스인의 의복은 남(南)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의 의복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에 관한 정보는 17세기 러시아 자료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후 18세기~19세기 시베리아를 탐험하던 연구자들과 탐험자들이 남긴 여행기에서는 17세기의 자료보다 보다 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1896년~1897년에 하카스인의 삶과 경제를 조사하기 위해 하카스 공화국을 탐험했던 쿠즈넛소바(A. Kuznetsova)와 쿨라코프(P. Kulakov)는 「Minusinskie i achinskie inorodtsy」라는 주제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이 연구가 처음으로 하카스 의상과 관련된 정보를 학술적으로 제시한 사례였고, 시크펜 역시 이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의 특수 작물의 이름이기도 한 ‘시크펜’은 젊은 여성들이 명절에 입는 옷으로서 의복의 앞부분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매가 넓고 헐렁한 긴 원피스의 형태를 가진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식펜

●다국어 표기 Sikpen(하카스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entr-kadisheva.ru/virtualnyj-katalog-hakasskij-nacionalnyj-kostjum/>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ганаев В. Ю.,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и быт хакасов*. Абакан: Хакас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во. 1996, сс.69~146.

Шиббаева Юлия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В.И. Ленина. 1959, сс.3~24.

I D205 | 시테르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북아시아 ●나라 몽골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유적 ●유형 소분류2 무덤
●집필자 김재운 ●라틴 문자 Shiter

시테르(Shiter) 유적은 몽골의 투브 아이막 첼 솜에 위치한 흉노족의 무덤으로 2017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는 두 개의 매장 유적이 1km 내에 위치하는데, 전체 무덤의 숫자는 420여 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발견된 흉노 무덤 가운데 귀족 무덤을 제외한 일반 계급의 무덤 중 최대 규모이다.

이 유적의 무덤 상부에는 고리형 적석이 있다는 점은 이전에 알려진 흉노 무덤과 동일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25호 무덤처럼 외부 적석은 넓은 돌을 여러 겹 쌓아 올렸고 방향의 돌담이 존재한다는 것과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에 목곽과 목관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1군의 매장 유적의 동쪽에 돌담으로 연결된 무덤 6기가 특이한 형태이며 제2군의 일부 무덤 동쪽에는 ‘줄 돌’을 세웠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토대로 흉노 소형 무덤들의 매장 풍습과 문화 특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일부는 독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흉노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외부 계통의 백성과 포로 또는 망명자 부족에 속한 이들과 그들의 문화에 서로 영향을 준 결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흉노의 초기와 후기 매장 풍습에 보인 변화를 발전 단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밖에 시테르 유적에 세워진 선돌을 통해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아르한가이 아이막 에르테네만달 솜에 있는 나이마 톨고이, 우기노르 솜에 있는 타미르 울란 호쇼 등의 흉노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은 몽골 계통이 우세하지만 유럽 계통의 인골도 발견되는데, 이를 연구했던 바르사이한 교수는 ‘이 인골의 주인이 흉노의 구성원에 속하면서도 문화적으로 흉노화된 외부 계통의 사람들 혹은 흉노인에게 봉사하던 이들로도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타미르 골에서 유럽 계통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전체 흉노 가운데서도 이 지역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했던 지역으로 보인다. 이처럼 흉노 일반계층 무덤 매장 유적에는 각 부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시텔

●다국어 표기 Шийтэрт(몽골어)

●연관 검색어 흥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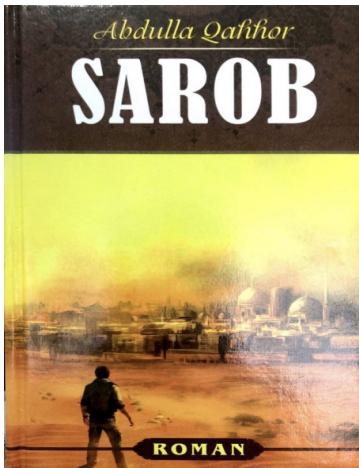
●참고문헌(오프라인) Төрбат, Ц., Амартүвшин, Ч., Эрдэнэбат, У., Эгийн голын сав нутаг дахь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ууд (Хүрлийн үеэс Монголын үе). – УБ., 2003.

Одбаатар Ц., Идэрхангай Т., Барс М., Баяндэлгэр Ч., Түвшинжаргал Т., Цэнд Д., Амгаланбат Б., Даваахүү Э., Төв аймгийн Цээл сумын Шийтэрт малтсан хүннү булшны судалгаа. // Нүүдэлчдийн өв судлал. Том. XIX-II, – УБ.,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흥노, 제국의 미술』, 2020.

I D206 | 신기루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작품 ●유형 소분류2 소설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라틴 문자 Sarob



『신기루(Sarob)』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신기루(Sarob)』는 우즈베크 문학에서 현대적인 주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로써 1920년대의 삶과 사상적, 정치적 투쟁이 잘 드러나 있다. 『신기루』의 저자 압둘라 카흐허르(Abdulla Qahhor)는 1934년 잡지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문학(O'zbekiston sovet adabiyoti)>에 작품을 게재했으며, 1937년 책으로 출간된 이후 1957년 한 차례 저자가 작품을 수정한 후 재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까지의 민족주의자의 몰락과 실패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우즈베키스탄을 식민주의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려 고군분투했던 지식인들의 삶이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젊은 작가 '라힘전 사이디'(Rahimjon Saidi)가 비밀 독립운동 조직에 가입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과 몰락을 그리

고 있다. 사이디는 독립운동 도중 조직의 지도자 중 한 명의 여동생 무니스헌(Munisxon)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녀를 열망하고, 명성과 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조직 지도자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그는 조직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반혁명적 행동을 하며 현실을 왜곡하는 작품을 쓴다. 중국에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콤포소를 떠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사랑하지도 않는 서라헌(Soraxon)과 결혼하고 비밀 조직의 우두머리인 무르드호자(Murodxoja)의 데릴사위가 된다. 하지만 비밀 조직의 이익을 위한 사이디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그의 삶은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소설 속에는 사이디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의 성격과 세계관, 행동, 목표와 의도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인물이나 사건 없이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제2판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 1937년 초판에는 일부 중복된 부분이나 에피소드 및 주요 플롯과 연결되지 않은 피상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1957년 제2판부터는 빈틈없는 플롯으로 소설의 매력과 감동이 커졌다. 양적으로도 1부의 5, 9, 35장과 2부의 7, 12장은 새 판에 포함되지 않았고 14장과 15장은 1장으로 줄였다.

『신기루(Sarob)』는 출간 당시에도 공화국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논의된 작품이었다. 잡지<우즈베키스탄의 문학과 예술(O'zbekiston adabiyoti va san'ati)>에는 『신기루(Sarob)』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즈베크 문학에는 이렇게 여론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는 『신기루(Sarob)』가 우즈베크 문학 전반에 끼친 큰 영향을 엿볼 수 있는 평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롭, 사로브

●다국어 표기 Sarob(우즈베크어), Мираж(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아브둘라 카흐허르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7688.jpg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O'qituvchi, Toshkent, 1995.

Mirzayev Saydulla, *XX asr o'zbek adabiyoti*, Yangi avlod Toshkent, 2005.

Qahhor A., *Sarob, Sharq*, Toshkent, 1995.

Sultonova M. M., *Abdulla Qahhor uslubining ba'zi masalalari*, Fan, O'zbekiston SSR, 1967.

I D207 | 신붓값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의례 ●유형 소분류2 관습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Bride Price

‘신붓값’은 결혼할 남성이 여성 쪽에 지불하는 돈으로 여러 문화권에 존재한다. 다만, ‘신붓값’이라는 용어 자체는 신부를 매매한다는 함의가 있어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슬람 이전 투르크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신붓값이 존재했다. 고대 투르크 사회에서는 ‘칼른’(kalin:튀르키예어), ‘칼른말’(калынмал, 카자흐어), ‘칼른’(калын, 키르기스어), ‘칼른’(qalin, 우즈베크어), ‘야쿠트’에서는 ‘칼링’(kaling) 등으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칼른’으로 표기한다.

‘칼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 ①신랑 측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재산(주로 신부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장만하는 데 사용됨). ②신랑 측이 신부의 집을 처음 방문할 때 주는 선물. ③결혼식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약 20마리~60마리 가량의 말. ④신부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 칼른의 순서는 대개 신랑 측이 칼른을 준 후 신부 측이 칼른의 대가로 지참금을 준비한다.

고대 투르크 사회에서는 신붓값은 결혼을 확정된 후 금액과 지불 방식, 조건이 결정되었다. 신붓값의 금액은 양측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졌다. 결혼식은 신붓값을 완납한 후에 올릴 수가 있었는데 만약 약혼이 중간에 취소될 경우 신랑의 신붓값 지불 의무는 없다. 다만 결혼 후 또는 신부가 결혼식에 도착한 후에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신붓값 반환 여부가 달려 있었다. 신부의 가족이 결혼 및 약혼을 파기한 경우 신붓값을 반환해야 하며, 신랑 쪽에서 파기한 경우 신랑 측은 신붓값은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사망이나 병환 등 원치 않게 결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신붓값은 반환해야 했다. 이와 별개로 신랑 예정자의 사망 시, 신랑의 형제, 신부 예정자의 사망 시 신부의 형제들이 사망자들을 대신하여 혼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다. 때로는 금액 지불이 힘든 경우 국가가 지불을 도와주는 예도 있었다.

투르크인이 이슬람 문화를 수용한 이후에도 이 칼른은 지속되었다. 이슬람 율법에도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마흐르’(mahr)라 불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칼른과 마흐르를 동일하게 여겨 율법에 따라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흐르와 칼른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즉, 마흐르는 신부 당사자에 주어지는 금액으로 신부가 이 금액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나, 칼른은 신부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신부의 가족이 칼른에 대한 대응으로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실제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흐르와 칼른은 서로 다른 금액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마흐르는 법적 제도로 남게 된 반면, 칼른은 사회적인 관습으로만 이어져 왔다. 현재는 대다수 투르크 사회에서 도시화와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신붓값 풍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후대에 들어서 이 칼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고대 투르크 사회에 존재했던 칼른이 일종의 매매행위와 유사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고대 투르크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여성의 위치가 낮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로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이 칼른을 신부를 지금껏 길러준 가정에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더불어 여성 측은 동일한 논리로 남성 측에 지참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금액에 신부의 부모가 신랑에게 보호권을 양도하는 의미라는 해석, 단순한 선물의 의미라는 주장도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칼른, 바쉬룩, 바쉬룩 파라스, 칼른말, 칼린

●다국어 표기 Başlık parası(튀르키예어), kalın(튀르키예어), қалыңмал(카자흐어), калың(키르기스어), qalin(우즈베크어)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 결혼의례와 관련된 민속 신앙

●참고문헌(오프라인) Ögel, Bahaeddin. Türk Kültürünün Gelişme Çağları,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1988.

Örnek, Sedat Veyis. Türk halkbilimi,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2000.

Akgündüz, Ahmet. “başlık”,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5, İstanbul: TDV, 2002, pp.131~133ç.

I D208 | 신앙적 전설(아제르바이잔)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민속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유형 소분류2 전설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라틴 문자 Religious legends

아제르바이잔에서 ‘신앙적 전설’(Dini rəvayətlər)은 이슬람교 예언자들과 주요 종교 인물들의 생, 기적, 경이로움을 다루는 전통적인 작품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대중에게 이슬람 사상을 전파하고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이들의 미덕과 경이로움을 대중에게 확신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앙적 전설의 다양한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 ①책(성전)을 바탕으로 한 신앙적 전설(Kitab mənşəli dini rəvayətlər), ②성자, 성도, 종단의 지도자들의 기적에 관한 전설(Övliyalar, seyidlər, təriqət başçılarının kəramətləri haqqında dini rəvayətlər)의 두 갈래로 나뉜다. 또한 특별히 정해진 구조의 텍스트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한 인물이나 한 사건을 다룬다.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 아제르바이잔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에 ‘신앙적 전설’의 수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91년 독립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집되면서 기존의 아제르바이잔 동화를 풍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실레이만과 올빼미(Süleyman və bayquş)», 「실레이만과 고슴도치(Süleyman və kirpi)」같은 종교적인 동화의 줄거리는 신앙적 전설을 재해석하고 동화로서 갖춰야 할 특징을 더해 재구성해 만든 것이었다. 이들 종교적 동화들은 신앙적 전설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 다만 동화는 사건이 모호하지 않고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동화화된 전설에서는 동화에서 사용되는 문체를 사용하고 교훈과 유익한 내용을 담아내는 묘사 방식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은 이슬람교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슬람교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되었으며 구전 민속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 줄거리와 이미지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속에도 전해졌고, 이로 인해 내용과 레퍼토리 역시 상당히 풍부해졌다. 또한, 이슬람과 지역 문화와의 접촉은 기존의 민족 문화를 억제시키지 않았기에 아제르바이잔의

신앙적 전설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동시에 투르크인들이 가진 신화적 사상이 이슬람의 인물로 변형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예를 들면 지역 성인, 성자들에 대한 텍스트들은 예언자들의 기적에 대한 사상들이 ‘투르크 샤머니즘’과 혼합된 결과 형성된 것이었다. ‘샤머니즘’과 수피즘이 결합하여 ‘민족 이슬람’을 형성했다. 그리고 학자들은 셰이크(şeyx), 바바(baba)와 같은 수피 사원의 영적 지도자 계급을 ‘애흐매드 애새비’(Əhməd Yəsəvi, 영문 표기: Ahmed Yasawi, 카자흐어 표기: Ахмет Ясауи, 1093년~1166년)에서부터 시작해 샤머니즘 사상을 가진 채로 이슬람에 입성했다. 그 결과, 샤머니즘적 요소(기적을 보여주기, 여성의 사원 방문 허가)가 수피 사원과 수피 철학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또 다른 학자들은 제3대 칼리프인 우스만(Uthmān ibn ‘Affān, 644년~656년) 시대에 지역 성인들의 기적과 경이로움에 관한 텍스트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는 지역 성인들의 기적과 경이로움에 대한 텍스트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기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 성인의 기적과 예언자의 기적에 대한 전설은 주제와 예술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퀴리지어스 레전드

●다국어 표기 Religious legends(영어), dini revayetler(튀르키예어), религиозные легенды(러시아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de, 1 c., Baku, 2018, pp.358~374.

Ⅰ D209 Ⅰ 신장위구르자치구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동아시아 ●나라 중국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유형 소분류2 지구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Xinjiāng Wéiwú’ěr Zìzhìqū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북서쪽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는 중국의 대표 소수민족인 위구르 민족의 자치구이다. 현재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1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방대한 지역을 차지한다. 신장(新疆)은 ‘새로운(新 신) 영토(疆 강)’를 뜻하는 단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거리 풍경

이며 ‘위구르’(ئۇيغۇر)는 위구르어로 단결과 연합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중국인들이 ‘서역’이라고 부르던 지역의 일부분으로 비단길이 이 지역을 지나가며 오랜 기간 유목민족(흉노족, 돌궐족,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던 중 1759년 몽골 정복에 성공한 청 제국이 이 지역을 침략했다. 직전까지 중가르 칸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신장(동투르키스탄)은 청 제국에 멸망 당한 후 기존에 살고 있던 위구르인과 청 조정에서 이주했던 위구르인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1759년 청의 군사적 지배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위구르인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19세기 중반 청 제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1864년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청의 군대는 지역에서 철수했고 곧이어 반란 세력들 간의 내전을 거쳐 야쿱 베그(Yakup Beg)이라는 인물이 통일 국가를 수립했다. 그는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근대식 소총과 화포를 구입하여 무력을 증

강했고, 영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876년 청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패한 직후 급사했다.

이후 청은 1884년 이 지역에 신강성을 설치했고 이 지역을 새로운 강역(疆域)하려는 의미로 신강(新疆)이라 부르며 자국의 영토로 병합했다. 1933년 11월 ‘동(東) 투르키스탄 제1공화국’이 처음으로 건국된 적도 있었으나 3개월 만에 소멸되었고, 1944년에 다시 ‘동(東) 투르키스탄 제2공화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49년 결국 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위구르자치구’가 되었다. 현재까지도 신장의 위구르인들은 분리주의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다국어 표기 新疆维吾尔自治区(중국어), شىنجاڭ ئۇيغۇر ئاپتونوم رايونى(위구르어),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영어)

●연관 검색어 야콥 베그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9E%A5_%EC%9C%84%EA%B5%AC%EB%A5%B4_%EC%9E%90%EC%B9%98%EA%B5%AC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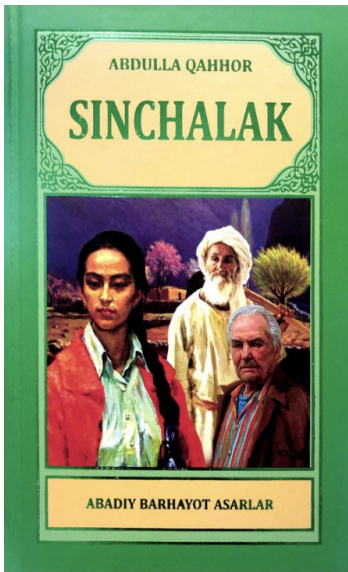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Grousset, René,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s University Press. "Xinjiang: autonomous region, China". Encyclopædia Britannica, 1970.

I D210 | 신찰락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작품 ●유형 소분류2 단편소설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라틴 문자 Sinchalak

1959년에 출간된 압둘라 카흐허르(Abdulla Qahhor)의 단편소설 「신찰락(Sinchalak, 박새과에 속하는 아주 작은 새)」은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신찰락」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로 주요 인물은 집단농장 보스톤(Bo'ston)의 장 아르슬룬벡 칼란다리브(Arslonbek Kalandarov)와 집단 농장에서 당 조직의 비서로 일하게 된 사이다 알리에바(Saida Alieva)이다. 칼란다리브는 업무에 능숙했으며 보스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었기에 농장의 모든 사람들과 윗사람의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그는 거만해져 다수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하면 여성에게 함부로 대한다. 그때 사이다 알리에바라는 여성이 농장에 새로 오면서 농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집단 농장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사고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칼란다리브는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오로지 목화 수확량 달성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이다와 칼란다리브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었다. 결국 갈등 과정에서 사이다의 자질, 용기와 지성, 사업적 통찰력을 인정한 칼란다리브는 결국 사이다에게 항복하고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이다는 작품 초반에는 소심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차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한다.

작가 압둘라 카흐허르는 사이다를 통해 평범한 우즈베크 여성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식을 수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했다. 또한, 칼란다리브 역시 단순한 악역이나 어리석기만 한 인물이 아닌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입체적으로 표현됐다.

이 작품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두 계층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정체성과 양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보여주면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이 작품은 당대의 사회문제와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주인공들의 다양

한 인물유형과 캐릭터 묘사 면에서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신찰라크, 박새
- 다국어 표기 Sinchalak(우즈베크어), Птичка-невеличк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브둘라 카흐허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772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O'qituvchi, Toshkent, 1995.
Qahhor A., *Sinchalak*, O'qituvchi, Toshkent, 1975.

I D211 I 실실라

- 시기 기타 ●지역 기타 ●나라 기타 ●유형 종교 ●유형 소분류1 이슬람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ilsila

실실라(سلسلا)는 아랍어로 ‘사슬’, ‘체인’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혈통이나 계보 따위를 일컫는다. 수피즘에서 실실라는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수여하는 일종의 수료증에 셰이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는 수피즘의 오랜 전통이자 일종의 영적 계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적 계보를 문서화한 것을 실실레나메(silsilename) 또는 토마르(Tomar)라고 부른다. 그중 실실레나메는 다른 계보 또는 족보에도 사용하며 실실라는 초창기에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12세기 이후 많은 종단이 설립되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수피즘에 속한 다수의 종단에서는 대부분 실실라가 ‘예언자 무함마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 수니파의 수피즘은 4대 칼리프 네 명으로부터 각기 다른 종단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아부 바크르(Abu bakr, 재위: 632년~634년)와 알리(Ali ibn Abi Talib, 재위: 656년~661년)로부터 내려온 실실라가 유명한데 알리의 실실라는 ‘알라위테스’(Alawites), 아부 바크르의 실실라는 ‘바크리야흐’(Bakriyyah)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수피즘 종단의 실실라는 좌자

간(Khwajagan)과 낙쉬반디(Naqshbandi) 종단을 제외하고는 알리의 실실라를 잇고 있다. 현재로서는 알리의 실실라 대부분이 하산 알 바스리(Hasan al-Basri, 642년~728년)가 알리로부터 수피즘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하지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또한, 수피즘 형성 초기 기록에는 알리 또는 아부 바크르로부터 전해진 실실라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논쟁거리이다.

수피즘 역사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실실라는 자파르 알 칼디(Jafar Al-Khaldi, ?~959년)와 무함마드가 연결된 계보이다. 자파르 알 칼디는 바그다드의 주나이드(Junayd al-Baghdadi, 830년~910년)로부터 수피즘을 배웠기에 주나이드의 선대를 따라 계보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실실라는 무함마드와 연결되지만, 알리와 아부 바크르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쿠브라위야(Kubrawiya) 종단의 창시자 나즘 알 딘 쿠브라(Najm al-Din Kubra, 1145년~1221년)가 제자에게 주었던 수료증에 기록된 실실라는 알리가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초창기 실실라의 예시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실실레

●다국어 표기 silsile(튀르키예어), Силсила(카자흐어), Silsila(우즈베크어)

●참고문헌(오프라인) Trimingham, John Spencer. The Sufi Orders in Islam, NewYork: Oxford Univ. Press, 1998.

Tosunm, Necdet. "silsile",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37, İstanbul: TDV; 2009, pp.206~207

I D212 I 실실레나메

- 시기 기타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세밀화 ●유형 소분류2 서책
-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ilsilename

실실레나메(silsilename)라는 단어는 본래 이슬람 수피즘에서 새로운 종단을 연 사람의 영적인 스승-제자 관계를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또는 오스만 제국에서 때로 일종의 ‘술탄의 가계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문서는 글로만 작성된 것도 있고, 세밀화로 인물의 초상

이 함께 그려진 판본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술탄에게 진상하거나 이스탄불의 고위 관료들, 또는 다른 궁전에 전하기 위해서 제작하기도 했고, 판매를 목적으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밀화가 첨가된 실실레나메는 메흐메드 3세(III. Mehmed, 재위: 1595년~1603년) 시대의 바그다드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바로 직전 시대인 무라드 3세(III. Murad, 재위: 1574년~1595년) 시대까지만 해도 역사책인 『역사의 정수(Zübdetü't-Tevârih)』의 요약본으로써 가계도를 표현한 나무 그림에 해당 인물의 초상화를 원 안에 그려 넣는 정도였다.

1595년~1660년에 그려진 실실레나메의 판본은 일부는 아랍어, 일부는 튀르키예어, 오스만어로 작성되었다. 여기서 술탄 가계의 역사를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언자의 시대를 지나 오스만 제국까지 연결시켰다. 아랍어로 쓰인 첫 번째 부분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노예, 부하, 아미르, 군대, 무기를 비롯하여 타고 다니는 동물의 가계도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스만어로 된 부분에서는 서문 이후 세계의 역사를 설명한다. 이 세계의 역사 중 첫 번째는 무함마드 이전의 ‘무지의 시대’(이슬람교가 성립되기 이전의 역사)를, 두 번째 장에서는 이슬람 이후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슬람 이후 시대의 13개 왕조를 설명하며 마지막 부분은 ‘오스만 왕조’로 마무리하게 된다. 덧붙여 설명을 목적으로 첨부한 초상화가 그려져 있으며 각 초상화 밑에는 이름을 적었다.

16세기에 바그다드에서 작성된 실실레나메는 이우수프 빈 압뮐라티프(Yusuf bin Adüllatif, ?~1545년)가 만들었던 쉐레이만 1세 시대까지의 역사에 메흐메드 3세까지의 역사를 추가하여 제작되었다. 17세기에 제작된 일부 실실레나메에는 프랑스어 주석까지 달려 있어 유럽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실레나메를 인쇄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도 발견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실실레나메레르

●다국어 표기 Silsilenâme(튀르키예어)

●멀티미디어 링크 이슬람 이전 시대가 그려진 실실레나메

https://apps.carleton.edu/reason_package/reason_4.0/www/images/311856.jpg

●참고문헌(오프라인) Bağcı, Serpil., Filiz Çağman, Günsel Renda & Zeren Tanındı, Osmanlı Resim Sanatı, İstanbul, 2006.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cacı Yayınevi, 2005.

I D213 | 실�크로드

●시기 B.C. ~ 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이란 ●유형 지리 ●유형 소분류1 지명
●집필자 우덕찬 ●라틴 문자 Silk Road

‘실�크로드’란 근세에 와서 조어(造語)된 상징적인 아칭(雅稱)으로 그 지칭 대상과 내용이 시대와 논자에 따라 다르다. 근래에 와서는 ‘고대로부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서로 연결하는 동서 교통로’에 대한 총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처음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다. 19세기 후반 무렵, 독일의 저명한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1833년 ~ 1905년)은 중국 각지를 답사한 후 1877년부터 『중국(China)』이라는 제목으로 5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중 제1권 후반부에 ‘동서 교섭사’를 개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와 ‘서북(西北) 인도’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 비단(絹)이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이 교역로를 독일어로 ‘자이덴스트라쎄’(Seidenstrassen, 영어의 Silk Road)이라고 명명했다. 그 후 스웨덴의 ‘허튼’(S. Hutton:1863년 ~ 1952년)과 영국의 ‘스타인’(A. Stein:1862년 ~ 1943년)의 탐험 결과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지중해 동안에 위치한 시리아에서까지 중국의 견직물이 대량 발굴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10년 독일의 동양학자 ‘헤르만’(Herrmann)은 ‘실�크로드’를 중국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연장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는 주로 중앙아시아에 점재(點在)한 오아시스(Oasis)를 연결하여 이루어진 길이므로 일명 ‘오아시스로(Oasis Road)’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양학자들은 ‘오아시스로’를 통한 동서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나갔다. 그 결과 실�크로드는 중국으로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지나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로마에까지 연장되기에 이른다. 이는 장장 12,000km(직선거리 9,000k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동서간의 문화통로와 교역로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크로드의 범위를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 초원지대를 지나는 ‘스텝로’(Steppe Road)와 지중해로부터 시작해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을 지나 중국 남해에 이르는 ‘남해로’(Southern Sea Road)까지 포함시켜 개념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갔다. 오늘날의 실�크로드란 이 동서 문화교류의 3대 통로, 즉 북(北)쪽의 ‘스텝로’(Steppe Road), 대륙을 가로지르



고대 실크로드를 체험하는 관광객들(돈황, 중국)

는 ‘오아시스로(Oasis Road)’, 남(南)쪽의 ‘남해로’(Southern Sea Road)를 총칭한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구분법과 별개로 실제 이 3대 통로 중 동서 문화교류와 교역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컸으며 도중에 끊임없이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진 길은 ‘오아시스로(Oasis Road)’였다. 원래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이 지칭한 실크로드는 이 중앙아시아 경유의 오아시스로이기 때문에 실크로드라 하면 아직까지도 주로 이 오아시스로를 뜻한다.

이상의 동서를 잇는 3대로를 ‘실크로드의 3대 간선’이라고 하며 그 외에 ‘남북 연결로’의 역할을 하는 5대 지선인 ‘마역로’(馬易路), ‘라마로’, ‘불타로’, ‘메소포타미아로’, ‘호박로’(琥珀路)가 존재한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단길

● **다국어 표기** 丝绸之路(중국어), İpek yolu(튀르키예어), طريق الحرير(아랍어), 비단길(한국어)

● **연관 검색어** 트란스옥시아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나가사와 가즈도시 저, 이재성 역,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2005.

록 관텐, 송기중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D214 | 심켄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황영삼 ● 라틴 문자 Shymkent

심켄트는 알마티와 누르술탄에 이어 카자흐스탄 ‘제3의 도시’이자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유즈노 카자흐스탄 주(州)의 중심도시로 시르다리아강의 지류인 바담강 연안의 해발고도 510m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2세기부터였는데, 실�크로드 언저리의 도시로서 알려진다.

심켄트는 잔디를 뜻하는 ‘Shym’과 도시를 뜻하는 ‘Kent’,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카자흐어로는 ‘심켄트’, 우즈베크어로는 ‘침켄트’라고도 불린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뒤, 도시의 이름을 카자흐어에 맞춰 바꾸는 정부 캠페인을 따라 1993년 최초의 이름인 심켄트(Shymkent)라 불리게 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이름을 ‘키릴 문자’로 쓰려고 했을 때 카자흐스탄의 헌법상으로는 성문화한 ‘Шымкент’(Shymkent)의 정식 철자가 ‘문자 ы’이 문자 ш 뒤에 올 수 없다.’는 러시아어의 철자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어 결국 새로운 이름인 ‘Шымкент’(Shymkent)는 오직 카자흐스탄에서만 쓰고 다른 러시아어권 나라들은 우즈베크어 철자인 ‘침켄트(Чимкент; Chimkent)를 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모두 쓰이게 되었다.

심켄트는 12세기에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실�크로드 마을인 ‘사이람’을 보호하는 ‘카라반 세라이’(caravanserai, 대상의 숙소)로써 설립되었다. 이후 유목민들과 정착한 사람들 사이



심켄트

의 무역을 위한 중심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칭기즈 칸을 비롯한 칸의 군대, 유목민들의 공격에 의해 몇 차례 파괴되기도 했다. 한때 코칸트 칸국의 일부였다가 1810년에 ‘부카라 에미레이트’(Emirate of Bukhara)에 속한 지방이 되었고, 50여년이 지난 1864년에 러시아 제국으로 합병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1914년에 ‘체르냐예프’(Chernyaev)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1924년에 ‘침켄트’(Chimkent)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8년 6월 19일을 기해 남(南)카자흐스탄 주의 주도였던 심켄트는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남카자흐스탄 주는 투르키스탄 주로 이름을 바꿨으며, 남카자흐스탄 주의 주도는 투르키스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시가는 미로를 이루는 ‘구 시가지’와 1864년 러시아 병합 후에 건설한 ‘신 시가지’로 구성되었다. 이후 광공업 도시로 발전하여 야금(납)·자동 프레스 제조·면·정유·제약·시멘트 공장 등이 들어섰다.

심켄트에는 국립 종합대학교인 아우에조프 남(南)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SKSU)가 있다. 이 곳은 1943년 무렵 건축대학으로 세워진 후 종합 대학교로 규모를 확대한 후 1980년 무렵 카자흐스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1996년 잠시 남(南)카자흐스탄 화학공업대학이 되었고, 1998년 남(南)카자흐스탄 인도주의 대학교와 합병이 이뤄지면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작가이자 학자 '무흐타르 아우에조프'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대학명을 갖게 되었다. 2021년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490위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8개 학부에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강의를 진행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쉴켄트, 침켄트, 심켄트
- 다국어 표기 Шымкент(카자흐어), Çimkent(우즈베크어), Чимкен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030726142201/http://shymkent.com/>
- 참고문헌(오프라인) Chisholm, Hugh, ed. "Chimkent".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6 (11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 Lawrence Krader, Peoples of central Asia, Indiana University, 1971.

I D215 | 심판의 날

- 시기 A.D. 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문학 ●유형 소분류1 작품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라틴 문자 Qiyomat

「심판의 날(Qiyomat)」은 피트랏(Fitrat)이 1923년에 집필한 단편소설로 역대 우즈베키스탄에서 간행된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출판 부수를 기록한 작품이다. 출판 당시 작가의 무신론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점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동시에 많은 비판도 받았다. 종교를 신화로 만들면서 교란시킨다는 비판이었는데 그 때문에 여러 차례 논쟁의 중심에 서다가 1935년에 내용과 등장인물을 추가해 재출판되었다. 1923년에 발표된 초판 작품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마약 중독자인 ‘퍼처미르’(Pochomir)가 질병을 앓고 있는 모습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아파서 마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주인공은 ‘죽어서도 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죽는다. 그리고 주인공의 장례가 끝난 후, 본격적인 사후 세계 여행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퍼처미르에게 죽은 자를 찾아가 선행과 악행을 심사하는 이슬람의 두 천사가 찾아온다. 두 천사의 모습은 무서운 관료처럼 묘사되는데 꽤 많은 퍼처미르는 그들을 쫓아낸다. 그 후 그는 관속에서 평화롭게 다시 잠이 든다. 이슬람에는 죄를 지은 자가 죽고 나면 망자의 관 속으로 전갈이나 뱀이 기어들어 오며, 지옥 불 기둥이 관을 휘감는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판의 날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에 퍼처미르가 깨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 보니 수천 명의 벌거벗은 망자들이 무얼 할지 몰라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다. 퍼처미르도 그들 무리에 끼어 같이 뛰기 시작하는데 곧 천사들이 나와 질서를 세우고 망자들의 죄와 선행의 무게를 재기 위한 저울 앞으로 망자들을 데려간다. 망자가 너무 많아 퍼처미르의 차례가 오기까지 약 2년 반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마침내 저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퍼처미르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옥 위에 만들어진 좁은 다리를 건너게 된다.

모든 망자는 양을 타고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망자들에게 주어진 양은 생전에 희생제 날 바친 양 중 한 마리였다. 퍼처미르는 천사들과 흥정을 해서 자신이 죽기 전 희생한 양 중에 가장 양전한 양을 선택하는데 그 덕분에 문제없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된다. 천국에 도달한 퍼처미르는 그 후로 1년 반 동안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집을 찾기 위해 방황하게 되는데 마침내 자기 집을 찾았을 때,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를 마중하러 나와 있다.

이후로 7일 동안 풍성한 음식과 음료, 음악, 춤 등을 즐기던 퍼처미르는 지루함을 느끼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간다. 정원에서 그는 우유, 물, 꿀과 와인이 흐르는 개울을 발견하고 행복해하면서 같이 나온 여성에게 와인을 담아가서 저녁에 마시고 취하자고 권한다. 그러자 같이 나온 남자가 “이 와인은 취하게 만들지 않아요”라고 답한다. 퍼처미르는 당황하여 “취할 수 없으면 와인이 왜 필요해?”라며 화를 낸 후 집을 돌아간다. 그때 마침 길에서 양귀비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양귀비를 향해 반갑게 달려가지만, 미처 발밑

의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미끄러져 구덩이 속에 빠진다. 순간 그는 “제기랄!”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옆에서 아내가 그의 땀을 닦고 있었다. 상태를 걱정하는 아내에게 그는 “엄청 고생했는데 다행히도 꿈이었네” 라고 답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처럼 작품은 한 인물이 천신만고 끝에 천국으로 도달하지만, 약속된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단조롭고 무의미한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이다.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요마트, 키여맛, 키여마트, 최후의 심판

●다국어 표기 Qiyomat(우즈베크어), День судного дня(러시아어)

●연관 검색어 피트랏, 쿠르반 바이라르

●참고문헌(오프라인) Fitrat, *Tanlangan asarlar*, Ma'naviyat, Toshkent, 2000.

Husniddinov Zuhridin, *Islom ensiklopediyas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04.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현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앙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앙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앙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슬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t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əret ədəbiy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V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V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5-1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51 05030
ISBN 979-11-985841-5-1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